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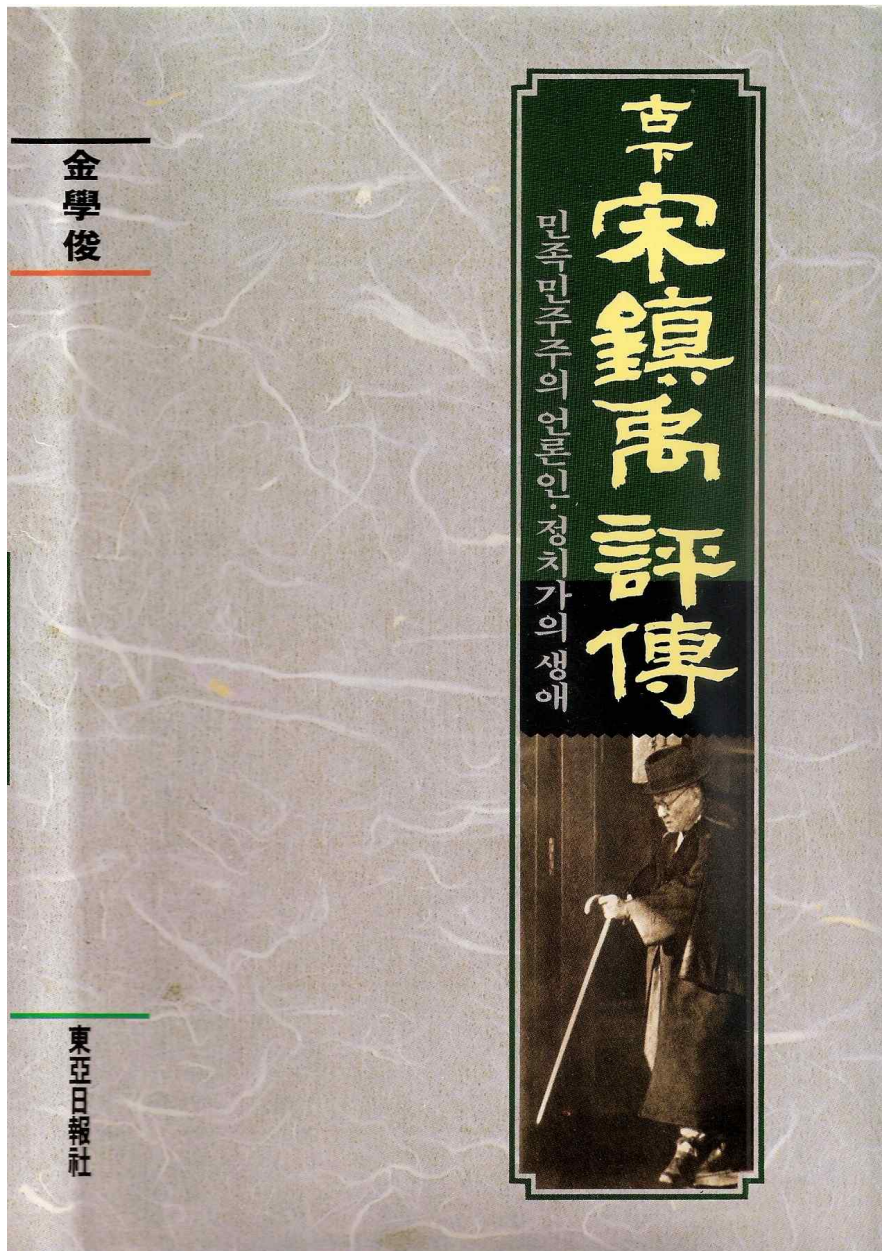
민족민주주의 언론인·정치가의 생애 古下 宋鎮禹 評傳

Volume III :

A Critical Biography of Song Jinwoo: A Journalist and a Statesman

- *The Life and Times of a Korean Nationalist Democrat* -

by Kim Hakjoon



● 지은이

김학준 <대통령 사회보좌역>

=====

- 1943년생, 인천 출신.
인천 신흥국민학교-인천중학교-제물포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정치학사-정치학석사
미국 켄트주립대학교 정치학석사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정치학박사

- 미국 버클리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
일본 도쿄대학 국제관계학과 객원교수
서독 뮌헨대학교 동유럽연구소 훔볼트재단 연구원
오스트리아 비엔나대학교 국제법연구소 훔볼트재단 연구원 역임

- 조선일보 정치부기자
제12대 국회의원(舊민정·전국)
민주화합추진위원회 총간사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학과장 역임

- 1978년도 한국일보출판문화상 제작상 수상
수상저서 『남북한의 통일정책』(영문)(서울대학교 출판부,
초판 1977년, 수정증보판 1986년)
1983년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수상
수상저서 『한국정치론 사전』(한길사, 초판 1983년,
수정증보판 1990년)

책 머리에

<1>

이 책은 지은이가 계획하고 있는 韓國政治傳記學총서 제4권에 해당된다. 제1권은 1988년에 民音社에서 나온 李庭植과의 공편저 《혁명가들의 항일 회상 : 金星淑·張建相·鄭華岩·李康勳의 독립투쟁》이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李庭植 박사의 면담록을 바탕으로 한 네 항일 독립투쟁가들의 생애를 통해, 좌파 또는 중도적 좌파의 입장을 지킨 채 해외에서 항일 독립투쟁에 종사했다가 해방 이후에는 국내에서 혁신운동에 종사했던 이들의 정치적 생애를 살핌으로써, 국내 좌파세력의 원천과 그 전개를 알아보고자 했다.

제2권은 1987년에 民音社에서 나온 《李東華評傳 : 한 민주사회주의자의 생애》이다. 斗山 이동화의 만 80세를 축하하는 사업의 하나로 출판된 이 책은 좌파의 입장을 지킨 채 국내에서 항일독립투쟁에 종사했다가 해방 이후에는 국내에서 혁신운동에 종사했던 이의 정치적 생애를 살핌으로써, 국내 좌파세력의 원천과 그 전개를 알아보고자 했다.

제3권은 1988년에 民音社에서 나온 《街人 金炳魯評傳 : 민족주의적 법률가·정치가의 생애》이다. 가인 김병로의 탄생 1백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하나로 출판된 이 책은 우파 또는 중도파의 입장을 지킨 채 국내에서 항일운동에 참여했다가 해방 이후에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이의 정치적 생애를 살핌으로써, 국내 우파 민주주의 세력의 원천과 그 전개를 알아보고자 했다.

제4권이 이 책이다. 古下 宋鎮禹의 탄생 1백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하나로 출판되는 이 책을 통해 우파의 입장을 지킨 채 국내에서 언론활동을 통해 민족운동에 참여했다가 해방 이후에 역시 우파의 입장에 서서 대한민국 건국운동의 초창기를 이끌었던 이의 정치적 생애를 살피고자 했다. 이렇게 볼 때, 1권과 제2권 사이에 ‘좌파적’ 공통점이 있듯이, 제3권과 제4권 사이에는 ‘우파적’ 공통점이 있다.

<2>

宋鎮禹는 기본적으로 교육자이면서 언론인이었다. 30년에 걸쳤던 교육자로서의, 언론인으로서의 생활을 일관했던 그의 뜻은 교육사업과 언론사업을 통해 민족의 백년대계를 세운다는 것이었다. 그러했기에 일제치하에서 그가 참여했던 교육활동과 언론활동은 처음부터 민족운동의 일환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일제치하에서 전개된 우리 겨레의 민족운동의 큰 흐름 속에서 그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했다.

교육자이면서 언론인이던 그가 정치의 일선에 나선 때는 우리 겨레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직후의 130여일이라는 짧은 시기였다. 그는 혁명적 격동기의 해방정국이 자신의 적극적 참여와 주도적 활동을 요구하자 기꺼이 몸을 던졌으며 그것을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주춧돌을 놓는 데 이바지했다. 그러나 그의 정치활동은 그로 하여금 암살의 비운을 겪게 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유혈투쟁으로 점철된 해방 3년사의 축소판을 보게 된다. 이 책이 후반부에서 해방정국 초기의 큰 흐름과 관련해 그의 위상을 파악하고자 한 까닭이 거기에 있다.

종합컨대 이 책은 다른 전기들이 그러하듯이, 송진우가 살던 시대적 성격이라는 큰 틀 안

에서 그가 지닌 사상들과 그가 취한 행동들을 조명하고자 했다. 어떤 사람이나 그가 사는 시대의 성격과의 관련 아래 평가되기 마련이다. 시대의 흐름을 앞당기려고 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역사의 발전을 촉진시키려고 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시대의 요구에, 시대의 정신에 부응하여 행동했는가? 혹시 시대의 요구에, 시대의 정신에 어긋나게 행동하지는 않았는가? 한 인물에 대한 평전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물음 아래 쓰여질 수밖에 없다. 송진우의 평전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는 것이다.

<3>

이 책을 쓰며 있어서 지은이는 이 방면에 관한 1차 자료들과 그리고 많은 선구적 연구들로부터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 책의 끝 부분에 소개된 참고문헌 목록에 소개되어 있거니와, 그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소중했던 자료는 古下선생전기편찬위원회가 1965년에 동아일보사 출판국을 통해 펴낸 《古下宋鎮禹先生傳》이다. 그의 피살 20주년에 즈음해 출판된 이 책은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전기에 담긴 정보와 분석은 지은이가 이 평전을 쓰며 있어서 기본적인 길잡이가 되었다. 이 책에 담겨 있는 정보와 자료로부터 인용한 때에는 굳이 그 출처를 밝히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여기에 먼저 고백해 둔다.

그 다음으로는 송진우가 여러 신문들과 잡지들에 기고했던 글들이 1차 자료로서 매우 소중했다. 그 밖에도 동아일보사가 1975년에 펴낸 《동아일보社史》 1권(1920년~1945년)과 1978년에 펴낸 《동아일보社史》 2권(1945년~1960년) 역시 좋은 자료가 되었다. 또 송진우와 가까웠던 이들의 전기들, 예컨대 崔時仲이 편저하고 동아일보사가 1985년에 펴낸 《仁村 金性洙 :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 李敬南이 쓰고 동아일보사가 1981년에 펴낸 《雪山 張德秀》, 柳J致松이 쓰고 海公申翼熙先生記念會가 1984년에 펴낸 《海公 申翼熙 선생 일대기》 등등도 도움이 되었다.

송진우와 관련된 시기에 관한 학계의 연구들로부터도 물론 큰 도움을 받았다. 예컨대 愼鏞廈가 1985년에 을유문화사에서 펴낸 《한국민족독립운동사 연구》, 沈之淵이 1982년에 풀빛에서 펴낸 《한국민주당 연구 I : 정치적 성장과정과 정치이념 및 관계자료》, 1984년에 창작과 비평사에서 펴낸 《한국민주당 연구 II: 한국현대정당론》, 1986년 한울에서 펴낸 《해방정국 논쟁사》, 그리고 宋南憲이 1985년에 까치사에서 펴낸 《해방 3년사 (1945~1948)》 전2권 가운데 제1권 등은 좋은 참고서였다.

해외의 연구서들로부터도 도움을 받았다.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가 쓰고 프린스턴대학교 출판부가 1981년에 펴낸 《한국전쟁의 기원들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제1권, 그리고 그것보다는 훨씬 덜 중요하겠지만 마이클 로빈슨(Michael Robinson)의 1979년도 워싱턴대학교 사학박사 학위논문 <1920년부터 1926년까지의 조선민족주의 이데올로기의 기원들과 전개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ist Ideology, 1920~1926”)>와 카터 에커트 (Carter Joel Eckert)의 1986년도 워싱턴대학교 사학박사 학위논문 <조선 자본주의의 식민적 기원들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등등은 적지 않은 참고가 되었다.

주의 깊게 읽은 독자들은 이미 느끼겠지만 위의 자료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송진우에 대해 호의적이고 어떤 것들은 비판적이다. 지은이는 서로 다른 시각들로부터의 자료들을 폭넓게 분석함으로써 될 수 있는대로 객관적인 분석을 제시하고자 힘썼다. 그러나 부족한 점들이 적지 않을 것이며, 이 점에 대해 사계의 권위자들과 독자들에게 관용을 구하고자한다.

<4>

이 책은 송진우의 탄생 1백주년에 즈음하여 동아일보사가 마련한 기념사업들 가운데 하나로 마련되었다. 여러가지로 모자란 지은이에게 훌륭한 지도자의 평전 집필을 맡겨 준 宋鎭禹의 손자 宋相現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에게 깊이 감사한다. 필자가 집필에 응했던 때는 필자가 서울대학교에 봉직하던 1980년대 초였다. 그 뒤 필자의 생활에는 우여곡절이 있었으며 그리하여 훌륭한 어른에게 누가 미칠 것이 두려워 필자 스스로 집필을 사양했던만 宋박사는 전혀 개의하지 않고 처음의 약속을 끝까지 존중하면서 격려해 주었다. 후배를 아끼려는 宋박사의 따뜻한 우정에 새삼 고마움을 나타내고자 한다. 이어 고하에 관한 자료 수집을 도와준 준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申炳湜 석사, 그리고 교정음을 맡아준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생 李善鈴 양에게도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집필이 늦어졌는데도 인내로써 기다려 준 동아일보사 출판국 여러분들에게 감사한다. 마침 고하선생의 탄생 1백주년을 기리는 행사가 동아일보사에 의해 오는 5월3일로 계획되었다고 한다. 우연한 일이지만 아내 基遠의 생일이어서 아내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어느 정도나마 씻을 수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또 사랑하는 딸의 대학 졸업 선물로 이 책을 줄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편하다.

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은이가 중앙학교와 갖고 있는 인연이다. 지은이는 1961년 봄에 대학에 입학한 이후 중앙중-고등학교 52회 졸업생들인 金文元 의원, 金鍾變, 金明石군 등등과 매우 가깝게 지내 중앙중-고등학교 52회 동창회에 '명예회원'으로 초청을 받기까지 했는데, 이제 중앙학교 교장이었던 고하의 전기를 씀으로써 그 초청에 보답하는 일을 비로소 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 책은 지은이가 정부의 공직을 맡기에 앞선 몇 해 동안 계속했던 연구와 집필의 산물이다. 정부의 공직에 몸담은 이후에는 주로 새벽과 주말에 틈을 내어 다듬거나 교정을 보았기에 이 일로 말미암은 공무의 게으름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끝으로 이 책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지은이 한 사람에게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자한다.

1990년 3월 31일

서울 종로구 신교통 우거에서
지은이

차 례

책 머리에

제1장 국운쇠망기의 새학문에의 立志

제1절 古下의 태어남과 집안내력

1 고하가 태어난 시대와 장소

2 고하의 집안내력

제2절 민족의식이 자라나다

1 乙未事變의 충격

2 의병운동의 세례를 받다

제3절 실력배양론=자강운동론으로 뜻을 세우다

1 지적 갈증에 시달리면서

2 새학문을 받아들이다

3 昌平 英學塾에서 仁村을 만나다

4 靑蓮庵에서의 공동결심

5 도쿄로 떠나다

제2장 7년의 도쿄유학과 실력배양론으로의 정착

제1절 고뇌속의 첫번째 도쿄유학 : 와세다대학 시절

1 錦城中學에서 수학하다

2 와세다 고등예과 시절

제2절 귀국시기에 수용한 機會論

1 망국의 슬픔속에 귀국하다

2 知的 오디세이의 종결

제3절 적극적인 활동속의 두번째 도쿄유학 : 메이지대학 시절

1 메이지대학으로 전학하다

2 유학생 단체들에서의 활동

3 <孔敎打破論>으로 제시된 고하의 민족운동방법론

4 귀국

제3장 교육을 통한 실력배양론의 실천과 機會論의 노선

제1절 중앙학교의 터를 닦으며

1 인촌과 敎育光復을 다짐하다

2 속죄의식에서 출발한 무한봉사

3. 민족의식을 불어넣다

제2절 민족불멸론의 전개

1 流汗興國의 가르침

2 민족불멸론과 三聖祠 건립운동

제3절 기회론에 입각한 학생조직

- 1 말형 같은 교장 고하
- 2 고하의 기회론
- 3 연락반의 조직과 점검

제4장 3·1운동의 주도적 추진

제1절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해 나가다

- 1 중앙학교에서의 3자모의
- 2 천도교와의 대화 성립

제2절 도쿄의 2·8독립선언과 연결되다

- 1 밀사의 방문
- 2 3·1운동계획의 진전과 좌절
- 3 도쿄에서의 독립만세 운동

제3절 3·1운동을 촉진시키다

- 1 기독교와 연결도 이룩하다
- 2 재동회담을 성사시키다
- 3 불교와 유림과 학생들
- 4 2월 28일 밤의 마지막 점검

제5장 3·1운동의 발발 : 투옥과 재판

제1절 전국으로 확산된 독립합성과 고하의 활동

- 1 진동하는 독립만세소리
- 2 학생대표들의 소집

제2절 피체와 심야의 맹견고문

- 1 일제의 탄압과 고하의 구속
- 2 의지로 이겨낸 고문
- 3 접사의 취조

제3절 경성지방법원 예심으로부터 경성복심법원 확정판결까지

- 1 예심에서의 고하
- 2 3·1운동에 대한 일제당국의 법적논쟁
- 3 재판이 시작되다

제4절 3·1운동이 제시한 이념적 방향과 고하

제6장 일제의 '문화정치'와 고하의 문화적 민족주의의 試圖

제1절 일제의 '문화정치'와 1920년대의 성격

- 1 일제 '문화정치'의 본질
- 2 다기다양해지는 이념적 노선들과 문화적 민족주의의 대두

제2절 동아일보사를 일으키는 일에 이바지하다

- 1 <동아일보>의 창간과 수난
-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출항과 고하의 사장 취임

제3절 자강운동을 전개하다

- 1 시대적 상황
- 2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참여하다
- 3 물산장려운동을 이끌다

제7장 일제의 ‘문화정치’와 고하의 민족주의의 시련

제1절 <민족적 경륜>에 따른 분란과 사장직 사퇴

- 1 자치론과 研政會
- 2 <민족적 경륜>의 과문
- 3 식도원 폭행사건
- 4 사장직 사퇴

제2절 다시 <동아일보>를 일으키며

- 1 인촌-고하의 공동지도체제
- 2 태평양회의에 참가하다
- 3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 4 다시 투옥되다

제3절 신간회 後參과 시련

- 1 신간회의 탄생과 국내의 민족운동
- 2 고하의 입회와 좌익의 공격

제4절 동아일보사 사장에 다시 취임하다

- 1 해외교포들을 위하여
- 2 타고르의 시를 얻다
- 3 <네이션>지 사건과 무기정간
- 4 <조선의 노래>제정

제8장 조선민족 말살정책 시기의 고하의 활동과 은둔

제1절 일제 식민지배 제3기의 개관

- 1 일제의 군국주의적 침략전쟁의 대내외적 배경과 그 전개
- 2 조선민족에 대한 탄압의 가중과 조선민족 말살정책

제2절 조선민족의 대응과 고하의 시국관

- 1 해외에서의 독립관
- 2 국내의 상황과 고하의 시국관

제3절 만보산사건과 만주사변 때 고하가 취한 논리와 행동

- 1 만보산사건의 발발
- 2 국내의 반응과 고하의 지도력 발휘
- 3 만주사변과 고하의 밀령

제4절 고하의 문화운동

- 1 충무공 유적보존 운동
- 2 브나로드 운동
- 3 한글강습회와 새 철자법의 채용
- 4 민중보건체육의 보급 등등
- 5 <신동아>와 <신가정>의 창간

- 6 일장기 말소 사건
- 7 어둠의 시대의 고하의 <동아일보> 생활
- 제5절 <동아일보>의 폐간과 고하의 은둔
 - 1 <동아일보>의 폐간
 - 2 고하의 은둔

제9장 미군 진주 이전 해방정국 1개월의 고하

- 제1절 연합국의 한반도 구상과 고하의 注視
 - 1 국제동향을 파악하다
 - 2 연합국 전시회담에서의 한반도
 - 3 해방 前夜의 한반도의 내외적 갈등 상황

제2절 일제의 협력요청 교섭과 고하

- 1 한반도의 해방과 분단
- 2 고하, 일제의 협력요청을 거부하다

제3절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발족과 고하의 참여 거부

- 1 몽양의 건준 발족과 고하의 반대
- 2 건준의 내홍과 변질을 바라보며
- 3 우익의 동향과 고하

제10장 한국민주당 창당으로부터 피살까지의 고하의 정치활동

제1절 미군의 진주와 고하의 한국민주당 창당

- 1 건준의 조선인민공화국으로의 변질
- 2 고하의 국민대회준비회 소집
- 3 고하의 한국민주당 창당
- 4 한국민주당의 성격

제2절 미 군정의 실시와 한민당의 협조

- 1 미 군정의 개시
- 2 고하, 미 군정과 한민당의 제휴를 성립시키다
- 3 미 군정-한민당과 인공의 갈등 증폭
- 4 미 군정 정책의 의미

제3절 정당통합운동의 시도와 좌절 속에서의 고하의 활동

- 1 이승만의 귀국과 獨促中協의 발족
- 2 임정의 귀국과 특별정치위원회의 출범

제4절 모스크바에서의 연합국 결정과 우리 겨레의 대응

- 1 모스크바로 가는 길
- 2 모스크바 결정의 내용
- 3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남북한의 대응

제5절 고하, 마침내 암살되다

- 1 <동아일보>를 복간시키다
- 2 경교장에서 임정과 격론하다
- 3 겨울 새벽의 被禍

4 암살의 배후

5 고하 피살 이후의 한민당

맺 음 말

연 보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1장 국운쇠망기의 울분과 새학문에의立志

제1절 古下의 태어남과 집안 내력

1 고하가 태어난 시대와 장소

古下 宋鎮禹는 음력 1890년 5월 8일 전라남도 潭陽郡 古之面 巽谷里(손곡리)에서 태어났다. 음력 5월 8일이면 양력으로는 6월 24일이다. 그는 자신의 생일은 양력으로 헤아리지 않고 음력으로 헤아렸다. 간지로는 庚寅이니 호랑이띠다. 宋鎮禹의 세 해 후배로서 당대의 문장이며 지사인 爲堂 鄭寅普-뒷날 대한민국 초대 감찰위원장으로 뽑혔다가 6·25 동안 때 불행히도 납북되는 위당이 지은 고하의 묘비명은 “ [고하가] 주위를 둘러 볼 때에는 위엄이 있었 [고...] 팔을 걷고 분해 일어나면 산과 바다도 떨었도다” 하였으니¹⁾ 호랑이의 인상에 걸맞는 성품을 타고 났던 듯하다.

고하가 태어난 1890년은 고종 27년으로 건국 5백년을 바라보는 조선왕조가 뿌리부터 흔들리던 때였다. 우선 나라밖으로는, 1876년 丙子년 日本의 함포 외교에 눌려 江華島에서 韓-日 수호조약을 맺음으로써 개항하는 한편, 淸나라의 종주권으로부터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벗어났고, 이를 계기로 1882년에는 美國과, 1883년에는 英國 및 독일과, 1884년에는 이탈리아 및 러시아와, 그리고 1886년에는 프랑스와 각각 수호조약을 맺었다. 그리하여 ‘은둔의 왕국’으로 불리던 조선에는 제국주의적 외세가 물밀듯이 밀어닥쳤는데, 이 추세는 그 뒤에도 계속되어 고하가 태어난 해 다음 해에는 오스트리아와 수호조약을 맺었다.

나라안은 나라안대로 들끓고 있었다. 1882년에는 任午軍亂으로 불리는 큰 사변 [壬午事變 또는 壬午軍變] 이 일어났고 이것을 계기로 大院君 이 다시 권력을 잡았으나 곧 청나라로 끌려가기도 했으며, 1883년에는 유생들의 항일 상소운동이 벌어졌고, 1884년에는 개화파들의 저 유명한 甲申政變이 일어났다. 그 이듬해에는 청나라로 잡혀 갔던 대원군이 환국했으나, 이를 경계한 민비의 궁정정치는 더욱 더 음모와 술수로 치닫는 한편 부패를 확대시켜 나갔다.

이러한 상황 아래 외세에 대한 백성들의 저항은 갖게 나타났다. 고하가 태어나기 한 해 전인 1889년에는 그 동안 일제가 조선으로부터 쌀을 마구 사감에 따라 빗어진 농촌경제의 파탄에 직면한 농민들이 각지에서 봉기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고하가 태어난 해인 1890년에는 서울 종로의 상인들이 청국과 일본의 상인들을 성밖으로 철거시킬 것을 정부에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으며, 그 다음해에는 제주도에서 도민들이 일본 어민들의 횡포를 규탄하는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확실히 난세였다. 그러나 난세는 반드시 인물을 부르는 법이니, 난세였던 만큼이나 인걸도 많이 태어났다. 고하가 태어나기 15년 전인 1875년에 李承晩이, 14년 전인 1876년에 金九와 周時經이, 12년 전인 1878년에 安昌浩가, 11년 전인 1879년에 金昌淑과 韓龍雲과 安重根이, 10년 전인 1880년에 申采浩가, 9년 전인 1881년에 金奎植이, 8년 전인 1882년에 曹晩植이, 4년 전인 1886년에 呂運亨이, 3년 전인 1887년에 趙素昂이, 2년 전인 1888년에 金炳魯와 文一平과 李允宰와 池青天이, 1년 전인 1889년에 金佐鎮과 吳東振이 각각

1) ‘古下先生 宋君之碑’라는 제목의 묘비명 전문은 고하선생 전기편찬위원회(편), 《고하 송진우 선생전》(동아일보사 출판국, 1965), 3·11쪽에 있다. 인용된 부분은 10~11쪽에 있다. 이 책은 앞으로 《고하 송진우 선생전》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태어났다. 고하가 태어난 해에 崔南善과 金科奉이, 그 다음 해인 1891년에 安在鴻과 金性洙가, 그 다음다음 해인 1892년에 李光洙가, 그리고 네 해 뒤인 1894년에 申翼熙와 趙炳玉과 張德秀가 각각 태어났다.

그러면 고하의 고향 담양군은 어떤 곳인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출판사 뿌리깊은 나무가 1983년에 펴낸 <한국의 발견>총서 가운데 하나인 《전라남도》의 담양군 항목에서 찾기로 한다. 이 항목은 이렇게 설명한다.

줄달음질치는 노령산맥이 우뚝 멈추면서 만든 추월산과 병풍산을 북쪽에 두고 전라북도 와 경계를 이루는 담양군은 남쪽으로는 기름진 논밭을 부채살처럼 펼침으로써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다는 ‘북고남저’ 땅을 이루고 있다. 추월산 기슭인 용면 용추부락의 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담양군의 이곳저곳을 거치면서 어느 줄기는 내를 이루어 담양읍의 시가지를 감돌기도 하고 또 어느 줄기는 담양호나 광주호 같은 저수지에서 한데 모여 머물기도 하면서 마침내는 커다란 줄기인 영산강을 이룬다. 조선시대 말기의 인물로 짐작되는 신호견이라는 사람이 호남의 풍속을 기려서 지었다는 <호남가>에 “백리 담양 흐르는 물은 구부구부 만경인데”라고 그렸던 바대로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끊임없이 이런 움직임 계속하면서 이 군의 남쪽에 봉산들, 수북들, 고서들, 대전들 같은 살진 땅을 일구어 놓았는데, 이것은 담양군 전체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크기이다.²⁾

전체 면적이 450평방킬로미터가 좀 넘는 담양군의 인구는 1980년의 인구조사에 따르면 9만1천명쯤 된다. 이 군도 농사를 짓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해마다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³⁾ 그래서 가장 최근의 통계인 전남도청의 상주인구 조사에 따르면 1988년 현재 7만8천명쯤이 살고 있다.

담양군의 특산품은 竹物이다. 앞에서 소개한 《전라남도》가 담양군을 ‘한반도의 대밭’이라고 이름 붙이고 “대가 있는 곳마다 마을이 있고, 마을이 있는 곳마다 대가 있는 곳이 담양이다”라는 구절로 소개를 시작한 것은 전혀 과장이 아니다. 실제로 이 군 전체 가구의 10퍼센트가 넘는 수효가 지금도 죽물을 만들어, “1980년의 경우, 이 군에서 죽물을 팔아서 번돈이 자그마치 26억원이 넘었다. 이것은 담양군 안에서 전체 공산품 생산액의 절반쯤을, 전체 주민 소득의 10분의 1을 차지하는 돈이다”⁴⁾

땅이 기름진데다가 죽물 생산이 활발해 담양군에는 예로부터 큰 부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참봉 국채옹 같은 만석꾼도 나왔으며, 오천석꾼도 2백명이 넘게 있었다고 한다. 다시 《전라남도》를 인용컨대 “이곳에 전해 오는 풍수지리에 얽힌 이야기로 담양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땅 모양이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생겼으며 돛대처럼 우뚝 솟은 남산은 노적봉으로 일컬을 수 있었기에 이곳에 부자가 끊임 없이 없다고 한다”⁵⁾

고하의 집안 역시 넉넉했다. 그가 태어난 고지면 손곡리는 현재 金城面 帶谷리에 해당되는데, 고하의 집안은 여기서 ‘한 울안에 5대가 함께 사는’ 명가였다. 《고하 송진우 선생전》은 “담양에서는 대대로 몇째가는 유복한 가계로 한 울안에 5대가 함께 사는 집은 송씨 가계 외에 별로 없었다”고 쓰고 있다.⁶⁾

2) 뿌리깊은 나무(편), 《한국의 발견 : 전라남도》(뿌리깊은 나무, 1983), 134쪽

3) 위와 같음, 136-137쪽

4) 위와 같음, 137-138쪽

5) 위와 같음, 136쪽

6) 《고하 송진우 선생전》, 12쪽

2 고향의 집안 내력

그러면 고향은 어떠한 배경에서 담양에서 태어나게 되었는가?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은 아무래도 新平 宋氏의 연원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중앙일보사 출판제작국이 1989년에 펴낸 《성씨의 고향》 가운데 ‘新平 宋氏 (1)(2)’ 항목에 따르면, 충청남도 洪城郡 신평을 본관으로 삼는 신평 송씨는 크게 보아 두 계열이 있다. 첫번째 계열 곧 신평 송씨 (1)은 고려조에 奉翊大夫 書雲觀正 겸 習射都監判官 宋丘進을 시조로 하고, 두번째 계열 곧 신평 송씨 (2)는 송구진의 후손으로 世宗 때 문과에 급제하고 淳昌郡守를 지낸 뒤 通政大夫에 올랐던 宋自殷을 시조로 한다.⁷⁾

고향은 신평 송씨의 첫번째 계열에 속한다. 즉 송구진의 6대손인 老松公 宋希璟의 19세손이 바로 고향인 것이다. 다시 《성씨의 고향》에 따르면 “신평 송씨의 시조로부터 5대까지는 비록 벼슬길에 올라 가문의 영달을 잇기는 했지만 그렇게 顯昌스럽지는 않았다”⁸⁾ 그러다가 송희경의 대부터 집안이 번창하기 시작했다. 송희경은 조선 太宗 2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한림원에 들어갔고 이어 司諫院의 正言과 獻納과 藝文館의 修撰을 거쳤으며, 태종 때 聖節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온 데 이어 세종 때는 回禮使로서 일본을 다녀올 만큼 외교관으로서의 역량도 갖췄던 인물이다. 그는 判事宰를 마지막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담양에 은거함으로써 담양이 신평 송씨 (1)의 세거지로 굳어진 것이다. 특히 금성면이 신평 송씨 (1)의 집성촌을 이뤄 왔다.

신평 송씨 (1)의 후예 가운데 독특한 빛을 발휘하는 이가 국문학사에 빛나는 宋純이다. 송구진의 10세손인 그는 成宗 24년인 1493년에 태어나 中宗 8년에 進士가 되고 14년에 別科에 급제했는데 考官인 趙光祖 등으로부터 ‘大文章’이라는 칭찬을 들었다. 承文院에서 벼슬길에 올라 예문관의 檢閱겸 春秋館의 記事에 재직중 이른바 賜暇讀書의 영예를 입었다. 사가독서란 세종이 유능한 젊은 문신들을 뽑아 휴가를 주어 독서당에서 공부하게 한 일로 世祖 때 잠시 폐지되었으나 成宗 때 부활되어 丙子胡亂을 계기로 아주 없어질 때까지 계속되었다. 여기에 뽑힐 만큼 문재를 발휘했던 그는 곧 承政院의 注書와 예문관의 奉敎와 世子侍講院의 說書와 弘文館의 修撰 등등을 거쳐 마침내는 大司憲과 漢城府判尹에 이어 議政府의 左贊成에 올랐다. 호를 俛仰亭 또는 企村이라 했던 그를 역사에 오랫동안 남게 한 것은 그의 관직이 아니라 그의 시였다. 특히 明宗과 宣祖때 많은 시를 지어 《企村集》과 《俛仰集》을 남겼고 특히 <면양정가>라는 가사를 남겼는데 그의 詩脈이 저 유명한 松江 鄭澈에게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는 만년에 담양에 은거하여 여생을 보내다가 선조 16년인 1583년에 만 90세로 별세했다.

송순의 경력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가 주로 이른바 세도를 부리는 자리보다는 글을 다루며 공부하는 자리에 많이 있었음을 알게 된다. 굳이 분류하자면 이른바 淸官 또는 淸職이 그가 지낸 관직의 대종이다. 이 점은 관계에 나섰던 신평 송씨 후예들에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다. 조선 후기의 문신들인 宋相殷과 宋相謙과 宋相龍 및 宋相衡 등등이 모두 청직으로 일관했다.

한편 倡義로서 공을 세운 이도 많다. 《성씨의 고향》 가운데 ‘신평송씨 (1)(2)’ 항목은 이 점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7) 중앙일보사 출판제작국(편), 《성씨의 고향》 (중앙일보사 출판제작국, 1989), 1004쪽

8) 위와 같음, 1005쪽

이러한 가풍에 영향을 받아, 한말에 국운이 비색해지면서 신평 송씨의 집안으로부터는 많은 忠義之士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를테면 宋自殷의 14세손인 宋鍾은 성품이 寬厚하고 淸節하여 의협심이 남달랐다고 한다. 그러한 그로서 1910년 庚戌國恥를 당했을 때 죄인을 자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곧바로 국권의 회복을 꾀하다가 왜경에 붙잡혀 온갖 고문과 협박을 받았으나 굽히지 않았음이 물론이다. 그의 아들 宋鴻 역시 항일으로써 報國했다. 1905년 乙巳년에 강제로 맺어진 5조약을 계기로 일제의 奸商들이 날뛰는 꼴을 차마 볼 수 없었던 그는 고종 앞에 나아가 여러차례 상소를 올리며 排倭를 외쳤고, 이 일로 일본 헌병에게 잡혀가 갓은 고초를 겪은 뒤 풀려나자 중국으로 망명했다가 귀국해 교육에 종사하면서 후진들에게 독립 정신을 길러 주었다.

이러한 가풍에 영향을 받아, 한말에 국운이 비색해지면서 신평 송씨의 집안으로부터는 많은 忠義之士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를테면 宋自殷의 14세손인 宋鍾은 성품이 寬厚하고 淸節하여 의협심이 남달랐다고 한다. 그러한 그로서 1910년 庚戌國恥를 당했을 때 죄인을 자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곧바로 국권의 회복을 꾀하다가 왜경에 붙잡혀 온갖 고문과 협박을 받았으나 굽히지 않았음이 물론이다. 그의 아들 宋鴻 역시 항일으로써 報國했다. 1905년 乙巳년에 강제로 맺어진 5조약을 계기로 일제의 奸商들이 날뛰는 꼴을 차마 볼 수 없었던 그는 고종 앞에 나아가 여러차례 상소를 올리며 排倭를 외쳤고, 이 일로 일본 헌병에게 잡혀가 갓은 고초를 겪은 뒤 풀려나자 중국으로 망명했다가 귀국해 교육에 종사하면서 후진들에게 독립 정신을 길러 주었다.

대나무의 고장이기에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대쪽 같은 선비 정신을 들으면서 자란다”는¹⁰⁾ 담양의 지역적 분위기를 하나의 기둥으로 삼고, 淸官과 倡義로 이어진 신평 송씨의 가풍을 다른 하나의 기둥으로 삼은 채, 고하는 아버지 宋燠과 어머니 남원 梁씨의 8남매 가운데 다섯째로 또는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위로 첫째 형 鎭杓, 둘째 형 鍾, 셋째 형 鎭彤, 세 분과 누님 한 분이 있었다. 누님은 뒷날 靈光의 全州 李씨에게 출가한다. 아래로는 누이동생 셋이 있었는데, 첫째 누이동생은 淳昌의 南陽 洪에게, 둘째 누이동생은 서울의 전주 이씨에게, 셋째 누이동생은 순창의 蔚山 김씨 곧 街人 金炳魯의 집안으로 출가한다.

고하의 어린이 때 이름은 玉潤이었고, 애칭은 금가지였다. 《고하 송진우 선생전》에 따르면 “금가지라는 이름은 태몽에서 나왔다. 양씨부인이 금빛나는 가지를 채소밭에서 한아름을 따는 꿈을 가진지 얼마되지 않아 태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¹¹⁾

막내 아들, 더욱이 상서로운 태몽을 안고 낳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무척 깊었다. 《고하 송진우 선생전》이 “젊은 어머니는 금가지가 빨리 자라서 금과 같이 찬란하게 이 세상을 비취 주는 날이 있을 것을 믿었다. 그래서 금가지의 성장만이 한 즐거움이었다”라고¹²⁾ 쓰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점을 말해 준다.

정치심리학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한 인간의 성격은 유아기에 결정되는데, 유아기에 아버지의 사랑 특히 어머니의 사랑을 모자람 없이 받고 자란 사람은 비교적 너그럽고 자신감 있는 성격을 지닌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기존 전기는 “인간으로서, 친구로서, 사회인으로서, 동지로서, 애국자로서, 모든 면에서 슬기로웠던 고하의 일생은 이미 유소년 시대

9) 위와 같음.

10) 뿌려깊은 나무(편), 《한국의 발견 : 전라남도》, 134쪽

11) 《고하 송진우 선생전》, 12쪽

12) 위와 같음.

의 생활환경이 그 시발점이었다. 말하자면 5대가 동거하는 대가족생활에서 평화스러운 인격이 배태되었던 것이다”라고¹³⁾ 썼을 것이다.

제2절 민주주의식이 자라나다

1 乙未事變의 충격

학문을 숭상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고하가 이미 만 세살 때 글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은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우선 이웃 마을에 살던 呂文心으로부터 한문을 배워 나갔다. 그때로부터 꼭 10년 동안 주로 한학을 공부했는데, 그의 기존 전기는 “그는 천재라기 보다는 끈기 있고 근면했다”라고 쓰고 있다.¹⁴⁾

한학을 익혀 나가면서 고하는 어린이답게 장난에도 몰두했다. 연날리기와 팽이치기 따위의 “장난이 심해서 언제나 손등이 텃었다” 그렇다고 하여 싸움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다. 싸움터에 가면 신바람이 나서 부채질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싸워라, 싸워라” 하고 소리를 지르며 저고리를 훌쩍 벗어서 그것이 기폭인 듯 뒤흔들면서 부채질하기를 좋아했다. 한편 제사놀이를 무척 즐겼다. 아이들을 모아놓고는 으레 제주가 되어 제사 지내기를 좋아했고,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우리 금가지는 세상이 아주 변하더라도 조상은 잘 받들거야” 하는 칭찬을 받곤 했는데, 이 버릇은 아마도 “조상을 받드는 일이 어느 누구 가문보다도 철저했을 뿐 아니라 가장 경건한 일의 하나인” 송씨 집안의 분위기에서 저절로 자라났을 것이다.¹⁵⁾

고하가 만 네살 때이던 1894년 甲午년에 동학혁명 또는 농민전쟁이 일어났다. 갑오농민전쟁은 그 자체만으로도 조선 8도 전역에 영향을 주었으나 특히 湖南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그것은 또 곧바로 甲午更張이라는 일종의 개혁정치가 시작되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고하 보다 두 살 위인 가인 김병로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갑오농민전쟁으로부터 받은 자극을 밝히고 있다.¹⁶⁾ 그러나 고하의 집안과 고하 스스로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밝히는 자료는 고하 기존 전기에도 어느 다른 책에도 없다.

그 점에 미루건대 갑오농민전쟁이 고하에게 어떤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 그렇지만 갑오농민전쟁의 한 연장선 위에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 乙未事變은 확실히 적지않은 영향을 주었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갑오농민전쟁을 계기로 청-일전쟁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청이 패배하면서 두 나라는 을미년인 1895년 4월에 시모노세키(下關)조약을 맺어 일단 화해했다. 이 조약은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한층 더 강화시켜 주었는데 다행히도 러시아와 프랑스와 독일이 이른바 3국간섭의 형태로써 일본을 견제하고 나섰고, 실제로 3국간섭의 결과로 일본은 청으로부터 할양받은 遼東半島를 반환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조선 조정의 반일세력은 일본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일본의 조선침략 정책은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되었다. 국면의 전환을 위해 일본이 피한 것이 바로 반일세력의 핵심으로 여겨진 민비의 제거였다. 그 해 9월에 조선 주재 일본국 공사로 부임한 미우라 고로오(三浦梧樓)는 10월 8일 일본 낭인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쳐들어가 민비를 시해했던 것이다. 이 사건이 이른바 을미사변이다.¹⁷⁾

13) 위와 같음, 13쪽

14) 위와 같음, 17쪽

15) 위와 같음, 14-15쪽

16) 김병로의 회고록을 재구성한 金珍培, 《가인 김병로》(삼화인쇄주식회사, 1983), 11쪽

을미사변은 자연스럽게 조선 8도에 반일 감정을 격화시켰다. 그 물결은 고하의 집안에도 밀려 왔으며 다섯 살의 고하도 예외는 아니었다. 공부는 건성으로 하면서 장난에 몰두해 있는 한낱 어린이에 지나지 않던 그에게도 국모가 왜놈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는 어른들의 수군 거림이 심상하지 않게 느껴졌던 것이다. 그의 기존 전기에 따르면, 그는 “왜놈 왜놈이 왜 우리 국모를 죽였어? 어째서 왜놈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남의 나라 국모를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어?”라고 귀찮을 정도로 물었으며, “우리나라가 약하니까 왜놈들이 막 들어왔지”라고 대답해 주면 “어째서 약해졌어? 또, 들어왔으면 들어왔지 국모는 왜 죽이느냐 말이야”라고 꼬치꼬치 캐물었다. 어른들이 “아가, 지금 이야기해도 넌 못알아 들어. 다음에 크면 다 얘기해 주지”라고 달래면, 뒷날 고하의 별명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고집쟁이’의 성격을 이미 나타냈던 그는 “어머니의 옷고름을 잡아 뜯으며 즐랐고 [...] 밥도 안 먹고 즐랐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진상을 설명해 주면 이번에는 “그럼 왜 그 나쁜 놈을 그대로 살렸어? 잡아다 죽이면 되잖아?” 하고 새로운 물음을 던졌다. 그때만 해도 국내정치가 당파에 얽혀 누가 어느 당파에 속해 있는지 알기 어려웠고 더구나 방방곡곡에 흩어져 밀탐꾼들이 민간의 항설마저 수집해 서울의 자파에 보고하던 어수선한 시절이어서 어른들은 “아가, 너 그런 얘기 아무한테나 하면 큰일난다”고 타이르기가 일쑤였다. 그러면 그는 “왜 어때? 그럼 입 가지고 말도 못할까? 그간 놈들은 모두 죽어야 해”하고 서술이 시퍼렇게 달라들기조차 했다.¹⁸⁾ 선악에 대한 명명백백한 구분과 불의에 대한 타협의 거부가 주조를 이루었던 고하의 성격의 한 원형을 여기서 보게 된다.

다시 그의 기존 전기에 따르면, 고하는 이 사건에 관한 질문을 3년을 두고서 심심하면 꼬집어내었다. 이것은 이 사건이 어린 그의 뇌리에 깊이 각인되면서 큰 영향을 주었음을 뜻한다. 일본이 비록 기계문명에서는 앞섰으나 정신문화에서는 뒤떨어진 야만의 나라라는 인식, 일본과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원수의 나라라는 관념, 일본을 꺾기 위해서는 산업과 교육을 통해 문화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믿음의 뿌리에는 아마도 국모시해사건의 충격과 그리고 그것을 통한 깨달음이 놓여 있을 것이다.

2 의병운동의 세례를 받다

을미사변은 확실히 고하가 어떤 정치의식이라고 할까 사회의식을 갖게 한 단초적 계기였다. 여기에 체계적 자극을 준 것이 을미사변이 있는 해의 다음 해인 1896년에 시작된 奇參衍의 훈도였다. 고하의 기존 전기가 “ [기삼연이] 고하에게 미친 영향은 참으로 컸다 [...] 고하가 민족을 일생의 구호로서 삼은 것도 스승 기삼연의 민족관에서 출발했고, 또한 국가관에서 출발했던 것이다”라고¹⁹⁾ 쓸 정도로 기삼연의 가르침은 고하의 인격 형성의 바탕을 이루었다.

그러면 기삼연은 누구인가? 그가 태어난 해는 명백하지 않다. 그러나 고종 때의 성리학자로 벼슬이 호조판서에 이르렀던 蘆沙 奇正鎭(1798~1876)의 친족으로 학문이 깊었던 것은 확실하다. 학문이 깊었다고 하여 학문만을 위한 학문에 뜻을 두지는 않았다. 그가 고하에게 “나라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짐승만도 못해. 네가 글을 읽고 쓰고 배우고 하는 것도 오직 네가 나라에 바치고 나라를 이룩하기 위함이야. 아무리 글을 많이 배우고 읽었다 하더라도

17) 姜在彦, 《한국근대사 연구》(한울, 1982), 256-258쪽

18) 《고하 송진우 선생전》, 15-17쪽

19) 위와 같음, 18쪽 및 23쪽

도 그 글을 잘못 쓴다면 글을 배우지 아니함만 못하고 도리어 제 몸을 욕되게 하는 수가 있어. 그러기에 너는 배워야 하고, 배우되 그에 그치지 않고 배운 보람을 행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性理의 원리를 깨우쳐야 해”라고20)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쳤다는 기록으로 미루건대 기삼연의 학문적 출발점은 忠君愛國에 있었다고 하겠다.

전남 長城 태생으로 省齋라 自號했던 기삼연은 자신의 믿음과 학문에 충실하게 행동했다. 그는 을미사변에 격분하여 1896년에 장성에서 의병을 일으켜 湖南信義盟所를 조직하고 스스로 그 대장이 되어 왜병과 싸웠으며,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일단 피신했다. 1902년에 다시 기병하려다 체포되어 平理院에 수감됐으나 옥리가 몰래 풀어주어 자유의 몸이 되었다. 때를 기다리던 그는 1907년에 장성 隨緣山에서 의병을 모아 출진하여 고창 文殊寺에서 왜군을 크게 이겼으며, 그 기세를 타고 이웃의 여러 고을들에서도 연승했다. 그러나 그 해 12월 담양의 秋月山城에서 패하여 후퇴하던 길에 순창에서 잡혀 1908년 2월 광주에서 처형됐다. 의병을 일으켜 목숨을 나라에 바친 뜻을 기리어 1962년 3월 1일에 대한민국 건국공로 훈장 單章이 주어졌다.21)

기삼연의 생애에서 우리는 한말의 한 전형적인 衛正斥邪 계열의 선비를 보게 된다.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한말에 국가적-민족적 위기가 닥치면서 우리 겨레의 지도적 인사들은 다음과 같은 세 갈래 가운데 어느 한 갈래의 반응을 보였다.22) 첫째가 위정척사이다. 기존의 질서를 바른 것이라고 파악하고 그것을 지키는 반면에, 외세를 특히 일본을 사악한 것이라고 파악하여 그것을 배척한다는 뜻이다. 기삼연의 집안 어른인 기정진이 바로 이 세력의 거물이었다고 하겠다. 이 세력은 뒷날 일제의 침략이 거세지면서 의병운동으로 뛰어들거나 또는 애국 계몽운동을 벌이게 된다. 둘째가 개화론이다. 古筠 金玉均(1851~1894)이 그 대표적 인물로, 개화파들은 하루 빨리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가들로부터 문물과 제도를 배워 조선왕조를 근대화시키자고 제의했으며 고하가 태어나기 여섯 해 앞선 1884년 甲申년에는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정변을 일으키기도 했다. 역사상 큰 뜻을 갖는 갑신정변이 바로 그것이다. 그들의 개혁 의지는 뒷날 독립협회 운동으로 이어진다. 셋째가 동학혁명이다. 서양의 학문 곧 西學에 대한 대응으로 東學을 세웠고 따랐던 지식인들이 농민들과 손잡고 혁명을 일으켜 부패한 조정을 뒤엎고 새 국가를 세우려 했던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갑오농민전쟁으로도 불리는 이 민족운동이 청-일의 개입에 의해 실패하면서 그들 역시 의병투쟁에 나서서 일제와의 투쟁을 계속했다. 이 세 갈래의 대응이 의병투쟁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한국 민족주의 운동의 주류였다고 하겠는데, 기삼연은 위정척사에서 시작해 의병투쟁으로 전환한 전형적인 민족운동가였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고하의 학문적-사상적 출발점은 스승이 마련해 준 위정척사적-의병투쟁적 민족주의에 있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기삼연이 고하의 스승이 된 계기는 기삼연이 처음 기병했다가 실패해 왜병에게 쫓기다가 마침내 송씨 마을로 흘러들어 옴으로 해서 마련되었다. 기삼연은 곧 송씨 집의 식객이 되었고 그 때 만 여섯 살이던 고하를 가르치게 된 것이다. 인생은 결국 만남이며, 인간과 인간의 만남, 인간과 시간의 만남, 그리고 인간과 장소의 만남이 서로 겹쳐져 역사가 이뤄진다. 이렇게 볼 때 국운의 쇠망기에 막 민족의식의 싹을 내기 시작하던 고하와 그리고 민족의식의 행동화를 상징하던 기삼연의 만남은 하나의 작은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할 것이다.

20) 위와 같음, 21쪽

21) 李弘植(편), 《국사대사전》(삼영출판사, 1984), 242쪽

22) 崔昌圭, 《근대한국정치사상사》(일조각, 1972)의 제1편과 제2편.

기삼연은 우선 고하의 공부를 시험해 보았다. 마을 앞에 놓여 있는 구식의 물방아를 두고 시를 지어 보라고 일렀다. 고하는 그 자리에서 “低尾噴白水(꼬리를 나지막하게 하고는 흰 물을 쏟고) 擧頭撐青天(머리를 들고 푸른 하늘을 끈다)”라고 읊었다. 기삼연은 일곱살 먹은 어린이의 시재와 기상에 놀라면서도 “噴자를 瀉자로 고쳐라”고 가르치기를 잊지 않았다. 같은 물방아를 놓고 여덟살 때는 “欲知滄海量(창해의 물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고자) 斗送小溪水(작은 시냇물을 말로 되어 보내누나)”라고 읊어 ‘웅대한 표현’과 ‘호방한 기상’을 함께 보였다.

제주와 기상을 동시에 갖춘 어린 제자에 대한 스승의 사랑은 각별했다. 기삼연은 자신의 정신을 이어 받도록 무엇보다 충의를 중심으로 가르쳤다. 그는 “옥윤아, 너는 저 古比山처럼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 사람이란 小我를 버리고 大我에 살아야 하며, 남아답게 죽을 줄 알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고하라는 아호도 그가 지어 주었다. 고비산 밑에서 낳았으니 고비산 같이 깨끗하게 살라는 뜻에서였다. 그의 가르침은 아버지 훈의 가르침이기도 하였다. 고하의 기존 전기가 지적했듯이 “대의에 살고 대아를 위하여 죽는다”는 후일의 그의 인생관은 그의 타고난 천성에도 있었지만, 스승 기삼연과 아버지 훈의 교훈에도 있었다.²³⁾

송씨 집안에서의 기삼연의 생활은 그 자체가 충의의 산교육이었다. 그는 자신이 의병을 일으킬 때 손수 지은 <論告列邑文> 가운데의 핵심적인 문장, 곧 “陳나라의 桓이 임군을 죽이자 孔子께서도 목욕을 하시고 그를 칠 것을 청하셨으니, 역륜의 變에는 이웃나라에서도 오히려 그러하거늘 하물며 내 나라 국모의 원수일까 보냐. 신하된 자 마땅히 몸을 바쳐 원수를 갚을 때다”를 되풀이해 외웠으며 “아, 임군이 욕을 당한 날에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 있다니… 이 못난 것이 오늘도 죽지 못하고 살아 있구나. 나는 마땅히 죽어야 할 몸이로되 죽을 만큼 변변치도 못한 인간으로 태어났어” 하며 탄식하곤 했다.

글을 가르치다가도 나라 일이 근심되면 그 자리에서 책을 덮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는 “사람이란 것은 배우는 데만 능을 삼아서도 안돼. 공부함은 목적이 있는 법이야. 목적 없는 공부는 아무런 값어치도 없어”라는 말로 운을 떼고는 “이 목적이란 사람의 도리를 하는 데 있어. 사람의 사람된 도리는 의리를 지키어야. 부모에 대한 의리, 동기에 대한 의리, 친구에 대한 의리, 스승에 대한 의리, 나라에 대한 의리, 이 많은 의리 가운데 가장 큰 의리가 나라에 대한 의리야”라고 결론지으면서 다시 한번 의리론과 애국론을 붙여넣었다. 그것도 숨에 차지 않으면 벌떡 일어나 고하를 데리고 이웃의 가까운 산기슭으로 달려가 멀리 서울 쪽을 가리키며 “옥윤아, 봐라. 저 서울 쪽 하늘이 별경지? 왜 그런지 넌 모르지? 이 나라 젊은이들의 핏빛이 하늘에도 서린거야. 지금 서울에서는 수많은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바로잡자고 피를 흘리고 있어. 너의 피도 붙겠지?” 하면서 장개한 기상을 보이기도 했다. 이러한 전인격적 가르침 속에서, “기삼연의 한 마디 한 마디는 고하도 모르는 사이에 한 자루 날쌔 칼로 그의 가슴 속에서 달구어져서 버려지고 갈아졌다” 고하의 일생에 일관했던 성격적 특성은 한 마디로 비분강개였다. 그것은 아마도 울분에 가득차면 통곡으로 달래던 기삼연으로부터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고하 일생의 경륜은 이 손곡리에서 이미 마련되었던 것이다”²⁴⁾ 고하의 기존 전기의 표현은 조금도 과장이 아니라고 하겠다.

고하의 학문적 진도가 빨라지면서 기삼연은 유학의 경전들을 차례로 가르쳐 나갔다. 그리하여 고하는 열 살 안팎에 花潭 徐敬德과 退溪 李滉과 栗谷 李珣를 비롯한 조선조 거유들의

23) 《고하 송진우 선생전》, 19쪽, 21쪽

24) 위와 같음, 21쪽

학문을 두루두루 배웠다. 그들 가운데 고하에게 가장 큰 감명과 영향을 준 것은 奇正鎭의 성리학설이었다. 거기에 얼마나 심취했는지 고하는 성리학자가 되려는 생각을 여러 차례 가졌었다. “만약에 우리의 처지가 그렇지 아니하고 태평성대였다면 나는 학자가 되었을지 몰라. 그 가운데서도 성리학에 몰두하게 되었을 거야. 나는 한동안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 그러나 나라 안팎의 모든 정세가 나로 하여금 정치에 관심을 갖게 했었어 [...] 만약 그 선생이 의병대장이 되어 나설 만큼 극진한 애국자가 아니었더라면 나도 역시 학문에 만족하였을지 몰라”라는 고하의 뒷날 회상은²⁵⁾ 성리학에 대한 그의 일시적 傾倒를 말해준다.

여기서 우리는 고하에 대한 기삼연의 이중적 영향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고하로 하여금 성리학에 기울어져 성리학자가 되려는 결심까지 갖게 한 사람도 기삼연이었던 반면에 그 결심을 버리고 겨레를 위한 현실 참여의 길을 밟도록 만든 사람도 기삼연이었던 것이다.

어떻든 기삼연의 훈도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조선의 국운은 계속해서 기울어 갔다. 우리 조선을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각축이 더욱 심해졌다. 그 가운데서 을미사변과 그리고 을미사변에 격발된 곳곳에서의 의병 쫓기에 겁을 먹은 고종이 친러파 대신들과 손잡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한 이른바 俄館播遷이 일어나기도 했다. 여기에 당황한 일본은 조선을 양분해 절반씩 차지할 것을 러시아에게 제의했으나 거절되었다. 이듬해인 1897년 고종은 환궁해 국호를 大韓帝國으로, 국왕을 황제로 바꾸고 나라의 면모를 쇄신하고자 했으나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반면에 열강의 이권 침탈은 더욱 심각해졌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1896년에 결성된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열어 국정의 개혁을 요구하는 등 민중 운동을 이끌어 나갔다.

역사의 파고가 너무나 높아지자 기삼연은 그것을 진정시키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총을 잡기 위해 송씨 마을을 떠났다. 그 때가 1902년, 고하가 만 열두살 때였다. 그러니까 고하는 기삼연으로부터 일곱 해 가까이 훈도를 받은 셈이다. 오늘날에 비유한다면 고하는 국민학교 6년 과정을 기삼연 한 스승의 손에서 마친 셈이다. “기삼연 선생은 나의 가슴에 굶다란 장작을 넣어 주고 거기다 불은 붙여 놓은 셈이야”라는 고하의 뒷날의 술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격 형성의 기초기에 기삼연은 결정적인 영향을 남기고 떠났던 것이다.

제3절 실력배양론=자강운동론으로 뜻을 세우다

1 지적 갈증에 시달리면서

기삼연이 떠남에 따라 고하는 守山이라 自號하는 숙부 埵으로부터 잠시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숙부는 그에게 주로 수학을 가르쳤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하가 숙부로부터의 가르침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는 알 길이 없다. 그러나 그의 기존 전기가 여기에 대해 단 한 줄로 언급하고 있는 사실과²⁶⁾ 그리고 고하가 곧 새 학문에 기울어지게 된 사실에 비춰 볼 때,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미 민족 문제에 눈을 떴고 그리하여 국가적 현실 상황에 대해 비분강개하는 성격마저 갖게 된 고하로서, 일곱 해 가까이 침식을 같이 하며 혼을 불어넣던 한 사상적 거인이 사라졌을 때, 마음의 허전함은 매우 컸을 것이며 그 공백은 다른 하나의 사상적 거인에 의하지

25) 위와 같음, 22-23쪽

26) 위와 같음, 23쪽

않고는 메워지기 어려웠을 것이다. 더욱이 조국의 운명이 점점 바람 앞의 등불처럼 쇠미해 짐을 실감함에 있어서라. 1904년 2월에 노-일전쟁이 일어나고 그해 8월에는 일인의 고문정치를 규정한 제1차 한-일협약이 강제로 맺어지는가 하면 9월에는 일본의 조선침략의 앞잡이 一進會가 결성되는 것을 보고 고하는 분노와 함께 허전함을 견딜 수 없었다.

이 해 당시 조혼의 관습에 따라 치른 전라북도 井畝의 高興 柳씨와의 혼례도 그 허전함을 메워주지 못했다. 딸을 하나 얻었으나 세살 때 죽은 뒤에는 끝내 금슬이 좋지 않아 후예가 끊겼기에-그는 뒷날 舍伯의 아들 英洙를 양자로 맞는다-가정도 그의 갈망을 채워 줄 수 없었다. 아니, 금슬이 좋지 않아서라기보다 “마음이 깊고 생각이 의젓한 성격의” 그로서, 그리하여 “정치에 몰두하게 되었고 개인의 행복보다도 많은 사람 곧 민족의 행복에 생의 목표를 두게 된” 그로서, 비록 인물도 결코 빠지지 않고 남편에 대해 그렇게 충성스러울 수 없는 아내가 곁에 있다고 해도 가정에 몰두하기는 어려웠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가정의 중요성 그 자체를 부인한 것은 결코 아니다. 자녀를 낳아 길러본 일이 거의 없다시피 한, 그리하여 가정인으로서 정말 쓸쓸한 그였지만 동료나 아랫사람이 자녀를 보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낳는 게 제일이지 아니야. 잘 키워서 잘 가르쳐야지” 하며 축하금 보내기를 잊지 않고 가정의 앞날을 축원해 주는 자상함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아내에게는 “겨레의 운명이 이처럼 각박한 때에 사내가 어찌 가정에만 얽드려 있을 수가 있소. 집안에는 아내가 있으니 남편은 겨레를 버터주는 기둥이 되어야 하지 않겠소”라며 자신의 소홀에 섭섭해 하지 않도록 달래기 일췌였다.²⁷⁾

지적 갈증을 이기지 못한 고하는 결국 새로운 배움의 길 또는 또 한 사람의 사상적 거인을 찾아 나섰다. 우선 이웃 장성군의 白羊寺를 목표로 삼았다. 장성군 北下面 藥水里 白羊山에 자리잡은 이 절은 百濟 武王 33년인 632년에 如紅大師가 지은, 25교구 본사의 하나이다. 고하가 왜 이 절을 선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아마도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점, 스승 기삼연의 출생지에 있는 명산대찰이라는 점 등등이 그의 발길을 이곳으로 옮기게 했는지 모른다.

여기서 그는 金直夫라는 선비를 만나 가르침을 받게 되었다. 김직부가 어떤 사람인지 유감스럽게도 알아낼 수 없다. 《고하 송진우 선생전》은 “이때의 스승 김직부도 그 당시 학자들이 대개 그러했듯이 국가의 존망에 무관심한 선비는 아니었다”라고만 기록할 뿐 어떤 다른 설명도 붙이지 않았다. 어떻든 새로운 스승 아래 그는 한 해 반 정도 한학에 정진했다. 백양사에서 어느날 고하에게도 청천벽력의 소리가 들려 왔다. 1905년 11월 일제의 강요에 따라 5조약이 맺어졌고, 이 乙巳條約에 따라 조선은 외교권과 재정권을 빼앗긴 채 일본의 한낱 피보호국으로 전락했다는 슬픈 소식이었다. 연초에는 일본이 러시아에 이겼고 이어 미국의 주선 아래 포츠머드조약이 맺어져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었다는 얘기는 어렵뜻하게 들었으나 나라의 주권이 이처럼 급박스럽게 제약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충격 속에서 하산을 결심했다. 그의 기존 전기는 “ [백양사에서] 수도생활은 고하로 하여금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하고 경륜을 쌓게 하여 인생의 새 출발을 약속한 시기이기도 하였다”²⁸⁾라고 썼는데, 우리가 다음에서 알게 되듯이 그는 ‘새 학문’이라는 사상적 거인을 만나 새로운 길을 걷게 된다.

27) 위와 같음, 23-24쪽

28) 위와 같음, 25쪽

2 새 학문을 받아들이다

고하가 귀가했을 때는 마침 아버지가 서울에서 돌아온 직후였다. 서울에서 보다 생생하고 정확한 소식에 접했던 아버지는 “나라는 이미 기울어졌어”라고 비분해 하였다. 그렇다고 하여 개탄으로만 세월을 보내지는 않았다. 새 학문을 통해 나라를 건져야 한다는 새로운 각오에 불타 있었다. 《고하 송진우 선생전》은 고하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나라는 이미 기울어졌어. 우리가 정치를 잘못된 죄도 있지만 왜인들의 ‘新학문’이 크게 우리를 압박한 것이야. 왜인들은 일찍부터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그것으로 모든 무기를 장만하고 제도를 고치었으므로 놀랄만한 강국이 된 것이야. 우리는 꿈을 꾸고 있었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바깥세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통 모르고 있었던 말이야. 알려는 생각조차도 가져 본 적이 없어. 그러는 동안에 왜인들은 서양문명을 끌어들이고 배우고 하여 산업을 발달시키고 문화를 깨우쳤으니 우리가 그놈들을 따라갈 수가 있겠느냐. 이 얼마나 통분한 노릇이냐. 그러나 이제라도 늦지는 않아. 우리만 노력한다면, 싸움만 아니하고 일심협력하여 신문명을 받아들인다면, 다른 민족이 1백년에 할 것을 20년이나 30년 안에 회복할 수 있어. 이제 남은 길은 하루라도 빨리 일인들이 배운 것 이상으로 ‘新학문’을 배워서 학문으로나 무기로나 산업으로나 우리가 앞서서 그들을 이기는 길 뿐이야. 배우는 일-이보다 더 큰일은 없어. 무엇보다 영어를 먼저 배워야 해.²⁹⁾

아버지는 자신의 신념을 실천에 옮겼다. 그는 얼마 뒤에 자신의 사재를 기울여 새 학문을 닦기 위한 신식의 학교를 세운 것이다. 이것이 潭陽學校이다.

고하의 아버지 곧 송훈의 언행은 어느 한 뜻 있는 선비의 독특한 언행은 아니다. 그것은 을사조약 이후에 조선에서 나타난 항일 민족주의 운동의 한 흐름을 대변한다. 그 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당시의 민족운동의 조류를 살펴야 할 것 같다.

지은이가 이미 다른 글에서 지적했거니와,³⁰⁾ 을사조약 이후 조선에서는 두 갈래의 국권 회복운동이 일어났다. 하나는 을미사변 이후 폭발했던 반일 의병운동의 새로운 전개이며, 다른 하나는 애국계몽운동이다. 姜在彦 교수에 따르면 “애국계몽운동은 언론-출판-집회-결사 등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구사하여, 민중의 독립자강 정신을 계발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단결을 강조하고 실력 배양을 위한 교육과 산업의 진흥에 의한 국권 회복을 의도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애국계몽운동은 국권 회복을 위한 실력배양=자강운동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다”³¹⁾

실력배양론 또는 자강운동론은 그 출발점이 당시 한말에 수용되어 유행하던 사회진화론이었다. 곧 ‘우승열패 약육강식’의 학설을 받아 들여, 패배하지 않고 먹히지 않으려면 힘을 길러야 하며 그것을 통해 국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느 무엇보다 교육과 산업을 중시했다. 바꿔 말해 교육과 산업을 실력배양과 자강을 위한 두 기둥으로 삼고, 교육과 산업을 통해 나라의 힘을 기르며 그것을 바탕으로 국권을 되찾자고 주장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실력배양론 또는 자강운동론이, 실력배양과 자강운동에 의해 국권

29) 위와 같음, 25-26쪽

30) 출처, 《街人 金炳魯評傳: 민족주의적 법률가·정치가의 생애》(민음사, 1988), 38-41쪽

31) 강제인, 앞의 책, 373쪽

이 저절로 회복된다고 믿는 ‘자연성장론’도 아니며, 정치적으로 아무런 목적도 없는 단순한 근대주의도 아니라는 평가이다. 강제언이 강조했듯이 실력배양론자들 또는 자강운동론자들에게, “교육과 실업은 항상 국권회복의 달성을 위한 自強之術로서 파악되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실력의 배양을 강조하면서도 실력의 배양에 우선하는 ‘조국의 정신’을 배양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이다.³²⁾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의 각 지방에서는 교육단체 곧 학회가 조직되고 학회가 중심이 되어 대중적 교육운동을 펴나갔다. 평안도와 황해도를 포괄하는 西友學會, 함경도를 포괄하는 關北興學會가 세워지더니, 1908년에는 西北學會로 통합되어 북부 조선에서 새 교육운동의 선구가 되었다. 한편 남부조선에서는 1908년에 畿湖興學會와 關東學會가 세워졌고 경상도를 포괄하는 嶺南學會가 세워졌다. 이러한 학회들의 주도 아래 대중적 교육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사립학교들이 급격히 신설되어 나갔다. 1910년 7월 현재 전국의 학교 총수 2천 306개교 가운데 사립학교가 무려 2천250개교에 이르렀다는 통계는 민간 학회들의 대중적 교육운동이 얼마나 활발했는가를 말해 준다.³³⁾

고하의 아버지가 새 학문을 강조하고 담양학교를 세운 일은 이미 지적했듯이 이러한 실력배양론 또는 자강운동론의 흐름 위에 있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점은 고하가 실력배양론 또는 자강운동론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의 기존 전기에 따르면, “신학문을 해야 우리도 산다는 아버지의 침통한 말을 듣고난 고하는 며칠 동안 울에 갇힌 사자처럼 집 근처를 배회했다. 울적함을 풀기 위해 산으로 들로 물가로 떠돌아 다녔다”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 저는 다시 절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선언하고 새 학문의 길에 들어서겠다는 새로운 결심을 밝힌 것이다.³⁴⁾

이것은 고하가 일종의 知的 전환 또는 사상적 전환을 이룩했음을 의미했다. 앞에서 살폈듯이 그는 한말 민족주의 운동의 한 흐름인 항일 의병적 민족주의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민족주의자의 길에 들어섰었다. 그렇다고 하여 의병활동에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참가한 일이 없이 비분강개로 일관하던 소년으로서 내심의 갈등이 적지 않았을 터이다. 여기서 한말 민족주의 운동의 또 하나의 흐름인 실력배양론 또는 자강운동론은 성리학자가 되고 싶은 충동을 때때로 느꼈던 그의 성품에도 부합되면서 하나의 救援의 지표가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 그 뒤의 40년 생애는 철저하게 이 틀 안에서 정형된다. 그의 동지들의 면면을 보나 그의 교육-언론활동을 보나 이 틀 밖으로의 이탈을 찾기 어렵다. 이렇게 볼 때 열다섯살에 이룩된 그의 立志는 그의 인생 전반에 대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일찍이 공자는 자신이 열 다섯 살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고 회고했었는데, 바로 이 나이에 고하는 실력배양을 통한 국권의 회복에 뜻을 세운 셈이다.

3 昌平 英學塾에서 仁村을 만나다

새 학문에서 자신의 새로운 사상적 지주를 확인한 고하는 을사조약이 강제로 맺어진 때로부터 몇 달 뒤인 1906년 늦은 봄에 담양군 昌平邑에서 5리쯤 떨어진 月里에 세워진 英學塾의 문을 두드렸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비록 짧았다고 해도 어떤 의미에서 고하의 일생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기에 여기서 잠시 창평과 영학숙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32) 위와 같음, 388쪽

33) 위와 같음, 397-399쪽

34) 《고하 송진우 선생전》, 26쪽

창평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켰다가 순국한 高敬命-從厚-因厚 3부자의 후예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다.³⁵⁾ 그러한 운동을 주도했는데, 高敬命의 12세손 高光洵이 을미사변 직후인 1896년 초에 의병을 일으켜 호남 지역에 항일 운동의 불을 질렀던 것이 그 대표적인 보기이다. 그 뒤에도 고씨 문중은 항일 의병투쟁에 많은 것을 바쳤으며, 특히 高光秀와 高濟亮-光薰-光彩 형제 등등의 의병장들을 배출했다. 한 마디로 창평은 倡義의 상징과도 같은 지역이었다.

한편 실력배양론 또는 자강운동론의 흐름도 이곳에서는 자라났다. 趙東杰교수가 지적했듯이 ‘의병 운동에 대한 반성적 전환’에서 고씨 문중의 또 하나의 큰 줄기인 春江 高鼎柱는 학교를 세워 나간 것이다.³⁶⁾ 그가 세운 학교들로부터 참으로 많은 인재들이 나온다. 그리하여 창평은 학문에서나 창의에서나 소중한 인재들을 많이 배출했기에 충청도 山東 곧 오늘날의 충청북도 淸原郡 琅城面 및 평안도 定州 등과 함께 근대조선 인물의 산실로 꼽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의병대장 기삼연의 훈도 아래 의병투쟁적 민족주의의 세례를 받았다가 결국 실력배양론적 민족주의로 전환한 고하가 이 지역으로, 그리고 고정주의 학교로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고정주는 어떤 인물이었나? 哲宗 14년인 1863년에 태어나 奎章閣의 直閣과 승정원의 승지를 지내기도 했던 그는 나라가 기울면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국운을 바로잡는 지름길은 인재의 양성이라는 신념으로 仁村 金性洙의 생부 金暲中과 함께 호남 학회를 받기하고 昌興義塾을 설립하여 향리의 젊은이들에게 한문과 국사는 물론 이거니와 영어와 일어와 산술 등 새 학문을 배우게 하였다. 이 학교가 나중에 창평보통학교로 커지며 가인 김병로를 비롯한 많은 인재들을 배출하게 된다. 이 학교와는 별도로 고정주가 세운 학교가 바로 영학숙이다. 고정주는 특히 자신의 둘째 아들 光駿-그가 뒷날 동아일보사의 편집국장 겸 주필과 사장을 지내게 되는 高在旭의 아버지이다-과 사위 김성수에게 주로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서울에서 교사를 청하여 이 학교를 열었던 것이다. 고정주의 생각으로는 그 당시의 형편으로 본격적인 새 학문을 하려면 상하이(上海)나 도쿄(東京)에 가야 할 것이고, 그러자면 국내에서 영어의 기초를 어느 정도 쌓아두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³⁷⁾ 이 학교에는 이 지방 원근의 청년들이 너도 나도 모여들었다. 숙장 李灑(이표)는 영어에 통할 뿐만 아니라 한문에도 능하여 신구학문을 도맡아 가르쳤다. 고하는 아버지가 고정주와 친교가 두터웠기에 쉽게 입학이 되었다.³⁸⁾

영학숙에서의 고하의 생활은 짧았다. 석달만에 그만 둔 것이다. 이 석달동안 그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우리는 알 길이 없다. 고하의 전기도 인촌의 전기도 그 점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그 점보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그가 평생의 벗이자 동지인 인촌을 만나 金石之交의 우정을 열었다는 점이다. 인촌의 전기에서 고하가 빠질 수 없고 고하의 전기에서 인촌이 빠질 수 없을 정도로 두 사람의 생애에는 겹쳐진 부분들이 많다. 이렇게 볼 때 인촌의 전기와 고하의 전기가 모두 영학숙에서의 두 사람의 만남과 생활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우선 고하의 전기로부터 인용해 본다.

35) 이하 창평과 고씨 집안에 관한 자료들은 다음에 있다. 趙東杰, 《한국근대사의 시련과 반성》(지식산업사, 1989), 345-351쪽

36) 위와 같음, 345쪽

37) 崔時仲(편저), 《仁村 金性洙 :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동아일보사, 1985), 47쪽 이 책은 앞으로 《인촌 김성수》로 표기하기로 한다.

38) 《고하 송진우 선생전》, 27-28쪽

고하는 사귀기 힘든 소년이었다. 고하는 내성적이어서 친구를 사귀려고 들지 않았다. 하루는 인촌 김성수가 초립동이 고하와 許交를 제의했다.

“진우, 우리 인제 허교하고 지내지” “허교만 하면 무엇하겠소. 心交를 터야지. 그러니 심교가 터질 때까지는 그럴 것 없지 않소” 고하의 무뚝뚝한 대답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통성명만 하면 허교하고 자네니 내지 했지만 고하와의 허교는 상당한 시일을 요했다. 그로부터 훨씬 뒤의 일이었다. “이제 우리 허교하지” 하고 고하가 인촌을 향해 허교를 제의했다. 이 무뚝뚝한 소년 고하의 제의에 인촌은 무척 반가웠다. 알고 보니 고집이 셀 뿐, 인정스러운 인물이었다.³⁹⁾

인촌 전기는 이와 관련해 “ [고하는] 함께 공부를 하면서도 별로 말이 없었고, 속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인촌이 친구로 지내자고 했으나 그는 아무하고나 간담을 상조하는 그런 쫓대 없는 사내라며 일축하는 것이었다. 일견 거만해 보였지만 심지가 깊은 청년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라고 쓰고 있다.⁴⁰⁾

두 개의 전기에서 공통되게 나타나는 것은 인촌이 비교적 온화하고 사교적인 성격을 지녔음에 비해 고하는 무뚝뚝하고 비사교적인 성격을 지녔다는 점이다. 그러한 對比는 시국에 대처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우선 고하의 전기로부터 인용하기로 한다.

[서로 허교한지] 얼마 안 되는 어느날 저녁이었다. 달이 무척 밝은 무더운 남도의 여름밤이었다. 고하는 그날 밤 비로소 인촌에게 마음의 깊은 곳을 이야기했다. “자네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나? 이렇게 남의 손에서만 놀다가 아주 없어지지 않겠나? [...] 남의 나라 놈들이 내 나라 궁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내 나라 국모를 시해해도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하니, 이것이 얼마나 비통할 노릇인가. 원수는 반드시 우리 손으로 갚아야 해” 고하는 흥분이 되면 자기 가슴을 두드렸다. “우리가 비분강개만 해서 쓸 데 있는가? 공부를 하세, 공부를” 하고 인촌은 옆에서 고하를 달래는 것이었다.⁴¹⁾

인촌의 전기도 다음과 같이 비슷하게 대비하고 있다.

두 사람은 성격이나 생활 태도가 서로 대조적이었다. 인촌은 착실한 학구파였고 성실한 현실주의자였으나 고하는 공부보다는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우국의 정을 토로하는 데 급했고 이상주의자였으며 비분강개파였다. 그는<皇城新聞>과<大韓每日申報>등의 사설 같은 것을 오려가지고 있었는데 을사조약을 통박한 <是日也放聲大哭>같은 글을 읽고 또 읽으며 눈물을 머금은 것이었다. 그때마다 인촌은 비분강개도 중요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실력을 쌓기 위해 착실히 공부할 때라며 그의 비분을 위로했다.⁴²⁾

여기서 한 가지 주목되는 점은 고하가 신문의 사설에 친숙해 있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당시의 지식인 청소년들은 대체로 신문 애독자들이었고 <皇城新聞>주필 張志淵이 쓴 사설

39) 위와 같음, 28쪽

40) 《인촌 김성수》, 48쪽

41) 《고하 송진우 선생전》, 28-29쪽

42) 《인촌 김성수》, 48-49쪽

<是日也放聲大哭>은 비단 지식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을사조약에 분개하는 온 백성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러나 신문의 중요성에 대한 고하의 인식은 남달랐던 것 같다. 그는 이미 항일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신문이 있어야 한다는 데 착안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때 “정치를 하자면 신문이 따라야지, 날카로운 필봉을 어찌 칼로써 당하겠소? 총으로 당하겠소? 글은 만인을 웃기고 울리고 죽이고 살릴 수 있지”라고 말하곤 했는데, 돌이켜 생각건대, 신문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뒷날 <東亞日報> 창간에의 적극적인 참여와 <東亞日報>를 통한 민족운동 전개로 이어졌다고 하겠다.

비록 새 학문의 연마를 통해 실력배양의 길을 닦고 또 그것을 통해 국권의 회복에 이바지하겠다고 결심했던 터였지만, 일제의 침략상이 점점 가혹해지고 있는 위기 상황을 매일매일 체감하면서 그리고 의병투쟁의 전통이 강한 창평의 현장적 분위기 속에서, 비분강개가 체질화되어 있던 고하에게 영학숙의 생활은 답답했을 것이다. “나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의 물음을 자주 물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른바 自己正體의 위기를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여기서 고하가 취할 수 있는 길이란 우선 ‘탈출’이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른 길이 열려 있던 것도 아니었다. 그의 표현대로 “아무래도 우물 속일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벗어나 천천히 다음의 목적지를 찾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인촌도 “고하라는, 기개와 포부와 시골에 묻어 두기에는 아까운 친구를 하나 얻은 것”을 보람으로 치부하면서 고향인 전라도 古阜郡 富安面 仁村里, 오늘날의 전라북도 고창군 鳳岩面 인촌으로 돌아갔다.

4 靑蓮庵에서의 공동 결심

영학숙을 떠나 집으로 돌아온 때로부터 얼마 동안의 기간에 고하가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전혀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국운이 계속해서 쇠미해 가던 시점이었기에 그는 例의 비분강개 속에 시국을 관망하며 세월을 보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해가 바뀌어 1907년 丁未년이 되었다. 고하는 친구를 찾기로 결심하고 인촌의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 무렵 인촌의 집은 오늘날의 전라북도 技安郡 苗浦面 苗浦里로 이사한 터였다. 줄포는 줄포만 건너편에 있는 좋은 항구였다. 群山이나 木浦가 개항하기 이전이어서 줄포항은 물산의 집산지인 동시에 외래품의 수입 창구여서 일본 상인들의 내왕도 잦았고 변화했다.

고하의 예상과는 달리 인촌은 집에 없었다. 얼마 전에 같은 군의 山內面 石浦里에 있는 來蘇寺의 靑蓮庵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는 아들을 통해 이미 이름을 알고 있던 인촌의 아버지로부터 ‘극진한 어른 대접’을 받고는 곧 청련암을 찾았다. 新羅의 惠丘頭陀가 지었다는 이 절은 바로 앞자락에 바다를 끼고 울창한 산골짜기 속에 자리잡고 있어 경치가 아주 아름답고 그윽했다. 청련암은 내소사 경내를 지나 역시 울창한 숲으로 장관을 이룬 골을 따라 가파른 세봉 [細峯]의 중턱에 있는 암자로, 높은 청마루와 아름드리 기둥과 널찍한 부엌과 커다란 아랫방과 옷방이 달려 있는 기와의 고가였다.⁴³⁾

고하는 책을 읽고 있는 인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인촌은 물론 반가워 했다. “진우, 참 잘 왔네.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사람과 자네 이야기를 했었지” 하면서 옆의 한 젊은이를 가리켰다. 그는 芹村 白寬洙였다. 부안군 興德面 출신으로 고하보다 한 살 위였고 인촌보다 두 살 위였다. 근촌의 집안 어른들과 인촌의 집안 어른들끼리도 우의가 두터운 사이였다. 고하

43) 위와 같음, 53-54쪽

는 근촌에게 친밀감을 느꼈으며 세 사람은 십년지기처럼 의기가 상통하게 되었다. 이들의 생활을 《고하 송진우 선생전》은 이렇게 묘사했다.

셋은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다. 따로이 선생을 모시지 않고 그들은 전에 배운 한학과 영어를 공부하며 틈틈이 산에 오르기도 하고 내에 내려가는 것으로 가장 큰 즐거움을 삼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과는 하루 한번씩 산정에 올라서 멀리 서해를 바라다보며 황혼에 붉게 물드는 수평선을 바라다보는 것이었다. 차츰 스러져 바다에 가라앉는 해는 그대로 대한제국이었다. 을미사변, 을사5조약 등 잇달아 일어난 사건들은 모두 기울어져 가는 조선조의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산 위의 조망이 싫어지면 그들은 내를 찾았고 폭포를 찾았다. 고하는 가끔 폭포 밑의 바위에 앉아 “이런 못난 인간들이 살아서는 무엇 하느냐”고 통곡을 하기도 했다. 잠 못 이루고 었치락뒤치락하는 밤도 많았다. “이를 어쩔 것인고…” 누웠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방을 뛰쳐나가는 것은 언제나 고하였다. 뛰쳐나가면 산마루를 오르내리다 밤이 새야 돌아왔다.⁴⁴⁾

여기서도 우리는 비분강개형의 고하를 보게 된다. 인촌의 전기도 이 대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바다에 가라앉는 해를 보며 “아 마치 대한제국의 마지막 몸부림 같구나”라는 탄식은 고하가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⁴⁵⁾

고하가 인촌 및 근촌과 더불어 청련암에서 공부하고 있던 어느날 李儒열사의 분사 사건이 전해졌다. 1907년 6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열리자 고종은 이준과 李相高과 李瑋鍾 등 3인의 밀사를 보내 을사조약의 불법성을 폭로하게 하였다. 그들은 우선 회의 참가를 요청했다. 그러나 일제의 적극적인 방해에 열강의 외면이 겹쳐 실패하자 이준은 7월 14일 분사하고 만 것이다. 이 사건을 들은 고하는 문자 그대로 망연자실하여 하늘만 쳐다볼 뿐이었다. 그러다가는 “으으응” 하는 맹수의 신음과 같은 소리로써 분노를 나타내곤 하였다. 이때의 세 소년의 모습을 그의 기존 전기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배워야지” 언제나 고하의 흥분을 쓰다듬어 주는 인촌의 말이었다. 그 날은 이러한 말도 고하의 불붙는 가슴을 식혀 줄 수 없었다. […] 조금만 더 흥분이 된다면 옆 사람을 그대로 둘 것 같지 않았다. 냉철하고 의지적인 인촌도 참다못해 고하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근촌도 울었다.⁴⁶⁾

커다란 절망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고하는 곧 크나큰 희망을 얻게 되었다. 그의 뒷날의 회고로는 “암흑천지가 샅시간에 확 밝아진 것 같았다” 자신의 목숨을 초개처럼 버려 나라의 은혜에 갚는다는 一死報國의 애국자가 나왔다는 사실로부터 “이제부터는 우리나라도 바로 잡힐 때가 있을 것” 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핑계 삼아 일제가 고종으로 하여금 황태자 純宗에게 양위하게 했을 때 고하는 땅을 치고 울지 않을 수 없었다.

고하의 눈앞에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 일제는 곧바로 제3차 한-일협약 곧 정미7조약을 맺게 하여 조선이 주권을 사실상 형해화한 데 이어 군대를 해산시킨 것이다.

44) 《고하 송진우 선생 전》, 30쪽

45) 《인촌 김성수》, 55쪽

46) 《고하 송진우 선생전》, 31쪽

이에 맞서 의병운동이 다시 불붙었으며, 1908년에 들어서면서는 더욱 거세졌고 그 기세는 1909년까지 계속됐다. 이때 의병운동은 조선 8도에서 모두 일어났지만, 특히 호남지역에서 제일 강했다.⁴⁷⁾ 고하의 집안을 떠났던 스승 기삼연이 다시 기병했다가 일제에게 처형되고 만 때가 바로 이때이며 창평의 고씨들이 특히 고광순의 집안이 의병을 일으켰다가 宗宅이 불태워지는 참변을 당했던 때가 바로 이때이다.

“가슴을 두방망이치는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고하는 마침내 일본 유학을 제의했다. “어찌 하필 일본 유학인가?”라는 인촌과 근촌의 물음에 고하는 이렇게 답변했다.

적을 치자면 적을 알아야 한다는 이치에서지. 그놈들에게 지지 않으려면 먼저 그놈들을 알 필요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놈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을 생각해서 놈들의 앞을 질러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보게. 우리는 정말 어리석었네. 이불 안에서 활개치듯이 앉아서만 큰 소리를 했지. 우리가 무엇을 했단 말인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들어앉아서 무엇을 알겠는가. 산에서 내려가세. 이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들리는 소문에 비분강개하여 보았자 나라가 다시 서는 것도 아니지 않나. 자, 용기를 내세, 용기를. 이제는 적의 심장을 파고 들어가세.⁴⁸⁾

열변을 토하고 난 고하는 인촌과 근촌의 결심을 들을 것 없이 이튿날 아침 짐을 꾸려 손곡리 집으로 돌아왔다. 인촌과 근촌도 고하의 뒤를 따라 하산했다. 고하는 곧 새 학문에 이해가 깊은 아버지의 도움 아래 일어 교사 魏啓厚를 찾아 제1단계의 일어 공부를 시작했다. 고하의 열의를 확인한 아버지는 어느날 고하에게 서울로 가서 漢城敎員養成所에 입학해 일어를 비롯한 새 학문을 본격적으로 공부하도록 권유했다. 이무렵 고하의 집안은 재정적으로는 기울고 있었다. 갑오농민전쟁 때 패산한 농민군 가운데 일부가 화적떼로 변하여 부호의 재물을 털거나 또는 조상의 유골을 파내어 놓고 흥정을 하는 따위의 못된 짓을 하는 일이 있었는데, 고하의 집안도 이런 일을 몇 차례 겪은 뒤 수백석 추수한다는 가산이 기울게 되었던 것이다.

5 도쿄로 떠나다

여비와 식량을 마련한 고하는 우선 줄포로 인촌을 찾았다. 이 무렵 인촌은 근촌과 함께 군산의 錦湖學校에서 새 학문을 공부하고 있었다. 인촌은 특히 서울의 정치 계몽단체인 大韓協會 파견원으로 主權在民思想 또는 민권사상을 가르치던 韓承履에 경복하고 있던 터였다.⁴⁹⁾ 그러나 다행히도 잠시 줄포에 돌아와 있었다. 마침 錦山郡守로 발령받은 洪範植이 인촌의 아버지의 초청으로 당시 도쿄의 다이세이(大成)중학생이던 아들과 함께 줄포를 방문하게 되어 안내역을 맡았기 때문이다. 洪範植은 경술년 국치 때 자결하고 마는데 그 아들이 뒷날 소설 《임격정(林巨正)》의 작가로 유명해지는 碧初 洪命憲다.

고하는 이때 상투를 자르고 있었다. 근촌도 자르고 있었다. 인촌은 여전히 결발하고 있었다. 자신의 단발에 놀라워하는 인촌에게 고하는 일본 유학을 단행하자고 권유했다. 인촌은 기다렸다는 듯이 찬성했다. 그러나 문제는 집안의 반대였다. 근촌 역시 집안의 반대에 직면

47) 이 점에 대해서는 강제연, 앞의 책, 316-324쪽

48) 《고하 송진우 선생전》, 32-33쪽

49) 인촌에 대한 한승리의 영향에 대해서는 《인촌 김성수》, 57-59쪽

해 있었다. 방법은 달아나는 것뿐이었다. 근촌은 주저했다. 할 수 없이 두 사람만 도일하기로 했다. 다행히 한승리 선생이 힘껏 도와 두 사람의 도항증을 만들어 주었다. 떠나기 전날 인촌도 상투를 잘랐다. 두 소년은 군산에서 화륜선 시라까와마루(白川丸)을 타고 일본 유학의 길에 올랐다. 1908년 11월의 어느날로 고하의 나이 만 18세 때였다. 바로 이 달에 崔南善은 잡지 《少年》을 창간했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고하와 동갑인 六堂 崔南善은 만 열네살 때이던 1904년에 제1회 특과 유학생 단장으로 도쿄에 가서 府立第一中學校를 거쳐 와세다(早稻田)대학 고등 사범부에서 지리학과 역사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학교의 한 행사에서 있었던 조선에 대한 모독 사건에 항의하여 1907년에 귀국한 뒤 민중교육에 뜻을 두어 新文館이라는 출판사를 열고 이듬해 늦은 가을에 우리나라 최초의 종합지를 냈다. 그는 출판물 “문명개화의 수단이자 그 자체”로 생각했던 것이다.⁵⁰⁾ 金允植 교수는 최남선의 그러한 발상, 그리고 뒷날 春園 李光洙도 취하는 그러한 발상을 “똑똑한 우등생이 [...] 무식한 열등생을 [...] 훈도하겠다는 투의 계몽주의적 발상 [...]이며 그것이] 육당-춘원류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비판했다.⁵¹⁾ 그는 1910년 10월에 朝鮮光文會도 창설해 계몽주의 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신문관과 광문회를 ‘1910년대 한국의 梁山泊, 한국의 아카데미아’로 키우는데, 뒷날 고하와 인촌도 도쿄 유학을 마치고 이곳을 찾는다.⁵²⁾ 이렇게 볼 때, 육당의 《소년》이 창간된 달에 고하와 인촌이 실력배양론의 입장에 서서 도쿄 유학의 길을 떠났다는 것은 상징적이기도 하다.

50) 趙容萬, <崔南善>, 동아일보사 신동아 편집실(편), 《한국 근대인물 百人選》(동아일보사, 1979), 253쪽. 인용된 부분은 金允植, 《李光洙와 그의 시대》 전3권(한길사, 1986), 제2권, 459쪽. 김윤식 교수는 최남선의 그러한 생각을 ‘착각’으로 단정했다.

51) 김윤식, 위와 같음

52) 위와 같음, 471쪽 및 475쪽

제2장 7년의 도쿄 유학과 실력배양론으로의 정착

제1절 고뇌 속의 첫번째 도쿄 유학 : 와세다대학 시절

1 錦城中學에서 수학하다

고하와 인촌을 태운 시라카와마루는 다도해를 지나 부산을 거쳐 일본 시모노세키에 도착했다. 고하는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고 인촌은 꽃자주빛 두루마기를 입고 있어서 많은 일인들의 관심을 모았다. 두 사람 가운데서도, 유난히 흰 두루마기를 입은 고하는 못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말이 통하지 않는 현실이었다. 이와 관련해 고하의 기존 전기는 이렇게 쓰고 있다.

고하와 인촌은 일인 군인 하나와 필담으로 의견 교환을 했다. 이쪽에서 ‘東京 何時着’이라고 쓴 즉, 그는 ‘明日 二時半 東京着’이라고 쓰는 것이 아닌가. 그 일인 군인의 주선으로 승차권을 샀다. 승차권은 필담으로 샀지만, 또 허기증을 극복하기가 몹시 힘들었다. 일어는 배웠다지만 통하지 않았다. 그런데 ‘벤또(도시락)’라고 부르고 다니는 것이 필시 밥인 듯하였다. 고하와 인촌은 도시락을 사기로 했다. 고하는 귀에 들리는 대로 ‘별똥’ 하고 일인 장사꾼을 불렀다. 일인 장사꾼도 ‘별똥’ 하고 도시락을 내밀었다. 일어의 첫 실험이 요 첫 실패였다.¹⁾

언어와 풍습이 다른 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흔히 겪게 되는 이러한 실수는 시모노세키에서 기차로 도쿄에 닿았을 때도 일어났다. 고하와 인촌에 얽힌 일화들 가운데 대표적인 보기는 ‘인력거 사건’이다. 인촌의 기존 전기는 이렇게 전한다.

도쿄의 신바시(新橋)역에서 내린 두 사람은 인력거를 타게 되었다. 인촌은 그래도 고하보다는 멧쟁이였다. 한양에 올라가 인력거를 본적은 있어서 인력거를 어떻게 타고 내리는가 썩은 알고 있었다. 인촌은 점잖게 발판을 밟고 올라가 좌석에 앉았는데, 고하는 처음 보고 처음 타는 인력거라 발판에 앉게 되었다. 발판에 앉으니 무거워서 인력거꾼이 끌 수가 없었다. 인력거꾼은 고하에게 좌석으로 올라가 앉으라 했다. 하지만 고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어 그냥 버티고 앉아 있었다. 답답해진 인력거꾼이 땅바닥에 글씨를 써 보였다. ‘上二等 下一等’-발판은 일등석이니 요금이 더 비싸고 좌석은 이등석이니 요금이 싸니까 이등석으로 올라가라는 말이었다. 차림새로 보나 뿔로 보나 가난한 청년들이니 요금 비싸게 받는다 하면 재빨리 뒷자석에 올라가 앉을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러자 고하는 인력거꾼을 한번 노려보고 근엄한 목소리로 나무라듯 우리말로 말했다. “그래 안다! 그래서 내가 일등석에 탄 것이다. 우리를 깔보면 안돼. 조선 사람이라고 우습게 안 모양인데 여기까지 와서 왜 이등석을 타고 간단 말이나? 우리는 일등 손님이지 이등 손님이 아냐!”²⁾

1) 고평송진우선생 전기편찬위원회(편), 《고하 송진우 선생전》(동아일보사 출판국, 1965), 36-37쪽. 이 책은 앞으로 《고하 송진우 선생전》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2) 최시중(편), 《인촌 김성수 :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동아일보사, 1985), 68쪽. 이 책은 앞으로 《인촌 김성수》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처럼 오기를 부리는 하였으나, 단 한 사람의 친지도 없는 도쿄에서 고하와 인촌이 우선 찾을 곳이라고는 한 군데뿐이었다. 그것은 군산과 줄포에서 잠시 시간을 같이 했던 다이세이중학생 벽초 홍명희의 하숙이었다. 벽초는 1888년생이었으므로 고하보다 두살 위였고 인촌보다 세살 위였다. 충분히 서로 어울릴 수 있는 나이였다.

고하와 인촌에게 벽초는 사립 세이소꾸(正則)영어학교에 입학할 것을 권고했다. 1889년에 개교한 이 학교는 이름은 영어학교이지만 수학도 가르치면서 중학교 편입을 지도하기 때문에, 게다가 수업료가 싼 편이어서 조선에서 처음 유학온 학생들이 으레 거치는 곳처럼 되어 있었다. 고하와 인촌은 벽초의 하숙에 머물며 세이소꾸영어학교를 열심히 다녔다. 굳이 대비시킨다면, 고하는 수학을 잘했고 인촌은 영어를 잘했다. 서양이 발달한 것은 과학의 힘 때문이었으므로 수학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 고하의 주장이었고,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여야 하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를 잘 해야 한다는 것이 인촌의 주장이었다. 영어와 수학밖에 물론 일어도 공부했는데 개인 지도를 받기도 했다. 전반적으로 공부의 양이 무척 많아 잠을 아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³⁾

그들의 노력은 곧 보상되었다. 그들은 1909년 4월 역시 벽초의 권고에 따라 선택한 긴쥬(錦城)중학교 5학년에 편입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대학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었다. 이 학교는 1880년에 세워진 사립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맹목적인 공부벌레일 수는 없었다. 특히 고하의 경우, 비분강개는 그의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따라서 국내외 정세의 동향을 신문을 통해서나 傳言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방과 후에 헌 책방을 뒤지며 사상관계 서적을 찾는 일 역시 빼 놓을 수 없는 일과였다.

긴쥬중학교에 입학한 때로부터 반 년이 지난 1909년 10월 26일 저녁에도 고하는 헌책방에 있었다. 갑자기 신문 호외 소리가 요란스럽게 들려왔다. 웬만한 사건이 아니면 호외를 내지 않던 시절이므로 고하는 거리로 뛰쳐나갔다. 청사에 길이 빛날 민족의 대영웅 安重根 의사가 국적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만주 하얼빈 역두에서 사살했다는 보도였다. 미칠 것만 같이 기쁜 그는 한 장의 호외를 손에 들고 하숙으로 달렸다. “됐어, 됐어, 잘했어”-고하는 방안을 빙빙 돌며 이렇게 너고 또 너었다. 그의 공식 전기의 표현을 빌리건대, “고하는 마치 자기 자신이 이토의 가슴에 총탄을 퍼부은 사람처럼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았다”⁴⁾

감격에 찼던 고하의 얼굴도 곧 본래의 얼굴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 조선사람들에 대한 일인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길에서도 학교에서도 일인들은 매서운 눈초리로 노려보기도 하고 일부러 트집을 잡느라고 툭툭 치기도 했다. 우리에게 큰 원수였지만 그들에게는 ‘가장 위대한 정치가’였기 때문이다. 1841년에 태어나 정치가로 성장한 그는 메이지(明治) 유신 뒤 메이지 헌법을 기초하고 초대 국무총리가 되었으며 일본 의회정치의 기초를 닦았다고 하여 일본 국회 안에 지금까지도 동상이 서있고 일본 지폐에 지금까지도 초상이 나오고 있음에 비추어 그의 피살이 일본사람들에게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아. 놈들의 눈이 달라졌어. 성수도 조심하게. 이런 때일 수록 어엿해야 해. 떡 버티어야지. 비굴하게 보이다간 되레 치이지. 약하고 못생긴 놈들이란 으레 약한 자한테 강하려 들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법이니까” 잠을 이루지 못해 인촌 쪽으로 돌아누우면서 고하는 그렇게 말했다. 실제로 고하는 승리자의 위엄을 지켰다. 그의 공식 전기의 표현을 빌리건대, “학교에 가서도 군자의 위풍이 있었다. 일인 학생들이 모여서 수

3) 위와 같음, 66쪽

4) 《고하 송진우 선생전》, 38쪽

군대다가도 고하가 가면 쓰윽 비키었고, 고하를 훑쳐보던 선생도 눈이 마주치면 얼굴이 붉어져서 외면을 했다”⁵⁾

그러던 어느날 일인 학생 하나가 마침내 고하에게 도전했다. 이때의 일을 그의 기존 전기에는 이렇게 쓰고 있다.

“송군은 이번 안중근 사건을 어떻게 보는가?” 모두가 긴장이 되어 숨을 죽였다.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네” 이 대답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잘한 이유를 설명해 줄까? 간단하지. 우리의 안선생은 조선사람이야, 조선사람이 조선사람의 도리를 했으니 그보다 더 잘한 일이 또 있겠는가. 일본인도 일본인 도리를 다했을 때 그를 받들듯이, 나도 같은 이론에서야. 이의가 있으면 말해 보게” 일인 학생들은 달아나 듯 피하기 시작했다. 고하의 당당한 태도에 질려서 흩어졌다. “기미와 예라이 (그대는 장하다)” 그 중의 한 일인 학생은 고하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이었다.⁶⁾

비록 안중근 의사의 의거가 있었고 그 의거로 말미암아 조선민중의 항일투쟁 열기가 다시 한번 타올랐다고 해도 이미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대한제국의 회생이란 불가능해졌다. 그 이듬해 1910년에 들어서서는 그 임종이 임박해졌음을 누구나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추세는 달리 표현한다면 조선에 대한 일제의 침략이 점점 깊고 넓게 노골적으로 진전되는 경향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한 보기가 1910년 3월의 임시토지조사국 개설이었다. 1905년의 을사조약에 따라 統監府를 설치한 다음 대한제국에 강요하여 같은 해에 일본인 측량기사를 초빙하여다가 조선인 기사들에게 측량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대구와 평양과 전주에 量地出張所를 설치하여 기술요원을 양성해 왔던 일제가 조선의 땅을 실질적으로 완전히 장악하기 위한 예비조사 기구로 임시토지조사국을 설립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⁷⁾

고하는 이제 망국이 눈앞에 닥쳤음을 직감했다. 실력배양론이고 자강운동이고 더 따져 볼 여유가 없다고 느꼈다. “이미 장기는 진 장기야. 진 장기를 아무리 붙들고 있으면 무얼 해”-이렇게 되뇌이며 짐을 꾸렸다. 귀국할 생각이었다. 그러자 인촌이 “진우, 다시 한번 생각하게. 우리의 약속이 백 살 아니었나. 백 살의 5분의 1만을 살고나서 우리가 패배할 수는 없지 않나. 자, 진정하게”하며 만류하고 나섰다. “약속이 백 살”이란 언제인가 고하가 “성수, 우리가 백 살까지 살 수가 있을까? 백살까지만 살 수 있다면 왜놈들의 머리를 밟고 올라서서 호령할 때가 있을 거야”라고 하던 말에서 원용한 것이었다. 친구들도 한사코 말렸다. 그들은 “진우의 심정은 잘 아오. 그러나 어찌 진우뿐이오? 우리도 다 같소. 다 같은 심경이요. 우리는 싸워야 하오. 싸우지 않고 손을 들 수 없지 않소. 우리는 오직 배우는 것 뿐이요. 먼저 배워서 가르쳐야 하오. 그것만이 잘 싸우는 방법이고, 또 이길 수 있는 도리가 아니겠소. 송군이 돌아간다면 우리도 돌아가겠소. 같이 갑시다” 라면서 고하의 손을 잡았다. 고국에서 유학은 지 얼마 안 되는 김병로도 말렸다. 김병로는 담양의 창흥학교 출신이어서 말하자면 고정주 선생 아래 수학한 동문이었던 셈이다. 고하는 마침내 짐을 풀었다. “내가 졌소. 내가 부족했소. 역시 우리는 배워야 하오”-이렇게 대답하며 다시 공부에 전념했다.⁸⁾

5) 위와 같음, 39쪽

6) 위와 같음, 39-40쪽

7) 愼鏞廈, 《조선토지조사사업 연구》(지식산업사, 1982), 19쪽

8) 《고하 송진우 선생전》, 41쪽

2 와세다 고등예과 시절

목표는 우선 와세다(早稻田)대학 입학이었다. 와세다대학은 메이지(明治)정부의 총리대신 직인 筆頭參議를 막 사직하고 立憲改進黨을 창당한 오오쿠마 시게노부(大熊重信)에 의해 1882년에 세워진 東京專門學校에서 비롯되었다. 개교 20주년이 되던 1902년에 와세다대학으로 개편하고 대학부, 전문부, 고등예과, 연구과 등을 두었으며 이듬해에 상과예과와 고등사범부를 증설했다. 이 무렵의 총장직은 설립자 오오쿠마가 맡고 있었다. 오오쿠마는 의회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在野精神’ 곧 野人精神으로 상징되는 비판정신과 반골정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래서 와세다에서는 정치가와 언론인이 많이 배출되었다. 조선인의 유학은 도쿄전문학교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1897년에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한 洪奭鉉이 와세다대학 조선인 유학생 제1호이고 1898년에 법률학과를 졸업한 李儒이 제2호이며, 고하와 인촌이 입학하는 해인 1910년까지의 조선인 졸업생은 모두 24명에 이르렀다. 그 뒤에도 유학생이 끊이지 않았는데, 앞 章에서 소개했듯이, 최남선도 이 학교에서 수학했다. 이들은 1907년 11월에 와세다대학 조선유학생동창회를 결성하고 “조국의 근대화를 통해 제국 열강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수호한다”는 사명감 아래 단결해 있었다.⁹⁾

고하와 인촌이 이 학교를 목표에 두었던 중요한 까닭은 아마도 이 학교의 학풍이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 와세다대학의 조선인 선배들의 우국지사적 면모에 이끌렸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고하와 인촌은 와세다 입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했다. 그런 가운데도 고하는 강연만 있다면 쫓아다녔다. 새로운 사조와 세계정치의 동향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이 무렵 민주주의와 민권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던 탓인지 정치적 대중집회에는 꼭 방청하려고 했다. 아니, 고하에게는 선천적으로 대중집회로 상징되는 정치에 대한 열정이 전신에 흐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1910년 봄 고하는 인촌과 함께 와세다대학 고등예과에 응시했다. 영어 시험관을 맡은 교수는 유명한 아베 이소오(安部磯雄)였다. 1865년에 태어난 그는 26세 때 기독교와 사회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미국 하트포드신학교에 입학해 3년 뒤에 졸업하고는 독일의 베를린대학교에서 1년 더 공부한 뒤 귀국한 당대의 지도적 지식인이었다. 1897년에 교토의 기독교계 학교인 도시샤(同志社)대학의 교단에 섰다가 1899년부터 도쿄전문학교로 옮겼고 이 학교가 와세다대학으로 확충된 뒤에도 물론 그대로 봉직했다. 1900년에는 日本社會主義協會의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1901년에는 일본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인 社會民主黨 창당 때 그 중심인물로 창당선언을 기초해 사회주의 운동의 제1인자로 신뢰받고 있었다. 1907년에는 창간된 <平民新聞>에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해설하는 글을 연재했는데 이것이 일본에서는 최초의 《자본론》 해설이었다. 그는 그 뒤 社會民衆黨이 창당되면서 그 위원장으로 뽑혔고 1928년에 실시된 제 1회 보통선거에서 중의원 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1932년에 사회민주당이 갈라질 때 社會大衆黨을 창당해 그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1945년 일본이 패전한 뒤에는 日本社會黨의 결성을 주도해 그 고문이 되었고 1949년에 84세의 고령으로 죽었다. 이러한 대가의 질문에 적당히 넘어 갔던 것 같다. 지리 시험에는 티베트에 대해 쓰라는 물음도 나왔는데, 고하는 그저 “廣且大” 곧 “넓고 또한 크다”라고만 썼다.¹⁰⁾

대학에 진학해 공부하면서 고하는 유학생회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마침 만 스무 살 곧

9) 와세다대학 한국유학생회(편), 《와세다의 한국인 : 와세다대학 한국유학생 90년사》(한국문화사, 1983), 1-2 쪽 및 42-49쪽

10) 《고하 송진우 선생전》, 42쪽

성인이 된 터였다. 새로운 사조, 곧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등 각 부분의 새 지식을 열심히 받아들인 결과 고하는 새로운 예비지식인 또는 예비지도자로 자라났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이 일인이라는 고양이 앞에 설 호랑이로 크고 있다는 믿음마저 가질 수 있었다. 그의 자신감은 그가 인촌에게 한 다음과 같은 말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성수 보게. 왜놈들이 무어가 잘났어? 구미 문화를 받아들여 눈가림으로 제 민족을 속여 먹고 있지 않는가. 일본민족이 창위가 어디 있어? 성수, 그들에게서 지구력을 발견할 수가 있어? 시바이 즉 연극이란 말 참 잘 만들었던 말이야. 모두 시바이야. 정치도 문화도 교육도 모두 바닥이 보이지 않는가. 물이 깊어야 고기가 크지. 왜놈들에 비하면 우리 민족은 깊이가 있고 폭이 있고 지구력이 있어. 지구력이 있단 말이야. 우리 민족은 정치도 문화도 교육도 모두 바닥이 보이지 않는가. 물이 깊어야 고기가 크지. 왜놈들에 비하면 우리 민족은 깊이가 있고 폭이 있고 지구력이 있어. 지구력이 있단 말이야. 우리민족은 놈들보다 오랜 역사를 가졌어. 늦게 깨달은 것이 한이지만 한번 깨닫기만 한다면 그야말로 고양이 앞의 쥐결음이지. 우리가 지금 스물이니 백 살을 산다면 앞으로 80년이 남았어. 80년이라면 우리는 저희놈들의 8백년분을 해 치울 수 있어. 당파 싸움 당파 싸움 하지만 그것도 지구력이야. 지구력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패하는 법이지. 민족도 마찬가지로 전쟁도 그렇단 말이야.¹¹⁾

이처럼 고하는 민족의 지구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민족의 백년대계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역설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이미 흔히 민족의 백년대계로 일컬어지는 교육사업과 언론사업에 뜻을 두고 있었음을 느끼게 된다. 우리가 다음 章들에서 보게 되듯이 그는 자신의 생애의 거의 전부를 여기에 보내게 된다.

제2절 귀국시기에 수용한 機會論

1 망국의 슬픔 속에 귀국하다

지구력을 강조하면서 열심히 배울 것을 다짐한 그였지만, 1910년 경술년 8월 하순 마침내 이른바 합방조약 체결이 임박했다는 보도에 접했을 때는 절망감만이 온몸에 엄습해 왔다. ‘조국 없는 사나이’ ‘조국 없는 유학생’-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면서 이 현실이 꿈이기를 바랐으나 현실은 역시 냉혹한 현실이었다. 바로 그날 고하와 인촌의 하숙에는 유학생 몇몇이 모여 있었다. 그들의 분노와 좌절을 인촌의 전기는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

너무도 원통하고 충격을 받아서였는지 아무도 뭐라 입을 열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그들이 돌아가고 나자 이불을 뒤집어쓰고 고하는 어이어이 울었다. 그러다 미친 사람처럼 별똥 일어나는 것이었다. “이런 수치를 당하고 어떻게 산단 말인가? 놈들은 조국을 짓밟았어. 나라를 짓밟은 것은 바로 내 집을 짓밟은 것이고, 내 가족과 나를 짓밟은 것일세. 이 원수를 어떻게 갚으면 되지? 차라리 자결을 하는 게 낫겠어”¹²⁾

11) 위와 같음, 44쪽

12) 《인촌 김성수》, 70쪽

인촌의 전기에 따르면, “흥분한 고하의 태도로 보면 당장에라도 뛰어나가 東京川에 몸을 던질 기세였다” 인촌이 例의 준비론으로서 고하를 달랬다. 그러나 고하는 마음을 잡지 못했고 어느날 갑자기 사라지고 말았다. 간 곳을 아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고하의 성격을 잘 아는지라 모두가 불안에 싸였다. 갈 만한 곳을 전부 찾아 나섰으나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다. 한 마음 한 몸이라고 누구나 인정하던 인촌도 모른다고 하니 고하는 자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소문마저 나돌 정도였다. 그러나 그는 소리없이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었다. 이때 고하처럼 귀국하는 유학생들의 수는 적지 않았다. 김병로도, 그리고 인촌의 처남인 고광준도 귀국 했다.

고하가 친구들과 헤어질 때는 자결을 생각했었다. 그의 심경을 그의 기존 전기는 이렇게 쓰고 있다. “죽는 도리 밖에 없었다. 나라를 망치고 살 수는 없었다. 비록 나라 잃은 몸일지라도 더러운 땅에 묻히고 싶지는 않았다. 썩은 마음과 못생긴 몸뚱이일망정 조국의 흙 속에 묻히고 싶었다. 몇번이고 현해탄 세찬 물결을 내려다보았다. 그러나 역시 왜놈 원수의 발길이 잦은 이 창과도 죽을 곳은 아니었다”¹³⁾

고하가 부산에 도착한 것은 8월 24일이었고 군산에 닿은 것은 이를 뒤였다. 그날 저녁 손곡리 집에 당도했다. 허수아비 같은 몸으로 변변한 인사도 없이 안채로 들어갔다. 문을 첩첩이 닫아걸었다. 이른바 합방이 임박했다는 보도에 접한 이후 첫 소원이 죽음이었고 둘째 소원이 고국땅에 묻히는 것이었던 그로서는 이제 고국땅에 당도했음에 문자 그대로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의 험릿의 선택만이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만 사흘 동안 한 발자국도 문 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들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은 채 물만 자꾸 마시면서 杜門不出했다. 물론 어른들이 묻는 말에 대답도 없었다. “저 애가 웬 일인고” 하고 집안에서는 야단들이었으나 고하의 아버지는 짐작하는 바가 있어 책망하지도 않고 조심스럽게 바라보기만 했다.

8월29일 마침내 수치스런 이른바 합병조약에 조인이 되었다. 고하는 이날 처음으로 바깥 출입을 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우물에 가서 말끔히 세수를 하고 두루마기를 꺼내 입은 그는 산으로 올라갔다. 그는 선조의 산소에 성묘를 하고 얼마를 엎드려 울었다. 그러면서 그는 안중근 의사의 뒤를 따르기로 결심했다. 그리하여 의병으로 총을 잡았던 옛 스승 기삼연의 집을 찾았다. 기삼연은, 우리가 이미 살렸듯이, 이태 전에 처형을 당했기에 집에 있을 리 없었다. 이 사실을 비로소 알고 난 고하는 귀가하고 말았다.

2 知的 오디세이의 종결

아들 고하의 처절한 번뇌와 뼈를 깎는 행동을 묵묵히 관망해 온 아버지는 그제서야 입을 열었다. 부자의 대화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기 선생에게 갔더냐? 내 그러려니 했지. 네 생각도 잘 안다. 좋은 생각이야. 사내자식이 그만한 의기는 있어야지.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격하면 못쓰는 법이다. 침착해야지. 넌 혹 기선생과 의병이라도 일으켜 볼 생각이었는지는 몰라도 그것이 나라를 구하는 일은 아니다. 군대란 한 때의 흥분으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야. 계제가 있어야 해. 방방곡곡에 미리 연락이 되어 있고-연락만 되어 있으면 무엇 하나? 썩이와 호미만 들고서 지금 왜놈들 무기를 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런 무모한 짓은 나라를 구하는 길이 아니다” “그건

13) 《고하 송진우 선생전》, 46쪽

어째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훈계에 아들 고하는 반문했다 “어째 그러냐고? 용기를 아주 꺾어버리기 때문이지. 일어나라면 다 일어날 거야. 그러나 장대나 호미를 들고 나갔다가 몇 방 총소리에 골짜기처럼 쓰러질 것은 뻔한 노릇이야. 정말 나라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고 일어 설 사람들도 그런 꼴을 한번만 당하면 그 뒤엔 다시는 용기를 못낼 거야”¹⁴⁾

아버지의 가르침은 당대의 애국적 선비들이 지녔던 이른바 機會論이다. 우리가 앞의 章에서 이미 살폈듯이, 대한제국 말기의 국권회복 운동, 그 가운데서도 ‘실력배양론’ 또는 ‘민족자강론’은 그 전술의 하나로 기회론을 제시했다. 즉 “먼저 독립을 쟁취할 실력을 양성하였다가 국제정세의 변동을 기민하게 포착하여 국권 회복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성과를 획득한다”는 것이었다. 이 기회론을 愼鏞廈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다.

한말의 애국 계몽운동가들은 실력을 양성하면서 이 ‘기회’가 ‘전쟁’의 형태로 오리라고 예측하였다. 대표적 애국 계몽운동단체였던 新民會의 국권 회복운동 전략을 보면, (1) 일제의 식민 통치가 미치지 않는 만주와 노령 등 국외에는 독립군 기지를 창설하여 독립군을 창건해서 일제 정규군과 현대전으로 대결하여 승전할 수 있는 무력을 양성하고, (2) 국내에서는 교육 구국운동 등에 의해 청소년을 중심으로 실력 양성운동을 전개하여 민족 독립운동의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가, (3) 일본 제국주의가 더욱 팽창해 나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까운 시일에 중-일전쟁, 미-일전쟁, 러-일전쟁과 같은 대전이 휘말려들 때에는 이것이 일제에게 힘겨운 전쟁이 될 터인즉 이 때를 ‘기회’로 포착해서, (4) 국외에 설치한 독립군이 독립전쟁을 일으키어 국내로 진공해 들어오고 동시에 국내에서는 실력 양성운동의 결과인 국내 독립역량이 일시에 봉기해서 내외 호응하여 자력으로 국권을 회복한다는 것이었다.¹⁵⁾

아버지의 간곡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가르침에 고하는 생각을 돌렸다. 기회를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사리를 따져 타이르는 아버지의 가르침과 그 가르침에 따르는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기회론의 승계를 확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고하의 사상 형성의 배경과 그 기본 성격의 한 끝을 느끼게 된다. 혁명기의 혁명아적 젊은이의 특징은 아버지에 대한 저항과 거부로 나타난다. 고하보다 세 살 아래인 毛澤東이 자신의 혁명투쟁이 아버지에 대한 반감과 저항에서 시작되었다고 술회했던 것은¹⁶⁾ 정치가를 심리학적 입장에서 분석하려는 정치심리학 분야에 있어서 하나의 고전적 자료가 되고 있다. 또 제정 러시아시대의 혁명아적 젊은이들을 소재로 한 트루게네프(Ivan Trugenev)의 소설 《아버지와 아들》은 공감대가 끊어진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 사이의 간격과 갈등을 그리고 있다.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를 할 것 없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 시기의 혁명가들의 상당수는 아버지에 대한 저항과 아버지로부터의 일탈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여기서 아버지라고 할 때 그것은 물론 기존의 권위와 가치체계를 상징한다. 이렇게 볼 때, 고하는 역시 기본적으로 실력배양론 또는 민족자강론에 입각해 있는 선비인 아버지의 강력한 유학적 영향권 안에서 자신의 사상을 정립해 나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그가, 우리가 뒤에서 살피게 되듯이, 일관되게 우익적

14) 위와 같음, 48쪽

15) 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 연구》(을유문화사, 1985), 295쪽

16) E. 스노우(신홍범 譯), 《중국의 붉은 별》(두레, 1985), 126-129쪽

민족주의의 틀 안에서 민족운동과 정치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배경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일단 학업을 중단하고 한 겨울 내내 손곡리에 묻혀 지내며 마음을 정리한 고하는 잃은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방법은 학업을 계속하는 길밖에 없다고 단정하고 이듬해 곧 1911년 봄 다시 도쿄로 건너갔다. 죽음도 생각해 보았고 의병투쟁도 고려해 볼 정도의 심각한 번뇌를 거치면서 겪었던 고하의 知的 오디세이는 여기서 끝났다. 그는 이제 의병투쟁적 민족주의에 대한 미련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이 주는 심리적 부담감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으며 실력 배양론자 또는 민족자강론자로 확실하게 여물었다. 스스로가 부과한 사상적 시련 속에서 그는 새롭게 정형되었던 것이다.

제3절 적극적인 활동 속의 두번째 도쿄 유학 : 메이지대학 시절

1 메이지대학으로 전학하다

고하는 도쿄에 닿자마자 우선 인촌을 찾았다. “성수, 나는 딴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네. 과연 자네는 나보다 한 걸음 앞선 사람이야. 그러나 大器晩成이란 말도 있지 않던가. 하하하” 이렇게 말하며 하숙에 들어오는 고하를 보는 순간 인촌은 고하가 이미 ‘깊이 깨우친 사람’임을 직감했다. 첫째 고하는 일부러 꾸며도 명랑한 얼굴을 못짓던 위인인데 전에 보던 침울이 없어졌다는 점, 둘째 모든 거동과 태도가 깊은 哲理를 깨우친 사람의 그것이었다는 점, 셋째 고하는 일찍이 그렇게 명랑한 웃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는데 전과는 달리 탁 트인 웃음 소리를 낸다는 점 등등에서 그러한 변화를 느낀 것이다. 인촌은 “고마우이. 잘 생각했네. 우리는 일체의 기분과 일체의 감상을 극복해야 해. 감정에 지배될 시대가 아니야. 잘 말해 주었고 잘 웃어 주었어” 하면서 고하의 새로운 출발을 축복했다.¹⁷⁾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듯이, 고하는 와세다대학을 자퇴하고 메이지(明治)대학으로 옮겨 법과를 택했다. 메이지대학의 전신은 도쿄전문학교보다 한 해 먼저 창립된 메이지법률학교로 ‘權利 自由 獨立 自治’를 제창한, 말하자면 자유민권 운동의 전당이었다. 도쿄전문학교가 와세다대학으로 확충된 때로부터 꼭 한 해 뒤인 1903년에 메이지대학으로 확충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는데 졸업생 가운데 법조계 진출이 많은 것이 특징이었다. 와세다에서 메이지로 학적을 옮긴 것에 대해 그의 기존 전기는 “와세다를 반년이나 쉰 이유도 있었지만,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자는 데 있었다. 또한 이제부터 일인들과 싸우자면 새로운 정치나 법률을 이해하여야만 한다는 생각에서였다. 법을 이해하고 법을 교묘히 이용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고 쓰고 있다.¹⁸⁾ 이러한 생각은 당시 유학생들의 상당한 부분에게 공통적인 것이었던 것 같다. 뒷날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이 되는 김병로나 대한민국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되는 李仁이나 모두 “한 마디로 억울한 국민을 구해 보자는 의분에서” 법률을 공부했던 것이다.¹⁹⁾ 그러나 김병로나 이인이 모두 변호사 시험에 뜻을 두었음에 비해 고하는 달랐다.

2 유학생 단체들에서의 활동

17) 《고하 송진우 선생전》, 49쪽

18) 위와 같음, 50쪽

19) 이 점에 대해서는 출처 《街人 金炳魯 평전 : 민족주의적 법률가·정치가의 생애》(민음사, 1988), 50-51쪽

고하의 뜻은 교육사업과 언론사업에 있었고 그것들을 통한 광복운동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는 조직활동에 뜻을 두었다. 이 시대에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들의 회고록이나 전기가 수업 내용이나 공부하던 자세에 대해 꼭 언급하고 있음에 비해 고하의 회상록이나 전기는 이에 대해 사실상 완전히 침묵하고 있는 사실은 고하가 뜻을 어느 곳에 두고 있었나를 간접적으로 잘 말해 준다. 이 점과 관련해 그의 기존 전기는 이렇게 쓰고 있다.

과거의 고하는 별로 사귀는 일이 적었다. 스스로의 위치를 지키고 홀로 사색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는 되도록 나가지 않았다. 한마디로 고하는 고독을 즐겼었다. 그러나 고하는 반년 만에 성격 구조가 변한 판 사람이 되어 도쿄에 돌아간 것이다. 고하의 성격 변화에는 아버지의 훈계가 크게 작용했다. 그 첫 깨우침은 이제부터 광복운동을 하려면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조직을 갖자면 먼저 인재가 있어야 했다. 인재를 구하자면 널리 친구를 사귀어야 했다. 이제부터의 광복운동은 과거의 의거관념에서 벗어나야 했다. 첫째, 한 두 사람 또는 한 두 단체의 광복운동이 아니라 전 민족적인 집단운동이라야 할 것. 둘째, 그 어떤 한 부분을 통한 광복운동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와 산업과 문화-이 각 부분이 병행해야 한다는 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육사업을 해야겠고 산업을 일으켜야겠고 동시에 금융기관과 신문과 출판기관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한 겨울 동안 손곡리 집에서 구상한 새로운 광복운동의 근본이념이었다.²⁰⁾

고하의 의견에 인촌은 물론 전적으로 찬성했다. 여기서 고하의 활동이 시작되었다. 자신이 꿈꾸는 방대한 사업을 추진시키자면 먼저 일본에 있는 조선 유학생들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고하는 유학생 친목회의 새로운 조직에 착안했다. 도쿄에 조선인 유학생친목회가 없지는 않았다. 그들이 단체를 조직한 것은 이미 1895년 4월로서 大朝鮮人日本留學生親睦會가 그것이다. 일본에서의 최초의 조선인 유학생단체인 이 친목회는 1895년 5월부터 1898년 4월까지 <親睦會會報>를 여섯 차례에 걸쳐 발간했는데 회원들 사이의 분쟁으로 같은 해에 해산되고 말았다. 이 단체에 이어 1898년 9월 帝國青年會가 발족했으나 1903년에 해산되었다. 1905년이던 유학생의 수가 580여명에 이르면서 많은 단체들이 나타났다. 서북학생들 중심의 太極學會, 경상도 학생들 중심의 洛東親陸會, 경기도 학생들 중심의 漢錦青年會, 전라도 학생들 중심의 湖南學會, 관비생들만의 단체인 大韓留學生俱樂部와 大韓共修會, 그리고 강습소 활동을 기반으로 하여 조직된 太極學會와 光武學會와 同寅學會 등등이 그것들이다. 1906년 9월에는 在日本東京大韓留學生會가 조직되어 <大韓留學生會學報>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때부터 통합운동이 일어난 1908년 2월에는 大韓學會가 발족했고 1909년 1월에는 일본의 모든 조선인 유학생이 참가한 大韓興學會가 설립되었다.

이러한 단체들을 통해 유학생들은 국내외의 민족운동을 성원하거나 자신들의 항일의식을 북돋우기도 했다. 일제에게는 눈에 가시같은 존재가 아닐 수 없었다. 그리하여 이른바 합방을 강행하면서 유학생단체들을 강제로 해산시켰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조선총독부로 하여금 일본에 유학한 학생들을 통제할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조처마저 마무리하도록 했다.²¹⁾

고하가 추진한 것은 따라서 이미 있었던 유학생단체들을 부활시키고 활성화시키는 일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망국의 한을 씻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들이 민족정신 아래 단결해 활동할

20) 《고하 송진우 선생전》, 50쪽

21) 와세다대학 한국유학생회(편), 《와세다의 한국인》, 42쪽, 45-50쪽; 韓時俊, <국권회복 운동기 일본유학생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2집 (1988), 34-51쪽

수 있는 조직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던 많은 유학생들이 공명하여 1911년 5월에 朝鮮留學生親睦會를 결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이듬해 3월에 이것마저 해산시켰다. 고하와 동지들은 여기에 굴하지 않고 재조직에 나섰다. 마침 도쿄에는 유학생들의 수가 늘고 있었다. 경술국치를 당하면서 비분강개 속에 귀국했던 유학생들도 다시 돌아오고 있었고, 광복의 실마리를 ‘새 학문’ 연마에서 찾아야겠다는 결심으로 일본을 찾는 유학생들이 많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무렵의 유학생을 대표하는 이들이 海公 申翼熙와 雪山 張德秀이다. 1894년 출생 동갑인 두 사람은-따라서 고하보다 네 살 아래가 된다-1912년에 와세다에 입학했던 것이다. 고하는 이들과 친교를 맺는 한편 두살 아래의 幾堂 玄相允, 호남 동향인 無松 玄俊鎬, 그리고 조소앙 및 조만식과의 교우도 넓혀 나갔다. 현상윤과 현준호는 와세다에, 조소앙과 조만식은 메이지대학 법학과에 재학하고 있었다. 또 도쿄대학에 재학하는 호남 동향인 朗山 金俊淵과의 교분도 두터이 해나갔다. 이러한 노력의 바탕위에서 1912년 4월에 朝鮮留學生聯合親睦會가 결성되었다. 김병로가 회장직에 해당하는 간사장직을 맡은 이 단체는 문자 그대로 道別 유학생친목회의 연합체였는데, 여기에 참가한 7개 지역별 단체는 전라도의 湖南茶話會, 경상도의 洛東親睦會, 함경도의 鐵北親睦會, 평안도의 溟西親睦會, 황해도의 海西親睦會,畿湖의 三漢俱樂部, 강원도의 嶺友俱樂部 등등이다.²²⁾ 이 가운데 湖南茶話會, 정식 명칭 湖南留學生茶話會는 고하가 회장직을 맡았다.

조선유학생연합친목회의 총무로, 호남유학생다화회의 회장으로, 고하의 생활은 매우 바빴다. 그는 유학생들의 편의를 피해 주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녀야 했다. 이른바 함방 이후 대한제국 조정이 파견한 관비 유학생에 대해 일본 문부성이 관비지급을 중단하고자 했을 때 문부성을 찾아가 강경히 싸워 받아낸 장본인이 고하였다. 그는 또 유학생들을 상대로 민주주의 이론을 강연하기도 했다. 이때의 그의 면모를 함께 메이지대학을 다녔던 이인은 “[유학생 사회의] 리더격은 고하 송진우로 많은 유학생이 그로부터 자유독립 사상의 깨우침을 받았다. 고하는 언제 보아도 포용력이 있고 은근한 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마음속으로 걸물이라 생각했다”고 회상했다.²³⁾

한편 국내에 도울 일이 있을 때도 발벗고 나섰다. 그 한 보기가 서울의 畿湖學校를 도운 일이었다. 이 학교가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할 것 같다는 소식에 접하자 그는 도쿄를 중심으로 한 일본 유학생들에게 기부금 모집을 호소했는데 현준호가 거액의 돈을 내놓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학생들로부터도 뜻밖에도 호응이 커서 많은 자금이 모이자 이것을 서울에 전달한 것이다.²⁴⁾ 이웃 중국의 유학생들과 횡적으로 긴밀한 연락을 갖는 일도 결코 잊지 않았다. 조국의 광복이 조선 사람만의 힘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려깊은 생각에서였다. 그래서 1911년의 辛亥革命과 1912년의 중화민국 수립 이후 혼미해진 국내 정세 때문에 초조해 하는 중국 유학생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들이 지금은 저래 보여도 제 나라로 가서는 다 한 자리 할 사람들이고 우리 독립운동에 다 도움이 될 사람들이야” 하면서 그들과 손을 잡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유학생들의 단체를 통한 고하의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가 다음 章에서 보게 되듯이, 뒷날 도쿄에서의 2·8 독립선언 및 3·1 독립운동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작은 기초가 된다.

在日本東京朝鮮留學生聯合親睦會는 그 해 10월 在日本東京朝鮮留學生 學友會로 확대 발전했다. 학우회는 1914년 4월에는 자신의 대변지로 《學之光》이라는 잡지를 창간하는 등

22) 와세다대학 한국유학생회(편), 《와세다의 한국인》, 50쪽
 23) 李仁, 《반세기의 증원》(명지대학 출판부, 1974), 22-23쪽
 24) 《고하 송진우 선생전》, 51쪽

상당히 활발하게 일했다. 연 2회 정도 발간된 이 잡지는 계몽적이면서 민족적인 내용이 많아 유학생 사회에서는 물론 국내에서도 평판이 높았다.²⁵⁾ 이에 따라 고하의 생활은 더욱 더 바빠지게 되었다. 이처럼 유학생 시절에 이미 ‘정치활동적’ 성향을 두드러지게 보였고 실제로 뒷날 정계에서 큰 지도자로 활약하게 되는 그를 보고 도쿄 시대부터의 한 후배가 대학 때 왜 정치학과를 택하지 않고 법학과를 택했느냐고 물은 일이 있다. 이에 대해 그는 “이 사람아, 정치는 고등 상식이야”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대답하기는 하였지만, 고하는 뚜렷한 유교적 가치관 위에 서서 정치에 임하게 되고 매사를 처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 무렵에 그가 지녔던 생각의 한 끝을 보여 주는 자료가 있다. 1912년 4월1일에 창간된 《學界報》 제1권 제1호에 기고한 <인생의 가치>라는 짧은 글이 그것이다. 여기서 그는 하늘이 인간에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완전 무결한 자격’을 주었으나 인간이 잘못 쓰는 경우가 많음을 경고하면서, 공자가 최고의 가치로 내세운 仁과 孟子가 至善의 가치로 내세운 義를 지킴으로써 하늘이 준 것에 맞게 살아나갈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仁義論을 자신의 모든 행위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었음을 알게 된다.

고하의 仁義論은 才勝德薄에 대한 경계로 이어졌다. 재주는 좋으나 덕이 낮은 사람은 크게 쓸 그릇이 못된다는 뜻이었다. 그래서 그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그릇이 적어 놓으면 재주에 지고 만다. 칼로 이긴자는 언제인가는 칼에 패하고 재주로 이긴 자는 또 언제인가는 재주에 패한다. 자기 피를 꺾는 피가 없으면 제 피에 넘어간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곤 했다. 자신이 이미 스무살 때에 정한 이 신조를 그는 평생토록 지켰다. 이 좌우명에 비춰서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쓰고 거래를 했다. 우리가 앞으로 살필 중앙학교를 비롯한 교육사업, 동아일보사를 중심한 문화사업, 그리고 韓國民主黨을 중심한 정치생활-이 모든 일에서 그러했다.

이처럼 의연한 인생관을 지닌 채 바쁘게 지내는 고하 자신의 생활은 곤궁했다. 그의 공식 전기가 회상했듯이, 그는 사시사철 피죄죄하게 때 묻은 모멘가스리 곧 무명으로 지은 일본식 옷을 입고 지냈으며 주머니가 늘 비어 있었다. 그러나 그 기개만은 높아서 천황의 宮城을 가리키면서 나중에 우리가 박물관으로 쓸 집이니까 잘 위해 두어야 한다는 등,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는 등, 큰 소리로써 친구들을 격려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태도며 걸음걸이가 의젓하기만 한 고하에 대해 주변에서는 子路의 풍격이 있다고 칭찬했다. 자로는 다름아닌 공자의 제자로 이른바 十哲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혔는데 효성이 지극하고 용맹했으며 정계에서 두각을 나타냈던 이다. 고하를 자주 만나는 친구들은 그에게서 현명하면서도 용기있는 장자의 분위기를 느꼈던 것이다.

그러나 건강에는 한도가 있었다. 粗食에 과로가 겹쳐 졸업을 앞두고 이름모를 고열로 쓰러진 것이다. 그길로 귀국한 그는 湖南線 四街里 역에서 들것에 누워, 그 사이 손곡리 옛 집으로부터 이사한 담양군 水北面 南山里 집으로 옮겨졌다. 1914년 7월에 와세다를 졸업하고 귀국해 있던 인촌이 때로는 의원을 대동하고 때로는 양약을 지닌 채 문병을 왔다. 그의 문병과 격려는 그 자체로 큰 치료가 아닐 수 없었다.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되는 데는 한해가 걸렸다.

완쾌가 되지는 않았으나 꽤 버텨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그는 1915년 봄 다시 도쿄로 건너갔다. 인촌이 곁에 없는 만큼 심리적으로 허전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 허전을 공부로 메우려

25) 《學之光》에 대해서는 지은이가 즐겨, 《가인 김병로 평전》, 70-73쪽에서 자세히 설명했기에 여기서는 소략하게 다뤘다.

는 듯이 고하는 메이지대학에서의 마지막 학기를 비교적 학업에 충실하게 보냈다.

3 <孔敎打破論>으로 제시된 고하의 민족운동 방법론

그러면서도 오늘날 <孔敎打破論>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思想改革論>을 집필해 《학지광》 제3권 제1호 총5호에 머리 논설로 발표했다. 1915년 5월 2일에 출판된 장문의 이 논설은, 그리고 그가 이 잡지에 기고한 하나뿐인 이 논설은 크게 보아 다섯 부분으로 되어 있다.²⁶⁾ ‘孔敎打破論과 國粹發揮’, ‘가족제의 타파와 개인자립’, ‘강제연애의 타파와 자유연애의 고취’, ‘허영교육의 타파와 실리교육의 주장’, ‘常識實業의 타파와 科學敎育의 喚興’ 등등이 그것이다. 이제 대학 졸업을 눈앞에 둔 스물다섯살 애국청년의 열정이 넘치는 문체의 이 명문은 우선 조선의 오늘날 이 “개혁을 要하는 시대며 內省을 求하는 시대”라고 단정하고, 개혁과 내성의 대상을 조선사회에 ‘미만’해 있는 ‘依賴의 風’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말해, “민족은 自立의 道를 不求하며 士林은 孔敎를 의뢰하며 청년은 노년을 의뢰하며 여자는 男丁을 의뢰하며 實業은 상식을 의뢰하며 敎育은 過去를 의뢰하며 國內은 해외를 의뢰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상태를, 곧 모든 부분들에서의 ‘의뢰심’을 ‘타파’하고 ‘自立力’을 ‘확립’해야 한다고 그는 부르짖었다.

지은이는 바로 앞 節에서 고하가 기본적으로 유가적 가치관 위에서 자신의 사상을 정립해 나갔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그의 이 논설은 유가적 가치관으로부터의 이탈인가? 이 글이 대한제국 말기 이후 실력배양론자들 또는 자강운동론자들 사이에서, 또는 애국계몽론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인습타파론의 연장선 위에서 서 있음은 확실하다. 그렇다고 하여 고하가 유가적 가치관으로부터 이탈한 것은 아니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이 글을 분석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이 글이 발표된 시기가 1915년 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15년이라면 우리 겨레가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때로부터 다섯 해 뒤의 해였다. 그 동안 일제는 일종의 군정체제인 무단통치를 실시했다. 郡마다 상주한 헌병이 경찰관을 겸해 광범위한 행정권은 물론 즉결재판까지 행사했다. 공립학교의 교원마저 칼을 차고 교단에 서는 정도였다.²⁷⁾ 이러한 무단통치 아래서 일제는 1910년에는 이른바 安岳事件을, 1911년에는 이른바 105인事件을 조작해 일제에 저항할 잠재력을 지닌 조선인 지도자들을 철저히 탄압했다. 이 가운데 특히 105인사건의 경우에는 그 잔혹성이 두드러졌다. 조선 초대총독 테라우찌 마사다케(寺內正毅)를 암살하고자 음모했다는 허황된 명분아래 약 8백 명의 최고위 독립운동가들을 체포 구금해서 살인적 고문을 가함으로써 모든 독립운동을 반드시 탄압하고야 만다는 잔인한 결의를 과시했으며, 그 가운데 1백5명에 대해서는 실형을 부과했다. 그밖에도 독립운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 만 명의 애국자들을 일제 헌병경찰의 직접적인 ‘要視察’ 아래 두어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기색이 보이면 105인사건의 경우와 같은 살인적 고문을 가할 것을 경고했다. 이러한 공포의 분위기 속에서 국내의 독립운동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다.²⁸⁾ 또 1914년에 호남선과 京元線철도를 준공시켰고 1915년에는 咸鏡線을 기

26) 이 논설은 太學社가 1983년에 펴낸 《학지광》 영인본 제1권, 24-130쪽에 있다. 인용된 부분은 130쪽에 있다. 이 논설에 대한 문학론의 평가는 金允植, 《李光洙와 그의 시대》 전3권 (한길사, 1986), 제2권, 491-492쪽에 있다. 김교수는 이렇게 평가했다: “<대한매일신보>나 <황성신문>의 논설에서 드러난 문체의 수준에서 한발자국도 나아간 것이 없다면 그 글 내용이 아무리 대단한 유교(孔敎) 비판이라 할지라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더구나 신사상을 흡수하는 유학생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딱 난처한 일이다”

27) 車基壁, <일본제국주의 식민정책의 형성배경과 그 전개과정>, 車基壁(편), 《일제의 한국식민통치》(정음사, 1985), 31쪽

공하였으며 토지조사사업의 마무리를 서두르는 등 경제적 수탈의 기반을 더욱 굳혔다. 신병 치료를 위해 1년 동안 귀국해 있던 그는 겨레들 사이에 미만된 절망감과 그리고 그것에 연유한 자신감의 상실에 따른 의외심을 날카롭게 확인함과 아울러 크게 개탄했을 것이며, 조선의 독립운동은 어느 무엇보다 민족적 자신감의 회복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이며, 여기서 민족적 자립력의 확립을 강조하는 사상개혁론이 구상되었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이 글은 겉으로는 사상개혁론이면서도 속으로는 민족독립운동방법론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사상의 개혁은 그가 비록 ‘孔敎打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공교의 개혁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겨레 傳來의 유가적 가치관은 유지하면서 유학이 지닌 虛學的 측면을 교정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알려지면서 “聖賢을 모욕했다”는 논거에서 일부 老儒들 사이에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균형 감각을 지니고 평가할 때 이 글이 여러 측면에서 선구적인 문서였음은 틀림없다. 우선 조선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상개혁론이 뒤따라 나왔다. 당시로서는 선구적 지식인이던 春園 李光洙가 특히 1916년 이후 소설과 평론을 통해 孔敎를 통렬히 비판하면서 새로운 민족정신의 부흥을 부르짖어 많은 젊은이들의 공명을 불러일으켰음이 그 한 보기이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 중국공산당 초대당수로서 중국혁명사에 크게 기록되어 있는 저 유명한 陳獨秀가 《新青年》이라는 잡지를 창간하고 그 제1호에 기고한 <친애하는 청년에게 고함>이라는 논설을 통해 “虛學인 유교가 아니라 실제적인 근대 과학의 정신을 몸에 지니자”고 부르짖었던 것인데, 그것은 고하의 <공교타파론>이 발표된 때로부터 4개월 뒤인 1915년 9월이었다. 陳獨秀는 1916년 12월에는 <공자의 道와 현대생활>을 발표하고 ‘개인의 독립주의’와 ‘부녀자의 자유’를 옹호하기도 했다.²⁹⁾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점은 고하가 유학생할 가운데 어느 시점에서든 사회주의 또는 마르크시즘에 기울어져 본 일이 없었다는 사실이다. 고하가 유학하던 시절의 일본의 지성계에는 민권론보다는 국권론이 강세를 떨치는 가운데에서도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사회주의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특히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사회주의가 적지 않게 영향하고 있었다.³⁰⁾ 그런데도 그는 사회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파적 민족주의의 입장에 서서 조국의 광복과 자유와 민권을 논했을 뿐이다. 어떤 경위에서 그가 이미 일찍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아마도 그의 사상의 바탕인 유가적 가치관이 사회주의적 가치관의 수용을 막았는지도 모른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그의 생애를 통해 그가 자신의 그러한 이념적 입장에서 한 차례도 이탈해 본 일이 없다는 사실이다.

4 귀국

고하는 <사상개혁론>을 발표하고 나서 두 달 뒤 메이지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했다. 그와 호남 동향이며 메이지대학 동문인 김병로도 바로 같은 달에 귀국했다. 이 달에 일제는 러시

28) 신용하, 앞의 책, 321쪽, 105인 사건에 대한 최근의 가장 권위 있는 연구로는 尹慶老, 《105인 사건과 신민회연구》(일지사, 1990)를 지적할 수 있다.

29) 上垣外憲— 지음, 김성환 옮김, 《일본유학과 혁명운동》(進興文化社, 1983), 144-149쪽

30)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졸저, 《李東華評傳 : 한 민주사회주의자의 생애》(민음사, 1987), 73-79쪽

아와 비밀군사동맹을 맺고 중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의 폭을 넓히는 등 제국주의적 야욕의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었으며, 따라서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도 강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그는 통산 만 7년의 도쿄 유학생생활을 새로운 방식의 민족운동론 제시로써 마감한 것이다. 새로운 사조와 지식의 흡수, 특히 민주주의와 민권사상의 수용, 많은 동지들과의 유대 확보, 그리고 무엇보다 민족적 자신감의 회복이 큰 소득이었다. 그에게는 이제 그 자산을 활용해 민족에 이바지할 무대가 필요했다. 그 무대는, 우리가 다음 章에서 보게 되듯이, 이미 마련되어 있었다.

제3장 교육을 통한 실력배양론의 실천과 機會論의 노선

제1절 중앙학교의 터를 닦으며

1 인촌과 教育光復을 다짐하다

1915년 7월에 귀국한 고하는 우선 고향인 담양으로 돌아갔다. 건강이 여전히 쾌하지 않아 정양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로 하여금 정양에만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는 일이 서울에서는 진전되고 있었다. 그것은 인촌의 중앙학교 인수와 경영이었다. 고하의 귀국에 한 해 앞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역사의 핑음과 함께 1914년 7월에 귀국했던 인촌은 “돌아간다면 인재 양성을 위한 민족교육 학교를 만들어 문을 열어 보겠다는 포부, [...] 教育光復 民族更生이란 꿈을”¹⁾ 실현하기 위해 호남의 명망있는 큰 지주인 養庭 부친 圓坡 金祺中과 生庭 부친 芝山 金喲中 형제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1915년 4월27일 중앙학회로부터 중앙학교를 인수받아 경영에 착수하면서 고하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고하와 인촌은 도쿄 유학시절에 자신들이 귀국한 뒤 교육과 언론사업을 통해 민족에 봉사하기로 합의했던 터라 인촌이 고하의 도움을 요청한 것은 당연한 순서였다.

돌이켜 생각건대, 이 시점에서 교육이야말로 우리 겨레가 절실히 요청하던 사업이었다. 이 책의 제1장 제3절에서 살폈듯이,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맺어진 뒤 우리 겨레의 지도적 인사들은 실력배양론의 입장에 서서 사립학교를 전국적으로 세워 나갔었다. 이러한 운동이 자신의 조선식민지화 정책에 장애물이 될 것임을 간파한 일제는 1908년 8월 이른바 합방을 강제하고 나서는 이른바 私立學校令을 공포해 여러 방법으로 목을 조여갔다. 더욱이 이른바 합방을 강제하고 나서는, 그리고 1914년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함으로써 전쟁의 분위기로 국내외적 탄압을 강화할 수 있게 된 이후에는 사립학교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했다.²⁾ 그 구체적 내용의 한 끝이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이 땅을 강점한 일제는 장차 식량 및 원료공급지로서의 식민지교육을 위한 근본 교육시책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인에게 보통교육만을 받게 하고 고등교육은 받지 못하게 하여 저항의 싹을 미리 잘라버린 다음 식민지 말단관리로 일본에 충성을 다할 수 있을 정도만 가르치면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민간교육기관을 ‘인가제’로 묶어버리고, 학제 또한 차별을 두어 일인의 경우는 소학교 6년 중학교 5년인데 반하여 조선인은 보통학교 4년 고등보통학교 4년 등으로 제정했던 것이다. 게다가 일제가 만든 공립학교는 그 시설면에서 우수했고 충실한 데 반해 민간의 사립학교는 일제의 편파적이며 차별적인 시책에 의해 거의가 빈약한 시설에서 경영난에 허덕이고 하나 둘 쓰러져가고 있었다.³⁾

일제가 우리 겨레의 교육을 얼마나 근원적으로 제약하려고 했는가는 1919년 현재 조선에서 조선인과 일본인을 위해 총독부가 설립한 초등학교의 수를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1) 최시중(편저), 《인촌 김성수 :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동아일보사, 1985), 79쪽. 앞으로 이 책을 《인촌 김성수》로 표기한다.

2) 柳漢喆, <한말 사립학교령 이후 일제의 사학 탄압과 그 특징>,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2집 (1988), 101-102쪽

3) 《인촌 김성수》, 104쪽

약 1천 690만 인구의 조선인을 위한 보통학교의 수는 482개로 이것은 8만4천306명의 어린이들, 즉 인구 2백 50명에 대해 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비해 약 34만6천 인구의 일본인 거류민을 위한 소학교의 수는 380개로 이것은 4만2천732명의 어린이들, 즉 인구 9명에 대해 1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였다.⁴⁾

교육시설에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일제는 우리 겨레의 말살에, 곧 우리 겨레를 일본제국의 최하층 신민으로 만드는 데 교육내용의 주안점을 두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한국의 역사는 이민족에 의해 지배되어 온 타율적인 역사요, 자주적 발전이 없는 정체적인 역사이며, 그리하여 사대성과 당파성이 한민족의 특성이라고 왜곡해서 가르침으로써 민족적 패배주의와 열등감을 조성하는 반면, 일본의 역사는 이를 날조 과장해서 가르침으로써 일본민족의 허구의 위대성을 주입시켜, 한민족은 역사적, 필연적으로 일본민족에 예속되어 마땅하다고 가르치도록 했다”⁵⁾ 일제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 겨레의 독립사상을 근원적으로 붕괴시켜 우리 겨레를 말살하기 위한 작업을 조직적으로 전개했던 것이다.

민족의 교육환경이 이처럼 열악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인촌이 사립학교 설립을 추진했다는 것은 그의 평소의 지론인 실력배양론과 민족자강론의 구체적 실천이었다고 단정해도 전혀 잘못이 아닐 것이다. 그는 우선 중학교를 새로 세우고자 했다. 그래서 와세다 선배로 신문학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최남선으로부터 白山學校라는 교명을 작명받고 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서류를 총독부 학무국에 제출했다. 백산학교의 백산은 물론 민족의 聖山 백두산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 학교가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기를 이어받고 그 정기를 이어주는 배움의 터전이 되게 하자는 뜻에서 나온 것이었다.⁶⁾ 이 뜻을 간악한 총독부 학무국의 관리들이 농칠 리가 없었다. 그들은 이런 이름을 들고 나오는 사람은 후지산(富士山)학교라고 교명을 고쳐 가지고 온대도 허가해 줄 수 없다며 상대조차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원대한 사업이어서 인촌은 백방으로 손을 썼지만 헛일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처음으로 좌절감을 맛보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소식은 곧 장안에 퍼지게 되었다. 그러자 당시 경영난에 빠져 있던 많은 사립학교들이 각각 자기네 학교를 인수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중앙학교였다. 다른 학교의 제의에 대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던 인촌은 중앙학교의 제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마음이 움직였다. 중앙학교는 한 개인이 아니고 중앙학회라는 기관에서, 그것도 유서 깊고 명성 높은 조직에서 세웠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중앙학회는 어떤 기관이였는가? 우리가 제1장 제3절에서 소략하게나마 살폈듯이 대한제국 말기에 많은 학회들이 세워졌으나 국권의 상실과 더불어 대체로 유명무실해지고 말았다. 그들은 자연히 자활의 길을 찾고자 통합운동을 벌이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1910년 11월에 기존의 畿湖興學會를 모체로 삼아 중앙학회가, 그리고 기존의 畿湖學校를 모체로 삼아 중앙학교가 각각 출범했다. 이때의 학회장은 대한제국의 노대신으로 《陰晴史》와 《續陰晴史》를 남긴 雲養 金允植(1835~1922)이었고, 곧 교장에는 개화파로 유명한 《西遊見聞》의 矩堂 兪吉濬(1856~1914)이 뽑혔다. 이렇게 볼때, 중앙학교는 민간 사립학교로서는 사실상 유일한 민족교육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국의 원로들이 참가한 탓에 중

4) Eugene Kim, "Education in Korea", in Andrew C. Nahm(ed.),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Studies of the Policy and Techniques of Japanese Colonialism* (Kalamazoo: Center for Korean Studies,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73), p.139

5) 車基壁, <일본제국의 식민정책의 형성배경과 그 전개과정>, 車基壁,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정음사, 1985), 32쪽

6) 《인촌 김성수》, 91쪽

양학회는 ‘사공 많은 배’격이 되었고, 그리하여 중앙학교는 운영의 어려움에 빠지지 않을 수 없어서 이 무렵의 재학생 수는 70여명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中央60년史의 표현으로는, “교실의 부족과 교정의 협착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웠고 교직원의 월봉조차 적시에 지급하지 못할 형편이어서 중앙학회에서 본교를 유지하기 곤란한 처지에 놓이었다”⁷⁾

여러 방면으로 다 헤아린 끝에, 인촌은 마침내 중앙학교를 인수하기로 결심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기는 했으나 다행히 생부와 양부 두 분이 합심해서 출자해 주었고, 와세다 은사들의 도움으로 총독부로부터 인수허가도 얻어내, 대망의 민족교육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다. 교사는 일단 홍수렛골 곧 오늘날의 花洞 138번지에 있는 기와집 한옥을 그대로 썼다. 교장으로는 1915년 5월4일자로 石儂 柳瑾을 모셨다. 1861년 경기도 龍仁에서 태어난 그는 장지연 및 南宮櫛 등과 《皇城新聞》을 창간하고 주필과 사장을 역임했으며 徽文義塾과 桂山學校의 교장을 지낸, 덕망 있는 민족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는 뒷날 《東亞日報》의 간에도 깊이 참여했는데 그 이듬해인 1921년에 별세하며, 1962년 3월 1일에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單章을 받는다. 학감으로는 동갑이면서 도쿄에서 함께 생활한 와세다 동창생 民世 安在鴻을 불렀고, 자신은 평교사가 되었다.⁸⁾ 이때 교사진용에서 두드러진 이가 ‘崔代數’라고 불릴 정도로 수학에 뛰어난 교육자이며 뒷날 서울대학교 총장이 되는 崔奎東 (1882~1950)과 李重華이다. 그밖에도 李光鍾과 李奎榮과 權惠奎 등이 있었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인촌은 그날로부터 훌륭하다는 교사를 초빙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총독부 학무국 관리들이 일본인 교사를 써야 한다니 또는 조선인 교사를 그만 쓰라느니 하면서 자꾸만 트집을 잡았다. 학교의 발전을 위해 인촌은 주위 사람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그들을 저녁식사에 초대하기도 했다. 그 뒤 학무국의 트집은 일단 가라앉고 학교는 정상 궤도에 들어섰다. 1915년 11월에는 총독부의 高等普通學校令에 따라 이제까지 3년이던 중앙학교의 수업연한이 4년으로 늘어나기에 이르렀다. 바로 이 시점에서 인촌은 고하를 담양으로 찾은 것이다.

건강이 완쾌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인촌의 경위설명을 듣자마자 고하는 자신의 쇠약을 잊은듯이 앞장을 섰다. “우리에게 하늘이 기회를 준 것이야. 粉骨碎身이란 말도 오히려 부족하지. 눈을 뒤집고 일을 해야지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閔忠正公처럼 자문하지 못한 답변이 될 것이요, 안중근 의사처럼 교수대에 오르지 못한 설명이 되어주는 거요. 죽어서 민족에게 이바지하는 것도 애국의 한 방편이지만, 살아서 적과 싸워 이긴다면 이 얼마나 좋은 애국인가. 성수, 자네는 돈만 끌어대 주게. 학교도 하고 신문도 하고 공장도 차리고…. 학교에서는 열명 백명의 충무공이 나올 것이요, 또 백명 천명의 안중근 의사가 나와준다면 우리가 망국일에 죽지 않은 보람도 날 것이 아닌가”라고 열변을 토하는 고하는 의욕의 화신과도 같았다. 인촌은 더욱 신이 나서 “일하세. 돈은 내가 전라도를 팔아서라도 댈 것이니” 하며 의욕을 새롭게 과시했다.⁹⁾ 고하와 인촌은 일본에 유학하기에 앞서 내소사 청련암에서 뜻을 같이 했을 때처럼 잡은 손에 힘을 부쩍 주었다.

정양을 좀 더 해야 할 형편이었으나 고하는 상경을 결행했다. 여기서 잠시 그의 치병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우리가 이제까지 여러 차례 보았듯이, 그는 망국의 비보를 전해듣는 순간부터 율화병을 얻은 이후 가끔 와병하곤 했다. 집안에서는 크게 걱정하여 좋다는 약이

7) 중앙교우회(편), 《중앙60년사》(민중서관, 1969), 82쪽. 이 책은 앞으로 《중앙 60년사》로 표기된다.

8) 《인촌 김성수》, 104쪽

9) 《고하 송진우 선생전》, 57쪽

면 빼놓지 않고 얻어다 썼고 용하다는 의원이 있으면 어디든지 멀다 않고 모셔다 보였으나 큰 차도가 없었다. 그러다가 四象醫學의 혜택을 입게 되었다.

사상의학이란 고종 때의 의술대가인 함경도 咸興사람 李濟馬(1838~1900)가 정립했다. 사람의 몸을 太陽-太陰-小陽-小陰의 사상으로 나누고 각각에 상응하여 치료하는, 일종의 체질의학이었다. 그런데 전라도 순천 출신의 한학자로 경상도 梁山 군수를 지낸 本名이 확실하지 않은 朴씨를 만나게 된 것이다. 사상의학에 밝은 朴梁山은 고하를 처음에는 太陰人이라 진단하고 약간의 시약을 하고나서는 大熱人의 臟腑라 고쳐 진단한 뒤 치료에 힘썼다. 그 결과로 고하의 건강은 점차 회복되어 갔다.

그 뒤 그는 한의학의 원전인 《東醫寶鑑》과 그리고 이제마의 저술인 《東醫壽世保元》을 틈틈이 읽었다. 집안사람들의 증언으로는, 그는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이 책들을 책상 위에서 내려놓지 아니했다 한다.

2 속죄의식에서 출발한 무한 봉사

인촌과 함께 곧바로 상경한 고하는 우선 교무의 일을 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민세가 떠남에 따라 그의 뒤를 이어 학감의 자리를 맡았다. 그는 그밖에도 서양사를 가르치면서도 학교의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쏟았다. 이때의 모습을 그의 기존 전기는 이렇게 그렸다.

“하늘이 준 기회, 하늘이 준 사업” 고하는 이 기회와 이 사업에 있는 힘을 다했다. 정열과 신념으로 일에 임했다. 눈앞에는 모두가 적이었다. 가장 무섭고 큰 적이 총독부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철사가 그들을 얽매고 있었다. 안에도 적이 있었다. 전 경영자측에서는 날로 발전하는 중앙학교를 질시의 눈으로 보았다. [...] 그래도 고하는 도쿄시대의 子路風을 잃지 않았다. 누가 무어래도 좋았고 누가 방해를 해도 개의하지 않았다. 오직 일에만 열중했다. “경술년에 이미 죽었어야 할 몸이 아직까지 살아 있으니 일로써 속죄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고하는 입버릇처럼 말하고 또 외웠다. 일하는 것을 그는 속죄라고 생각했다. 속죄 의식으로 일에 임했고 일을 처리했고 일인과도 싸웠다.

여기서 우리는 고하의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심리적 動因으로서 죄의식 또는 속죄 의식을 보게 된다. 죄 의식 또는 속죄 의식은 사람이라고 하여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다. 양심이 강한 사람, 의식이 투철한 사람, 그리고 양심과 의식에 기초한 사명감을 스스로에게 부과한 사람만이 갖게 되는 것이 죄 의식 또는 속죄 의식이다. 시대가 잘못 흘러가고 있고 역사가 그릇되게 펼쳐지고 있으며 그리하여 비도덕적이며 불의의 사회가 형성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부당하게도 고통과 질곡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인식, 이러한 상황 아래서는 자신처럼 비교적 여유 있게 생활하며 더 많이 배운 일종의 ‘특권층’이 그러한 불의의 교정에 앞장서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의 인식, 그런데도 자신은 이른바 특권층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자책감-이러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감정들의 복합이 죄 의식 또는 속죄 의식을 낳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죄 의식 또는 속죄 의식은 지도자에게서 발견될 수 있고 또 지도자가 지녀야 할 심리적 특성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혁명기의 또는 독립운동기의 지도자들에게 공통되는 첫번째 심리적 특성은 죄의식 또는 속죄 의식이다. 불의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른바 양심의 매를 맞고서 그들은 자기희생을 요구하는 혁명운동에 또는 독립운동에 뛰어 들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하나의 역설이 성립된다. 민중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들이 가장 괴롭고 어두운 시절에 1급의 인물들을 지도자로 갖는 행운을 누리게 된다. 방금 설명했듯이, 평소에는 정치세계의 현장에 나서지 않던, 또는 정치와 정치세계 그 자체를 혐오하던 그 사회의 가장 양심적이며 우수한 인재들이 자신들의 앞날을 모두 버린 채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 혁명의 전선에 또는 독립운동의 일선에 나서기 때문이다.

고하는 민족에 대한 죄 의식과 속죄 의식을 깊이 지니고 있었다. 고하의 일생을 특징짓는 비분강개는 그 의식의 외형적 표현이었다. 우리가 제1장과 제2장에서 이미 살폈듯이, 그의 소년기와 20대 초까지에 일관되게 나타났던 “죽느냐 사느냐”라는 햄릿적 고뇌는 바로 죄 의식의 발로였다. 가슴 속 깊이 내면화 되어있는, 아니 강박관념처럼 그의 뇌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의식은 고하로 하여금 일생 동안 사적으로는 경건하고 도덕적인 생활자세를 견지하게 했으며 공적으로는 민족운동의 일선에 서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일제의 강포함이 워낙 원시적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민족운동의 일선에 서기 어려울 때는 “군자는 소나기는 피한다”는 자세로 잠시 遁世할지언정 阿世하지는 않으면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힘도 바로 고하 특유의 죄 의식에서 나왔던 것이다.

3 민족의식을 불어넣다

민족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야 한다는 신념 아래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일하는 고하는 어느 누구에게나 확실히 ‘열혈의 청년교육자’로 비쳤다. 그는 나라의 기둥이 되고 들보가 될 청소년을 길러내는 것이 조국광복의 주춧돌을 쌓는다는 믿음으로써 강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민족애와 조국애를 불어 넣기에 바빴다. 그의 강의 가운데 지금까지 많은 제자들에게 회상되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제군은 학문을 닦는 사람이다. 학문은 무엇 때문에 닦는가. 자기를 위해서 닦는다. 그러면 이 자기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제군의 가정에 속해 있다. 제군의 가정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 제군은 개인이되 개인이 아니다. 육체적으로는 독립되어 있지만 그 어디고 매어 있다. 사람 人자가 왜 서로 버티는 형상을 하고 있는지 아는가. 서로 버티어야 산다. 개인과 개인이 버티고 조직된 단체와 단체가 서로 버티고 2천만이 서로 버티고 버티어야 이 민족이 산다. 불행하게도 제군은 나라가 망한 세대에 태어났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제군은 참 좋은 세대에 태어났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제군은 진실로 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세상에 태어난 것이다. 이 일이란 용이한 것이 아니다. 벅찬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값이 있다. 행복된 사람은 일평생 불행을 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위대하여 볼 수는 없다. 제군은 평범한 안일과 행복을 바라는가. 그렇지 아니하면 위대한 생을 바라는가. 어느 쪽인가.¹⁰⁾

교실에서의 강의라기보다는 대중 집회에서의 강연을 회상하게 해주는 고하의 이 가르침에서, 우리는 그가 제자들에게 민족을 위해 조국을 위해 일하는 것이 위대한 삶을 깨우쳐 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전 언론인 崔承萬은 <고하 송진우>론을 쓰면서 이 대목에 이르러 “고하의 확고한 교육이념을 찾을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의의 있고 가치 있는 생활을 추구하라는 경고라 할 것이다”라고¹¹⁾ 평가했고, 고하보다 아홉살 아래로 이 무렵 고하로부

10) 위와 같음, 60쪽

터 강의를 직접 들었던 전 국회의원 柳鴻은 고하를 “내 前途를 교시해 주신 지도자이며 내 일생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신 사부이시다”라고 전제한 다음 고하의 강의로 상징되는 고하의 “大志는 筆舌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웅대하고 심오하고 無邊大했다”라고 회고했다.¹²⁾

어느 때의 강의는 보다 더 직접적이었다. 고하는 “형가리 출신의 정치학자로 영국 런던대 학 교수가 했다”는 다음과 같은 말을 격정적인 어조로 전달해 주었다. “한국민족이 일본민족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진보된 문화 민족이다. 그런데도 이를 합병한 것은 불가한 일이며 한민족은 멸망하지도 않을 것이고 [일본은] 그 보복을 20년 내외에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을 유지하려면 만주를 차지하여야 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러시아와 충돌이 되고, 또 만주를 지키려면 北中國을 도모해야 할 터이니 그렇게 되면 중국은 물론 미국과 충돌되기 때문이다. 결국 일본은 끝없는 팽창 야욕 때문에 30년 안에 미국과 영국 등 열강과 정면 대결하게 되어 패망할 것이고 따라서 한국의 보복을 받을 것이다”¹³⁾

이 무렵 일제는 조선왕조의 상징인 경복궁을 가리면서 총독부 청사를 지어나감을 통해 일제의 위신을 과시해 나가고 있었다. 말하자면 정신적으로도 조선 백성을 압도하겠다는 책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였기에 고하는 오히려 더욱더 민족혼을 고취시키려고 했을 것이다. 다시 柳鴻의 회상을 빌리건대, ‘듣기에 재미있으면서도 겁이 나는’ 자신의 ‘독립 신조’를 고하는 거침없이 나타내곤 하였다. “위당 정인보 선생은 고하를 가리켜 ‘獨立狂’이라고 말했지만 그만큼 독립신념이 확고했던 것이며 모든 언행을 독립운동으로 귀착시켰던 것이다”¹⁴⁾

강의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도 고하는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불어 넣었다. 일상생활은 순 한식이어서, 예컨대 학생들이 집으로 찾아가면 대추와 밤과 인절미 같은 것을 내놓았다. 그렇기에 “엄한 듯하면서도 부드럽고 예리한 듯하면서도 다정다감하여 잘 알기 힘든 인물”로 비치던 그는 “철저한 민족주의자 또는 극히 검소하고 주견이 正立하고 신념이 확고한 민족적 지도자”로 학생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었던 것이다.¹⁵⁾

제 2 절 민족불멸론의 전개

1 流汗興國의 가르침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는 대표적 사립학교로 자리 잡아가는 중앙학교에 시급한 과제로 제기된 것은 새로운 교사의 건축이었다. 인촌이 인수한 뒤 중앙학교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커져 재학생 수는 벌써 두 배로 늘어난 터였고, 앞에서 설명했듯이, 수업연한도 늘어나 학교시설의 확장이 시급했다. 1917년 3월 석농이 교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그 후임을 맡은 인촌은 고하와 더불어 무엇보다 교사를 신축해 교세 중흥의 기틀을 다지기로 합의하고 교지를 물색했다. 그들이 찾은 곳이 바로 지금의 중앙중·고등학교가 자리잡고 있는 종로구 계동 1번지이다. 당시 이곳은 북악산 줄기를 뒤로 한 계곡으로 울창한 송림만 들어찬 산골짜기로 민가도 없었고 다만 학교터 뒤편 숲속에 한말 陸軍研成學校長이던 盧伯麟(1875~1926) 참령의

11) 崔承萬, <고하 송진우>, 《신문평론》 1974년 11월, 80쪽, 같은 글이 《한국언론인물론지》(한국신문연구소, 1981), 145쪽에 있다.

12) 柳鴻, 《柳鴻》(衣堂 柳鴻선생 자서전 출판동지회, 1976), 163·164쪽

13) 위와 같음, 164쪽

14) 위와 같음.

15) 위와 같음. 또 金德亨, 《한국의 명가》(일지사, 1976) 가운데 <고하 송진우>, 466쪽

집이 있을 뿐이었다. 황해도 豐川의 조그마한 두메산골에서 項羽같은 기운 센 아이로 태어나 대한제국 군부의 기둥으로 자랐던 桂園 노백린 장군은 이 무렵에는 미국에서 國民軍團을 창설해 조국광복을 준비하고 있었다. 인촌은 쌀 한 섬에 6원 하던 때에 8천 8백원이라는 큰 돈을 두 부친으로부터 마련해 4천 311평의 땅을 사들였다. 1917년 6월의 일이었다.

고하는 교사를 짓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 그는 학생들 스스로의 손으로 새 교사를 짓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호소했다.

제군. 우리는 새 집을 짓는다. 누구의 집인가. 제군들의 집이다. 주추를 놓는다. 누구 집의 주추인가. 제군이 배울 집의 주추다. 제군이 배우고 나가면 제군의 후배들이 배우러 들어올 것이다. 이 후배란 바로 먼저 사회에 나간 제군의 뒷받침을 해 줄 사람들이다. 제군이 아무리 잘나고 지혜가 있고 용감하다 해도, 제군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제군만으로서 제군의 이상을 살릴 수도 없다. 장차 제군은 이 민족을 이끌어 갈 사람들이다. 2천만이라는 크나큰 가솔을 이끌어 잘 제군을 도와줄 사람들이 다시 들어올 배움의 집이다. 제군이 민족을 위해서 싸울 때, 민족의 적과 피투성이가 되어 싸울 때, 제군의 힘이 부치어 기진맥진했을 때, 제군의 의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鄭圃隱, 제군의 주위를 포위한 적을 무찔러 줄 李忠武公, 제군의 위치와 정의를 세계에 호소해줄 이준과 안중근-이런 동지를 길러줄 집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착공하기로 한 새 교사인 것이다”¹⁶⁾

이 짧은 연설에서도 우리는 ‘민족의 적’ 곧 일제와 ‘피투성이가 되어 싸울 것’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고하의 자세를 보게 된다. 또 모든 일을 항일민족운동에 연결지어 파악하는 철저한 민족주의자적 면모를 보게 된다.

고하의 열정적인 호소에 학생들은 모두들 팔을 걷었다. 그의 기존 전기가 지적했듯이, “너도 나도 학과를 마치면 팔을 걷고 공사장으로 나섰다. 터를 닦고 흙을 나르고 돌을 굴리고 벽돌을 날랐다. 전교생 80여명의 학생과 선생까지가 팔을 걷고 나섰다”¹⁷⁾ 流汗興國이란 말이 있다. 땀을 흘려 나라를 부흥시킨다는 뜻으로, 예컨대 仁川의 濟物浦高等學校가 한 때 교훈으로 삼은 일이 있다. 새 교사를 교사들과 학생들의 땀으로 짓겠다는 고하의 뜻이 바로 流汗興國의 정신이었던 것이다.

고하는 물론 작업의 일선에 섰다. 그는 “낮에는 교사였고 오후에는 공사장 감독을 하는 십장이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그는 학생들과의 유대를 더욱 돈독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래서 그는 밤이면 학생 집을 찾아다니며 어려움은 없는지 불평은 없는지를 묻고 다녔다. 그뿐 아니었다. 상경한 이후 줄곧 학교의 숙직실에서 기거하는 그는 인촌과 함께 학생용 식사인 6전짜리 밥을 사먹으며 생활했다. 이러한 그의 앞에 학교에 대한 불평이 있을 수 없었다. 누구 하나 몸을 아끼지 않고 일했다.

교사와 학생이 한 덩어리가 되어 매달린 결과 같은 해 11월 20일에 건평 120여평의 연와 2층 1동 및 부속 건물이 낙성됐다.¹⁸⁾ 우리 겨레의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벽돌집 교사였던 만큼 우리 겨레에게는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반면에 일본 사람들에게는 놀라움이었다. “제까짓 쉰진(鮮人)들이 무얼 한다구. 너희가 무슨 단합을 해서 집을 짓고 학교를 경영하라” 하고 속으로는 비웃던 총독부 학무국 관리들도 “송진우와 김성수는 만만히 봤다

16) 《고하 송진우 선생전》, 61쪽

17) 위와 같음.

18) 《중앙 60년사》, 83쪽

간 큰코 다칠 놈들이다”라며 경계하게 되었다. 아니 고하와 인촌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중해졌다.

새 교사가 마련되면서 중앙학교는 같은 해 12월1일 화동의 옛 교사로부터 이웃 계동의 새 교사로 이사했다. 학생들이 줄을 서 비품을 나르며 이사하는 광경은 장안의 조그마한 화제가 되었다. 특히 당시로서는 가치 위용을 자랑하는 건물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만큼 새 교사는 장안의 명물로 등장했다. 이 점은 같은 해 12월 10일에 간행된 《半島時論》에 게재된 기사에서 엿볼 수 있다. 교사가 신축되기까지의 경위와 규모 등등이 자세하게 소개된 이 기사는 일반 백성들의 관심도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교사 신축을 앞뒤하여 훌륭한 교사들이 속속 초빙되었다. 우선 뒷날 대한민국 제3공화정의 국무총리가 되는 覺泉 崔斗善이 교사로 부임했다. 고하보다 네 살 아래로 최남선의 아우인 그는 1917년에 와세다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했던 것이다. 다음 해에는 뒷날 고려대학교 초대 총장이 되는 기당 현상운이 부임했다. 고하보다 두 살 아래인 그는 1916년 와세다대학 사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했던 것이다. 그들 밖에도 일본과 미국에서 공부한 신진기예들을 열심히 끌어들이었다.¹⁹⁾ 민족주의적 교육정신에 입각한 教旨도 세우고, 교모와 교복을 제정하는 등 교규도 엄격해졌다.

중앙학교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하면서 총독부의 경계는 점점 커졌다. 총독부 관리들은 중앙학교를 감시할 목적으로 일인 교사를 채용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붙여 간섭하고 때로는 압력을 가하기도 했다. 조선의 일본인 사회에서도 “누가 중앙학교를 허가해 주었느냐”는 힐난마저 때때로 일어났다.

2 민족불멸론과 三聖祠 건립운동

조그마한 트집이라도 잡히면 폐교 처분을 내리려고 버르는 총독부에게 구실을 주지 않으려고 학교로서는 고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고하도 교실에 들어가서는 ‘조선’이니 ‘조선 민족’이니 하는 명사는 되도록이면 삼갔다. 그 대신에 고하가 숭배하던 고구려의 명장 乙支文德과 명상 乙巴素, 3국 통일의 기초를 닦은 太宗武烈王 곧 金春秋, 고려의 충신 포은 鄭夢周, 그리고 조선의 충무공 李舜臣 등등 민족적 영웅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이들의 업적에 대한 소개를 통해 우리 겨레가 얼마나 유구한 고유의 찬란한 문화를 지녀 왔는가를 깨우쳐줌과 동시에 현재의 망국 상태는 그러한 민족사적 長久性에 비추어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을 심어주고자 했다.

고하의 이러한 노력은 곧 고하 특유의 민족불멸론 정립으로 구체화되었다. “우리는 檀君 聖祖 이후로 삼국시대로 통일 신라로 고려로 조선으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우리의 고유한 전통과 정신을 세계 인류 속에 흘러 들여보낸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전제한 그는 이처럼 민족적 固有性과 지속성을 갖는 경우란 세계사에 흔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이에 미루건대 “민족이란 광맥이나 물줄기와 같은 체계를 갖는다”는 명제를 제시했다. 여기서부터 그는 매우 적절한 비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부연했다. “물줄기나 빛은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가 생기어 가려지기도 하고 빛이 흐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빛 자체가 본질이 변한 것은 아니다. 백두산에서 흘러내린 물은 때로는 지상을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땅 속에 스며들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지금 우리는 불우하고 암흑 속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물이 땅속을 흐르고 일식을 한 것과 꼭 같다. 언젠고 물은 흐르고 있고, 또 언젠고 일식은 걷힐 때가 있다. 우리 민족도 이 물처럼 지금도 흐르고 있다. 이것을 잘못 알

19) 위와 같음.

고 물이 끊어졌거나 생각하는 것은 마치 일식을 보고서 태양이 영원히 없어졌거나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다. 태양이 죽던가? 민족이란 이 태양과 같은 섭리에서 유지되는 것이다”

고하에 따르면, 일제 지배 아래서, 우리 겨레는 비유하건대 물이 땅속으로 흐르고 있는 시기 또는 해가 일식으로 가려져 있는 시기에 들어서 있을 뿐이다. 되풀이해 말하건대, 물과 해라는 영생불멸의 존재가 바로 우리 겨레이다. 현재는 일식의 시기일 뿐이다. 그런데도 해가 아주 없어진 것으로 착각해 어두움에 절망하거나 어두움을 빙자해 나쁜 짓을 하는 이들이 없지 않다.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해는 다시 나타나 빛을 발휘할 것이다. 말하자면, 일제 치하라고 해서 민족이 없어진 것으로 잘못 생각해 절망해서도 안되고 변절해서도 안된다고 그는 가르쳤던 것이다.

그의 가르침이 보다 더 직설적인 형태로 전달된 때도 많았다. 그는 우선 “단군성조가 그 슬기로운 광명을 비쳐주지 않았다면, 고구려도 통일신라도 없고 고려도 없었을 것이 아닌가. 오늘날 제군이 있다는 것도 선조가 있고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문을 열음으로써 우리 민족이 면면이 이어져 왔음을 강렬하게 주시시켰다. 그런데 현재는 어떠한가? 현재는 “제군들 대에 와서 일시 자손이 끊어진 상태이다” 그렇다고 해서 “제군이 자살해서는 안된다” “제군에게 현재로서는 자손이 없다고 해도 선대부터 내려온 피는 언제나 제군의 혈관에 흐르고 있고 앞으로 반드시 보게 될 자손을 통해 흘러갈 것이다” 그의 열변은 이렇게 이어졌다. “오늘은 암흑시대이지만 이 일식이 겉히고 찬란한 광명이 비칠 날이 있다. 이것은 신의 섭리요 진리인 것이다. 민족이 영원히 멸망하는 법은 없다. 제군은 조금도 초조해 할 것이 없다. 제군은 4천년이란 긴 역사를 두고 닦아온 굳건한 지반 위에 앉아 있는 것이다. 일본은 지금 칼과 총으로 우리의 목을 누르고 있다. 그러나 칼과 총으로 남을 정복하는 것을 天理가 허락한 일이 없다. 우리 2천만 전부가 일본의 노예가 되기를 바랄 수는 없다. 2천만 전부가 원하지 않는 노예 생활을 누가 감히 강요할 수 있겠는가? 민족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²⁰⁾

고하의 민족불멸론은 쉬우면서도 핵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다. 국가적 계속성은 잠시 끊어졌으나 민족적 계속성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것이 결국 조국광복의 원천이 되리라는 주장을 이처럼 간명하게 밝힌 연설도 흔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든 민족적 정열에 불타는 고하의 가르침은 학생들에게 많은 감화를 주었다. 그의 기존 전기가 회상했듯이, “고하가 입을 이상하게 일그러뜨리면 학생들도 같이 입을 일그러뜨리고, 얼굴을 찡그리면 함께 송충이라도 깨문 얼굴이 되었다. 일거일동이 한몸 한 덩어리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학생들은 고하의 한 마디 한 마디를 굶주린 지식의 주머니 속에 꾸러 넣었다. 그들의 땀구멍을 뚫고 살 속으로 스며들어 한민족으로서의 피와 뼈가 되었다”²¹⁾

자신의 민족불멸론이 상당히 폭넓은 공명을 불러일으키는 데 자신을 얻어 고하는 三聖祠 건립운동을 전개했다. 그에게 우리 겨레의 시조 곧 倍達聖祖인 단군과 민족문화의 상징인 세종대왕과 임진왜란의 성웅 이순신 장군은 민족의 三聖이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도 자신들의 혼례를 이 三聖을 모신 자리에서 거행하도록 하라고 권유했던 것인데, 이 권유의 연장선 위에서 그는 1917년 경향 각지에 동지를 모으고 자금을 조달하여 三聖祠建定期成會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조선민족의 독자적 힘으로서 삼성사를 서울 南山에 세우자는 것이었다. 이에 당황한 총독부는 부랴부랴 천황의 영으로 남산에 神社를 세운다는 것을 공포하기

20) 《고하 송진우 선생전》, 64쪽

21) 위와 같음, 63-64쪽

에 이르렀고 실제로 지금의 남산 야외음악당 자리에 朝鮮神宮을 세웠다. 이것은 8·15해방과 더불어 우리 겨레에 의해 파괴되었다. 남산을 빼앗기자 고하는 북한산이나 삼청공원에 세우고자 했으나 총독부의 방해로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²²⁾

제3절 기회론에 입각한 학생 조직

1 만형같은 교장 고하

민족의 혼을 지켜나가는 학교로서의 기반이 충실히 닦여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인촌은 만 1년 동안 재직한 교장직을 1918년 3월30일 고하에게 넘기고 평교사로 돌아갔다. 이로써 고하는 畿湖學校 초대교장 尹孝定으로부터 셈해 제10대 교장이 된다.²³⁾ 고하가 만 28세 때의 일이었다. 교장이 되어서도 수업을 그대로 맡은 그는 학감으로 민세 안재홍을 다시 불러 들였고 근촌 백관수를 僚友로 옆에 두었다. 근촌은 그 뒤 곧 도쿄로 유학을 떠난다. 우리가 다음章에서 살피게 되듯이 3·1운동 참여로 말미암아 교장직을 사임할 때까지 고하는 꼭 1년 반 동안 숙직실 또는 교내의 사택에서 기거하면서 자신의 봉급을 스스로 월 30원으로 묶어 놓았다. 그 대신에 실력있는 교사들을 자신의 봉급보다 높은 봉급으로 계속해서 모셔왔다. 그리하여 중앙 학교에는 앞에서 이미 소개한 이중화, 이광중, 이규영, 권덕규, 최두선, 현상윤 밖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新美術 유학생’이라고 불리는 春谷 高羲東, 卞榮泰, 劉敬相, 趙喆鎬, 羅元鼎, 朴海敦, 李康賢 등등의 쟁쟁한 기예들이 교편을 잡고 있었다. 장안의 관심이 점점 중앙학교로 쏠리고 학생들의 수가 더욱더 늘어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고하의 가르침은 학교에만 머물지 않았다. 그는 저녁이 되면 학생들의 가정과 하숙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집안 형편을 살피기도 하고 공부하는 자세를 알아보기도 했다. 학비가 어려운 눈치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나마 슬며시 방석 밑에 넣어주기도 했다. 문구멍이 뚫어져 있으면 “아, 이 사람아.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는데 이런 걸 좀 바르고 살지. 어서 안에 들어가서 밥풀을 좀 가져 오게” 하면서 문구멍에 창호지를 발라주는 일도 있었다. 하숙하는 학생의 방 아랫목에 손을 대어보고 따뜻하지 않으면 주인을 불러 “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지 우리 자식이나 동생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맥의 자체가 타관에 가서

저 같은 처지에 있을 때, 그 집 주인이 내 자식처럼 잘 돌보아 주었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또 따지고 보면 내 자식 남의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저것들이 공부를 잘해서 우리나라가 잘 돼야 우리네가 늙어서 고생이 적어요”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 주인은 고하가 돌아간 뒤에 “아니, 그 양반이 정말 교장선생이신가요?”라고 다져 묻기가 일쑤였다.

2 고하의 기회론

이처럼 때로는 아버지와 같은, 때로는 만형과 같은 정을 베풀고는 “사람이 난 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를 일깨워 주었다. 우리 겨레가 지금은 왜놈들에게 짓밟혀서 굴욕적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天理가 반드시 불의를 정치해 줄 것이라는 신앙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렇다고 그냥 기다리자는 뜻은 결코 아니었다.

22) 위와 같음, 65쪽

23) 《중앙 60년사》, 483쪽

때가 왔을 때 독립을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우리는 그때를 앉아서만 기다려서는 안된다. 기회는 언제 올는지 모른다. 이 문제는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세계의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과 손을 잡아 세계 정세의 변화에 응하여 시시로 움직여야 한다. 때는 반드시 온다. 때가 왔을 때 우리가 비로소 준비를 하다가는 시간적으로 도저히 따라 갈 수가 없으니 우리는 언제나 모든 준비를 갖추고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러면서 “그래 어떤가. 우리가 일어나야 할 때가 오면 너도 목숨을 내어 놓고 나와 함께 일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면서 학생들의 결의를 촉구하는 것이었다.²⁴⁾

고하의 가르침에서 우리는 대한제국 말기 이후 민족운동 세력 가운데서 제기되어 온 이른바 機會論을 보게 되며, 또 거기에서 독립문제에 임하는 고하의 자세를 보게 된다. 기회론이 무엇이고 그것이 그에게 어떻게 심어졌는가에 대해서는 특히 제2장 제2절에서 이미 살폈으나, 그것이 그가 학생들에게 민족정신을 고취시키던 시점에서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여기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되풀이하는 것이지만, 기회론은 “먼저 독립을 쟁취할 실력을 양성하였다가 국제정세의 변동을 기민하게 포착하여 국권회복 운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여 성과를 획득한다는 것이었다²⁵⁾” 이러한 노선 아래 기회를 엿보던 민족 운동가들에게 매우 고무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1914년 7월에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과 일본의 참전이였다. 열강의 각축은 확실히 국제정세에 커다란 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특히 독일로 대표되는 동맹국이 승전하는 경우 협상국에 가담한 일본은 일거에 패전국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조선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기회가 닥칠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다. 실제로 대전 초기에도 독일이 승승장구하여 일본을 포함한 협상국의 패전이 전망되자 이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독립운동이 준비되기 시작했다. 그 첫번째 보기가 1916년에 있었던 천도교도들의 계획이다. 천도교 제3세 교조인 義菴 孫秉熙(1861~1922)를 둘러싼 천도교도들이 독립을 얻기 위한 독립만세 시위와 민중봉기를 논의했던 일이 그것이다. 그 두번째 보기가 1917년에 있었던 국내 각계 인사들의 계획이다. “현하의 정세로 보아 德國(독일)이 승세하니 왜적이 멸망할 기운은 박두하였고, 이번 전란의 중국에는 세계가 개조될 것인즉 우리나라가 광복할 好機會는 正히 이때이다. 우리는 어떠한 계획으로 어떻게 운동할 것인가. 나의 淺見으로는 국내 국외의 유지인사로 만여명이 연서하여 비밀리에 德國 수뇌부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청원하는 것이 艱요하다”는 판단 아래 국내의 각계 인사들이 서로 연락을 취했던 일이 그것이다. 이 두 개의 사례는 모두 성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조선의 지도자들이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에 따르는 국제정세의 변화를 하나의 기회로서 능동적으로 포착하여 독립운동을 일으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음을 입증한다.²⁶⁾

1918년에 들어와 기회론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독일의 패색이 짙어져 가는 가운데 미국대통령 윌슨(Woodrow Wilson)은 이해 1월8일 연두교서를 통해 전쟁이 끝난 뒤의 문제들을 처리할 원칙으로 14개조항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제5조로 민족자결주의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 일제는 이것을 민족자결주의라는 용어로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 안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소수의 식자들은 어느 정도 진상에 가깝게 접하고 있었을 것이고 고하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한편 1917년에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帝政을 무너뜨렸으며 새로이 들어선 소비에트 정권은 약소민족의 해방투쟁을 지원할 것을 선

24) 《고하 송진우 선생전》, 66-68쪽

25) 慎鏞廈, 《한국민족독립운동사 연구》(을유문화사, 1985), 294쪽

26) 위와 같음, 295-296쪽

언했다. 억압받는 약소민족이 독립을 얻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듯했다.

이렇게 볼 때, 기회를 기다리며 공부하고 기회가 왔을 때 함께 일해야 한다는 고하의 가르침은 확실히 민족운동계의 기회론에 입각한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의 기존 전기가 “고하가 그렇게 열성적으로 학생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고 단합을 촉구한 것은 내일의 민족독립의 쟁취를 위함이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조직의 전초전을 폈던 것이다. 언제 어디서 도화선에 불이 붙기만 하면 폭발할 태세가 갖춰져 가고 있었다”라고²⁷⁾ 썼던 것은 적절하다고 하겠다.

3 연락반의 조직과 점검

고하의 가르침과 언동이 총독부에 알려지는 경우, 그도 중앙학교도 무사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총독부는 중앙학교의 흠을 잡아 사안의 내용에 따라서는 폐교 처분도 사양하지 않을 자세였다. 그런데도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가르침에 전적으로 공감해 밖으로는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다. 확실히 중앙학교 3백여명 학생들은 고하의 감화를 받아 師弟第一主義에 뭉치게 되고 民族一家主義로 단합이 굳어져 있었다.

스승과 제자 사이에 믿음의 굳건한 터전이 닦여졌을 때인 1918년 11월 11일 윌슨 대통령은 독일의 항복을 목격하면서 147개조 원칙을 다시 확인했다.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지을 평화회의는 이듬해인 1919년 1월에 파리에서 열리기로 합의되었으며, 윌슨의 제의에 따라 국제연맹이 발족하게 되었다. 이러한 격변 속에서, 우선 해외의 독립운동 세력들은 각각 1918년 말부터 독립선언을 준비하고 있었다. 우선 소련의 연해주와 만주의 간도지방에서는 망명자들이 독립선언을 목표로 긴밀한 연락을 취해나갔다. 이와 동시에 미국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지방의 大韓人國民會가 안창호의 주도 아래 파리 평화회의에 이승만과 鄭翰景 등의 대표를 보내 독립청원서를 제출하기로 그해 12월1일에 결의했으며, 뉴욕과 워싱턴D.C 지역의 新韓協會가 金憲植의 주도 아래 11월30일 독립결의서를 채택해 미국 정치가들에게 배포했다. 이어 12월13일부터 뉴욕에서 열린 弱小民族同盟會議 제2차 연례총회에 미국의 한인 교포 대표들이 참석해 파리 평화회의가 모든 약소민족들의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민족대표들의 동의를 얻어내기에 이르렀다.

이들보다 더 조직적이며 치밀하게 대응해나간 세력은 상하이에 자리잡은 한 무리의 독립운동가들로 여기에는 여운형과 조소앙과 장덕수와 金澈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들은 1918년 8월 하순 新韓青年黨을 창당하고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고 있었다. 석달 뒤 윌슨 대통령의 특사로서 파리 평화회의에 대한 미국의 정책과 입장을 중국 정부에 설명하기 위해 중국에 온 크레인 (Charles R. Crane)을 통해 파리 평화회의에 조선민족의 대표를 파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즉시 신한청년당의 명의로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문서를 만들어 텐진(天津)에 있던 김규식을 불러 그로 하여금 파리 평화회의에 전달하게 하였다. 그들은 다른 한편으로는 조선의 민족운동가들과 일본의 조선유학생들에게 각각 밀사들을 보내 조선대표의 파리 평화회의 참석을 계기로 독립 운동을 대대적으로 일으킬 것을 종용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고무되기만 했던 것은 결코 아니다. 그들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패전국의 옛 식민지들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조선을 포함한 승전국의 식민지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파리 평화회의에서 조선의 독립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은 거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²⁸⁾ 그

27) 《고하 송진우 선생전》, 68쪽

런데도 새로운 국제적 상황의 전개를 기회로 기민하게 포착해 독립을 성취해 보겠다는 적극적인 결의에 차 있었던 것이다.

국내외 정세의 동향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있던 고하는 자신이 기다리던, 그리고 자신이 학생들에게 기다리라고 강조했던 기회가 마침내 닥쳐오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의 기존 전기가 지적했듯이, “교단에서의 열변에도 열이 더하여 갔고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떠올기 시작했다” 이와 동시에 그는 학생들의 연락반을 은밀하게 조직하기 시작했다. 학교에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에 대비한다는 명목이었다. 고하를 총책임자로 한 다음, 학생들의 주소를 지역적으로 분리하여 班을 만들고 班에는 반장을 두어 교사의 명령에 따라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모든 연락은 縱으로만 취해질 뿐 橫으로는 모르게 만들었다. 고하와 교직원들과 학생들 사이에 일심동체의 관계가 이미 성립되어 있던 터라 연락반의 비밀성과 기동성은 매우 높았다. 1918년 겨울의 어느 날 밤 인가에 고하는 시험삼아 열명의 학생들에게 비상소집을 걸었다. 한시간 십분만에 전원이 모였다. 인력거를 타고 오는 학생도 있었다. “고맙다, 기쁘다”는 말 밖에는 달리 반응하지 못한 고하는 “이제 추운 겨울에 들기 시작해서 시내에 불이 잦기에 한번 시험해 본거야”라고 설명하고, “전교생을 학교에 모으자면 얼마나 걸릴까”라고 넌즈시 물었다. “세 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대답이었다. 고하는 만족해 하면서 미리 준비한 떡과 사과를 내놓으며 “한민족으로 태어난 이상 한민족답게 값있는 생을 가져야 한다”는 훈화를 잊지 않았다. 학생들은 감격했다. 저마다 조국광복의 사명을 질 대열의 전위대가 될 것을 다짐했다. 바야흐로 3·1운동으로 거대하게 폭발할 민족해방운동의 한 불씨가 중앙학교 안에서도 조용히 마련되어 있었다.

28) 신용하, 앞의 책, 296-300쪽. 여운형과 신한청년당의 경위에 대해서는, 지은이의 저서,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전정관(박영사, 1987) 가운데 <여운형의 독립·통일노선 : 해방 이후의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321쪽

제4장 3·1운동의 주도적 추진

제1절 국내에서 독립운동을 준비해 나가다

1 중앙학교에서의 3자 모의

기회론에 입각해 인재를 기르며 학생들을 조직하면서 독립운동을 준비하던 고하는 마침내 기회가 오고 있음을 감지하는 가운데 인촌 및 기당과의 협의를 더욱 긴밀하게 진행시켰다.¹⁾ 제3장 제3절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고하는 교장으로서 교감인 기당과 함께 때로는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때로는 교내의 사택에서 함께 기거하고 있었다. 인촌은 처음에는 바로 이웃인 계동의 金思容 집에서 기거했으나 곧 이곳으로 와서 함께 잠을 자고 식사는 김사용의 집에서 날라다 먹었다. 《중앙 60년사》가 지적했듯이, “세분은 매일 조석으로 모여, 교무 이외에 시국에 대한 담화로 서로 간담을 털어 놓았다. 이와 같이 지기끼리 만났으니, 기회만 있으면 거사할 것은 물론이었다”²⁾ 세 사람은 자신들 사이에서만 논의할 뿐만 아니라 국내의 다른 지도자들과도 은밀하게 협의해 나갔다. 특히 고하는 연말부터 당시 普成法律商業學校 교수로 있던 해공과도 때때로 만나 독립운동을 계획했다.³⁾ 뒷날 대한민국 제1공화정의 국회의장으로 뽑히고 또 제1야당 民主黨의 대통령 후보로 오르는 해공과는 도쿄 유학 때부터 의기투합해 교우하던 처지였다. 이 무렵인 1918년 12월의 어느 날 미국으로부터의 밀사가 고하와 인촌을 찾아왔다. 이승만이 보냈다는 그는 “윌슨 대통령의 민족자결론의 원칙이 정식으로 제출될 이번 강화회의를 이용하여 한민족의 노예 생활을 호소하고 자주권을 회복시켜야 한다. 미국에 있는 동지들도 이 구국운동을 추진시키고 있으니 국내에서도 이에 호응해주기 바란다”는 이승만의 밀서를 전해주었다.⁴⁾

이제야말로 더 이상 논의만 하고 있을 수 없게 되었다.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할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여기서 세 사람의 대화의 방향은 자연스럽게 거사의 방법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고하의 기존 전기는 세 사람이 모의하는 광경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 이승만의] 밀사를 [……] 돌려 보낸 그 무렵을 전후하여, 고하는 인촌과 기당이 이렇게 셋이서 고하의 숙소인 중앙학교 숙직실에 자주 모여 거사에 대한 회합을 거듭했다. “피 제사라도 한번 지내보자…” 고하의 말을 기당이 받아서 물었다.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일까?” 고하는 눈을 감고 입만 움적움적했다. “무슨 묘안이 없을까?” 인촌이 고하와 기당의 얼굴을 두루 쳐다봤다. 고하는 깊은 생각에 잠길 때 으레 하는 버릇으로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⁵⁾

한편 기당의 회고는 세 사람의 본격적인 모의가 1918년 11월경부터 시작되어 그 뒤 ‘수

- 1) 고하가 중국의 신한청년당이 국내에 보낸 밀사 장덕수와와의 접촉을 통해 3·1운동 준비를 본격화한 것으로 파악했던 다음의 설명은 착오일 것이다. 고하송진우선생 전기편찬위원회(편), 《고하 송진우 선생전》(동아일보사 출판국, 1965), 70-71쪽, 이 책은 앞으로 《고하 송진우 선생전》으로 표기한다.
- 2) 중앙교우회(편), 《중앙 60년사》(민중서관, 1969), 94쪽
- 3) 柳致松, 《해공 신익희 일대기》(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1984), 151쪽
- 4) 최시중(편저), 《인촌 김성수 :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동아일보사, 1985), 123쪽. 이 책은 앞으로 《인촌 김성수》로 표기된다.
- 5) 《고하 송진우 선생전》, 72쪽

개월 동안에 걸쳐' 계속되었다고 증언한다. 세 사람은 해외로 망명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반가운 일이나, “그 세력에 있어서 미약하고 그 영향에 있어서 크지 못할 것이므로 국내에서 대규모의 운동이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전민족의 강력한 독립운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그것은 참으로 정확한 판단이었다. 일제 식민지배에 대한 항의는 역시 조선 그 자체 안에서 집단적으로 일어날 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그들은 어떻게 하면 국내에서 대규모의 민족운동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를 놓고 ‘朝夕으로’ 논의했다는 것이다.⁶⁾

이 무렵 총독부의 경계와 감시는 나날이 가혹해 갔다. 윌슨이 민족자결주의를 선언한 이후, 특히 파리 평화회의의 개최가 확정된 이후 조선 사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모를 리 없는 그들은 조선인 지도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은 물론이거니와 백성들의 언동도 독사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하여 세 사람도 매사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은밀히 거사를 계획했던 것이다.

2 천도교와의 대화 성립

이러한 협의과정에서 고하는 천도교를 움직일 것을 제의했다 “그렇지, 아직까지 우리 국내에는 이보다 더 큰 조직이 없어. 동학란이 실패는 했지만 그만큼 기세를 올린 것도 그만큼 조직이 있었기 때문이야. 만약에 천도교가 움직여 주기만 한다면 예수교도 움직일 수 있을거야. 그리고 학생 동원은 내가 맡겠어” 고하의 이 제의에 대해, 기당의 회고에 따르면, 역시 “단결력이 있는 천도교를 움직이는 것이 상책이라는 데 의견이 일치하였다”⁷⁾

그러면 천도교를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고하는 천도교를 동원하자면 먼저 천도교의 교주인 의암 손병희를 움직여야 하며, 손병희를 움직이려면 먼저 손병희의 세 눈동자라고 하는 權東鎭과 吳世昌과 崔麟의 세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고 제의했다. 그러면서 마침 기당이 보성학교 학생이었을 때 최린이 교장이어서 사제지간이며 지금도 그가 교장으로 있어서 서로 가깝게 지내온 터이니 먼저 기당이 최린에게 접촉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덧붙였다. 적절한 제의였다. 古友라 자호하는 최린은 1878년에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1909년에 도쿄의 메이지대학 법률학과를 졸업했다. 고하의 메이지대학 선배가 되는 셈이다. 최린은 귀국해서 1년이 채 못되어 경술국치를 당하자 이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석방된 뒤 천도교에 입교하자마자 손병희의 인정을 받아 손병희와 생사를 같이 할 것을 약속하기에 이르렀으며 1910년 11월에는 천도교가 경영하던 보성학교의 교장으로 임명되어 이때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⁸⁾

기당은 물론 고하의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기당의 회고에 따르면, 그래서 자신은 최린을 찾아가 천도교의 동향을 타진했다. “用力할만도 하고 또 최씨의 의견도 반대하는 기색은 적으므로 그때부터는 송씨와 동반하여 최씨를 찾기로 하였다”⁹⁾ 이렇게 하여 중앙학교와 천도교 사이의 제휴는 성립되게 되며, 이 제휴가 국내에서 3·1운동을 일으키게 하는 가장 큰 시발적 힘을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매우 중요한 양자의 제휴가 성립되는 과정은 고하의 기존 전기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

6) 현상윤, <3·1운동의 발발의 개요> 《사상계》(1963년 3월), 44-49쪽에 있다. 이 글의 원형은 원래 <3·1운동의 회상>이라는 제목 아래 《新天地》1946년 3월호에 게재되었다.

7) 위와 같음, 44쪽

8) 白世明, <崔麟>, 동아일보사 신동아 편집실(편), 《한국근대인물百人選》(동아일보사, 1979), 188-191쪽

9) 현상윤, 앞의 글, 45쪽

고하는 기당을 앞세워 1주일에 평균 두 번 풀이나 찾아다니며 권유했다. 고하의 열변에 마침내 최린도 움직였다. 최린은 가담의 뜻을 표명하면서 의암에게는 직접 말할 단계가 아니라 조금만 참아 주면 憂堂 권동진과 葦滄 오세창의 동의를 얻어 셋이서 진언을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육당 최남선도 함께 참가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도 붙었다. 다음은 육당 교섭의 차례였다. 고하는 이번에도 기당을 특사로 보냈다. “나는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고 육당은 기당의 권유를 여러가지 이야기 끝에 거절했다. 고하는 육당의 말을 전혀 듣고도 낙망의 빛이 조금도 없었다. 육당도 이 민족적인 거사를 끝내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¹⁰⁾

그런데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지기에 앞서 천도교는 천도교대로 3·1운동의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남한의 사회과학계에서 3·1운동을 가장 체계적이며 집중적으로 연구해 온 학자로 인정되는 신용하 교수에 따르면,¹¹⁾ “평화회의가 1919년 1월에 파리에서 열릴 경우에, 식민지 문제는 월슨이 1918년 1월8일 연두교서에서 발표한 14개조에 입각해서 민족자결주의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결될 것이라는 보도 기사들이 나 [왔을 때...] 천도교측에서 제일 먼저 이러한 국제 정세의 유리한 변화를 포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논의한 사람 [들이 있었다. 그들] 은 권동진과 오세창이며, 그 시기는 1918년 11월 하순~12월 중순인 것으로 보인다.”¹²⁾ 이 두사람의 논의가 진행되면서 “12월에는 최린도 가담하여 독립운동이 검토된 것으로 보인다. 이 무렵에 손병희도 韓龍雲 등으로부터 독립운동을 일으킬 것을 권고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때에는 논의만 했을 뿐 아직 독립운동을 일으킬 구체적 계획은 전혀 시작된 것 같지 않다”¹³⁾ 이러한 상황이었기에 최린은 거사 계획에 일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손병희에게 보고하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르다고 답변했을 것이고, 최남선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이다.

제2절 도쿄의 2·8독립선언과 연결되다

1 밀사의 방문

이 시점에서 在日유학생들이 본국에 은밀히 파견한 와세다대학 학생 宋繼白이 서울에 도착함으로써 상황은 급변하게 되었다. 그때가 1919년 1월 상순이었다. 우리가 제1장 제2절에서 살폈던 대한제국 개항 직후의 민족주의적 3대 조류의 하나였던 갑오농민전쟁의 맥을 이어받은 민족주의적 종교단체인 천도교가, 더구나 당시 국내에서 몇 개 안되는 조직을 갖고 있던 천도교가 이처럼 중대한 시점에 새로운 사태의 전개를 방관만 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면 그는 어떤 배경에서 서울로 오게 되었던가? 이 물음에 대한 대답 역시 신용하의 연구로부터 얻기로 한다.¹⁴⁾

당시 제일 유학생들은 일찍부터 월슨의 민족자결주의가 조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10) 《고하 송진우 선생전》, 73-74쪽

11) 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 연구》(을유문화사, 1985), 제3장 <3·1독립운동 봉기의 경위> 및 제4장 <3·1 독립운동의 사회사>

12) 위와 같음, 229쪽

13) 위와 같음, 229-230쪽

14) 위와 같음, 223-228쪽 및 230-232쪽

을 알고 평화회의에 기대를 걸지 않았었다. 영국인이 고베(神戸)에서 경영하는 <저팬 애드버타이저 (The Japan Advertiser)>지 1918년 12월15일자에 ‘한인들이 독립을 옹호하다 “Koreans Agitate for Independence”’라는 제목 아래 실린 기사, 그리고 12월18일자에 ‘약소민족들이 발언권 인정을 요구하다(“Small Nations Ask To Be Recognized”)’라는 제목 아래 실린 기사는 재일 유학생들의 태도를 한꺼번에 바꿔 놓았다. 앞의 것은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한인들의 독립운동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미국정부에 제출하였다. 국무성은 이 청원서를 상원 외교위원회에 문의하였다. 이와 유사한 보고서가 도쿄의 외무성에도 역시 도착하였다”라는 샌프란시스코 12월12일 발신이었다. 뒤의 것은 앞의 것보다 훨씬 더 고무적이었다. 그것은 뉴욕 12월15일 발신으로, “이곳에서 열린 세계약소민족동맹회의 제2차 연례 총회는 파리에 가있는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파리 평화회의에서 도달하는 어떠한 합의도 그것이 약소민족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그 민족의 동의 또는 거부의 결정에 귀속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전문을 보내었다. 또한 그들은 국제연맹의 필수적 전제의 하나는 민족자결주의 원칙의 완전한 인정과 약소민족의 국제연맹에의 정회원 가입권의 인정임을 결의하여 선언했다. 회의의 대표들에는 한국, 레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알바니아, 앗시리아, 그리이스, 인도, 아일랜드, 페르시아, 스코틀랜드, 우크라이나, 트랜스발의 대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기사였다.

이 보도를 발견한 재일 유학생들은 이에 큰 자극을 받고 기쁨에 넘쳐 서로 비밀리에 이 소식을 전했다. 이와 동시에 그들은 곧바로 본격적인 독립운동을 조직화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1919년 1월6일 독립운동을 펼쳐나갈 임시실행위원으로 와세다대학 학생 崔八鏞과 송계백을 포함한 10명을 선출했다. 여기에는 고하와 인촌과 의형제나 다름 없으며 중앙학교에 근무하다가 바로 얼마 전에 도쿄로 유학한 근촌 백관수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는 이때 세이소꾸영어학교에 재학중이었다. 고하와 인촌과의 깊은 교우 관계로 말미암아 근촌은 중앙학교의 세 사람들과 도쿄의 유학생 독립운동가들을 직접적으로 잇는 고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실행위원들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해 일본의 정부와 국회 및 일본 주재 각국 사절에 보내기로 결정하고 1월 7일 회원 2백여명으로 동의를 얻었다. 이 무렵 중국의 신한청년당 밀사들이 도착해 그들의 궤기를 성원했다. 여기에 더욱 고무된 재일 유학생들은 비밀리에 朝鮮靑年獨立團을 조직하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해 독립선언을 준비하는 한편으로 송계백을 국내에 파견하여 독립운동을 고취시키고 자금을 모집하며 독립선언서 인쇄용 활자를 구입하도록 결정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1919년 1월 상순에 도쿄의 청년밀사 송계백은 은밀하게 서울에 나타났던 것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송계백의 입경과 그것에 따른 국내 지도자들과의 접촉은 다음 달 도쿄에서 일어나는 2·8독립선언과 그 다음 달에 일어나는 3·1독립선언의 배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에 관련된 당사자들의 회고들을 비록 중복감이 있다고 해도 차근차근하게 다루어 보기로 한다. 우선 고하의 기존 전기는 이렇게 회고하고 있다.

밤을 이용하여 고하의 [숙소를] 찾은 밀사가 있었다. 중앙학교 교사로 있다가 도쿄 유학을 떠난 백관수가 보낸 유학생 송계백이었다. 송계백은 대뜸 고하를 보고 조용히 이야기하자고 했다. 고하는 송계백을 앞세우고 인촌의 [숙소로] 자리를 옮겨갔다. 방으로 인도하자, 송계백은 쓰고 있던 학생 모자 안을 뜯고서 앓다란 비단 수건을 내어 놓았다. 그 三八細 수건에는 잔 씨가 가득했다. “됐다” 하고, 고하는 잔글씨를 읽어보기가 무섭게

무릎을 쳤다. 고하의 추측대로 도쿄 유학생들이 작성한 독립선언서가 아닌가. 고하는 독립선언서를 읽고 적이 감격했다. [……] 학생의 몸으로서 국내보다도 먼저 발족을 한 데 대해 고하는 한편 놀라웠고 한편 기쁘기도 했다. 송계백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독립선언서의 초안은 근촌 백관수가 작성하고 춘원 이광수가 퇴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인쇄하고자 하나 도쿄에서는 활자를 구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 조속히 국내에서 활자를 구해 보내달라는 것이었다. 동시에 독립선언은 국내와 긴밀한 연락을 취해가지고 同日 同時에 거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활자뿐이겠는가,” 고하는 송계백의 손을 잡고 놓을 줄 몰랐다. 송계백도 손을 잡힌 채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 밀사 송계백을 [숙소에] 숨겨두고 이튿날부터 고하와 기당은 다시 치밀한 계획을 짜고 활동을 개시했다.¹⁵⁾

한편 기당의 회고로는, “1919년 1월 초순경 일본 유학생 송계백군이 장차 일본에서 발표하려는 일본 유학생들의 독립요구선언서 초고(이광수 작)를 휴대하고 비밀리에 입경하여 나에게 그것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고하에게 보였다.¹⁶⁾ 그러면 그 다음에는? 고하의 기존 전기와 기당의 회고가 공통되게 쓰고 있듯이, 고하와 기당은 송계백의 독립요구선언서 초고를 때마침 중앙학교를 찾아온 최남선에게 보여 주었다. 최남선은 일전에 고하의 설득을 거부했던 것이 미안해서 돌아가는 형편도 다시 논의해 볼 겸해서 중앙학교를 찾았던 것이다. 이 자리에서, 기당의 회고에 따르면, “최씨도 금후로 국내의 독립운동에 참가할 것을 승낙하고 또한 국내 운동의 선언서는 자기가 짓겠다고 쾌락하였다”¹⁷⁾ 확실히 일은 빠르게 진전되어 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볼 때, 저 유명한 朴殷植의 《韓國獨立運動之血史》가 3·1운동에 관해 설명하면서 “그 운동의 동기를 보면, 우리 학우 최남선, 현상윤, 송진우, 최린 등 여러 사람들에 의하여 은밀하게 연구되었다”라고 썼던 것은¹⁸⁾ 사실에 부합한다고 하겠다. 종합하건대, 신용하는 국내외적으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거의 동시에 3·1운동을 기획한 흐름에는 적어도 일곱 개의 흐름이 있었으며” 국내에 한정시켜 볼 때는 세개의 흐름이 있었으니, 그 하나가 “국내의 천도교를 중심으로 하여 이에 합세한 중앙학교 등의 일단의 흐름이다”라고 지적했는데,¹⁹⁾ 이 흐름의 발원자가 바로 고하였던 것이고 발원지가 중앙학교였던 것이다.

2 3·1운동 계획의 진전과 좌절

그러나 일은 지금부터가 시작이었다. 천도교가 교단 전체로서 움직이겠다는 확약을 공식적으로 해주는 일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하는 기당과 더불어 천도교와의 대화를 더욱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그 뒤의 상황 전개를 기당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정직하고 객관적인 회고여서 이 방면에 관한 연구들에 널리 인용되고 있으므로 비록 길다고 해도 여기서도 그대로 소개하기로 한다.

15) 《고하 송진우 선생전》, 74-75쪽

16) 현상윤, 앞의 글, 45쪽

17) 위와 같음.

18) 이 책은 원래 1920년 말에 탈고되었다. 여기서는 南晚星이 번역하고 서문당이 1975년에 출판한 같은 제목 아래서의 문고판에 의존했다. 인용된 부분은 상권, 141쪽에 있다.

19) 신용하, 앞의 책 228쪽

그때 나는 다시 그 초고를 가지고 최린 씨를 경유하여 손병희 씨에게 제시하였다. 그러 한즉 손씨 왈 “어린 녀들이 저렇게 운동을 한다 하니 우리로서 어찌 앉아서 보기만 할 수 있겠느냐” 하며, 그날로 천도교의 최고간부회의를 열어 토의를 하고 드디어 천도교의 결 기를 결정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최린, 송진우, 최남선과 나는 재동의 최린씨 집 내실에서 비밀히 회합하였는데, 이날 저녁에 4인은 기뻐서 축배를 들고 밤 깊도록 독립운동의 실행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계획과 방안을 토의하였다. 그러한 결과 먼저 민족대표자의 명 의로 조선독립을 中外 [곧 나라안팎] 에 선언하고 그 선언서를 인쇄하여 이것을 조선 全 道에 배포하고 또 국민을 총동원시켜 크게 조선독립의 시위운동을 행하여 한국민족이 1910년의 소위 합병을 힘있게 부인하고 또 그들이 어떻게 독립을 열망하고 있는가를 내 외에 표시하게 하며 또 一邊으로 일본 정부와 그 貴-衆 양원과 조선총독과 또 파리 강화 회의에 열석한 각국 대표에게 조선독립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또 미국대통령 윌슨씨 에게 조선독립에 관하여 진력하기를 비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결정하고 선언서와 기타 서류는 최남선 씨가 제작하기로 [했다].²⁰⁾

그러면 최린은 어떻게 회고하고 있는가? 최린의 회고도, 세부 사항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를 나타내나, 큰 흐름으로 볼 때는 기당의 회고와 비슷하다. 3·1운동이 국내에서 모의 되는 과정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데, 3·1운동의 33인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대표적인 위치에 있었던 최린의 회고는 도움이 되는 자료이므로 비록 길다고 해도 여기에 인용하기로 한다.

오랜 일이라 날짜를 알 수 없으나 어느날 이른 아침인 듯도 하고 밤인 듯도 하다. 의외 에 재동 68번지 나의 집으로 찾아와서 도쿄 유학생들의 시국에 대한 동향과 그 결의사항 을 자세히 말한 뒤 자기 모자속을 뜯고 거기서 끄집어내어 나를 주길래 받아서 본즉 독립 선언문이었다. 나는 그 글을 읽는 순간에 청년들의 불타는 애국심에 감격하여 눈물을 금 치 못하였다. 송군도 역시 흥분된 기색이었다. 나는 송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요 새 일본 경찰의 주목이 여간 심하지 않다. 경성 안에서 주류하다가 잡힐 염려가 있으니 만사를 모두 나에게 일임하고 군의 고향 본택에 내려가서 친환으로 귀성하였다 하고 잠복 하여 있다가 기회를 보아서 활동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권고하니 송군도 그리하겠다고 승낙하고 서로 눈물로서 작별하였다. [...] 동년 2월 상순경에 최남선, 송진우, 현상운 등 과 재동 자택에서 극비밀리에 수차 회합하고 운동에 대한 계획을 토의 [했다].²¹⁾

그 사이인 1월 22일에 조선왕조의 제26대 군주이며 대한제국의 초대황제였던 고종이 별 세했다. 헤이그 밀사사건이 빌미가 되어 12년 전에 일제에 의해 퇴위를 강요당했던, 그리고 경술국치 이후에는 李太王으로 격하되어 불리었던 고종의 죽음은 특히 그가 일제의 하수인 에 의해 독살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망국의 백성들 사이에 깊은 조의와 함께 강렬한 항 일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었다.²²⁾

이 시점에서 고무적인 일이 나타났다. 손병희가 매우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해

20) 현상운, 앞의 글, 45쪽

21) 李炳憲(편저), 《3·1운동비사》(시사시보사 출판국, 1979), 49쪽. 이 책에는 <최린 선생의 자서전 중 원문> 이 45-58쪽에 포함되어 있다.

22) Frank Baldwin, "The March First Movement: Korean Challenge and Japanese Response," unpub. Ph. D. dis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69, p.51.

은 것이다. 이번 일이 단번에 성공되리라고 보지 않는 만큼 현재의 인원과 재정을 반분해서 받은 제 1차에 참가시키고 나머지 받은 제2차로 동원하기로 하되 손병희 스스로는 제1차에 참가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대한 문제에 직면했다. 거사 당일에 독립선언서가 뿌려지고 독립 만세의 소리가 3천리에 진동한다면 일제가 무력을 쓸 것인데 이것에 어떻게 대항하느냐의 문제였다. 고하의 해답은 비폭력투쟁이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고하의 기존 전기는 “이쪽에서 폭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저쪽에서도 무력을 쓸 리가 없고 만일 이쪽에서 폭력을 쓰기로 한다면 무기도 없이 너무 많은 희생자들을 내게 될 것이라는 고려에서였다”라고만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흡한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지은이의 분석으로는, 고하의 비폭력론은, 우리가 앞 章들에서 이미 살폈듯이, 고하가 1900년대 중반 이후 지켜온 실력배양론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실력배양론자들은 힘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의 무력적-폭력적 대결을 힘의 낭비라고 외면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하의 입장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어떻든 고하가 제시한 비폭력의 원칙은 곧 천도교 간부들에 의해서 수용된다. 손병희를 비롯한 천도교 간부들은 (1) 독립운동은 대중화하여야 하고, (2) 독립운동은 일원화하여야 하며, (3) 독립운동의 방법은 비폭력으로 한다는 3대 원칙을 정립하게 된 것이다. 신용하의 표현을 빌리건대, “이것은 3·1운동의 원칙을 천도교측에서 결정한 중대한 합의였다.”²³⁾

이러한 원칙이 세워졌을 무렵에, 당시 新文館이라는 출판사를 갖고 있기에 최남선에게 맡겨졌던 활자 확보도 이루어지고 자금도 조달되어 송계백을 도쿄로 돌려보낼 수 있었다. 고하는 송계백을 통해 근촌에게 “(1) 거사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2) 도쿄에서 준비가 다 되었다 해도, 도쿄에 비해 준비기간이 필요한 국내의 형편을 고려하여, 절대로 먼저 거사하지 말며, (3) 적어도 거사하기 1주일 전에 연락을 하고, (4) 모든 연락은 전보로 하며, (5) 비밀 유지에 특히 유의할 것”이라는 비밀 지령을 보냈다. 전보와 관련해서는 주식시장 米頭에서 쓰는 용어를 쓰도록 했다. 예컨대, ‘꺾기한다’는 뜻으로는 ‘샀다’라는 말을 쓰도록 하고, 날짜에 대해서는 가격으로 표현하도록 했다. 이런 암호 아래서는 “3·1에 샀다”고 한다면 “3월 1일에 꺾기한다”는 뜻이 된다.²⁴⁾

송계백을 보낸 뒤 고하는 기당과 함께 천도교측과의 협의를 보다 더 본격화해 나갔다. 그들은 그들 사이에서는 이미 합의된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대표자를 가려 뽑아 앞세우는 일이 선결과제라는 데 합의했다. 여기서부터, 이제까지는 비교적 순조롭게 진전되던 일이 우여곡절을 겪게 되었다. 고하도 깊이 개입된 이 일의 경과에 대해 우선 기당의 회고를 들어보기로 한다.

우선 민족대표자 [문제에 대해] 제1후보자로 손병희씨 이외에 朴泳孝, 李商在, 尹致昊 3씨의 승낙을 얻기로 하고 박씨의 교섭은 송진우씨가, 이-윤 양씨의 교섭은 최남선씨가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수일 후에 前記 4인은 다시 [고하의] 계동 중앙학교 사택에 회동하여 그동안 교섭의 경과를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박-이-윤 3씨가 다 교섭을 거절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전기 4인은 다시 제2후보자로 韓圭高-尹用求 양씨에게 교섭하기로 하고 한씨에게는 송진우씨가 兪鎮泰씨를 통하여, 윤용구씨에게는 최남선씨가 尹弘燮씨를 통하여 각각 교섭하기로 하였다. 2-3일을 경과하여 또 다시 계동 중앙학교 구내 사택에 전기 4인이 회합하여 그동안의 경과를 들었는데 한씨는 처음에는 승낙하였으나

23) 신용하, 앞의 책, 232쪽

24) 《고하 송진우 선생전》, 78-79쪽

윤씨가 승낙하지 않으므로 한씨도 승낙을 철회하였다는 것이었다. 그러한즉 최린씨가 민족대표를 다른 데 구할 것 없이 손씨를 선두로 하고 우리 4인이 자진 참가하자고 하여 먼저 최남선씨에게 의향을 물으니 최씨는 가업 관계로 하여 승낙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다음에 송진우씨의 의향을 물었는데 송씨는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러한즉 최린씨는 다시 최남선씨를 향하여 최씨 (남선)가 승낙하지 않으면 자기도 참가할 수 없고, 또 천도교 만으로는 이 운동을 진행할 수도 없으니 전부 이 운동을 중지하자고 제의하여 부득이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²⁵⁾

기당의 이 회고에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민족의 대표로 거명되고 추천된 사람들 가운데 오직 고하가 승낙하고 다른 이들은 모두 거절했다는 사실이다. 한규설(1856~1930)은 대한제국의 참정대신 곧 국무총리로서 을사5조약에 끝까지 반대했던 이가 아니었던가. 박영효(1861~1939)는 철종의 부마로 한때는 개화당의 거물이 아니었던가. 윤치호(1865~1945)는 독립협회 회장을 지냈던 선구적 민권운동론자가 아니었던가. 이상재 (1850~1927)는 항일지사로 존경받는 원로가 아닌가. 이같은 지난 시대의 기라성 같은 지도자들, 또는 나라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지도자들이 모두 발을 빼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만 29세의 청년으로서 대단히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한 최린의 회고는 어떠한가? 앞에서 이미 인용했던 최린의 회고는 다음과 같이 이어진다.

[……] 무엇보다도 먼저 민중의 신망을 가진 인물들을 간판으로 하지 않으면 대중적 동원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이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각 방면으로 물색해 보았으나 만족하다고 할 만한 인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古人의 말에도 材不借於異代라고 하였다. 그 말은 그 시대의 일은 그 시대 사람으로서 할 것이요 인재를 다른 시대에서 꾸어다 쓸 수는 없다는 말이다. 우리 일도 현 인물을 등장시킬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아래의 네 사람을 택하여 교섭해 보기로 하였다. 그 인물들은 윤용구, 한규설, 박영효, 윤치호 4인이다. 윤용구는 구한국 대신으로서 합병 후에 일본 작위를 받았으나 그 품성이 고결한 사람이었고 한규설은 을사보호조약 당시 참정대신 즉 총리대신으로서 소위 5조약을 한사코 반대한 사람이었고 박영효는 소위 개화당 영수로서 갑신정변 후 일본에 망명하였다가 제주도에 귀양살이까지 한 저명한 귀족혁명가로서 경술국변 후에 일인의 강압에 의하여 작위를 받은 것이 그의 큰 결점이었다. 그러나 독립운동에 수작자 1인쯤 참가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요, 윤치호는 과거 광무년간에 독립협회장으로서 특히 미국 사람들에게 신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나는 한규설을, 최남선은 윤용구와 윤치호를, 송진우는 박영효를 각각 맡아서 교섭해 보기로 하였다. 수일 후 어느날 밤에 계동 중앙학교 숙직실에 회합하여 그 교섭한 결과를 서로 보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내가 교섭한 한규설만은 일이 중대하니 신중히 고려해 보자는 약속이었고 그밖에 박영효와 윤치호는 모두 회피하 [였다는 것이었다……] ²⁶⁾

최린의 이 회고는 기당의 회고와 큰 줄거리에 있어서는 사실상 일치한다. 고하에 관련지어 비교할 때, 고하가 박영효에 대한 교섭을 맡았음이 다시 한번 확인된다. 이 점은 3:1은

25) 현상윤, 앞의 글, 45쪽

26) 이병헌(편저), 앞의 책, <최린 선생 자서전 중>, 48-49쪽

동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때 있었던 박영효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도 거듭 확인된다. 1919년 7월 10일 경성지방법원 예심에서 박영효는 고하가 찾아와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으니 참가하라고 권유했으나 거절했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의 증언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문 : 송진우가 [...] 민족자결에 대하여 말하기를 천도교가 민족 자결주의에 따라 조선 독립운동을 계획하고 있으니 참가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지 않던가.?

답 : 그런 말을 하였다.

문 : 그때 송진우가 증인에게 말한 내용은 ?

답 : 송진우가 말한 것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파리에서 연맹회의가 개최되고 민족자결이 주창됨에 따라 천도교의 손병희 등이 독립을 계획한다는 것을 말하였다.

문 : 그래서 증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였는가?

답 : 그때 나는 송진우에게 신용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였다. 조선은 인물도 없고 아직은 그런 일을 성취할 수 없다는 의미를 말하였다.²⁷⁾

실제로 고하는 유길준의 아우로 칙임참여관을 지낸 兪星濬을 보내 설득했으나 실패하자 자신이 나섰던 것이다. 박영효는 “나는 그런 일에는 참견 못하겠소”라고 잘라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거사 계획은 확실히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이 위기는 우리가 다음에서 보게 되듯이 부분적으로는 도쿄의 유학생들에 의해 해소되었다.

3 도쿄에서의 독립만세 운동

일본의 조선인 유학생들은 송계백이 자금과 활자를 갖고 돌아옴을 계기로 독립선언운동을 급속히 진전시켰다. 최팔용은 2월7일 조선청년독립단의 이름 아래 국문과 일문과 영문의 3개 국어로 된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의 준비를 끝냈다. 이에 따라 그들은 2월8일 오전 10시께 그 문서들을 계획했던대로 요로에 우송하고 같은 날 오후 2시 간다(神田)에 자리잡은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조선유학생학우회 총회를 개최한다는 이름 아래 사실상 조선청년독립단 총회를 개최하여 약 2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선언서에 서명한 유학생들의 명단에는 물론 고하의 친우 근촌이 들어 있었다.

조선의 독립운동사에 길이 남을 이 독립선언서는 일제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이 없었다. 그것은 우선 일제가 조선을 침략하고 식민지로 만든 경위를 낱낱이 지적하고 특히 조선에 대한 일제 식민통치의 야만성을 통렬하게 규탄했다. 그리고는 국제정치의 조류가 평화를 지향하며 민족자결을 뒷받침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식민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만일 조선민족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조선민족은 일제에 대항해 영원한 전쟁을 계속할 것임을 다짐했다.²⁸⁾ 金成植 교수가 2·8 독립선언서의 내용이 3·1 독립선언서의 내용보다 그 이념적 지향에 있어서 한 단계 앞서 있다고 지적할²⁹⁾ 정도로 이 문서는 한국 민족주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

27) 위와 같음, 750-751쪽

28) Baldwin, 앞의 논문, 43쪽

29) 김성식, 《일제하 한국학생 독립운동사》(정음사, 1974), 55-56쪽

운 것이다 .

2·8 독립선언은 엄청나게 큰 신선한 충격과 함께 곧바로 국내에 알려졌다. 2·8선언에 참여했던 유학생들 스스로 국내로 돌아와 독립정신과 투혼을 전파시킨 것은 더 큰 파급효과를 낳게 되었다. 그 충격의 물결에 밀리어 국내에서 민족대표자 선임을 둘러싸고 주춤거리던 독립선언을 위한 거사준비에는 새로운 활력이 돌기 시작했으며, 그리하여 마침내 다음 달 초하룻날에 저 위대한 독립만세 운동이 전국적으로 폭발하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요컨대 2·8 독립선언은 그 자체가 3·1운동의 서곡과 선구로서 3·1운동의 발발에 가장 큰 영향을 준 흐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신용하의 지적은³⁰⁾ 과장이 아닌 것이다.

제3절 3·1운동을 촉진시키다

1 기독교와 연결도 이룩하다

2·8독립선언의 행사는 이미 고하에게 통고되어 있었다. 우리가 앞節에서 살폈듯이, 국내에서는 민족대표의 선정문제에서 좌초되어 아직 틀도 잡지 못하고 있던 시점에서 고하에게 “2·8 샀다”라는 전보가 날아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물론 2월8일에 거사를 하겠다는 연락이었다. 고하는 다시 한번 피가 끓어오름을 느끼면서도 더욱 초조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무렵 만주와 연해주와 시베리아 일대의 독립운동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大韓獨立宣言書를 발표했다는 소식도 흘러 들어왔다. 발표된 날짜가 양력으로는 1919년 2월경이나 음력으로는 1918년 12월이어서 戊午獨立宣言書라고도 불리는 이 선언에는 呂準, 김규식, 李始榮, 朴股植, 김좌진, 신채호 등등이 서명했으며, 미주의 이승만과 안창호 등등도 서명했다.³¹⁾ 이들 서명자 가운데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 나오고 초대 부통령 [이시영] 이 나오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의 토론도 더 이상의 지연도 허용될 수 없었다. 고하는 일단 중단된 천도교와의 대화를 다시 열기로 마음먹고 기당과 협의했다. 기당은 물론 적극 찬성했다. 이 무렵 기독교 안에서도 독립선언 운동을 준비하는 세력들이 있었다. 상하이의 신한청년당과 연결된 기독교 장로교 쪽의 南岡 李昇薰(1864~1930)이 그 대표적인 지도자였다. 평안 정주 출신으로 일찍이 유기행상으로 입신해 마침내 豪商으로 성장한 그는 교육사업을 통한 항일 민족운동에 뜻을 두고 평안도와 황해도 일대에서는 최초의 중학교인 五山學校를 세웠으며, 이러한 활동 등으로 일제에 의해 여러 차례 투옥되었으나 굽히지 않았다, 1911년의 105인 사건에도 연루되어 4년 동안 옥살이를 했는데, 이때 기독교를 받아들여 신앙심으로 스스로를 단련시켰다. 해외에서 일어난 갖가지 독립선언들은 남강의 피를 끓게 했다. 게다가 신한청년당의 밀사 선우혁의 접촉마저 받았던 터였다. 여기서 그는 이 기회에 국내에서도 독립을 선언하는 큰 규모의 민중 봉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굳히고, 송실전문학교를 비롯한 평양의 여러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과 정주의 교회들을 중심으로 독립선언과 시위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했다. 고하와 기당은 이러한 기미를 날카롭게 파악하고 있었다, 1918년 4월 남강이 학교 일로 상경했을 때 만나보고 그가 애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고하는 그를 움직이는 일이 긴급하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천도교와의 대화를 다시 열면서 동시에 기독교를 끌어들이어 연합전선을 형성하기로 한 것이다.

30) 신용하, 앞의 책, 227쪽

31) 위와 같음, 219쪽

고하는 기당으로 하여금 우선 육당을 다시 찾아보도록 권고했다. 기당은 육당을 자택으로 방문해 “기독교를 천도교와 연결시키는 것이 어떠하냐, 그리하자면 정주의 이승훈씨를 상경하게 함이 어떠하냐” 하는 의견을 말하였다. 육당은 “좋다. 그리하자”라고 선선히 응답했다. 기당은 그 길로 오늘날의 중구 삼각동 근처인 水下洞 鄭魯滉의 집으로 갔다. 정노식은 고하와 함께 메이지대학에서 유학했던 이로 뒷날 조선공산주의 운동에 뛰어드는데, 기당이 찾는 사람은 정노식이 아니라 이 집에 잠시 머물고 있는 希天 金道泰(1891~1956)였다. 남강과 동향이며 게다가 남강의 오산학교 출신일 뿐만 아니라 오산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남강과 뜻을 같이하는 처지여서 남강에게 비밀스런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기에는 가장 적임이었다.³²⁾ 김도태는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정주로 내려가 서울의 동향을 전하면서 남강의 서울行을 앞당길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3·1운동 직후 체포되었을 때 일제 경찰이 행한 취조에서 남강은 “ [……] 2월 10일인가 경성에 사는 최남선이가 김도태라는 사람을 나에게 보내었는데 그때 나는 宣川 金龍律 집에 유숙하고 있었다. 김도태는 鐵山 사람 朴賢煥을 내가 숙박하고 있는 김용률 집에 보내서 경성서 최남선이가 지급히 상의할 일이 있으니 올라오라고 하므로 나는 최남선이가 지급히 오라고 사람을 보낸 것은 시국에 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날 밤 기차로 올라왔다”고 대답했다.³³⁾

남강이 서울에 도착한 때는 2월 12일 아침이었다. 기당의 회고에 따르면, “최남선씨는 관헌의 주목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은 이씨와 회견하지 아니하고 송진우씨와 나더러 회견하라 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양인과 김성수씨는 계동 김성수씨 別宅에서 이씨를 회견하고 그동안 在京동지의 계획과 천도교의 동향을 말하고 기독교측의 참가와 동지 규합의 일을 청하니 이승훈씨는 즉석에서 그것을 쾌락하고 김성수씨로부터 수천원의 운동비를 받아가지고 그날로 관서지방을 향하여 출발하였다”³⁴⁾ 이와 관련하여, 남강은 경찰의 취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경성에 도착하자 곧 [……] 김사용 집에서 송진우를 방문하였는데 同人이 말하기를 최남선은 시간의 여유가 없이 바쁜 사람이므로 면회하기 어렵다고 하고는 자기가 최남선에게 나를 상경하도록 전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하면서 민족자결주의와 조선독립운동을 위하여 여론을 환기한다는 말을 하였다. 송진우는 예수교와 천도교가 서로 합하여 독립운동을 하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므로 최남선과 최린이 주선하고 있으니 당신은 평안남-북도의 기독교 목사와 신자를 망라하여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원로로서는 한 규설, 김윤식, 윤용구 등에게도 조선독립운동을 할 것을 지금 교섭중이라고 하였다. 나도 조선의 독립운동을 원래부터 찬성하고 있었으므로 그러면 나도 시골에 돌아가서 경성의 큰 일에 순응하겠다고 대답하고 그날 밤 기차로 선천에 도착하여 김용률 집에 돌아왔다.³⁵⁾

32) 金忠善, <金道泰>, 동아일보사 신동아 편집실(편), 앞의 책, 259쪽

33) 이병헌(편저), 앞의 책, <이승훈 선생 취조서>, 339쪽

34) 현상윤, 앞의 글, 45-46쪽

35) 이병헌(편저), 앞의 책, <이승훈 선생 취조서>, 340쪽. 또 金基錫, <이승훈>, 동아일보사 신동아 편집실(편), 앞의 책, 122쪽. 김기석은 이렇게 썼다: “남강이 맨처음 3·1운동에 대한 구체적인 교섭을 받은 것은 1919년 2월 9일에 선천에서였다. 손병희, 송진우, 최남선, 현상윤 등은 3·1시위 운동을 계획하고 관서지방의 기독교 세력을 규합하려는 최남선을 통해 김도태를 남강에게 보냈다. 남강은 2월 11일 서울에 도착하여 계동 김성수 별저에서 송진우와 만나 기독교의 참가를 합의하고 이튿날 다시 선천으로 돌아 [왔다]

기당의 회고에서, 그리고 특히 남강의 회고에서 명백한 것은 만 29세의 고하가 같은 연배의 동지들과 함께 10년 또는 20년 이상의 선배들을 설득시키면서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거사를 도모해 나갔다는 사실이다. 고하는 한 차례의 주저나 한 차례의 번의도 없이 처음부터 일관된 자세를 유지했던 것이며, 그것은 거사의 계획이 어려운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극복하게 만든 중요한 추진력의 한 원천이 되었던 것이다.

2 재동 회담을 성사시키다

고하의 그러한 역량은 남강 이승훈의 쾌락에도 불구하고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합전선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다시 한번 발휘되었다.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앞에서 이미 보았듯이, 남강은 선천으로 내려가 동지들의 규합에 착수했다. 기당의 표현을 빌린다면, 그는 “질풍뇌우와 같이 평남-북을 순행했다” 그리하여 “장로과의 吉善宙, 梁甸伯, 李明龍, 劉如大, 金秉祚 제씨와 감리과의 申洪植씨 등과 회견하고 그들의 민족대표자 되는 승낙을 얻고 또 그 인장을 모아가지고 그중의 신홍식과 동반하여 다시 경성으로 왔다” 서울에 도착한 남강은 종로구 昭格洞의 한 민가에 묵으면서 육당 최남선을 만나고자 했으나, 기당의 회고에 따르면, “교섭의 본인인 최남선씨는 용이히 1차도 면회치 아니했다” “관현의 주목이 있을까 하여 關係各人이 행동을 삼가던 때”였기 때문이다.³⁶⁾ 그래도 고하는 여러 차례 남강을 방문했다. 그러나 육당을 전혀 보지 못한 남강은 “심중에 대단히 의아하여 천도교와의 연계를 단념하고 기독교도 단독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을 결심하였다” 이때 남강은 길에서 우연히 감리교파에 속하며 조선기독교청년회 총무인 朴熙道를 만나게 되었다. 박희도는 “경성에서도 기독교도들 사이에 독립운동에 관하여 인심이 암암리에 동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활로를 발견한 남강은 그들과 만날 것을 요청했다. 여기서 2월 20일 밤에 두 개의 모임이 마련되었다. 우선 감리과의 吳華英, 鄭春洙, 申錫九, 崔聖模, 朴東完, 李弼柱, 吳某善, 申洪植 등등과 만난 데 이어, 南門 밖 威台永의 집에서 李甲成, 安世桓, 玄楯, 吳祥根 등등의 장로과 인사들과 만난 것이다. 그들 사이에서는 기독교도들이 단독으로 독립운동을 일으킨다는 계획에 합의했다.³⁷⁾ 이들 가운데 함태영은 뒷날 대한민국의 제 3대 부통령으로 선출된다.

고하는 일이 잘못되어가고 있다고 직감했다. 천도교와 기독교가 반드시 연합전선을 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책임의 상당한 부분이 육당에게 있다고 판단한 고하는 육당에게 달려가서 함께 남강을 찾아가 남강과 고우 최린의 회담을 주선하고 그것을 통해 ‘천도교쪽의 성의에 대한 남강의 의혹’을 풀어 주자고 설득했다. “남강을 우리가 그렇게 대접할 수야 있소? 하루 빨리 남강을 찾아가서 고우에게 소개를 시킵시다”고 달래기도 했다. 고하의 설득은 효험을 보아 결국 재동의 고우의 집에서 기독교를 대표한 남강과 천도교를 대표한 고우 사이의 회담이 이루어졌고, 이 회담을 토대로 하여 3·1운동 거사의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다.³⁸⁾

앞에서 살핀 협의과정은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여기에 관련된 인사들의 회고들을

36) 현상윤, 앞의 글, 46-47쪽, 현상윤은 남강이 소격동의 여관에 묵었다고 회고했으나, 남강은 경찰 취조에서 金昇熙의 집에서 묵었다고 대답했다. 이병헌(편저), 앞의 책, <이승훈 선생 취조서> 342쪽

37) 현상윤, 앞의 글, 47쪽

38) 《고하 송진우 선생전》, 88쪽

비교해 보기로 한다. 우선 기당의 회고를 옮겨본다.

[남강이 기독교도들의 단독 거사계획을 협의하던] 중인 2월 21일에 최남선씨가 비로소 이승훈씨를 그 숙소로 방문하고 이씨와 同道하여 재동 최린씨를 찾아 서로 회견하게 하였다. 이때에 이승훈씨는 최린씨에게 기독교만으로 독립운동을 단독 진행하고 있다는 뜻을 고하니 최린씨는 독립운동은 한국민족 전체에 관한 문제이니 종교의 異同을 불문하고 마땅히 합동하여 추진시킬 것인즉 기독교와 천도교가 합동하자고 제의하였다. 그러한 즉 이씨는 동지들과 상의한 후에 회답할 것을 약속 [했다.] 39)

고우 최린의 회고도 사실상 같은 내용이다.

2월 21일 최남선은 이승훈을 찾아 그간 일경의 주목 때문에 만나지 못하였다고 한 후, 같이 재동 나의 집으로 찾아와서 이승훈은 자기가 경과한 모든 사유를 말한 다음 어제 기독교측 여러 사람이 회의한 결과 기독교측은 독자적으로 운동을 진행할 방침이란 것을 말하였다. 그 말을 들은 나는 한 나라의 독립운동은 민족 전체에 관한 대사업이므로 이와 같은 민족적 과업에 있어 종교가 다르다거나 당파의 別이 있을 수 없고 독립 운동이 만일에 분산적으로 된다면 그것은 독립에 대한 민족적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즉 절대로 합동해야만 한다고 역설하였고 육당도 이것을 주장하였다.40)

남강도 “최린과 만났을 때 同人은 천도교도와 기독교도가 합하여 독립 운동을 하고 여론을 환기하는 것이 좋다고 하므로 나도 동감이라 대답하면서도 서로 합체행동할 것을 약속하고 작별하였다”고 회고했다.41) 이 세 사람의 회고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거듭 말하거니와, 육당을 매개로 한 남강과 고우의 재동회담이 기독교와 천도교가 연합전선을 이룩하는 데 결정적 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여기에 고하의 공로가 있다. 육당을 설득하여 재동회담을 유도해 낸 장본인이 고하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재동 회담은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었나? 기독교와 천도교의 연합에 대한 합의가 성립되고 나자 남강은 운동의 자금을 천도교측에서 빌려 줄 것을 요청했으며 고우는 이것을 받아들여 며칠 뒤 5천원을 보내 주었다.42) 회담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자, 고하의 기존 전기에 따르면, “남강은 구국운동이 성공만 되면 사후대책의 하나인 정부 조직도 논의할 뜻까지 표했다. 이에 고하는 조각문제는 거사가 성공한 뒤 해외 망명 애국지사와 국내 애국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할 의제이니 뒤로 미루고, 우선 항쟁의 기본문제가 화급함을 역설했다”43)

재동회담 이후 기독교와 천도교 사이의 회담은 급진전되었다. 그리하여 2월 24일에 (1) 거사는 고종의 국장일인 3월 3일에 이틀 앞선 3월 1일에 하고, (2) 3월 1일 정오를 기해 탑골공원 곧 파고다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선포한 뒤에 만세를 부르고, (3) 독립선언서는 3만매를 찍어서 서울과 각 지방에 발송하고, (4) 서울 및 각 지방에서 일대 시위운동을 전개하고, (5) 일본 정부와 일본 귀족원-중의원과 총독부에 독립선언서 및 의견서를 보내고, (6)

39) 현상윤, 앞의 글, 47쪽

40) 이병헌(편저), 앞의 책, <최린 선생 자서전 중>, 50쪽

41) 위와 같음, <이승훈 선생 취조서>, 343쪽

42) 위와 같음.

43) 《고하 송진우 선생전》, 88쪽

상하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곳 동지들과 협의해 파리 강화회의와 월슨 대통령에게 독립선언서를 보내고, (7) 선언서에 서명할 대표의 비율은 천도교 15명, 기독교 16명, 불교 2명 등으로 하여 서명자 전체의 수가 33명이 되고, (8) 독립 운동은 비폭력 시위로 한다는 데 합의했다.⁴⁴⁾

3 불교와 유림과 학생들

일곱째 항목을 보면 불교대표 2인이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기로 되어 있다. 이것은 어떤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인가? 불교 대표를 끌어 들인 것은 천도교쪽의 발의에 따른 결과였다. 최린은 기독교와의 연합을 모색하던 2월10일께 이미 불교계 대표로서 평소에 친분이 있는 衿海 韓龍雲(1879~1944)과 접촉하여 그의 동의를 받았던 것이다. 한용운은 최린으로부터 계획을 듣자마자 전폭적으로 호응하면서 불교계 동지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실제로 당시 강원도의 신흥사 승려이던 그는 호남과 영남의 심산유곡에 자리잡은 여러 절들에 긴급히 연락하여 동지를 모으는 활약상을 보였다. 그러나 시일이 워낙 촉박하여, 본명이 白相奎로 海印寺 승려이던 白龍成 禪師의 승낙을 얻게 된다. 비록 두 승려만의 참여이지만 이로써 불교계와의 연합전선도 사실상 형성되었다고 하겠다.⁴⁵⁾

그러면 유림과의 제휴는 어떻게 되었나? 조선왕조의 抑佛崇儒정책 아래서 유교는 국가의 공식적 이데올로기로 채택되었으며 조선은 ‘유교국가’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유림은 국가로부터 가장 큰 은덕을 입었건만 3·1운동의 계획과 추진과정에 사실상 거의 참여하지 못했다. 강호석 박사가 지적했듯이, 그것은 “조선의 유교의 역사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오명이었다”⁴⁶⁾ 물론 막상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유교를 따르는 선비들이 수없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독립 만세를 불렀고, 3월 하순에 뒤늦게나마 1백37명의 유림 대표들이 연서하여 조선의 독립을 청원하는 長書를 파리 강화회의로 보냈지만,⁴⁷⁾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유림의 대표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일이 이렇게 되게 된 데 대한 책임은 3·1운동을 계획하고 추진한 세력과 유림 모두에게 있는 것 같다. 신용하가 지적했듯이, “첫째는, 유림들이 완고하여 다른 종단으로부터의 접촉 시도에 기민하게 반응하지 못한 점이다. 둘째는, 천도교와 기독교측이 유림을 연합전선에 참여시키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⁴⁸⁾ 어쨌든, 다시 신용하의 분석을 빌리건대, “유림의 참여가 없게 됨에 따라 유림 세력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지역에서의 대규모 민중 동원의 가능성이 약간 약화된 것이 사실이었다”

다행히 학생들의 참여는 확보되었다. 천도교와 기독교의 연합이 확정되기에 앞서 이미 독자적으로 독립운동을 추진하던 학생대표들은 2월 20일경 勝洞예배당에서 제1회 학생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을 확정지었다. 그런데 나흘 뒤에 연합전선을 형성한 천도교와 기독교가 학생들에 대해서도 참여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 들었다.

44) 위와 같음, 89쪽

45) 신용하, 앞의 책, 248-249쪽

46) Thomas Hosuck Kang, "The Changing Nature of Korean Confucian Personality under Japanese Rule," in C. I. Eugene Kim and Doretha E. Mortimore(eds.), *Korea's Response to Japan: The Colonial Period, 1910~1945* (Kalamazoo: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75), p.229

47) 이것은 흔히 巴里長書事件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서는 그 주동자의 한 사람인 金昌淑에 대한 책에 자세히 나와 있다. 山山思想研究會(편), 《金昌淑》(한길사, 1981), 191-196쪽

48) 신용하, 앞의 책, 251쪽

이에 따라 천도교와 기독교와 불교와 학생단의 연합전선 형성이 완결된 셈이었다.⁴⁹⁾ 학생들은 이처럼 연합전선 형성에 참여하면서도, 독자적인 운동도 병행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때 서울의 중-고등학교로서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학교가 중앙학교를 비롯해 경성고등보통학교, 善隣상업학교, 보성고등보통학교, 敝新학교 등등이다.

학생들을 움직임에 있어서도 고하는 물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관련하여 기당의 증언을 들어보기로 한다.

이보다 먼저 송진우씨와 나는 보성전문학교 졸업생 朱翼씨를 통하여 시내 전문학교 학생중에서 그 대표될 만한 인물을 탐색하여 장래할 시위운동의 중핵체를 구성하여 대기의 태세를 취하게 하였던 바가 있었는데, 이때에 박희도와 이갑성 양씨는 이것을 알고 此等 대표자들은 이것을 쾌락하고 2월 28일에 보성전문의 康基德군과 延禧專門의 金元壁, 의학전문의 韓健偉 3군은 승동예배당에서 시내 중등학교 대표자와 기타 남-녀 전문학교 대표자 10수명을 소집하고 시위운동에 대한 구체적 지령을 수여하였다.⁵⁰⁾

당시 중앙학교 학생으로 고하의 제자이던 秋汀 任鳳淳의 전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918년 겨울, 중앙학교를 거점으로 무엇인가 심상하지 않은 움직임이 바빠 돌아가고 있었다. 미국 윌슨 대통령이 주장한 민족자결주의는 이 나라에 한 가닥 희망을 주었던 것이다. 불면증으로 피곤해 보인 고하 선생의 얼굴은 늘 굳어 있었다. 학생들 사이에도 탄 학교와의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하루하루 긴장과 압박감이 더해만 갔다. 추정은 어느 학생보다도 이 기미를 빨리 알아차렸다. 머리 큰 학생들 사이에는 공개된 비밀로 차츰 그 윤곽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고하 선생은 각계에 손을 뻗쳐 빈틈없는 조직력을 강화해 갔다. 동지선달의 흑한에도 시내 각 학교의 학생대표들은 연일 회합과 연락으로 추위 따위는 아랑곳이 없었다. 학생 연락의 총책은 경성법률진수학교 주익이 맡았고, 각 학교별 연락책은 보성전문에 강기덕, 연희전문에 김원벽, 세브란스 의전에 李容高, 경성의전에 한위건, 경성고工에 李鍾宣, 그리고 중학교 대표로는 중앙에 張基郁, 보성에 張彩極, 경신에 康禹烈 등으로 되어 있다. 이 조직을 움직이는 총참모의 주역은 뒤에 고하 선생이 맡고 있음을 아는 이는 알고 있다.⁵¹⁾

이 기록은 당시의 상황을 중앙학교적 시각에서 파악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에 대한 고하의 평소의 감화와 영향력이 컸음을 확인시켜 줌과 아울러 3·1운동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고하가 배후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겠다.

비단 학생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보통 젊은이들에 대해서도 3·1운동에의 참여를 은유적인 화법으로 권유하곤 했다. 당시 젊은이들의 항일단체였던 十五人會의 한 회원은 뒷날

49) 위와 같음, 253쪽

50) 현상윤, 앞의 글, 46-47쪽

51) 秋汀 任鳳淳선생 전기편찬위원회(편저), 《추정 임봉순 선생 小傳》(秋溪학원 재단사무소, 1969), 18쪽, 여기서는 주익을 경성법률진수학교 학생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이다. 그는 이때 보성법률상업전문학교를 졸업한 뒤였다. 추정은 일제 때 동아일보사 기자로 있으며 항일운동에 종사했고 해방이후에는 주로 체육계와 실업계에서 활약했다.

이렇게 회고했다. “내 나이 스물일곱 나던 2월에 [...] 나는 국상에 참여하러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에서 김성수와 송진우 두 선생을 만나 뵈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송진우 선생께서 ‘이려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고향으로 내려가 나랏일을 하시오’ 라는 말씀을 하셨다. 이것은 3·1운동의 거사를 넘지시 시사하시는 말씀이었다. 우리 고향에서도 쫓기할 것과 그 사전 운동을 우리가 맡아 해달라는 부탁이었다”⁵²⁾

4 2월 28일 밤의 마지막 점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천도교와 기독교와 불교와 학생단 사이의 연합전선이 형성됨과 아울러 독립선언서와 독립통고서와 독립청원서 등등의 문건의 작성도 끝났다. 이것들은 모두 육당 최남선이 작성하였고 민족대표자들의 동의를 받았다. 육당은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며 독립선언서에는 서명하지 않았다. 인쇄는 오세창의 책임 아래 천도교 직영의 인쇄소인 普成社에서 사장 李鍾一이 지휘한 가운데 2월 27일 밤에 끝났으며, 배포는 역시 오세창과 이종일의 책임 아래 국내에서는 대체로 2월 28일 안에, 아무리 늦어도 3월1일 오전에 끝났다. 이 일련의 과정에 고하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았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거사를 하루 앞둔 2월 28일 밤에, 독립선언서에 서명할 민족대표자들은 서로 대면도 하고 최후의 회의를 행하기 위해 가회동의 손병희 집에 모였다. 참석자는 모두 23명이었다. 엄숙하고 강개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는 진행되었다. 기당의 회고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탑동공원은 다수의 학생이 집합하니 紛擾가 염려된다 하여 3월 1일에 행할 독립선언의 장소를 仁寺洞 明月館 지점 [곧 泰和館] 으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최남선, 함태영, 송진우, 鄭廣朝, 현상윤 諸人은 잔류 간부로 하여 대표자들이 체포된 후의 제반 임무를 담당할 것을 결정하였다”⁵³⁾ 민족지도자들은 앞으로 닥칠 검거와 탄압에 대비하여,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 새롭게 추진할 예비선을 보존해야 할 고려에서, 제1진과 제2진으로 나누기로 한 것인데, 고하는 기당과 더불어 제2진에 속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인촌은 동지들의 간곡한 호소에 따라 2월 27일 고향 줄포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중앙학교를 끝까지 보호하려면 무엇보다 그의 不在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깊은 배려에서였다.

이때 제 1진으로 분류된 이들은 물론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이며 제2진으로 남게 된 이들은 17인이어서, 3·1운동의 계획과 추진에 참여한 지도적 인사의 수는 50인에 이르게 된다. 일제가 그런데 33인 가운데 한 사람(김병조)은 망명하고 한 사람(양한묵)은 옥사하게 되어 종국적으로 공판에 회부된 사람은 48인이 된다.⁵⁴⁾ 3·1운동의 의미를 낮게 인식시키기 위해 50인사건으로 부르는 근거가 그것이다. 어쨌든 이로서 만 29세의 청년 고하는 3·1운동의 민족대표자 33인 그룹에는 이름이 오르지 않았으나 48인 그룹에는 이름이 당당히 오르게 된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고하가 어려서부터 키워 온 민족주의 정신이 頂點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한 마디로 고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이었을 것이다. 그 영광은 우리가 다음 章에서 보듯이 투옥이라는 시련에 잠시 부딪치게 되지만 그는 이것마저 이겨낸다.

52) 朴址宣, <송진우 선생과 15인회>, 《신동아》 1965년 3월, 92쪽

53) 현상윤, 앞의 글, 47쪽

54) 이병헌, <내가 본 3·1운동의 一 단면>, 동아일보사(편), 《3·1운동 50주년 기념 논집》(동아일보사, 1969), 410쪽

제5장 3·1운동의 발발 : 투옥과 재판

제1절 전국으로 확산된 독립 함성과 고하의 활동

1 진동하는 독립 만세 소리

1919년 己未년 3월 1일 마침내 “대한 독립 만세 !” “조선 독립 만세 !”를 외치는 조선민중의 함성이 서울과 주요도시들을 가득 메웠다. 태화관에는 독립선언서 서명자 33인 가운데 29명이 참가했다. 평양의 김선주와 의주의 유여대와 원산의 정춘수는 그날 저녁 늦게 도착했고, 의주의 김병조는 상하이로 망명했기에 참가자는 29명이 된 것이다. 그들은 독립선언서의 낭독은 생략한 채 한용운의 사회 아래 독립을 선언하고 역시 한용운의 선창으로 만세를 삼창했다. 한편 파고다 공원에서는, 앞장을 선 학생들과 더불어 못백성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다음 갖가지 구호의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쳤다. “吾等은 茲에 我 朝鮮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로 시작하여 공약 3장으로 끝나는 이 선언서는 일제의 식민 지배에 시달리던 조선민중의 피를 끓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고하 역시 새삼 걱정을 맞보게 되었다.

3월 1일 그날에도 수많은 인파 속에서 태극기가 휘날렸지만, 그 이후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독립과 만세의 함성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으며, 그리하여 1919년 5월 말까지 끊어 볼 때 조선 8도 전역에서 적어도 1천 5백 42회의 집회를 통해 적어도 2백 2만여 명이 참가했다. 당시의 인구가 약 1천 6백 70만명을 감안할 때, 인구 8명당 1명꼴로 참가했음을 의미한다. 신용하가 지적했듯이, “총인구에 대한 비율로 볼 때 당시까지의 약소민족 독립운동 사상 최대 규모의 시위운동이었을 뿐 아니라 승전국 제국주의에 대한, 상상도 못했던 과감한 도전이었다”¹⁾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당시 조선백성의 거의 모든 계층이 빠짐없이 참여했다는 사실이다. 비록 종교 지도자들과 교육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지식인 계층에 의해 계획되고 추진되었다고 해도, 일단 폭발하면서도 농민층을 비롯해 노동자층과 상공자층과 학생층이 폭넓게 호응함으로써 문자 그대로 범민족적 독립운동으로 승화되었다는데 3·1 독립운동의 의의가 빛난다고 하겠다.²⁾ 그리하여, 확실히 “이 운동으로 1910년 이후 10년간 담아놓은 일제의 한국민족 말살정책이 근본적으로 파산되었으며, 어떠한 힘으로도 파괴될 수 없는 민족독립운동의 원동력을 형성하고 민족독립역량을 강화하여 독립의 쟁취를 튼튼히 보장하였다”³⁾

2 학생 대표들의 소집

고하도 기당과 더불어 끝없이 이어지는 만세 시위의 거대한 인파를 목격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맞볼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시간도 잠깐이었다. ‘잔류간부’로서의 그에게는 제2선에서 수행해야 할 임무가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날 밤 중앙학교 뒷산에 연락장소를 정하고 학생대표들을 소집했다. 그는 여기서 학생대표들에게 일인들의 본토

1) 신용하, 《한국민족독립운동사 연구》(을유문화사, 1985), 285-286쪽

2) 金敬泰, <3·1운동 참가계층의 사회경제적 성격>, 동아일보사(편), 《3·1운동과 민족통일 : 3·1운동 70주년 기념 심포지움》(동아일보사, 1989), 56-57쪽

3) 신용하, 앞의 책, 285쪽

철수를 요구하는 운동, 일인과의 물품 매매를 거절하는 철시 운동, 총독부예의 납세 거절 운동, 관공리들의 사직 운동, 일인들의 손으로 운영되는 사업 기관예의 비협력 운동, 일인들이 세운 공장예서의 동맹파업, 학생들의 동맹휴학 등의 지령을 내려, 몇 부문에서는 적지 않은 바람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때의 일화를 소개하기 위해 우리 이름 石虎弼로도 유명한 의사 스코필드(Frank W. Schofield: 1888~1970)를 먼저 소개하기로 한다. 그는 영국 태생의 의학자로 1916년에 조선으로 와 오늘날의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인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에서 세균학을 가르치다가 3·1운동이 일어나자 위험을 무릅쓰고 일제의 포악상을 필름에 담아 세계에 소개했던 우리 겨레의 벗이다. 이 일 때문에 1920년 일제의 강압으로 본국 캐나다로 돌아가 토론토대학교 교수로 재직했다. 그는 195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 10주년 기념을 축하하기 위해 38년만에 내한했을 때, 3·1운동 당시 자신이 목격한 고하의 한 모습을 이렇게 전했다.

고하가 체포되기 며칠 전, 아마도 3월 3일인 듯한 날에, 서울역 앞에서 제2차 시위가 있었다. 이날의 시위는 1만여명에 이르렀다. 고하는 몸을 피하여 학생들을 격려할 겸 나왔다가 당시 서울역 건너편에 위치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로 들어왔다. 나와 인사를 나누는데 뒤따라 고하를 미행하던 형사가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고하는 재빨리 타자기 앞에 앉아 태연히 타자하는 척했다. 방에까지 들어온 형사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고개를 가우뚱하면서 돌아갔다. 고하는 빙긋 웃으면서 다시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다.⁴⁾

스코필드는 한국에서 영주할 결심으로 1969년에 내한했고 이듬해에 서울에서 별세했다. 항일운동에 기여한 그의 업적을 기리어 그의 묘소는 동작동 국립묘지에 봉안되어 있다.

제2절 피체와 심야의 맹견고문

1 일제의 탄압과 고하의 구속

3·1운동에 대한 일제의 즉각적 대응은 전국적인 검거와 무자비한 살상과 원시적인 고문과 노골적인 탄압이었다. 우리가 제2장 제3절에서 이미 살폈듯이,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는 사실상의 군정체제 아래서의 야만적인 무단통치였다. 일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탄압 역량으로, 정규군과 헌병경찰과 조선총독부 행정조직이라는 3중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데, 3·1운동 직전에 그 규모는 (1) 조선 주둔 일본 정규군이 약 2만 3천명, (2) 일제 헌병경찰이 1만 3천 3백 80명, (3) 조선총독부 관리 2만 1천 3백 12명으로, 모두 약 5만 7천 6백 92명에 이르렀다. 물론 일제는 이밖에도 필요하다면 언제나 조선에 증파할 탄압 무력을 수개 사단이나 일본 본토안에 확보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조선사람들은 문자 그대로 寸鐵조차 갖고 있지 못했다.⁵⁾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탄압 역량을 동원하여 조선민중을 살상하고 체포하고 고문했으며 조선민중의 갖가지 건물을 불태웠다. 1919년 5월 말 현재 아무리 적게 잡아도 7천 5백 9명을 죽였고 1만 5천 9백 61명을 손상시켰고 4만 6천 9백 48명을 구속했으며, 7백 15동의 민가와 2개의 학교와 47개의 교회당을 훼손했다. 이 피해들

4) 고하 집안의 소장 기록.

5) 신용하, 앞의 책, 317-318쪽

은 모두 일제 군경이 비폭력 방법을 택한 조선의 시위군중에게 발포함으로써 일어난 것이었다.⁶⁾ 1919년 5월 말 이후에도 독립 만세 시위는 전국에서 간헐적으로 계속되었다. 해외에서도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때, 3·1독립운동에 실제로 참가한 우리 겨레의 수는 참으로 상당히 많음을 알게 된다.

일제는 어느 누구보다 3·1운동을 주도한 민족대표자들을 재빨리 현장에서 체포했다. 이미 총독부 경무총감부에 자신들의 행동을 통고했던 그들은 여기에 순순히 응했다. 이때 33인 가운데 김병조는 이미 상하이로 망명했으므로 32인이 체포되었는데 그날부터 며칠 동안에 걸쳐 우선 경찰과 검찰이 취조하였다. 일제는 이어 민족 대표자의 제2진인 17명을 체포했다. 그리하여 3·1운동의 주모자로 모두 49명을 체포하게 된 것이다. 고하도 영예로운 구속자의 명단에 올랐다. 인간과 감옥의 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사상가들과 문필가들이 이미 적절한 金言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무턱대고 투옥하는 정부 밑에서는 정의의 인간도 참된 장소도 또한 감옥이다”라는 고대 그리스 시대 아테네의 정치가 솔론(Solon)의 말은 지금도 음미해 볼 만하다. 그러나 어느 누구보다 쉬우면서도 핵심적으로 설파한 이는 한국의 소설가 李炳注라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사실상의 문단 등단작인 《알렉산드리아》에서 “어떤 사상이건 사상을 가진 사람은 한번은 감옥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상엔 모 [角] 가 있는 법인데 그 모 있는 사상이 언젠가 한번은 세상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것 아닌가. 세상과 충돌했을 때 상하는 건 세상이 아니고 그 사상을 지닌 사람인 것이 뻔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⁷⁾

고하의 사상은 모가 나도 보통 난 사상이 아니었다. 배달의 후예들이 강포한 압제자들의 지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 한다는 조선 독립의 사상은 점령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영원히 유폐되어야 할 위험스럽고 불령스러운 사상이었다. 그리하여 고하는 유수의 몸이 되었다. 32인이 체포된 뒤 며칠이 지나서였다.

2 의지로 이겨낸 고문

그가 중앙학교 숙직실로부터 한 밤중에 끌려간 곳은 오늘날의 중구 예장동 근처로 총독부 경무총감부가 있던 곳인 倭城臺였다. 그곳에는 경기도 경찰부 고등계 주임으로 독립투사들의 체포와 고문을 주도해 온 악명 높은 미와 가주사부로(三輪和三郎)가 독사의 눈을 뜨고 악마의 채찍을 든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우선 “당신은 교육자니 교육자답게 정직히 말하십시오”라고 제법 점잖게 나왔다. 고하는 “난 모르오”라고 짧게 응수했다. “대장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만 이치를 무서워한다”라는 중국 呂新吾의 가르침 그대로 고하에게 두려운 대상은 독립운동이라는 대의의 배반이었지 일제의 한낱 番犬은 아니었다.

미와는 대꾸가 떨어지기 무섭게 고하를 고문실로 끌고 갔다. 그의 입에서, 고문자가 결국에는 도달하고 마는 인격과탄자만이 쏟아낼 수 있는 온갖 욕설과 조롱이 쏟아졌다. 다음에는 고하의 옷을 모두 벗겨 발기발기 찢고 발가벗겨서 세웠다. 그리고는 깡지를 끼게 하고 고문실 밖으로 끌고 나가서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밀어던졌다. 그 순간 고하의 몸 위로 못개들이 짓으며 몰려들었다. 사지와 몸뚱이를 가리지 않고 물어뜯고 또 발톱으로 핏자국을 내었다. 고문을 예상하기는 했으나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당하리라고는 미처 생

6) 위와 같음, 324-325쪽

7) 이 소설은 원래 《월간 세대》 1965년 7월호에 발표됐다. 인용된 부분은 범우사가 1977년에 펴낸 문고판 《알렉산드리아》, 36-37쪽에 있다.

각하지를 못했다.⁸⁾ 전 남로당 간부 朴甲東은 자신이 받들었던, 조선공산당 당수였으며 뒷날 남로당의 실질적인 당수였던 朴憲永이 북한에서 金日成에 의해 세퍼드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1953년 7월에 한국전쟁이 휴전으로 일단 매듭지어지면서 김일성은 자신에 도전해 온 남로당 세력의 핵심 지도자들을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그들이 ‘미제의 고용 간첩’이었다는 죄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이미 한낱 힘없는 수인이 된 박헌영을 세퍼드로 하여금 물어뜯게 했다는 것이다.⁹⁾

고문은 폭력과 결혼한 불법적 권력의 사생아라는 말이 있다. 일본 제국주의 정권이나 북한 金日成 정권이나 모두 불법적 권력이며, 여기서 우리는 反인간적 독재체제에 공통되는 야만적이며 상습적인 고문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굽히지 않는 고하를 ‘타계석기 시대의 원시인들’은 고문실로부터 다시 문초실로 끌고 갔다. 거기서의 끔찍스러웠던 일을 고하의 기존 전기는 이렇게 묘사했다.

“맛이 어떤가, 그 정도는 약과니 하루 이틀 잘 생각하지”하고 고하를 다시 감방에 집어 넣었다. 서울의 3월 중순은 기온이 몹시 찬 계절이다. 고하는 다시 한밤중에 문초실로 불러 나왔다. 전일과 같은 대답이었다. “그렇다면 각오하라”하고 고하에게 물을 흠뻑 적신 가죽조끼를 입히고 뜨거운 불 옆에 앉혔다. 가죽조끼는 물기가 마르면서 바짝바짝 죄어들었다. 가슴이 터질 것만 같고 두 눈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고통이었다. 고하의 입에서는 끊어져 들어가는 숨소리가 흘러나오며 그의 의식은 흐려지기 시작했다. 고하는 고통을 참고 또 참았다.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죽는 한이 있어도 입을 열지 않을 각오였다.¹⁰⁾

고하가 워낙 견결히 버티는 것을 보고 오히려 ‘원시인들’이 당황했다. 고하의 굳은 의지와 한결같은 신념에는 어쩔 수 없다고 한 발 물러서게 된 것이다. 며칠 뒤 이미 잡혀 온 민족 지도자들과의 대질신문이 시작되었다. ‘원시인들’은 고문으로 자백을 얻지 못하자 인정의 기미를 건드려서 고하의 입을 열게 할 작정으로 고하 앞에 민족대표들 가운데 한 사람을 불러냈다. 그는 이미 자백했던 내용을 순순히 되풀이하면서, 고하에게 감추지 말라며 자백을 중용했다. 고하는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났음을 직감했다. 물론 고하가 알고 있던 내용과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었다. 처음부터 천도교가 중심이 되어 거사를 준비했는데 나중에 고하를 비롯한 중앙학교 사람들이 참여한 듯이 되어있는 진술이 그것이었다. 그러나 새삼 달리 진술할 필요가 없고, 또 더 이상 입을 다물고만 있으면 동지들을 혹독한 고문으로 이끌 것 같았다. 고하는 ‘맞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부터 ‘원시인들’도 제법 친절을 베풀었다. 의자에 앉으라고도 하고 담배를 권하기도 했다. “송선생은 고문으로는 안 돼” 하고 저희들끼리 떠들고 히죽거리기도 했다. 견디기 어려운 모욕이요 고초 그대로였다. 고통 속에서도 때때로 기쁨이 있었다. 그것은 그 안에서나마 동지들을 만나는 것이었다. 김도태를 만난 곳도 여기에서였고 더구나 중국에 망명한 것으로만 알고 있었던 설산 장덕수를 만난 곳도 여기였다. 설산은 신한청년당의 밀사로 도쿄와 서울에서 사명을 끝내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에서 선편을 찾다가 붙잡혀 왔던 것이다. 여기서의 모습을 김도태는 이렇게 회고했다.

8) 《고하 송진우 선생전》, 96-97쪽

9) 박갑동, 《박헌영 : 그 일대기를 통한 현대사의 재조명》(인간사, 1983), 276-279쪽

10) 《고하 송진우 선생전》, 97쪽

[...] 방마다 앞에서 창살 모양으로 나무를 세웠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있어 내가 들어가는 것을 내다보게 되었다. 처음에 고하 송진우가 “너도 기어이 잡혀 왔구나” 하고 소리를 지른다. 옆방에 있던 월남 이상재 노인이 “흥, 젊은 사람들은 대개 다 잡혀 오는구먼” 하는 소리가 들린다. 또 그 옆방에 있던 설산은 모포 한장을 들어 창살 사이로 휘두르면서 “나 장덕수 여기 왔어”하는 소리가 들린다”¹¹⁾

설산은 3·1운동과는 관계가 없지는 않으나 처벌할 법규가 없는 것으로 밝혀져 일단 석방되지만, 감시와 활동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여 오늘날의 전라남도 新安郡 荷衣島라는 한 작은 섬으로 유배된다. 그러나 그 해 11월 일제가 상하이에 있는 신한청년당 대표 여운형을 도쿄로 보내 일제 고관들과 조선의 독립문제를 토론하게 할 때 여운형이 장덕수의 동행과 통역을 요청하자 별 수 없이 방면되게 된다. 일제는 여운형을 회유하기 위해 이러한 방법을 썼지만 여운형은 당당한 태도로 조선 독립의 필연성을 강조해 이른바 도쿄 담판은 여운형의 승리로 귀착된 것으로 평가됐다. 또 여운형의 통역을 맡았던 설산의 역량이 크게 부각됐다. 도쿄 담판 직후 여운형은 상하이로 설산은 서울로 돌아갔다.

3 검사의 취조

문초와 고문과 대질신문 등등의 경위를 거쳐 고하는 서대문감옥으로 옮겨졌다. 일제 치하에서 서대문감옥은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이 반드시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었고, 그곳 수인명 부에의 등재는 영예로운 조국 해방투사들의 列傳에의 참여를 의미했다. 입감과 더불어 고하는 자신이 마침내 구한말의 항일의병의 후예로서의 자격을 얻었으며 영원한 스승 기삼연의 제자로서의 도리를 다했음을 확인하면서 가슴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죄의식으로부터 어느 정도 해방될 수도 있었다. 감옥에서 그는 오히려 자유로워졌음을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피체로부터 40일쯤 지난 4월 18일 마침내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검사 가와무라 시즈나가(河村靜永)의 손에서 취조조서가 작성됐다. 검사의 취조 가운데 핵심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문 : 최린과 최남선과 만난 일이 있지 않는가.

답 : 있다. 본년 1월 말경이라고 생각된다. 일본서 발행하는 신문에 과리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이 민족자결이란 문제를 제창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현상윤과 같이 지나는 말로 우리 조선도 독립운동을 하였으면 어떠할까 하였더니 현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 후 날짜는 기억할 수 없으나 2~3일 후라고 생각한다. 최린이 중앙학교로 와서 현하 시국을 말하고 있을 때 최남선도 와서 독립운동을 할 말을 하였다.

문 : 그 전말을 자세히 말하라.

답 : 그때 이 운동을 하려면 구한국시대 원로들과 상의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여 박영효, 윤용구, 한규설 등을 만나보기로 하였으며 나는 2월 2~3일경인가 박영효한테 가서 [...] 최린이 독립운동을 할 것을 말하더라고 하니 박영효는 조선도 문화정도가 진보되면 헌법도 실시하게 되고 자치도 하게 될 것이란 말을 하면서 조선독립을 민족자결에 의하여 운동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였다. 결국 그 교섭은 실패하였다.

11) 李敬南, 《雪山 張德秀》(동아일보사, 1981), 105-106쪽에서 다시 옮김.

최린은 나와 최남선을 보고 우리끼리 운동을 하자 하므로 나는 교육자의 자격으로 있기 때문에 그 취지는 찬성하나 참가할 수는 없다고 하였으며 최남선 역시 자기도 문학을 연구하는 만큼 참가할 수 없다고 하였던 바, 최린은 금후에는 이 일에 대하여 다시 말하지 않겠다고 하고 일어설 때 최남선이가 자기는 참가하지 않지만 예수교와 제휴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현상운을 시켜 정노식과 같이 있는 김도태를 정주로 보내서 이승훈을 불러 오게 하였다. 최남선은 다른 사정이 있어서 내가 이승훈을 만나 최남선의 말을 대신 한 일은 있다.

문 : 무슨 말을 하였는가?

답 : 천도교에서 지금 독립을 계획하고 있는데 예수교도 그런 의사가 있는가 하였더니 이승훈은 그 일로 최남선이가 만나자 하더니요 물으므로 최남선이를 만나 자세한 것을 들으라 하였다.

문 : 그 후 최남선이가 이승훈을 만났는가.

답 : 만났을 줄 안다.

문 : 그 후 최린과 종종 만났는가?

답 : 만난 일이 없다.¹²⁾

검사는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금번 독립 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한 고하의 답변은 간명하면서도 당당했다. 그는 “조선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대꾸한 것이다.

제3절 경성지방법원 예심으로부터 경성복심법원 확정판결까지

1 예심에서의 고하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은 출판법 및 보안법 위반혐의로, 다른 민족 대표자들과 함께 고하를 곧바로 경성지방법원 豫審으로 기소했다. 이때 예심으로 넘어가는 사람은 민족 대표자 48인을 비롯해 무려 3백 60명이나 되었는데 6월 말에는 5백55명으로 늘어났다. 이 숫자는 일제가 3·1운동의 추진 세력을 얼마나 철저히 조사하고 탄압하려 했는가를 말해주는 하나의 자료라고 하겠다.

경성지방법원 예심은 나가시마 유조(永島雄藏) 예심판사의 주심아래 이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나갔다. 특히 민족대표자 48인에 대한 예심에 집중하여, 그 가운데서도 제1진인 32인에 대해서는 대체로 4월 7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1차 예심을 끝냈다. 천도교 지도자들에 대한 조사로 시작하여, 우선 ‘손병희의 세 눈동자’라고 하는 최린과 권동진과 오세창에 대해서는 각각 4월 7일, 8일과 9일에, 그리고 이어 손병희에 대해서는 4월 10일에 1차 조서를 받았다. 이어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교 지도자들에 대해 신문하여, 1차 예심은 5월 8일 한용운으로써 매듭지었다. 그들은 대체로 민족 지도자답게 당당한 태도로 조선의 독립을 바라는 조선민중의 요구에 부응하여 거사했다고 밝혔다.

제2진인 17인에 대한 예심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됐다. 고하는 5월 23일에 받았다. 나가시마가 “최린 및 최남선과 같이 조선의 독립운동을 계획하였는가?”라고 묻자, 고하는 “그렇다”라고 짧으나 단호하게 대답했다. 나가시마가 이어 “어떤 동기로 운동할 것을 계획하였던

12) 이병헌(편저), <3·1 운동 비사>, <송진우 선생 취조서>, 665-666쪽

가?”라고 묻자, 고하는 “본년 1월경 내가 최린을 방문하였을 때 신문지상에서 민족자결주의 기사를 보았으며 최린이 민족자결주의를 조선에 적용하여 독립하는 것이 좋다고 하여 나도 찬성하였다”라고 답변했다.¹³⁾ 고하의 예심 답변은 자신의 역할을 능동적인 것보다는 수동적인 것에 가깝게 묘사하고 있다. 즉 최린의 주장에 동조했을 뿐인 것처럼 말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날에 있었던 예심에서 기당은 고하의 역할을 능동적인 것에 가깝게 묘사했다. “송진우는 중앙학교의 교장인데 同人이 1월 중 월슨의 민족자결주의를 말하면서 조선도 독립을 하였으면 하므로 나도 그것을 찬성한다고 하였다”고 대답한 뒤, 고하가 남강을 서울로 불러올려 천도교와 접촉시킨 과정을 소상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¹⁴⁾ 여기서도 보이듯이, 고하는 3·1운동의 추진과정에서 확실히 적극적이었다.

경성지방법원의 예심은 3·1운동이 일어난 때로부터 5개월이 지난 1919년 8월 1일 오후에 종결됐다. 예심의 결과는 검찰의 기소내용과는 달리 고하를 포함하는 민족 지도자들이 내란죄를 범했다는 것이었다. 이른바 예심종결서는 우선 민족지도자들이 “ [1919년] 2월부터 공모하여 제국 영토의 한 부분되는 조선을 제국의 통치로부터 이탈시켜 그 지역으로서 한 독립국을 건설할 것을 목적으로 먼저 전 조선인민에 대하여 평화의 교란을 선동하고 따라서 朝憲을 문란할 만한 불온문서를 공포하여 각지에 조선 독립운동을 개시하게 하였는데 이 독립운동이 중간에 가서 폭동이 될 줄 미리 알면서도 이런 각종의 폭동을 일어나게 함으로써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를 기도하였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말하는 ‘조헌을 문란할 만한 불온문서’란 물론 3·1독립선언서이다. 예심종결서는 이어 “그 선언서에 조선인은 자유민이요 조선은 독립국이니 전 조선민족은 영원히 서로 호응하여 최후 1인 최후 1각까지 독립의 완성에 노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취지의 문서를 다수 인쇄하여 同年 3월 1일 이후 널리 이것을 조선 각지에 배부하고 경성을 중심으로 조선독립 시위운동을 일으켰으며 또한 사람을 각 주요 도시에 보내어 [자신들의] 기도를 선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 결과로 여러 지역들에서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폭동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이 일련의 행위들은 형법 제77조 곧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결론지었다. 이와 더불어, 피의사실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만큼 조선고등법원의 특별관할에 속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사건을 조선고등법원으로 이송했다.¹⁵⁾

2 3·1운동에 대한 일제 당국의 법적 논쟁

여기서 잠시 3·1운동에 대한 일제 당국의 법적 논쟁을 살피기로 한다. 그것은 3·1운동의 민족지도자들에 대한 재판과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일제의 검찰은 3·1운동의 민족지도자들에게 보안법과 출판법을 적용했다. 그러면 보안법과 출판법은 어떤 법인가?¹⁶⁾ 두 법은 모두 대한제국 말기 을사5조약에 의해 일제의 피보호국으로 전락했을 때 만들어졌다. 보안법은 광무 11년인 1907년에, 출판법은 융희 3년인 1909년에 각각 제정되었고, 일제에 의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뒷날 미 군정에 의해서도 채택된다. 그런데 우선 보안법은 제7조에서 “정치에 관하여 불온의 언론과 동작 또는 타인을 선동과 교사 또는 사용하며 또는 타인의 행위에 관섭하여

13) 위와 같음, <송진우 선생 취조서>, 667쪽

14) 위와 같음, <현상윤 선생 취조서>, 668-669쪽

15) 위와 같음, <예심종결서>, 757쪽

16)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전적으로 의존했다. 鄭光鉉, <3·1 운동 관계 피검자에 대한 적용법령>, 동아일보사(편), 《3·1운동 50주년기념 논집》(동아일보사, 1969), 463-477쪽

이로 말미암아 치안을 방해한 자는 20일 이하의 구류 또는 과료, 10개월 이하의 금고 또는 2개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출판법은 제11조에서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출판한 저작자와 발행자는左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함. (1) 국교를 저해하거나 정체를 파괴하거나 국헌을 문란하는 문서와 도화를 출판한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2) 외교와 군사의 기밀에 관한 문서와 도화를 출판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3) 앞의 2호의 경우 밖에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또는 풍속을 괴란하는 문서와 도화를 출판한 때는 10개월 이하의 금고, (4) 기타의 문서와 도화의 인쇄를 담당하는 자의 별도 역시 같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제의 검찰은 3·1운동에 관련된 민족지도자들이 “정치에 관하여 불온의 언론과 동작을 했고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고 교사하여 치안을 방해했고 안녕질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던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예심은 3·1운동의 민족지도자들을 보다 더 무거운 법조항 아래 묶으려고 했다. 그들이 단순한 치안방해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따라서 이 일이 조선인에 대해서는 오늘날의 대법원격인 조선고등법원의 특별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만큼 경성지방법원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결정했으며, 그리하여 이 일은 조선고등법원에 係屬되었다. 이처럼 내란죄가 적용되면서 사람들은 48인의 민족지도자들이 중형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걱정했다.

조선고등법원은 8월 20일부터 예심판사 쿠스노끼 즈네조오(楠常藏)와 나가누마 나오가따(永沼直方)의 책임아래 민족지도자들을 예심했다. 여기서 가장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3·1 독립선언서의 공약 3장 가운데 두번째 항인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1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쾌히 발표하라”는 귀절이었다. 3·1 독립선언서 그 자체를 연구하기 위해 3·1운동의 민족 지도자들에 대한 경-검찰의 취조문과 공판기록을 면밀히 연구한 洪一植 교수는 그들이 “이 귀절에 집요한 관심을 보였다”고 지적한다.¹⁷⁾ “그것은 그 귀절의 해석여하에 따라 민족지도자들의 행동이 단순한 소요죄 이상의 내란선동죄로 간주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¹⁸⁾ 그 한 보기를 손병희에 대한 고등법원의 예심에서 찾을 수 있다.

문 : 그런데 선언서를 본즉 조선민족에 대하여 최후의 1인 최후의 1각까지 정당한 의사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본즉 어디까지나 독립의 의사를 발표할 것을 권하고 민족 전체에 奮起를 재촉하는 것이 아닌가?

답 : 그렇다. 선언서는 그렇게 되었다. 조선민족은 최후의 1인 최후의 1각까지 어디까지나 독립의 의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문 : 처음부터 이러한 의사를 가지고 기초하였는가?

답 : 그렇다. 자기들도 단결하여 독립의 의사를 발표하고 너희들도 최후의 1각까지 독립 의사를 발표하라는 의사로서 기초한 것이다.

문 : 요컨대 이 취지에 의하면 최후 1인까지 어디까지나 반항하라 하는 것이니 이런 선언서를 피고인 등의 명의로 발표하면 보는 사람은 어떠한 태도로 나올까 하는 것을 피고인은 예상하고 있었는가?

답 : 지금 지방법원 예심결정서를 보면 우리들이 선언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각처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써 있으나 나는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는 조금도 예기하지 않았다. 이러한 선언서를 발표하는 것을 지식 정도가 낮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되지 않을

17) 홍일식, <3·1 독립선언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3집 (1989), 198쪽

18) 위와 같음.

일을 한다고 할까 봐서 주의를 하고 있었다.¹⁹⁾

민족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내란을 획책한 것은 아니라고 답변한 것이다. 이 예심 중에 33인 가운데 한 사람인 양한묵이 옥사했다. 독립선언서 서명자들에 대한 예심에 이어 고하도 예심을 받았다. 지방법원 예심 때의 질문과 같은 질문이 제기됐으며, 고하의 답변은 한결같았다.

고등법원의 두 예심판사는 모든 기록을 검토한 뒤 1919년 12월 20일 고등법원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고등법원 검사국의 검사장대리 쿠사바 하야시고로(草場林五郎)는 1920년 2월 23일 고등법원장에게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것을 모두 살핀 다음, 고등법원 특별형사부는 1920년 3월22일 예심을 종결했다. 와다나베 노베루(渡邊暢) 등 다섯명의 판사명의로 된 예심종결서는 3·1운동을 내란죄로 보기는 어렵고 보안법과 출판법을 어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 재판소로 지정함”이라는 결정을 내렸다.²⁰⁾ 우리가 다음 章에서 살펴볼 듯이, 이 무렵 일제는 조선에 대해 일종의 회유책인 ‘문화통치’를 쓰게 되고 따라서 그러한 큰 테두리 안에서 이 사건을 다루기로 결정해 중형이 가해질 내란죄 적용을 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3 재판이 시작되다

이에 따라 경성지방법원은 이 사건을 다시 맡게 되었다. 예심 서류만 사람의 키로 세 길이나 되는 방대한 기록이어서 판사 세 사람과 검사 여섯 사람이 매달려 넉 달 가까이 검토했다. 마침내 7월 12일 9시부터 貞洞 철도부 아래층에 있는 경성지방법원 법정에서 첫번째 공판이 시작됐다. 3·1운동이 일어난 때로부터 1년 4개월 반 만의 일이었다. 변호사로는 조선인으로 許憲, 鄭求昌, 崔鎭, 金雨英, 申錫定 등등이, 일본인으로 하나이 다쿠조(花井卓藏), 오오쿠보 미야히코(大久保雅彦), 기오 도라노스께(木尾虎之助) 등등이 선임됐다.

조선백성들의 관심은 온통 민족지도자 48인에 대한 공판으로 쏠렸다. 이들의 관심을 반영하는 듯, <동아일보>는 이 날짜 신문에서 ‘今日이 대공판 : 만인의 시선이 모이는 곳에 당국의 처치는 어떠할지’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작년 3월1일에 탑골공원에서 ‘만세’소리가 일어나며 명월관 지점 제1호실에서는 조선민족 대표자 33인이 모여서 ‘조선 독립 만세’를 부르고 독립을 선언한 후로 손병희 외 47인은 서대문 감옥 돌벽 널구들에서 답답한 더위와 아픔, 추위를 겪은 지 열여섯달과 열이틀 만에 오늘 오전 8시에야 감옥에 매인 그네의 운명을 결판하는 제1막이 열리게 되었다. 이에 세상의 시선은 모두 이네들의 재판이 어찌나 될까 하는데로 모였고 또한 조선이 생긴 후로 처음 열리는 공판이오 더욱이 사건이 중대하므로 당국자의 주의도 크려니와 장차 하회가 어찌 될는지 우리는 매우 주목치 아니치 못하겠으며 오늘 정동 철도부 아랫층의 법정에서는 다음 표와 같은 순서로 48인을 앉게 한다더라.

이 기사는 이어 48인의 명단을 소개했다. 고하의 이름은 스물아홉번째에 나와 있다. 그는 수원의 삼일여학교 교사 金世煥과 남감리교회 목사 정춘수 사이에 앉아 있었다. 이 기사는

19) 이병헌(편저), 앞의 책, <손병희 선생 취조서>, 102-103쪽

20) 이병헌(편저), 앞의 책, <예심종결서>, 760쪽

이어 ‘대공판과 엄중한 경계’라는 중간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금일 48일인 취체를 맡은 서대문경찰서는 작일부터 준비에 분망한데 용산경찰서에서 경무 이하 20여명과 종로-본정 양경찰서에서 각각 경관 20여명과 제3부 순사가 응원할 터이며 서대문경찰서는 서원 전부가 출동하여 금일 아침 여섯시 새벽 전부터 두 대로 나누어 한 대는 서대문경찰서에 모이고 한 대는 서대문파출소에 모여 제반 정리를 할 터이며 당일 길거리에 늘어설 경관은 네 경찰서를 합하여 백여명의 경관이 출동할 터인즉 법정계로는 전무후무한 대경계를 할 터이라. 대한문에서 정동으로 들어가는 골목과 서대문 통에서 정동으로 들어가는 골목에는 기마순사가 늘어서서 경계할 터이요 정동 골목에는 거리거리 붉은 모자와 칼자루를 번쩍이는 경관이 늘어섰으며 법정 내외도 수십명의 경관이 늘어서서 경계하더라.

기사의 표현 그대로 ‘전무후무한 대경계’ 속에서 역사적인 재판은 창밖에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시작되었다. 민족대표자의 대표 손병희는 옥중의 고초로 증병을 얻은 풍증으로 기동치 못하므로 이날 법정에서 그 얼굴을 보이지 아니 했다. 고하를 포함한 나머지 47인은 모두 법정에서 들어섰다. 한 사람 빠짐없이 “얼굴에는 만면에 화기있는 웃음이 가득하다”는 기사의 표현 그대로, “만면 화기로 서로 동무와 목례를 하며 방청석을 돌아보며 웃는 모양이 조금도 고통스러운 기색이 없으며, 아무리 보아도 심판을 받으러 온 죄인의 태도라고는 생각지 못하겠다” 민족지도자들의 가족들도 그들이 체포된 이후 처음 보게 되어 모두 긴장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교적 여유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고 마음을 놓았다.

재판부는 공판 둘째날부터 신문에 들어갔다. 신문은 최린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 시점에서 재판부는 방청을 금하고 ‘손병희의 세 눈동자’인 최린과 권동진과 오세창과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최남선 등 네 사람에게 대해 집중적으로 신문했다. 이들은 모두 조선이 독립해야 할 이유와 당초의 계획을 당당히 설파했다. 이들이 이렇게 나올 것으로 예상하여 방청을 막았던 것이다. 한 시간 반에 걸친 비밀 신문이 끝나고서야 재판부는 방청을 다시 허가한다고 선언한 다음 신문을 계속했다.

공판 닷새째인 7월 16일 재판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개정 벽두에 변호사 허헌이 ‘公訴不受理申立’을 제기한 것이다. 허헌은 1885년에 함경북도 明川那에서 태어나 메이지대학 법률과를 졸업한 고하의 메이지대학 선배였다. 肯人 또는 競人이라고 自號했던 그는 당시 민족운동가들의 변호를 도맡다시피하여 이른바 ‘민족변호사’ ‘사상변호사’로 이름이 높았다. 뒷날 같은 메이지대학 동문 변호사들인 街人 金炳魯 및 李仁과 함께 형사공동연구회를 발족시키면서 세간에서 ‘3인’ [공인의 인, 가인의 인, 이인의 인] 으로 불리게 되며,²¹⁾ 1927년에는 당시 국내에서의 유일한 민족통일전선인 新幹會의 중앙집행위원장으로, 해방정국에서는 이른바 조선인민공화국의 초대 총리로, 그리고 북한에 들어가서는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김일성대학 총장으로 각각 일하다가 1951년에 사망한다. 허헌에 따르면, 고등법원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법원으로 지정한다”고 결정했는데, 이렇게 관할지정만 하고 사건 자체를 송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건이 고등법원의 係屬을 떠났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경성지방법원은 공소를 수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검사와의 논쟁이 뜨겁게 전개되었는데, 경성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허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1920년 8월 9일 公訴不受理의 판결을 내렸다.

21) 이 점에 대해서는 출처, 《가인 김병로 평전 : 민족주의적 법률가·정치가의 생애》(민음사, 1988), 101쪽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은 이에 불복하여 경성복심법원에 항소했다. 담당검사는 고등법원 형사특별부 결정서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같은 공소 사실을 진술하고, 앞의 판결이 법리상 부당하며 피고인들에게 출판법과 보안법에 위반되는 범죄사실의 증거가 충분하다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경성복심법원은 1920년 10월20일 공판을 열었다. 공판의 진행과정은 1심의 그것과 사실상 같았다. 고하는 둘째날인 10월21일에 신문을 받았다. 그는 이른바 한-일합방에 반대하고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는 자신의 입장과 3·1운동의 계획과 추진과정에서의 자신의 최린 및 최남선과의 관계를 당당히 진술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하지는 않았으나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찬성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밖의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는 오래 되어 모두 잊어버렸다고만 답변했다. 재판부는 젊은 사람이 그렇게 기억력이 없느냐고 비웃었다. 고하는 기억력이 없는 것을 스스로 탄식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얼버무렸다. 그는 동지들과의 연락 관계를 애써 말하려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항간에서는 ‘멍텅구리 송진우’라는 우스개소리도 나돌았다.²²⁾ 뒷날에도 고하는 3·1운동 당시의 일들에 대해 완전히 침묵을 지켰다. 자신이 보았고 겪었던 대로 입을 열면 민족지도자로 또는 항일투사로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명예를 손상당할 사람들이 있다면서 입을 열지 않았다.

경성복심법원은 1920년 10월 30일 원심의 공소불수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대부분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민족지도자들이 상고하지 아니함에 이로써 형이 확정되었다. 48명 가운데 37명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어, 예컨대, 손병희와 최린과 권동진과 오세창과 이종일과 한용운과 이승훈 등등은 각각 징역 3년형, 최남선은 징역 2년6월형이 확정되었다. 한편 1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되었는데, 여기에는 고하가 기당과 더불어 포함되어 있었다.²³⁾ 무죄가 확정된 이들은 3월 1일 바로 그날 집회와 시위에 나서지 않았으나 독립운동을 모의하고 획책한 이들이었다. 당시 보안법과 출판법은 표면에 나타난 행위는 벌할 수 있어도 모의나 획책에 가담한 자를 직접 벌하는 조문이 없었기에 그렇게 된 것이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하고도 태화관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길선주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도 마찬가지 논리에서였다. 그리하여 고하는 선고 공판이 있었던 그 다음날인 11월1일 서대문 감옥의 문을 나섰다. 체포된 날로부터 1년7개월만의 일이었다.

고하가 감옥에 있는 동안 친구들은 늘 그를 그리워했다. 고하와 함께 도쿄에서 유학했던 김우영은 이 무렵 변호사로 활약하고 있었고 3·1운동 민족 지도자들의 변호에 앞장서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우리 동지들이 연회 때에는 취중에 고하를 부르기도 했다”라고 쓰면서 고하에 대한 친구들의 깊은 정을 전하고 있다.²⁴⁾ 그러한 친구들이 출감한 고하를 그대로 놓아 줄 리 없었다. 인촌과 설산을 비롯한 <동아일보>의 간부들이 고하를 위해 만찬을 베풀었다. 우리가 다음章에서 보게 되듯이, 이때 <동아일보>는 창간으로부터 반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총독부의 무기정간의 처분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설산이 “형님께서 출감하셨는데 신문사 인쇄기가 돌아가지 못해 면목이 없습니다”라고 미안해 했다. 그러자 고하는 “내가 오히려 당신들을 위로해야 되겠군. 그렇지만 <동아>는 숨이 아주 끊어진 것은 아니잖아, 더욱이 여기 인촌이 있으니 여러분은 붓끝에 녹이 안슬도록이나 해요”라는 말로 격려했다.²⁵⁾

22) 《고하 송진우 선생전》, 142쪽, 인용편 귀절은 이병헌(편저), 앞의 책, <控訴 공판기>, 35쪽에 있다.

23) 이병헌(편저), 앞의 책, <3·1독립선언사건에 대한 판결문>, 837-841쪽

24) 김우영, <한·일합방에 대한 통분과 3·1독립운동>, 김우영, 《민족 공동생활과 도의》(부산 : 신생공론사, 1956), 225쪽

25) 이경남, 《설산 장덕수》, 163쪽

친구들과 정답이 끝나자 고하는 곧장 고향인 담양으로 내려갔다. 선배들이나 동지들은 歐美 시찰이나 장기 정양 등을 권하기도 하고 고하가 옥중에 있던 때 창간된 <동아일보>에서 일을 같이하자고 권하기도 했으나, 그에게는 무슨 일보다도 먼저 치루어야 할 인사가 있었다. 그것은 자신이 옥중에 있을 때인 1919년 9월에 별세한 어머니의 묘소를 찾는 일이었다. 고하가 체포되었다는 기별을 받고도 겉으로는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으며 “장한 내 아들”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아들이 당하는 고문과 옥중 고생을 생각하다 상심끝에 병을 얻어 돌아가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 특히 “저기 우리 옥윤이가 온다”는 울부짖음을 남기며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이 일로 뒷날에도 두고두고 자신의 불효를 탓했다.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어머니를 그리며 눈물을 흘리는 일조차 때때로 목격되었다.

어머니의 묘소를 지키면서도 그는 교육 사업을 잊지 않았다. 중앙학교에 누를 미치지 않으려는 배려에서 옥중에서 교장직은 이미 내놓았고, 그리하여 그의 후임으로 최두선이 취임해 시무하고 있어서 중앙학교에 대한 걱정은 덜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스승 고정주의 아들이고 영학숙의 동문 수학이며 도쿄에서 함께 유학한 사이인 고광준과 함께 고향에 학교 세우는 일에 발벗고 나섰다. 쾌하지도 않은 몸으로, 기금을 모집하기 위해 여러 곳을 일일이 찾아다녔다. ‘요시찰’ 인물인 그를 일제 당국이 곱게 볼 리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 일로 그와 고광준은 담양경찰서에 붙잡혀 1920년 말부터 1921년 초 사이의 겨울을 유치장에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²⁶⁾ 이제 일제에 의한 유수의 생활은 그에게는 친근한 벗이 되었다.

제4절 3·1운동이 제시한 이념적 방향과 고하

고하가 석방된 해는 그가 만 30세가 된 해였으며 무단통치로 시종한 일제의 조선 식민통치 제1기가 끝맺은 해였다. 돌이켜 볼 때, 고하의 30년 삶은, 그리고 식민 통치 제1기에서의 삶은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다. 한말에 의병 투쟁에 참여했던 것도 아니고, 망국 이후에 해외망명의 길에 올랐던 것도 아니지만, 그는 민족의식을 잃지 않은 채 자강운동론의 입장에 서서 자신의 실력을 키운 한편 후대의 양성을 위해 교육의 일선에 헌신했고, 기회론을 직접 실천하여 3·1운동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했으며 그 결과 일제의 감옥에서 십자가를 지기도 했다. 그를 흠 없는 민족주의자로 부르기에 모자람이 없는 길을 성실하게 걸어 온 것이다.

그러면 출감 이후의 일제 치하에서의 그의 삶은 어떻게 전개되는가? 그가 살아 왔던 30년의 햇수보다 5년이 적은 25년의 적치의 세월을 그는 어떻게 보내는가? 여기서 3·1운동이 제시한 민족사의 이념적 방향을 되새겨 보고 그것이 출감 이후의 고하의 생애와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앞 節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3·1운동이 있는 이후 일제는 무단통치로부터 이른바 문화통치로 전환했으나 조선민족에 대한 전면적인 탄압과 수탈이라는 기본목표로부터는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章의 첫 節에서 다시 상세히 다룰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일단 ‘위대한 각성’을 스스로 체험한 조선민중의 독립혼이 꺾일 수는 없었다. 한번 눈을 뜬 민족주의는 자신이 설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전에는 결코 제 스스로 눈을 감지 않는 법이다. 더구나 3·1운동의 즉각적인 결과로 조선민중은 1919년 4월 13일에 비록 중국

26) 《고하 송진우 선생전》, 158-161쪽

상하이에서 이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일종의 망명정부를 세우기까지 함에 있어서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전기로 삼아 나라 안팎에서 항일 독립운동이 더욱더 뜨거워짐에 있어서라.

그러면 3·1운동 이후 조선의 민족 운동이 나갈 방향은 무엇이었는가? 3·1운동은 1905년의 을사조약 강요 이후 항일 독립운동의 2대 조류였던 의병투쟁노선=무력투쟁노선과 실력배양노선=자강운동노선의 습—이었다. 그 바탕 위에서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었다. 강제언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그것은 “대외적으로는 민족자결주의, 대내적으로는 민주공화주의를 내실로 하는 근대적 민족주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⁷⁾

첫째, 민족자결주의에 대해 말한다면, 이로써 사회진화론에서 출발한 자강주의에 따른 국권회복의 논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 민족 고유의 권리로서의 민족자결주의가 국권회복의 새로운 논리로 제시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3·1독립선언이 민족자결주의의 큰 테두리 안에서 인도주의와 사회정의를 부각시킴으로써 그것이 장차의 민족운동의 기준이 되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바꿔 말해 그 이전의 시기에는 그래도 상당히 유효하던 사회진화론에 입각한 자강주의가 영향력을 잃게 되었음을 뜻한다.²⁸⁾

둘째, 민주공화주의에 대해 말한다면, 이로써 이미 지지기반이 크게 약화된 왕정복고주의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고 개화사상 속에서 부분적으로 수용되었던 입헌군주제마저도 거부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달리 표현해 앞으로 독립될 국가는 철저히 민주공화국의 국가여야 한다는 뜻을 다짐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공화주의가 자유민주주의 또는 부르주아 민주주의 하나만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또는 심지어 공산주의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었다.

종합하건대, “확실히 3·1운동은 종래의 갖가지 사상적 유산에 대한 계승과 지양에 의하여 사상적으로도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 그러나 그 뒤의 운동의 발전은 근대적 민족주의 사상이 모든 운동을 포괄하는 지도사상으로서 정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운동체의 일부에 사회주의 사상이 침투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²⁹⁾ 바꿔 말해, “3·1운동은 그때까지의 운동, 그리고 그것과 결합했던 사상의 도달점인 동시에 1920년대부터의 운동의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했”기에³⁰⁾ 1920년대의 개막과 더불어 식민지 조선의 민족 해방운동은 여러 갈래의 이론과 사상 속에, 때로는 그들 사이에서의 심각한 갈등을 불러일으켜가면서, 전개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고하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되듯이, 고하는 투옥과 재판을 거쳐 석방된 뒤에는 그 이전처럼 국권회복의 방략으로 실력배양론과 자강주의의 틀에 서게 되며 復國될 국가의 이념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테두리 안에서 민주공화주의를 옹호하게 되는데, 방금 앞에서의 일반적 논의에 암시되어 있듯이, 그의 이러한 입장은 때때로 민족운동 내부로부터의 심각한 도전에 부딪치게 되기도 한다. 풀어 말해, 1920년대 이후 거세게 드러나는 무장투쟁론과 사회주의 혁명론의 도전을 받게 되며, 그와 그의 동지들은 자연스럽게 우파적 범주의 민족운동 세력 안에 위치하게 된다. 또, 거듭 말하거니와, 그 연장선 위에서 해방 직후의 정국에서 우파의 어느 한 진영에 서서 좌파와 대립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는 다음 章들에서 보다 더 자세하게 검토하게 될 것이다.

27) 강제언, 《한국의 근대사상》(한길사, 1985), 265쪽

28) 조동걸, <3·1운동의 이념과 사상 : 독립선언서와 선언자의 비교 분석>, 동아일보사(편), 《3·1운동과 민족통일》, 33쪽

29) 강제언, 앞의 책, 269쪽

30) 위와 같음, 270쪽

제6장 일제의 ‘문화정치’와 고하의 문화적 민족주의 試圖

제1절 일제의 ‘문화정치’와 1920년대의 성격

1 일제 ‘문화정치’의 본질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도 일제는 그 기미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1916년 10월에 제2대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이후 조선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자부하던 하세가와 요시미찌(長谷川好道)만 하더라도 몇 달 전에 천황 다이쇼(大正)에게 보낸 보고서에서 “ [조선] 민중은 일제히 [일본] 제국의 위세를 신뢰하여 業에 힘쓰고 産을 다스려 王道가 의연히 극히 靜謐함”이라고 호언할 정도로, 자신의 무단통치를 과신하고 있었다.¹⁾ 그러했던 만큼이나 3·1운동으로 일제가 받은 충격은 엄청나게 컸다. 그 점은 일본 본국정부가 “원인은 어떻든 그러한 사건의 발발을 전연 감지하지 못한 것은 조선총독의 失體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힐책하면서, “이번의 소요 사건은 内外에 대하여 표면상으로는 극히 경미한 문제로 간주함이 필요하나 실제로 있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하여 장래 재발하지 않도록 기하라”는 지시를 조선총독에게 내린 데서²⁾ 그 한 면을 읽을 수 있다.

여기서 일제는 우선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한 강제탄압책에 의존함과 동시에 이른바 문화정치를 들고 나오게 되었다. 즉 이제까지의 무단정치로부터 문화정치로 전환한다는 것이었다. 그 표시로 우선 1919년 8월 12일 조선총독 하세가와를 해임하고 해군대장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를 예편시켜, 즉 문관의 자격을 지니게 한 뒤 그 후임으로 임명했다. 이어 8월 19일에는 일본 천황이 자신은 조선 백성을 “애무함에 一視同仁한다”운운의 칙어를 발표했고, 하라 게이(原敬) 총리대신은 ‘일본인과 조선인은 다 같은 신민으로서 政事上에서 아무런 차등이 없다’ 운운의 담화를 발표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전기로 삼아 일제는 1920년부터 조선에 대해 자신의 무단정치를 후퇴시킨 듯한 인상을 주는 이른바 문화정치를 실시하게 되며, 이로써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는 제2기를 맞게 된다. 제2기는 일제의 만주 침략이 노골화되고 조선에서도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가면마저 집어던진 채 파시즘 지배 체제를 강화해 나가는 1931년까지 계속되는데, 이 제2기에 조선 식민지배를 주도한 총독이 제3대 사이토(1919년 8월~1927년 4월)와 총독대리 우카키 카즈시게(宇垣一成 : 1927년 4월~1927년 12월)와 제4대 야마나시 한조오(山梨半造 : 1927년 12월~1929년 8월)와 제5대 사이토(1929년 8월-1931년 6월)였다. ‘회유의 명수’라는 사이토는 두 차례에 걸쳐 통산 10년 6개월 동안 조선총독의 자리에 있으면서 회유를 뼈대로 하는 이른바 문화정치의 시기 11년 10개월 가운데 거의 전부를 이끌었던 셈이다. 그는 그 뒤 총리대신을 역임했으며, 1936년 2월 26일 일본 군부의 쿠데타 [2·26사건] 때 암살된다.

일제가 이른바 문화정치를 실시하던 1920년대는 일제가 사상 최초로 의회정치를 제 궤도에 올려 놓은 이른바 다이쇼(大正) 데모크라시 시기에 해당된다.³⁾ 국내의 정치상황이 그러했기에, 일제는 그 속이야 어떻든 겉으로나마 이른바 문화정치라는 간판을 내걸고 종전의

1) 尹炳夷, <3·1운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 동아일보사(편), <3·1운동 50주년 기념 논집> (동아일보사, 1969), 415쪽

2) 위와 같음, 415쪽 및 419쪽

3) 韓培浩, <3·1운동 직후의 조선 식민지정책 : 齋藤의 ‘문화정치’의 본질을 중심으로>, 차기벽(편저),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정음사, 1985), 102쪽

군정체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조선을 상대로 여러 가지 회유책을 썼다. 예컨대 모든 관리들로부터, 특별히 제복을 요하는 방면을 제외하고는, 무단의 상징인 제복과 패검을 폐지시켰고, 헌병경찰을 일반경찰로 바꿨으며, 미관말직이나마 조선인 관리들의 수도 조금 늘렸고, 회사령을 고쳐 조선인 기업을 명목상으로나마 지원했으며, 초등교육을 약간 확장했다. 이와 더불어, 우선 언론과 출판과 집회에 있어서의 억압을 완화했다.⁴⁾ 또 자치제의 실시가 함축된 ‘지방 제도의 개혁’을 내걸었다. 이것은 마치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하려는 듯한 인상을 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선에 팽배해진 독립운동의 기운을 억제하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속으로는 제국주의의 식민정책의 상투적 수단인 ‘민족분할지배정책’을 썼음은 물론이다. 姜東鎭 교수가 지적했듯이, 그들은 (1) 새로운 친일 세력의 육성, (2)李왕가의 약체화, (3) 조선 귀족의 선택적 보호와 이용, (4) 직업적 친일분자의 육성과 이용, (5) 친일적 지식인의 육성과 이용, (6) 지주와 예속자본의 보호와 이용, 그리고 (7) 갖가지 친일단체의 조직과 이용 등등의 방법을 통해 조선의 민족주의 운동을 약화시키고 와해시키려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른바 문화정치 실시의 1920년대는 지금까지의 거칠었던 통치방식이 더욱 세련된 통치 방식으로 바뀌어진 상태 아래서 조선인을 묶고 짓누르며 읊매는 체제와 체찍이 실질적으로 한층 더 강화된, 허위와 기만에 찬 일제의 조선 지배시대라고 할 것이다.⁵⁾

2 다기다양해지는 이념적 노선들과 문화적 민족주의의 대두

일제 지배에 대한 조선민족의 저항이 더욱 강화되고 더욱 다기다양화 되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다. 특히 해외에서의 독립 투쟁은 1920년대 이후 더욱 뜨거워지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제5장의 끝 부분에서 암시했거니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의 이해를 위해 간단히 요약하기로 한다.

1919년 임정이 미국에서 활동하던 李承晩을 대통령으로 옹립하고 출범한 뒤 민족의 기대는 오직 임정으로 쏠렸다. 이에 부응하여 임정은 도산 안창호가 창안한 聯通制를 실시해 국내의 각 지역과 연결하고 있었으며, 나라 안팎에서 교육과 산업을 일으켜 민족의 힘을 키워나가는 일에 힘썼고, 밖으로는 일제를 규탄하고 조선의 독립을 호소하는 외교-선전활동을 강화했다. 그러나 임정은 곧 내분의 소용돌이에 빠졌다. 지연과 인맥에 따른 과별 싸움에 독립의 방략을 둘러싼 노선 투쟁이 얽힌 것이다. 독립노선에 한정해 말한다면, 열강을 상대로 선전과 외교 활동에 치중할 것을 역설하는 이승만의 외교-선전론, 교육과 산업과 기술과 과학을 일으키며 민족의 힘을 기르는데 치중할 것을 강조하는 안창호의 실력배양론 또는 자강운동론, 그리고 무력으로써 대항할 것을 앞세우는 무장투쟁론 등등이 우세했다.

여기서 이승만은 미국으로 돌아가 임정의 대사관격인 歐美委員部를 세워 국제사회를 상대로 외교-선전 활동을 펼쳤으며, 안창호는 국내의 실력배양론자들과 기맥을 통하여 독립을 준비해 나갔다. 이에 무력 투쟁을 외치는 세력은 임정을 떠나 만주로 가서, 경술국치 이후 이미 그곳에 參議府와 正義府와 新民府와 같은 軍政府를 세우고 싸우던 지도자들과 손잡아 과감한 무장 투쟁을 벌였다. 한편 일단의 세력은, 예컨대 若山 金元鳳으로 대표되는 무장투쟁 노선 세력은 丹齋 申采浩와 1922년에 집필한 저 유명한 ‘朝鮮革命宣言’의 깃발 아래

4) 金聲均, <齋藤實 ‘문화시책’의 一斷面>, 동아일보사(편), 앞의 책, 499쪽

5)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한길사, 1980), 제2장

義烈團을 조직하고 일제에 대한 과감한 무력 항쟁을 벌였다. 이들은 일제와 어떠한 형태로도 타협을 절저히 배격하고 오로지 무력을 통해 독립을 쟁취하고자 한 것이다. 이들과는 별개로 1918년부터 1920년 사이에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의 이념 아래 타협없는 항일 독립 투쟁을 펼치려는 세력들도 나타났다. 여기에는 차차 무정부주의도 가세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해외의 독립운동계는 매우 다기다양한 성격을 지니게 되었다.⁶⁾

그러면 1920년대에 그것이 국내에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그 작업은 이른바 문화정치의 시기에 고하가 걸었던 길을 평가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이다.

3·1운동이 독립의 즉각적인 성취라는 점에서는 일단 좌절되면서, 국내의 지도층 사이에서는 독립운동의 방향을 둘러싸고 새로운 흐름이 자라났다. 그 흐름은 조선민족이 독립을 외치면서 총궐기하면 외국이 도와줄 것으로, 특히 민족자결의 원칙을 부르짖은 미국이, 비록 그 원칙은 유럽의 약소민족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밝혔다고 해도, 힘써줄 것으로 기대했던 일부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의 실망으로 시작되었다. 윌슨대통령의 이상주의가 국제사회에서의 ‘힘의 정치’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하는 것을, 그리고 그러한 현실 상황의 연장선 위에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이 다시 확인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비통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외국의 지원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서 그들은 ‘현실론’의 입장에 서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게 되었다. 조선의 독립이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닌 만큼 그 목표를 장기적 안목에서 단계적으로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짓게 된 것이다. 그러면 단계적으로 어떻게 추구한다는 것인가? 그 해답은 본질적으로는 대한제국 말기 이후 꾸준히 제기되어 온 실력배양론으로의 또는 자강운동론으로의 복귀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민족개량주의로의 귀착이기도 했다. 여기에는 도산 안창호의 務實力行論이 적지 않게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이다. 도산은 “조선의 독립을 영원의 장래에 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 興土團을 만들기도 했으며, 개개인의 인격적 수양과 노력에 바탕을 둔 민족적 재생과 개혁을 강조했던 것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도산의 의심의 여지없는 고매한 인격과 독립에의 丹誠에도 불구하고 무장투쟁론자들에 의해서는 비판되었던 것이다.

학교와 언론-출판사와 문화단체를 육성하고 발전시켜 교육과 교화와 계몽의 기회를 확대 시킴으로써 조선민족의 지적-과학적-기술적 능력을 증대시키고 또 산업을 일으키고 물산장려운동을 일으켜 조선민족의 경제적-물질적 생활을 향상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중산층을 형성시켜 나가고 그것을 바탕으로 지식인들과 기업인들과 유산자들이 핵심을 이루는 새로운 지도층을 형성하며, 이 새로운 지도층을 통해 조선 사회를 근대화시키고 조선민족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독립의 기초를 닦는 일이라고 본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유럽의 선진국가들이 걸었던 길을 뒤따라 밟겠다는 뜻으로서의 근대화 모델이었다.

그렇다고 하여 그들이 조선사회의 근대화에만 치중해 조선민족의 문화적 특성의 유지와 함양을 외면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조선민족의 역사적-문화적 고유성을 발굴하고 그것을 못백성들에게 불어 넣어줌으로써 민족적 자각을 복돋고 민족의 혼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국사와 국어와 국문학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국학 분야에서 학문적 성과를 계몽활동과 출판활동을 통해 보급하는 일을 중시했다.⁷⁾

6) Chong-sik Lee,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pp.156-233

7)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으로부터 많은 것을 인용했다. Michael E. Robinson,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ism Ideology, 1920-1926: Culture, Identity, National Development and Political Schism," unpub. Ph. D. dis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1979, pp.129~178

이러한 입론에서 그들이 펼치게 되는 운동을 문화운동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깔려 있는 이념적 경향을 문화적 민족주의라고 부른다. 그런데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러한 계몽주의적 경향이 식민지 조선의 특유한 현상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희생이 된 중국에서도 일부 지식인들과 정치인들 사이에서 문화운동적 민족주의의 경향이 잠시 자라났다.

문화운동과 문화적 민족주의의 밑바탕에는 몇 가지 전제가 깔려 있었다. 그것은 우선 일반 대중은 무식하며 별다른 기술도 없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새로운 가치관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는 만큼 이들을 엘리트 계층이 교육하고 계몽해야 한다는 전제였다. 그것은 또 일본 제국주의와의 정면충돌 또는 폭력적 대결은 시기상조라는 전제였다. 대한제국 말기의 실력배양론자들 또는 자강운동자들이 의병 투쟁을 “때를 헤아리지 않고 제 힘을 따져 보지 않은 무모한 행동”으로 비판했던 것처럼, 이들도 일제에 대한 무장투쟁은 힘이 모자란 조선민족의 희생만을 늘릴 뿐이라고 비판했다. “부지깽이라도 들고 나가자”는 망명 투사들의 사상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따라서 문화운동은 자연히 엘리트 중심적이 되었고 일제와의 폭력적 대결을 회피하는 길을 밝게 되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는 다만 배우기만 함시다”라는 명제로 빠져 버리기도 했다. 문화운동이 세월이 가면서 대중적 호소력을 잃어가고 ‘일제 통치의 受容論’ 또는 ‘일제에의 투항주의’로 끊임없이 날카로운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까닭이 거기에 있었다.⁸⁾

그러한 비판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도, 문화적 민족주의가, 1920년대의 시대적 상황을 감안할 때, 그 나름대로 기여했다는 측면도 시인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주의자라고 해서 모두가 투옥과 해외망명의 길을 밟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감옥을 택하지도 않고 조국을 떠나지도 않으며 그 안에서 생활하기로 결심한 민족주의자에게, 그가 민족적 양심을 진실로 버리지 않는다면, 문화적 민족주의는 하나의 대안일 수 있었다. 당시의 조선사회가 지닌 약점들을 고쳐 조선민족의 역량을 향상시키려고 했던 문화운동가들의 교육과 언론-출판과 산업에서의 노력은, 1920년대 조선에서의 문화적 민족주의운동 전반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부정적인 것은 철저히 비판하기도 한 로빈슨(Michael Robinson)에 따르면, “조선민족의 의식과 연대의 강화에 값어치 있는 기여를 한 것이다” 김준엽과 김창순도 문화운동가들이 애국주의를 고취하고 반일 독립의 정신을 심어주는 활동을 벌임으로써 ‘민중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민족주의자들’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⁹⁾

문화적 민족주의가 대두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아니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과격한 민족주의’가 식민지 조선에서도 성장했다.¹⁰⁾ 그것은 우선 무장투쟁 옹호론이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바로 사회주의사상이었는데, 해외의 망명투사들에 의해 먼저 수용되었던 사회주의가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마르크시즘으로부터 무정부주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조선 국내에 보급되었으며, 여기에 기초한 언론-출판 활동과 조직활동이 더 활발해진 것이다. 그들은 1925년 4월에는 서울에서 비밀리에 조선공산당을 창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수많은 동포의 피를 요구했던 3·1운동이 對日타협론으로 귀결될 수는 없다는 심정적 분개도 대변하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마르크시즘의 계급사관으로부터 식민지 조선의 현실을 분석하고자 했다. 식민지 조선에서 가장 많이 착취되고 있으며 따라서 가장 비참한

8) 위와 같음, 197-198쪽

9) 위와 같음, 207쪽.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전5권(청계연구소, 1986), 제2권, 8쪽

10) ‘과격한 민족주의’라는 용어를 위의 연구로부터 빌렸다. 위와 같음, 208쪽

생활을 강요당하는 계층은 당시 조선 백성의 9할에 가까운 노동자들이라고 파악한 그들은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이들을 해방하는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본 것이다. 이러한 당면과제를 그들은 물론 일제와의 폭력적 대결에 바탕을 둔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입론의 그들에게 문화적 민족주의는 영합주의 또는 타협주의일 뿐인 것으로 비쳤으며, ‘산업을 통한 자강’이란 결국 소수의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¹⁾

한편 문화적 민족주의자들의 시각에서 사회주의자들은 민족보다 계급을 앞세우는, 그리고 소련의 또는 코민테른의 이익에 봉사하는 비민족적-비자주적 불온활동으로 비쳤다.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문화운동이나 자강운동을 일제에의 영합으로만 규탄하는 것이 옳은가? 예컨대 “물산장려운동을 단지 중산계급의 이기주의적인 것으로 독단하고 무산자로 하여금 자본가에 대항하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선전을 포고하라고 주장하는” 것이 옳은가? 또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소비에트공화국의 즉각적인 실현이라는 노선이 옳은가? “일본제국주의와 동족인 자본가들을 동열에 놓고 동시에 타도하여 사회주의공화국을 실현하겠다는 것은 마치 러시아의 소비에트공화국을 당장이라도 한국에 실현하자는 것이나 다름 없” [지 않은데], 이것이 과연 옳은가? 그러한 물음들을 제시하기도 했다.¹²⁾ 오늘날의 시점에서 볼 때, 국내 사회주의자들의 그러한 노선은 옳지 않았다고 보겠다. 金俊燁과 金昌順은 그들을 “참으로 하나만을 알고 둘을 모르는 좌익 심부름꾼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들은 국제적 사회주의혁명의 열병환자일 수는 있어도 자국의 민족문제를 참되게 이해하는 폭넓은 양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였다. [...] 시대사조에 들뜬 사상적 浮華의 소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다.¹³⁾

이러한 대립에서, 불행히도 두 세력은 동일한 노선으로 단합하여 단일한 통일전선을 형성하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鄭大澈 교수의 표현을 빌린다면, “국가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실력양성을 과제로 하여 교육과 산업의 진흥을 절규한 문화파의 민족적 사상과 러시아 혁명의 성공에서 얻어진 약소민족의 경제적 투쟁으로 시작되는 사회주의의 사상으로 갈라지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 양대산맥에서 뺏어내리는 그 지류는 사분오열로 분화현상을 초래함으로써 독립운동의 사상적 기반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세분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⁴⁾

1920년대에 나타난 이러한 좌-우의 분열과 그리고 분열의 심화는 1930년대에도, 1940년대에도 계속되며, 해방 직후로 이월된다. 해방 정국에서 고하도 빠져들게 되는 좌-우의 투쟁도 그 뿌리는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찾을 수 있다. 그리하여 그러한 이념적 분열은 1948년에 남-북의 분단이 고정화하는 데 적지 않게 이바지하게 되고,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나는 데도 작용하게 되며, 오늘날까지 남-북한의 접근과 화해와 평화적 재결합을 가로 막는 중요한 민족내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로빈슨이 오늘날의 남-북의 분단과 대결의 기원을 1920년대 이후의 좌-우의 대결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¹⁵⁾ 결코 무리는 아닌 것이다. 이러한 큰 틀 안에서 이 후의 일제의 이른바 문화정치에 있어

11) Chong-sik Lee,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 pp.237-243

12)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제2권, 18-19쪽

13) 위와 같음.

14) 鄭大澈, <신간회와 민간지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조선, 동아, 中外日報를 중심으로>, 《언론학보》(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원), 제2권 (1981), 196쪽

15) Michael Robinson, “Ideological Schism in the Korean Nationalist Movement, 1923~1930: Cultural Nationalism and the Political Critiqu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4 (1982~83), p.268

서의 고하의 활동을 살피기로 한다.

제2절 동아일보사를 일으키는 일에 이바지하다

1 <동아일보>의 창간과 수난

일제의 조선 식민지배 제2기에 있어서의 고하의 활동은 거의 전적으로 <동아일보>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동아일보>가 창간되고 여기에 고하가 참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요청된다.

앞 항목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일제가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조선인의 언론과 출판과 기업에 대한 종전의 억압을 어느 정도 완화하자 이 기회를 이용해 이들 분야에서 조선 민족의 실력을 키우며 조선민족의 발언권을 확대하려는 지도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민족의 독립문제에 대해 일종의 점진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그러한 국내 지도자들 가운데 대표적인 이가 바로 중앙학교 중흥의 장본인인 인촌 김성수였다. 그는 우선 1919년 10월 5일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창립하는 데 성공했다. 민족 산업을 일으킨다는 뜻에서 이미 1917년 京城織紐株式會社를 인수해 우리 겨레의 손으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織布를 생산하게까지 만든 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 겨레의 의류는 우리 스스로가 자급자족해야 한다”는 포부와 결심으로 경성방직주식회사를 세우기에 이른 것이다.¹⁶⁾

인촌은 이어 민족의 언론기관을 세우고자 했다. 식민지로 전락한 뒤 조선에는 우리글 신문으로는 총독부의 기관지인 <每日申報>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맞서 3·1운동 직후부터 나라 안팎에서는 민족의 함성을 제대로 표현하려는 신문들이 제법 많이 출간되었다. 우선 해외에서는 상하이에서 1919년 8월 21일 <독립신문>이 창간되어 일제 치하에서의 민족 언론의 효시가 되었다.¹⁷⁾ 그 밖에도 만주와 간도와 연해주와 미주 등등의 여러 곳들에서 애국적 교포들에 의해 독립 정신을 북돋는 신문들이 잇따라 나왔다. 한편 국내에서는 항일을 외치는 지하 신문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일본 국내에서도 조선인들에게 언론의 자유를 어느 정도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하여 사이토 총독은 부임 다음 날인 1919년 9월 3일 총독부와 소속 관서에 내린 훈시 가운데 “언론-집회-출판 등에 대하여는 질서와 공안 유지에 무방한 한, 상당히 고려를 기하여 민의의 창달을 기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때로부터 이미 몇 달 전부터 시작된 ‘민족대변지’ 창간의 움직임들이 보다 더 표면화하여 마침내 인촌이라는 구심점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하여 인촌은 1919년 10월 9일 총독부 경무국에 신문 발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 제호는 <東亞日報>이고 발행인 겸 편집인은 李相協이었다. 이상협은 인촌보다 한 살 아래로 何夢이라 自號했으며, <매일신보>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편집과 영업과 공장에 정통한 唯一人’으로 정평을 쌓아 올렸던 신문인이었다. 그는 3·1운동 직후 <매일신보>를 물러나, 3·1운동에의 참여로 말미암아 투옥되어

16) 이와 관련해서는 최시중(편저), 《인촌 김성수 :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동아일보사, 1985), 135-152쪽. 김성수와 그리고 경성방직주식회사에 대한, 특히 그것이 일제의 조선 식민정책에 대해 갖는 의미에 대한 가장 권위있는 학술적 분석으로 다음이 있다. Carter Joel Eckert, "The Colonial of Korean Capitalism: The Koch'ang Kims and the Kyongsong Spinning and Weaving Company, 1876-1945," unpub. Ph. D. dis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1986.

17) 鄭晉錫, <상해관 '독립신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및 한국언론학회 언론사연구회 공동 주최 '고 희관 林根洙박사 추모 언론사 연구 발표회' 발표 논문, 1990년 2월 23일, 33쪽

있는 최남선의 신문관일을 돌보며 민간지 발행을 꿈꾸던 터여서, 인촌의 <동아일보> 창간 사업에 흔쾌히 참여한 것이다.¹⁸⁾

<동아일보>의 발행허가를 신청함과 때를 같이 하여, 인촌은 화동 1백 38번지의 옛 중앙학교 교사에 ‘주식회사 동아일보 창립사무소’의 간관을 내어 걸었다. 이어 그는 전국의 주요 지역들을 순방하면서 <동아일보>의 창간 취지를 설명함과 아울러 이 신생 신문사의 주식을 사줄 것을 호소했다. 《동아일보 社史》 제1권이 밝히고 있듯이, “그것은 단순히 자본금을 마련하는 데만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신문이라는 언론사업의 본질을 감안하여 개인 우위 또는 족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적어도 동지적 규합, 가능하면 전 민족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민족지를 만들고자 하였던 것이다”¹⁹⁾ 다행스럽게도 짧은 시간 안에 이러한 뜻에 호응한 이들이 77명에 이르렀다.

1920년 1월 6일에는 총독부로부터 신문발행의 허가가 나왔다. 총독부가 허가조처를 취했던 배경을 《동아일보 社史》 제1권은 이렇게 설명한다.

<동아일보>가 허가된 뒤, 서울 진고개 일대의 일본상인연합회 상인들이 총독을 찾아 “불령선인의 소굴인 <동아일보>를 왜 허가해 주었느냐”고 항의하자, 이때 사이트 총독이 “동아일보는 조선민족의 뱃속에서 끓어오르는 가스를 배출시키는 굴뚝이야. 가스를 배출시키지 않으면 쌓이고 쌓여서 끝내는 폭발이 되거든” 하고 대답하였다는 일화도 있지만, 그들이 <동아일보>를 허가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3·1운동으로 표시된 한민족의 불만을 무마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3·1운동에서 보인 민중의 막대한 희생의 대가로 이 정도의 빛을 갚지 않을 수 없었던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동아일보>는 민족이 흘린 땀값으로 얻은 하나의 귀중한 과실인 것이다.²⁰⁾

발행이 허가된 때로부터 8일만인 1920년 1월 14일 발기인 총회가 열렸고, 2월 1일 회사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인촌 이외의 77명이 발기인으로 서명했다. 여기에는 첫머리에 박영효가 들어 있다. 이때 만 59세인 박영효는 경술국치 직후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았으며 조선식산은행 이사로 있어서 총독부와의 교섭을 잘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 두번째로 인촌의 양정부친 김기중이 들어 있다. 이어 도쿄에서 함께 공부하던 처남 고광준과 변호사 김우영과 현준호 등등, 중앙학교 인수 당시부터 함께 일해 온 이강현, 하의도 유배로부터 방면된 설산 장덕수와 설산의 仲兄 張德俊 등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발기인 총대표는 역시 인촌일 수밖에 없었다. 자본금 출자액의 대부분이 인촌系로부터 나왔던 것이다. 신문 발행의 신청은 2월6일자로 허가되었다.²¹⁾

이 무렵 <조선일보>와 <시사신문>에 대해서도 발행이 허가되었으며, <조선일보>는 그해 3월5일 창간함으로써 일제 치하에서 우리 겨레에 의해 발행된 첫번째 민간인 신문으로 기록되고 있다. 또 문예동인지 《폐허》가 창간되었고, 천도교의 기관지 《개벽》이 창간되었으며, 종합지 《서광》과 《서울》도 창간되었다. 확실히 1920년의 언론-출판의 상황은 <매일신보>가 판을 치던 그 이전의 상황과 크게 대조되는 것이었다.

동아일보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주식회사의 설립은 늦어지고 있었으나 <동아일

18) 동아일보社史편집위원회 (편), 《동아일보 社史》 권1 (1920년-1945년)(동아일보사, 1975), 63~69쪽. 이 책은 앞으로 《동아일보 社史》 권1로 표기된다.

19) 위와 같음, 87쪽

20) 위와 같음, 74쪽

21) 위와 같음, 87-89쪽

보>는 한 달 늦게 4월1일자로 창간되었다. 간부의 진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장에 박영효, 편집감독에 대한제국 말기 민족언론계의 지도자였던 유근과 梁起鐸이었다. 유근은 우리가 제3장 제1절에서 이미 살폈듯이 중앙학교 교장을 지내면서 인촌과 직접적 인연을 맺은이로 곧 별세한다. 雲岡 양기탁(1871-1938)은 <大韓每日申報>를 통해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했던 애국지사였다. 그는 뒷날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종사하다가 영광스런 혁명가로 일생을 마치고 만다. 주간은 만 26세의 청년 설산 장덕수였고 편집국장은 만28세의 청년 이상협이었는데, 설립자 인촌 김성수가 만29세의 청년이었음을 상기할 때, <동아일보>가 사실상 20대 청년 세 사람의 손에서 창간되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확실히 ‘청년신문’이었던 것이다.²²⁾

社是로는 “(1) 조선민중의 표현기관으로 자임하노라 (2) 민주주의를 지지하노라 (3) 문화주의를 제창하노라”의 ‘3대 主旨’를 내세웠다. 이 주지는 설산이 집필한 창간사 ‘주지를 선포하노라’에 잘 나타나 있다.²³⁾ 이것은 1926년 4월21일자 사설에서는 (1) 민족의식의 표현 (2) 민주주의 (3) 신문화 향상의 촉진으로 각각 표현되었다. 종합하건대, 그것은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와 문화주의를 상징하고 있었다.²⁴⁾ 여기서 우리는 <동아일보>가, 우리가 앞에서 이미 논의했던 ‘문화적 민족주의’라는 1920년대 국내 민족운동의 하나의 새로운 조류와 연결된 채 창간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창간사는 그 끝 부분에서 ‘본사의 前途가 심히 험하다. 그의 운명을 누가 가히 예측하리오’라고 썼다. 과연 <동아일보>는 창간 직후부터 총독부와의 충돌을 포함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다. 창간 2주만인 4월 15일자의 사회면 기사 ‘평양에서 만세 소요’가 총독부의 비위를 거슬리어 창간후 첫번째의 발매 반포 금지의 행정 처분을 받은 것을 기점으로 하여, 잇따라 발매 반포 금지와 삭제와 압수 따위의 일들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박영효는 6월 1일자로 사임하게 되었고 그 후임으로 인촌이 제2대 사장에 취임했다. 이때까지도 고하는 서대문감옥에 갇혀 있었다.

인촌이 사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동아일보>의 수난은 계속되었다. 9월 25일자 사설 ‘제사 문제를 재론하노라’가 일본 황실의 상징인 鏡과 珠玉과 劍의 이른바 ‘3종의 神器’를 모독했다 하여 제1차 무기정간 처분을 당했다. 이어 정간중이던 10월 중순에는 그해 6월의 鳳梧洞 전투에서 우리 독립군에 참패한 왜병이 그 보복 조치로 북간도에서 우리 교포들을 학살했다는 소식에 격분해 그 진상을 파악하고자 현장으로 달려갔던 통신부장 겸 조사부장 秋松 장덕준이 순직한 것이다. 이 왜병은 중국에는 10월 하순에 靑山里 전쟁을 통해 우리 독립군에게 다시 한번 참패하고 말지만, 추송은 만29세의 젊은 나이로 목숨을 잃은 것이다. 한국 신문의 역사에서 최초의 순직자가 된 그는 1962년 3월1일 대한민국건국공로훈장 單章을 추서받는다.²⁵⁾

<동아일보>의 정간은 1921년 1월 10일에야 겨우 해제되었다. 그러나 자금난으로 속간되기까지는 다시 한 달 이상이나 지연되어 속간호를 낸 것은 2월 21일자였다. 이 무렵에야 비로소 서울로 올라온 고하는 중앙학교 강사 자격으로 교편을 잡으면서 문필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때 그의 생각의 한끝을 보여 주는 글이 1921년 3월 12일에 창간된 《青年》 1921년 3월호에 게재된 <남녀교제에 대한 의견>이다. “남자나 여자나 동일한 사람이라, 사

22) 위와 같음, 91~92쪽

23) 전문은 다음에 있다. 동아일보사 신동아 편집실(편), 《근대한국명논선選》(동아일보사, 1979), 106-107쪽. 이 책은 앞으로 《근대한국 명논선選》으로 표기된다.

24) 《동아일보 社史》, 권1, 92쪽

25) 위와 같음, 149-151쪽

람과 사람의 교체하는 것이 정당한 사실이다”라고 시작한 이 글은,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습관의 제재가 嚴切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지난날에 그러했던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도덕의 발전이 진보하고 문화의 범위가 확대된 현대에 처하여는 성인이 復起하여도 남녀 교제를 정론이라 할 것이다”라고 결론지었다. 이 글에서 우리는 고하가 이미 진보적인 남녀 윤리관을 지녔음을 알 수 있는데, 그가 6년 전인 1915년에 《학지광》에 발표했던 <공교타파론>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이었다. 즉 계몽주의적 지식인에게 공통되는 인습타파론의 연장선 위에서 있었던 것이다.

2 주식회사 <동아일보>사의 출항과 고하의 사장 취임

창간 직후의 <동아일보>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했지만 그 충당이 쉽지는 않았다. 게다가 나라 전체에 경제공황이 겹쳐 술한 회사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1920년 1월 14일에 발기인 총회까지 열었던 주식회사의 설립이 미적미적 지연되어 왔던 것인데, 인촌의 노력으로 1921년 9월 14일 창립총회를 통해 주식회사의 설립을 보게 되었다. 이때 발기인은 55명으로, 고하는 여기서부터 <동아일보>에 공식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창립총회는 곧 고하를 대표이사 사장에 선출하는 등 진용을 바꿨다. 이로써 고하는 <동아일보>의 제3대 사장, 또는 주식회사로 바뀐 이후의 초대 사장이 된 것이다. 이때 고하는 만 31세였다. 그 뒤로 고하는 때로는 사장으로, 또는 고문으로, 또는 주필로, 실질적으로 <동아일보>를 주도하여, <동아일보>가 일제에 의해 마침내 폐간될 때까지 19년을 <동아일보>와 생명을 같이했다. 이것은 <동아일보>가 일제에 의해 폐간될 때까지의 20년 역사에서 그의 역할이 얼마나 컸던가를 잘 말해준다. 동아일보사가 오늘날까지 그를 ‘설립자 인촌 김성수선생’과 더불어 ‘공로자 고하 송진우 선생’으로 높이 기리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발행인과 편집인에는 韓基岳이 선출되었다. 고하보다 일곱 살 아래로 강원도 출신인 한기악은 月峰이라 自號했으며, 일찍이 항일 독립운동에 투신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만 22세의 젊은 나이에 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었던 이다. 다음 해에 귀국해 <동아일보> 창설 때 입사했는데, 그 다음 해인 1921년에 일약 발행인 겸 편집인의 중책을 맡기에 이르렀다. (그는 뒷날 <시대일보>의 편집국장과 <조선일보>의 편집국장을 거쳤으며 1941년에 별세한다. 출판사 一潮閣의 韓萬年 사장이 그의 아들이다) 이어 취체역 부사장에는 장덕수가, 상무취체역에는 이상협이 각각 선출되었고, 주필에는 장덕수가, 편집국장에는 이상협이 각각 겸임발령되었다.²⁶⁾

사장에 취임하면서 고하는 <동아일보> 지상에 자신의 포부를 길지 않게 밝혔다. <本報의 과거를 논하여 독자 제씨에게 一言을 쫓하노라>라는 제목 아래서, 그는 <동아일보>의 발전이 시대적 상황에 의해 이뤄졌음을 겸허하게 인정했다. 그러한 만큼 <동아일보>는 어디까지나 ‘2천만 민중의 공유물’이라고 파악하면서, 2천만 민중으로 같이 立하며, 같이 起하며, 같이 怒하며, 같이 喜하며, 같이 哀하며, 같이 樂할” 것을 다짐했다.²⁷⁾

고하는 회사의 체제 정비에 착수했다. 종래의 2국(편집국-영업국) 1공장체제에 서무경리국을 신설하고, 본사와 지사와 지국 사원들 사이의 인화를 돈독히 하도록 힘썼다. 고하의 기존 전기가 지적했듯이, “인화는 본시 중앙학교 교장 때부터의 신조였지만, 사원의 인화는 이 민족의 인화와 단결을 촉구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에서 1922년 2월

26) 위와 같음, 163-166쪽

27) <동아일보>, 1921년 10월 5일

15일과 16일에 서울 명월관에서 제1차 지국장회의를 열기도 했다.

고하는 또 社訓 5개조를 만들었다. “3·1운동 이후 이 민족은 禍亂에 빠져서 사람들은 저마다 남의 단점만을 트집잡고 있는데, 이러한 민족적 고난에 있어서는 한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는 장점 하나라도 화초 가꾸듯이 키워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사훈 5개조를 만들어 민족적 시범을 보이려고 했던 것이다” (1) 제3자의 악평을 하지 말며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사실만을 들어서 호평할 것 (2) 남을 대할 때 면박을 주지 말 것 (3) 거짓말하지 말 것 (4) 맡은 일을 정성껏 처리할 것 (5) 돈에 깨끗할 것 등등이 그것이었다. 고하 스스로 사훈을 지켜 나갔으며, 상대하는 사람들에게도 민족 상호간의 비난주의와 부정주의와 균색하고 서투른 약점을 고쳐 나갈 것을 강조했다.²⁸⁾ 여기서 우리는 安島山의인 인격수양론의 분위기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 사실 <동아일보> 사장 취임 이후 ‘합법적 민족운동가’로서의²⁹⁾ 성격을 확실히 한 고하가 걷는 길은 도산의 務實力行論에 매우 가깝게 된다.

고하는 해외 특파 취재에도 눈을 돌렸다. 1921년 10월에 하와이에서 제2차 만국기자대회가 열리고 이어 11월에 워싱턴에서 태평양국가군축 회의가 열리자 조사부장 金東成을 특파원으로 참석시켰고,³⁰⁾ 1922년 7월에 일본 니이가타(新瀉)현에서 조선인 노동자 학살사건이 일어났을 때와 그리고 1923년 9월에 도쿄에서 대지진이 일어나면서 조선인들이 학살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편집국장 이상협을 현지로 특파해 취재와 위문을 겸하게 했다. 1922년 10월부터는 해외통신원 축탁제를 실시했고 1923년 4월부터는 본사 기자를 미국과 도쿄와 상하이에 상주 특파원으로 내보냈다.³¹⁾

제3절 자강운동을 전개하다

1 시대적 상황

<동아일보> 사장직을 맡고 <동아일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키려는 고하에게 시대적 흐름은 미묘하기만 하였다. 이 무렵 해외의 독립운동계에서도 그러했지만 국내의 민족운동가들 사이에서도 동요의 조짐이 엿보이기 시작했다. 對日타협론이 머리를 든 것이다. 對日타협론은 총독부가 부추긴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조금씩 확산되어 나가자 그것을 기회로 총독부는 민족운동가들에 대한 회유와 포섭을 본격화했다. 마침 일제는 1921년 11월에 워싱턴에서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9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태평양국가군축회의를 통해, 그리고 중국문제에 관한 조약의 성립을 통해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안정시킨 터여서 조선의 식민지배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었다. 그리하여 총독부는 문화정치를 보다 더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타협적인 개량주의 단체’를 여러 분야에서 조직해 나갔으니, 1921년 6월의 朝鮮人産業大會, 1922년 1월에 조직된 이광수의 修養同盟會, 같은 해 6월에 조직된 박영효의 民友會 등등이 그 대표적인 보기들이었다. 수양동맹회는 1926년 1월에 修養同友會로 바뀐다.³²⁾

28)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편), 《고하 송진우 선생전》(동아일보사출판국, 1965), 166-167쪽. 이 책은 앞으로 《고하 송진우 선생전》으로 표기된다.

29)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전3권 (한길사, 1986), 제3권, 778쪽

30) 金乙漢(편저), 《千里駒 金東成》(을유문화사, 1981), 45-49쪽. 김동성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신문학과 졸업생으로 영어에 능통했고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 하여 특파되었다.

31) 《동아일보 社史》 권1, 175-182쪽

32) 강동진, 앞의 책, 380쪽 및 402-407쪽

총독부는 또 조선인의 언론-출판기관들에 대해서도 논조가 사실상의 대일타협론으로 바뀌도록 유도하고자 압력을 가하기도 하고 공작해 들어가기도 했다. 그들이 압력이나 공작에 쉽게 응하지 않자 1922년, 여름쯤부터는 ‘위력을 동반한’ 문화정치를 강행해 나갔다.³³⁾

이 무렵 대일타협론과 관련하여 총독부가 강력히 보급시키고자 한 대표적 이론이 춘원 이광수의 붓을 통해 정립된 <민족개조론>이었다. 2·8독립선언서를 기초했고 거기에 서명했으며, 곧 상하이로 망명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 사장 겸 편집국장에 취임했던 춘원은 3·1운동의 결과에 실망한 나머지 1921년 3월 일본 총독부와의 연결 아래 귀국한 뒤 대일타협론의 입장에서 문화운동을 전개하는 쪽에 서 있었다. 그리하여 이미 ‘변절’의 비난을 받던 그는 천도교의 월간지 《개벽》 1922년 5월호에 장문의 논설 <민족개조론>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천도교는 최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최린은 3·1운동으로 투옥됐다가 1921년 6월에 최남선과 더불어 가출옥의 형태로 출소한 뒤 총독부와의 연결 아래 합법적 민족운동노선 또는 대일 타협론으로 기울어 춘원의 입장과 사실상 같았기에 문제의 논설을 게재시켰던 것으로 보인다.³⁴⁾

그러면 김윤식 교수의 표현으로 ‘저 악명 높은’³⁵⁾ <민족개조론>의 내용은 무엇인가? 춘원은 “조선민족의 쇠퇴의 원인은 도덕적 원인이 근본”이라고 보았다. 즉 조선민족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기에 국권을 잃고 남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러한 진단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는 처방은 ‘도덕적 개조’와 ‘정신적 개조’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교육이었다. 상-중-하의 세 편으로 구성된 이 논설은 일제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었다. 이 논설을 매우 치밀하게 분석한 김윤식에 따르면 이 논설의 사상적 기반은 준비론과 무장투쟁론의 중간지점에 놓여 있다.³⁶⁾ 한편 송건호에 따르면 <민족개조론>의 논리가 “당시의 일제에게는, 즉각 독립을 주장하며 일제와 타협없는 투쟁을 벌이려는 투쟁 세력을 약화시키는 데 있어서 더없이 도움이 되는 이론이었던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³⁷⁾ 이 논설의 성격이 그러했기에 ‘사회는 별집을 쭉신 듯 여론이 비등했고 청년들은 ‘이광수 타도’를 외치고 잡지사를 습격하는 등 이광수는 영원히 글을 쓰지 못하게 되고 그는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되는 것 같았다”³⁸⁾

춘원류의 <민족개조론>이 나오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신생활》이라는 조선 잡지의 역사상 최초의 좌익 잡지도 나와 일제와의 투쟁 또는 무산계급의 혁명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족개조론>이 일제 총독부와의 연관 아래 나온 것이었다면, 《신생활》은 국제공산주의와 무관하지 않았다. 상하이의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이 세운 고려공산당은 1921년에 레닌으로부터 조선의 공산 혁명을 위한 활동자금으로 거액을 받은 뒤 그 가운데 일부를 조선 국내의 공산주의자들 또는 사회주의자들에게 보냈는데, 그 핵심적 수령자가 2·8 독립선언의 또 한 사람의 주동자인 崔八鏞이었다. 고하나 설산과도 도쿄 유학시절부터 잘 아는 처지였던 그는 1922년 1월에 창립된 신생활사가 발행하는 이 잡지를 지원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33) 위와 같음, 401쪽

34) 이광수와 총독부의 연결에 대해서는, 위와 같음, 404쪽. 최린에 대한 총독부의 ‘매수’ 공작 또는 회유공작에 대해서는 강동진의 이 책의 여러 곳들에서 보인다. 예컨대, 167쪽. 또 宋建鏞, <이광수>, 송건호, 《한국현대 인물사론 : 민족운동의 사상과 지도노선》(한길사, 1984), 354쪽

35) 김윤식, 739쪽. <민족개조론> 전문은 《이광수 전집》(삼중당, 1971), 제10권, 116-147쪽에 있다. 강동진은 “이광수의 <민족개조론> 발표는 그 무렵 비타협적인 공기가 지배적이었던 조선에서 여론의 분열을 노리고 총독부가 일부러 시킨 의도적인 것인 성싶다”고 추측하고 있다. 강동진, 앞의 책, 402쪽

36) 김윤식, 위와 같음, 740쪽

37) 송건호, 위와 같음, 356쪽

38) 위와 같음, 357쪽

잡지는 문화적 민족주의 또는 문화운동을 맹렬히 공격하는데 앞장을 섰다.³⁹⁾ 그래도 이 잡지의 간부들이 그 해 11월22일에 ‘적화사상 선전’혐의로 구속되자-이것이 우리나라 사상 최초의 사회주의 관련 필화사건이다-언론계와 법조계 인사들이 언론옹호 결의문을 채택하게 되었는데 고하는 동아일보사를 대표하여 서명에 응하기를 잊지 않았다.

2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참여하다

이러한 시대적-사상적 상황에서 <동아일보>의 사장으로 취임한 고하의 고뇌와 번민은 그의 사려 깊은 성격에 비추어 매우 컸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구나 총독부의 협박과 회유의 손길은 그에게도 직접적으로 미쳐 오는 터였다. 사이토 총독이 조선인을 면회한 기록을 점검한 강동진은 1922년부터 1923년까지의 기간에 사이토가 고하를 8회에 걸쳐 만난 것으로 밝히고 있는데,⁴⁰⁾ 그것은 고하에 대한 총독부의 압력의 한 증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 시점에서 설산과 같은 동지와 헤어지는 쓰라림도 경험해야 했다. 당시 <동아일보>의 주필로 청년 운동의 지도자로 활약하던 설산은 상하이의 고려공산당이 넘겨준 공산주의 선전 자금을 유용했다는 모략을 좌익세력으로부터 받게 되자-그 자금은 우리가 바로 앞 항목에서 보았듯이 사실 최팔용에게 전달되었다-고하는 인촌과의 상의 끝에 1923년 4월 설산을 <동아일보> 부사장 자격으로 도미 유학의 길에 오르게 하였던 것이다. 설산은 영-미 여러 대학에서의 연구를 바탕으로 1936년 컬럼비아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 학위를 받고 그 해 12월에 귀국한다.⁴¹⁾

문화적 민족주의 운동계와 과격한 민족주의 운동계 모두에, 또는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모두에, 또는 우익과 좌익 모두에 친구들을 갖고 있는 고하가 <동아일보> 사장으로 걸은 길은 한마디로 합법적이며 우익적인 민족운동의 길이었다. 그는 우선 1922년 3월6일부터 12월 3일까지 무려 10개월 동안 전국에서 ‘재외동포 위문 전조선 순회환등영사 대강연회’를 열면서, 스스로는 5월부터 7월까지의 석달동안 호남과 호서와 관서를 순회했다. 앞 항목에서 이미 소개했던 김동성이 만국 기자대회와 군축회의를 취재하면서 만든 기록 환등을 동포들에게 보여 주어 변전하는 세계정세와 민족의 나아갈 길을 암시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로 이주해 갔은 신산을 껴고 있는 동포들을 위문하고 또 그들에게 교육기관을 세워주는 기금을 모금했다. 반응은 뜨거워 4만5천여원이 걷히자 고하는 이를 이역의 어려운 동포들에게 보내 그들로 하여금 조국과 동포의 존재를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이때의 스스로의 활동과 감회를 그는 뒷날 이렇게 회고했다.

그때의 조선 사회로 말하면 아직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지 않고 기미년 이후 일관하게 버티어오던 민족주의적 사상만이 외골수로 발전-응결하여 그야말로 최고조에 달하였던 때였 [다...] 그 때 在內 형제들의 정성은 끓고 있었으니, 이것은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지방 일반 인사의 열성이 대단하여서 연설중도에 感이 極하여 제머리에 꽂았던 비녀와 반지 등을 뽑아놓기는 비일비재였고 또 몸에 가진 돈이 없으면 집에 달려가서 의봉을 들쳐 [내] 값가는 저고리, 반지까지 내어다가 해외에 보내달라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맡겨 주던 때이다. 그리고 海參威 [블라디보스토크] 고, 상항 [샌프란시스코], 포와 [하와이] 등

39) 이 점과 관련해서는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제권, 183-198쪽 및 236쪽, 이경남, 앞의 책, 198-204쪽

40) 강동진, 위와 같음, 169-170쪽

41) 이경남, 앞의 책, 198-206쪽 및 208-261쪽

지에 있는 재류동포들이 경영하여 가는 기독교회나 학교나 유치원 등의 활동사진을 돌릴 때마다 장내는 끊임없이 박수와 환호로 일관하였던 것이다. 생각건대, 海內 형제가 재외 동포를 이렇게 대중적으로 위문하여 본 일은 前無하였던 일이므로, 주최자와 민중의 의사가 동일점에서 이와 같이 가관스럽게 연소되고 있었던 것인 듯하다.⁴²⁾

이 사업에 이어 고하는 ‘安昌男군 고국방문 대비행’의 행사를 가졌다. 안창남은 1900년에 서울에서 태어나 일본으로 건너가 비행술을 배워 일등비행사가 된, 조선 최초의 비행사이자, 1921년 5월에 일본 항공국이 실시한 제1회 비행사 면허시험에서 우승한 이가 바로 조선인 청년 안창남이라는 소식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그는 식민지 백성의 긍지를 부추긴 ‘영웅’으로 부각되었다.⁴³⁾ 안창남 자신이 고국방문 비행 주최를 1921년 여름부터 의뢰해 오자, 고하는 그것을 “범민족적인 사업으로 삼아, 거족적으로 그를 환영하는 가운데, 민족 능력을 선전하고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고하는 우선 국내 실업계와 교육계와 언론계 등 각계를 망라한 ‘안창남 고국방문비행 후원회’를 조직하여 성금을 모집했으며, 마침내 그 비행은 1922년 12월11일 노량진의 여의도 비행장에서 실현되었다”⁴⁴⁾

이 사업은 동포들의 자부심을 한껏 높여주었다. 미국의 라이트 형제 (Orville and Wilbur Wright)가 비행기를 발명해 시승한 것이 1903년의 일이지만, 조선 백성들에게는 “하늘에 길을 내고 사람이 다니는 일은 여전히 상상력 밖에 있었던 것이다”⁴⁵⁾ 그러나 이 사업은 6천 2백여원의 부채를 <동아일보>에 남겨 주었다. 연이어 생기는 압수, 정간, 발매금지 등 행정처분의 사고에 이러한 부채가 겹치자 <동아일보>의 재정 형편은 좋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고하를 비롯한 모든 사원이 한 개 5전짜리 호떡으로 때를 잇기가 예사였다고 그의 기존 전기는 전하고 있다.⁴⁶⁾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족을 위해 뜻있는 사업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나서는 사람이 고하였다. 조선민립대학운동이 그 한 보기이다. 민립대학을 세우려는 운동의 효시는 1910년의 경술국치 직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제국 말기인 1906년 이래 일본 정부로부터 차관한 1천 3백만엔의 상황이 어려워지자, 국채보상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경향 각지에서 6백만엔의 큰 돈이 모였다. 그러나 경술국치와 더불어 이 운동도 막을 내리게 되었고, 6백만엔의 처리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은 이 돈을 각자에게 돌려주는 것보다는 민립대학을 세우는 기금으로 활용함이 좋겠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민립대학기성회를 조직하게 되었고 총독부에 민립대학의 설립허가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총독부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좌절했던 민립대학운동가들은 3·1운동 직후 일제가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자 용기를 얻어 1920년에 다시 그 설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총독부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민간인 수준에서 합작해 설립할 것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여기서 순수한 조선인의 민립대학을 조선인의 힘으로 세운다는 꿈은 깨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⁴⁷⁾

이 깨어진 꿈을 끝내 실현시켜보고자 한 운동가들이 고하와 그의 동지들이었다. 일제가 이른바 문화정치의 시책의 하나로 1922년 1월 25일 “조선과 일본이 동일한 교육제도에 의

42) 《고하 송진우 선생전》, 167-169쪽 및 송진우, <‘해외동포’와 ‘번역’> 《삼천리》(1930년 5월), 41쪽

43) 조선회,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16) : 안창남>, <한겨레신문>, 1990년 3월 2일

44) 《고하 송진우 선생전》, 169쪽

45) 조선회, 앞의 글.

46) 《고하 송진우 선생전》, 170쪽

47) 《동아일보 社史》 권1, 216-217쪽

한다”는 취지의 조선교육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그리하여 예컨대 1921년 4월 1일자로 중앙고등보통학교로 승격된 이 학교의 수업연한이 4개년에서 5개년으로 늘어나기도 했다.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해 고하는 1922년 2월6일자 <동아일보> 사설 ‘민립대학의 필요를 제창하노라’를 통해 다시 한번 민립대학운동에 불을 붙인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이 첫 걸음마를 떼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리어 같은 해 11월 하순에서 겨우 이상재와 한용운과 이승훈과 그리고 고하를 비롯한 40여명의 사회 저명인사들로 민립대학기성준비회가 조직되고 그 사무소를 조선교육회 안에 두게 되었다. 여기서부터 일의 진전은 비교적 순조로와 1923년 3월29일부터 사흘 동안 민립대학발기인총회가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열리기에 이르렀다. 발기인총회는 중앙집행위원으로 30인을 뽑았는데, 여기에는 일제에 대해 한 차례도 굽힌 일이 없는 이상재와 한용운과 이승훈은 물론이거니와 민족변호사로 좌파적 성향이 있는 허헌과 좌익운동가인 정노식과 마르크시스트 경제학자인 白南雲 등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운동이 좌-우익을 망라한 범민족적 성원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고하도 중앙집행위원으로 뽑혔다. 중앙집행위원회는 곧 이상재를 위원장으로 하는 상무위원 9명을 선출하고 연내로 1천만원의 확보하기로 결의했으며 기금 모집을 위해 지방유세도 실시했다.⁴⁸⁾

사태를 관망하던 총독부는 마침내 간접적인 방해작전을 폈다. 즉 갑자기 조선에 관립대학을 둔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1924년 1월에는 벌써 대학예과 학생을 모집하여 5월12일에는 경성제국대학을 개교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사회주의자들의 민립대학 설립 반대운동이 잇따랐다. 그들은 민립대학을 세워야 그것은 일제 식민지 교육을 돕는 것뿐이며, 따라서 이미 모인 돈으로는 노동자와 농민을 위해 강습소 같은 교육기관을 여러 곳에 세우는 것이 순서라고 맞섰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모금에 큰 진전이 없던 민립대학운동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그리하여 이 운동은 유감스럽게도 좌절되고 말았다.⁴⁹⁾

3 물산장려운동을 이끌다

운동가들이 민립대학 설립 운동과 병행하여 추진한 또 하나의 자강운동이 물산장려운동이었다. 한마디로 말해, 국산품애용운동인 이 운동은 1920년 8월에 평양에서 曹晩植 등이 발기한 朝鮮物産獎勵會로부터 비롯되어 마침내 전국으로 번져 나갔다. 그리하여 자강운동가들은 1923년 1월에 서울에서 朝鮮物産獎勵會를 창립하고 국산품 애용운동에 박차를 가했다.⁵⁰⁾ 고하는 이 운동을 인도의 간디가 벌였던 국산품 애용운동에 비유하면서 힘껏 이끌었으며, <동아일보>를 통해서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다.⁵¹⁾

조선물산장려회의 활동이 활발해지자 그것은 금주와 금연과 저축과 절약 등등의 건전한 운동으로 번져 나아갔다. 김준엽과 김창순의 연구에 따르면, 그것은 “제2의 3·1운동이라고 할 만큼 민족적 운동으로 양양되었다”⁵²⁾ 이렇게 되자 일제는 이 운동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방해했다. 한편 공산주의자들을 비롯한 좌익운동가들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폈듯이, 물산장려운동이 ‘중산계급의 이기주의’를 돕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1924년에 들어가서는 침체해 버렸고 1925년에 들어가서는 소멸되어 버렸다.⁵³⁾

48) 위와 같음, 215-220쪽

49) 위와 같음, 220쪽

50)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제2권, 14-16쪽

51) 《동아일보 社史》 권1, 210-215쪽

52)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제2권, 16쪽

제7장 일제의 ‘문화정치’와 고하의 민족주의의 시련

제1절 <민족적 경륜>에 따른 분란과 사장직 사퇴

1 자치론과 研政會

자신의 사생활은 사실상 완전히 버린 채, 젊은 사원들과 함께 하숙방에서 침식하며 <동아일보>를 위해, 그리고 자강운동을 위해 불철주야로 헌신하던 고하에게도 시련들이 닥쳐왔다. 그것은 우선 自治論과 研政會의 관련 속에서 일어났다.

그러면 자치론과 연정회란 무엇인가? 문제가 된 자치론의 이론적 뿌리를 도쿄대학 법학부 교수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의 이른바 朝鮮自治論에서 찾을 수 있다. 이른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사상적 지도자였던 요시노는 조선과 만주를 여행한 뒤 《주오고론(中央公論)》 1916년 6월호에 <滿韓을 시찰하고>를 발표하는 가운데, “차라리 가만히 참으며 一意專念 민족전반의 개발을 도모하여, 평화 속에 우선 그 실력을 길러 서서히 시기가 옴을 기다린 이후, 적당한 해결을 일본에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책”이라는 전제 아래 조선의 자치를 언급한 것이다. 김윤식에 따르면, “그의 사상은 노예에 대한 노예주인의 사상이라 할 만하다”¹⁾ 그러나 “당시 한국지식인에게는 이 사상이야말로 가장 참신한 것의 하나로 비쳤다” 그리하여 “조선내는 물론 유학생간에 펍 인기가 있었다”²⁾

3·1운동이 일단 ‘좌절’하면서 요시노類의 조선자치론이 국내의 일각에서 머리를 들었다. 3·1운동 이후 식민지 조선의 민족주의 운동이 민족진영 곧 우익과 사회진영 곧 좌익으로 나뉘어졌음은 제6장 제1절에서 이미 설명했거니와, 우익 가운데 일부에서—이 세력을 타협주의적 우익이라고 보고, 비타협주의적 우익과 구별하기도 한다—자치론이 검토된 것이다. 그들이 자치론을 검토하거나 또는 “독립은 잠시 유보하고 우선은 일제통치 밑의 자치를 추구하려 들게 된”³⁾ 배경은 강동진의 치밀한 연구에 잘 분석되어 있어⁴⁾ 여기서는 중복을 피하기로 하되, 간단히 말하면 거기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요인들이 개입되어 있었다. 하나는 총독부의 이른바 문화정치의 작용이고 다른 하나는 좌익의 위협에 대한 반응이었다. 두 번째 요인과 관련해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민족진영이 주도하던 민립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이 사회주의자들의 비판으로 그 침체화가 가속되는” 등 국내의 민족운동 전반에서 사회주의자들에게 밀려나는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이 표방하는 일본제국주의 반대라는 입장을 명백하게 행동화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결국은 “저항의 약화 내지 포기를 택한 것이다”⁵⁾ 그리하여 그들은 1923년 말부터 ‘합법적 정치운동을 위한 研政會’⁶⁾를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고하와 인촌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동아일보 社史》 제1권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53) 위와 같음, 21쪽

1)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천3권 (한길사, 1986), 제2권 608-610쪽

2) 위와 같음, 609쪽

3) 차기벽, <민족협동전선>의 시각에서 본 신간회 운동, 차기벽(편), 《일제의 한국 식민 통치》(정음사, 1985), 354쪽

4)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한길사, 1980), 제3장 제3절

5) 申一澈, 《신채호의 역사사상 연구》(고려대학교 출판부, 1981), 293쪽 및 차기벽, 앞의 논문, 355쪽

6) 차기벽, 위와 같음.

이 무렵 물산장려와 민립대학설립의 양대운동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좌절, 그 직접적 원인은 총독부의 방해에 있었다고는 하나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민족자체의 취약성에 있었다고 보고 민족운동의 新生面을 열기 위하여 지도층의 단합이 필요했던 것이다. 더구나 공산주의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데 비하여 민족주의자들은 위축되어 있던 터이라 그 결합체를 꾸준히 모색, 김성수 송진우 崔元淳 申錫雨 안재홍 최린 李鍾麟 이승훈 朴勝彬 조만식 徐相日 등 16~7명이 한 자리에 모여 이를 거론, 이 모임을 가칭 ‘연정회’라 명명하고 거족적인 민족운동의 조직을 논의하게 되었던 것이다.⁷⁾

고하는 뒷날 그러한 배경에서 ‘경향 각처의 유지들’이 한번 모인 일이 있기는 했으나 차치문제를 논의한 일도 없고 더구나 연정회라는 명명도 해 본 일이 없다고 회고했다.⁸⁾ 그러나 1924년 초에 <동아일보>에 연재된 이광수 집필의 사설은 ‘연정회’에 대한 의혹을 질게 하면서 맹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제6장 제3절에서 이미 설명했듯이, 이광수는 <민족개조론>으로 말미암아 사회적으로 매장되다시피 했고, 이광수 스스로의 표현으로도 “완전히 문필권에서 축출을 당한 셈이 되었다”⁹⁾ 이때 그에게 지면을 준 이가 고하였다. 이 점에 대해 춘원은 이렇게 회고 했다.

아마 宋古下라고 기억되는데 소설 쓸 것이 있거든 <동아일보>에 한번 게재하라는 말을 하였다. 고하는 물론 <동아일보>사장이었다. 이 말은 언론계에서 완전히 축출된 나에게는 비할 데 없이 고마운 말이었다. 그래서 <嘉實>을 <동아일보>에 보냈더니, 그것이 며칠 동안 연재가 되었다. 이것은 아마 고하가 나를 세상에 다시 끌어내어주려는 호의에서 오래 생각한 끝에 나온 것이다. 이것이 내가 <동아일보>에 글을 쓰게 된 시초다.¹⁰⁾

고하의 기존 전기도 그 점을 인정하고 있다. 아량이 큰 고하가 춘원에게 재생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기회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이다.

2 <민족적 경륜>의 파문

그 뒤 춘원은 춘원의 집을 찾아온 고하와 인촌의 권유에 “오직 감격으로 응하여” <동아일보>에 입사했다.¹¹⁾ 이와 관련하여, 강동진은 춘원이 “총독부의 주선으로 수당만도 한달에 3백엔의 엄청난 돈을 받고 <동아일보> 논설위원으로 들어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¹²⁾ 12) 어쨌든 춘원은 <동아일보>에 1924년 1월 2일부터 6일까지 5회에 걸쳐 문제의 <민족적 경륜>이라는 긴 논설을 발표했다.¹³⁾ 이 논설은, 차기벽의 해석에 따르면, “일제의 법률이 許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창하며, 일본을 철저히 반대-배격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문화-교육-산업운동을 벌여 민족적 실력을 양성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

7) 동아일보社史편찬위원회(편), 《동아일보 社史》 권1 (1920~1945년)(동아일보사, 1975), 230-231쪽. 이 책은 앞으로 《동아일보 社史》로 표기된다.

8) 송진우, <‘해외동포’와 ‘번역’> 《삼천리》 (1930년 5월), 42쪽

9) 김윤식, 앞의 책, 제3권, 784쪽에서 다시 옮김.

10) 위와 같음. <嘉實>은 1923년 2월 12일부터 23일까지 연재됐다.

11) 위와 같음.

12) 강동진, 앞의 책, 394쪽

13) 《이광수전집》(삼중당, 1971), 제10권, 183-188쪽에 있다.

한 논설이다”¹⁴⁾ 또 강동진의 해석에 따르면, “교묘한 필법 [의] 대일타협 [론] 이다”¹⁵⁾ 이러한 성격 때문에 이 논설은, 특히 “우리는 조선 내에서, 許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라는 대목은¹⁶⁾ 국내외의 동포들로부터 일제에의 영합 또는 투합이라는 비난과 함께 커다란 파문을 불러일으켰다.¹⁷⁾

이에 <동아일보>는 1월 29일자 사설을 통해 “그 本旨는 결코 [반발세력] 이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며, 이런 오해를 초치한 것은 그 표현의 미숙에서 야기되었을 뿐”이라고 누누이 밝혔던 것이다. 그러나 《동아일보社史》가 밝혔듯이, 물의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다시 4월 20일 조선노동총연맹의 임시대회가 <동아일보>를 공개성토했기에 이르렀다. <동아일보>는 4월 23일자 사설에서 ‘언론의 부자유에서 오는 표현상의 잘못’을 인정한 다음 그 본지가 나타난 문구와는 다름을 거듭 해명하였다.¹⁸⁾ 그런데도 <동아일보>를 사보지 말자는 운동이 퍼져 나갔다.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춘원을 잠시 퇴사시킴과 아울러 연정회를 공식 발족시키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3 식도원 폭행사건

앞친데 덮친다는 말대로 <민족적 경륜>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이번에는 친일 폭력배 朴春琴이 고하와 인촌을 상대로 저지른 이른바 食道園 폭행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고하의 기존 전기나 인촌의 전기는 물론 한국신문史에 관한 책들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지은이의 줄거 《가인 김병로 평전》에서도 취급했기에¹⁹⁾ 여기서는 간단히 다루기로 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1924년 4월 2일자 <동아일보> 사설 <官民야합의 漁利운동>이었다. 3월 30일자 사설에 이어 이 사설로 다시 한번 친일단체들의 연합인 各派有志聯盟을 공격하자 이 조직의 두목인 박춘금이 고하와 인촌을 식도원으로 유인하고 ‘사과문’과 돈을 내도록 협박했다. 이미 여러 차례 동아일보사를 협박했던 이 거물 깡패는 이번에는 단도와 육혈포를 번갈아 써가며 두 사람을 세 시간이나 협박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고하는 개인의 자격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인신공격은 유감이었다는 짤막한 쪽지를 써주었고, 인촌도 개인자격이라고 강조하며 3천원을 전해 주겠다고 약속하여 겨우 풀려나 귀가했다.” 돈은 다음날 박춘금의 보호자격인 총독부 경무국장에게 “당신의 하수인에게 전하라”는 인촌의 냉소적인 말과 함께 직접 보내졌으나, 오히려 당황하게 된 경무국장이 받지 않아 그냥 갖고 돌아왔다고 한다.²⁰⁾

14) 차기벽, 앞의 글, 355쪽의 각주 9

15) 강동진, 앞의 책, 397-398쪽

16) 제2회분 <정치적 결사와 운동> 에 있다. 《이광수전집》, 제10권, 184쪽

17) 이 점에 대해서는, 崔民之·金民洙, 《일제하 민족언론사론》(일월서각, 1978), 126-133쪽

18) 《동아일보 社史》 권1, 231-232쪽

19)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편), 《고하 송진우 선생전》, 173-178쪽. 이 책은 《고하 송진우 선생전》으로 표기된다. 173-177쪽; 최시중(편저), 《인촌 김성수: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동아일보사, 1985), 173-177쪽. 이 책은 앞으로 《인촌 김성수》로 표기된다. 崔竣, 《한국신문사》(일조각, 1960), 235-237쪽; 김을한, 《한국신문 史話 : 내가 만난 선구자들》(탐구당, 1975), 75-79쪽; 김을한 《人生雜記》(일조각, 1956), 248-249쪽; 최민지·김민주, 앞의 책, 133-137쪽; 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 : 민족주의적 법률가 정치가의 생애》(민음사, 1988), 123-124쪽

20) 《인촌 김성수》, 173-177쪽

4 사장직 사퇴

이 사건을 놓고 여론은 들끓었다. 한편으로는 각파유지연맹의 폭행을 규탄하는 이른바 언론압박탄핵을 위한 민중대회가 준비되었다. 좌-우의 민족지도자들이 함께 주도한 이 대회는 총독부의 방해로 성사되지 않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아일보사 직원들이 들고 일어났다. <민족적 경륜>에 식도원사건이 겹치자 특히 편집국 기자들은 고하를 비롯한 이사진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으며, 그것이 관철되지 않자 이상협 편집국장이 많은 동조 직원들을 이끌고 퇴사한 것이다. 일이 여기에 이르자 고하와 인촌을 비롯한 대부분의 이사들이 4월 25일 사퇴하고 말았다. 고하로서는 <동아일보>의 기초를 다지는 데 심혈을 기울이기 2년 6개월만의 퇴진이었다. 이에 따라 감사역 허헌이 사장직무대리를 맡았다.

<동아일보>는 5월 14일 남강 이승훈을 사장으로 선출했다. 남강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 4~5장에서 자세히 살폈듯이 의문의 여지가 없는 항일 애국투사로, 바로 고하와의 연결을 통해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었던 민족진영의 큰 선배였다. 그리하여 남강이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하기 석달 전인 2월 18일에 회갑을 맞이했을 때, 춘곡 교회등을 비롯한 당대 명가들의 서화로 꾸며진 서화첩을 선물로 보내면서 고하는 “거짓을 모르고, 게으름을 모르고, 몸과 집을 모르고, 오직 나라와 의를 위하여 생각하고, 다니고, 말하고, 일하고 옥에 들어가기에 늙으신 남강선생은 우리 민족의 은인이요, 모범이시다. 이 어른을 기념하기야 우리 동포의 가슴의 새김에 있거니와, 이번 육십일수를 축하함을 기회로 하여, 사모하고, 오래 살아 일하소서 하는 참뜻을 표하고저 이것을 받들어 드린다”는 기념사를 써 넣기도 했다.²¹⁾ 주필 겸 편집국장에는 홍명희가 임명되었다. 제1~2장에서 이미 살폈듯이, 고하와 인촌이 도쿄로 유학가기 직전에 군산과 줄포에서의 만남을 시발로 우정을 맺고 그리하여 고하와 인촌이 도쿄에 첫 발을 딛자마자 찾아갔던 곳이 그의 하숙이었던 정도로 일찍부터 친교를 유지해 온 사이였다. 논설반에는 위당 정인보와 그리고 뒷날 조선의 공산주의운동에 뛰어드는 趙東祐(조동호)가 참여하고 있었고 발행인 겸 편집인이던 한기약은 경제부장이 되었다. 그밖에도 진용을 보장하여, 어려운 위기를 넘기면서 새로운 발전을 기약하는 듯하였다. 그러나 10월 초에 이상협계 잔류사원들이 한꺼번에 이탈하는 일이 일어나, 10월 21일 인촌을 사장으로 선출하고 고하와 남강을 고문으로 추대했다.²²⁾

제2절 다시 <동아일보>를 일으키며

1 인촌-고하의 공동지도체제

“熱의 신문인, [...] 손에는 언제나 종이 한 장을 들고 종이를 치마주름 잡듯 접는 것이 고하 선생의 유일한 오락이다. 그의 인생은 종기와 떠날 수 없다. 종이에 먹칠하는 것이 그의 인생 사업인 까닭에 언제나 종이를 놓을 수 없다. 그는 부하 기자들에게 언제나 [...] ‘들고 쓰라’고 말한다. 들고 쓰라는 뜻은 언제나 붓과 종이를 땅에 놓지 말고 그 좋은 생각들을 글로 써서 발표하라는 말씀이다. 그는 도쿄 유학생 시절부터 학문보다 신문 읽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겨서 매양 신문을 읽고 연구를 하였다. 그의 머리속에 자라던 병아리신문은 마침내 <동아일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21) 《고하 송진우 선생전》, 180-181쪽

22) 《동아일보 社史》 권 I, 232-244쪽

-이 글은 고하가 암살된 뒤 《신천지》에 실렸던 조사의 한 부분이다.²³⁾ 신문인으로서, <동아일보>인으로서 고하의 삶을 이렇게 적절히 표현한 글도 드물다고 하겠다.

이처럼 타고난 신문인이, 그것도 서른네살의 한창 나이에 신문사를 떠나 있기란 무척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곧 고문으로 복귀하면서 다시 정력적으로 일해 나갔다. 해가 바뀌어, 1925년 1월에 조선인 신문-잡지의 기자들로서 조직된 無名會는 조선 최초의 기자대회를 열기로 결정하고 3월 8일에는 全朝鮮記者大會準備委員會를 발족시켰는데, 고하는 33인 준비위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되었다. 朝鮮記者大會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성대히 열렸다. 당시 조선일보사 사장 이상재가 의장으로 뽑힌 이 대회에서 고하는 곧 朝鮮共産黨의 창당당원이 되는 竹山 曹奉岩 등과 더불어 의안작성위원으로 뽑혔다. 고하는 사회주의 계열의 기자들이 대거 참석해 熱을 과시하는 분위기를 못마땅하게 여긴 듯 개회 벽두에 “학생집회와도 같다”고 꾸짖는 투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²⁴⁾ 그런데 이 대회로 일제의 이목이 쏠림을 이용해 4월 17일 오늘날의 서울 을지로에 있었던 중국음식점 雅敍園에서는 국내 최초로 朝鮮共産黨이 극비리에 창당되었다.²⁵⁾ 그러나 조선공산당은 1928년까지면 일제의 검거로 사실상 와해되고 말며 그 지도층은 투옥되거나 망명하거나 지하 깊숙이로 잠복하게 된다.

이에 앞선 1925년 4월 2일 고하는 시대일보사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사임한 홍명희의 뒤를 이어 <동아일보> 주필이 되었다. 사장에 인촌, 주필에 고하가 앉아 동아일보사를 안정되게 이끌어 나가게 된 것이다. 인촌으로서는 만 서른네살 때이고 고하로서는 만 서른다섯 살 때인데, 성격이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좋은 짝을 이루어 <동아일보>를 운영해 나가는 모습은 춘원은 이렇게 묘사했다.

이 두 사람은 상투를 자르고 일본으로 달아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 우의와 신의가 변함이 없다. 김성수도 누구의 말을 들을 사람이 아니요, 송진우는 그보다 한층 더 我가센 사람이다. 그러므로 時로 충돌이 생기고 뇌성벽력이 일어날 듯한 대충돌이 생긴다고 한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우정과 신의는 일찍 흔들린 일이 없다. 이 점은 송진우의 장점이 된다.²⁶⁾

흔히 管鮑之交라고 불렀던 인촌과 고하의 공동지도체제 아래 동아일보사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오늘날의 동아일보사가 들어서 있는 서울 광화문에 1925년 9월 새 사옥을 착공하여 이듬해 12월 준공을 보았다. 1925년 4월에 일본 도쿄기계회사로부터 운전기를 도입해 5월 9일 부터 인쇄를 개시하니 이것이 우리나라 신문계 최초의 自動打蠟式 최신 운전기이다. 1925년 1월부터는 지방순회 취재를 시작했고, 우리나라 신문계 최초의 시험으로 각각 1천원의 상금을 걸고 소설과 논문 등의 현상모집을 시도했다. 소설은 《춘향전》 개작, 논문은 <경제파멸의 원인과 현상 및 그 대책>을 그 제목으로 하였다. 《춘향전》을 대상으로 삼은 데는 어쨌든 조선민족의 고전을 새롭게 깨우쳐 주려는 고하의 뜻이 엿혀 있었다. 논문에는 裴秀星 곧 裴成龍이 입선했으나 소설에는 입선작이 없어 춘원으로 하여금 《춘향》이라는 제목 아래 그해 9월 말부터 96회를 연재하게 했다. 조선민족의 얼을 잃지 않도록

23) 林炳哲, <인물소묘 송진우>, 《신천지》 1946년 2월호, 27쪽

24)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전5권 (청계연구소, 1986), 제2권 267쪽

25) 위와 같음, 291쪽

26) 이광수, <김성수론>, 《이광수전집》 (삼중당, 1971), 제8권, 512쪽

록 도와야 한다는 뜻에서 고하는 한글날 제정을 제의하기도 했다. 《新民》 1926년 1월호에 쓴 매우 짧은 글 <최선의 노력과 방법을 강구하자>에서 그는 “우리의 자랑거리고 첫 손가락을 꼽을 것은 우리의 글이다. 배우기 쉽고 쓰기 쉬운, 우리 조상이 창작한 훈민정음이야말로 문자로서의 모든 조건을 구비한 완전한 문자이다”라고 전제한 다음,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날을 영원히 기념하기에 우리는 아울러 최선의 방법과 노력을 다하여야 하겠다”고 호소했다. 또 동아일보사 社歌를 공모했다. 그러나 응모작품 가운데 당선작이 없어 춘원으로 하여금 작사하게 하고 金永煥으로 하여금 작곡하게 하여 1926년 1월 16일자로 제정을 끝냈다.²⁷⁾

2 태평양회의에 참가하다

이 무렵인 1925년 7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국기독교청년회 주최로 약 2주간에 걸쳐 제1회 汎태평양기독교청년대회가 열리게 되었다. 태평양 연안에 흩어져 있는 각 민족의 대표들이 모여 정치-경제-사회-교육 등 여러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다는 취지에서였다.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중국, 일본, 미국 등등에 조선도 초청되었는데, 조선의 경우 미국으로부터는 徐載弼과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는 金活蘭이, 그리고 국내로부터는 고하를 비롯해 申興雨와 俞憶兼과 金良洙 등등이 초청되었다.²⁸⁾

고하는 <동아일보> 특과원 자격을 겸하여 국내 대표들과 함께 장도에 올랐다. 이 회의는 반일적 성격을 지니기 어려운, 반공적-우파적 성격이 강한 회의였고, 또 조선대표단의 단원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대일타협론자들이었다. 그런데도 총독부의 시비로 여권이 예정보다 늦게 발급되어 부산을 출발 6월 15일에야 일본 요코하마(橫濱)에서 미국 여객선 프레지던트 윌슨號로 떠날 수 있었다. 배 안에서 고하는 다른 대표들과 함께 사회의를 갖고 태평양회의에서 (1) 약소민족 문제의 합리적 해결 (2) 경제적 제국주의의 타파 (3) 각 민족의 국수적 교육주의의 타파 위에 기초한 인류 평등의 대원칙의 설정 등등을 의제로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고하는 항해 도중에 배 위에 서서 망망한 태평양의 거센 물결을 바라보면서 다음과 같은 한시 한 수를 얻었다.

南北東西不見洲 (사방을 둘러보아도 물가는 안보이는데)
連天水色閑行舟 (하늘과 맞닿은 물빛 속에 뱃길만 한가롭구나)
安將眼下太平洋 (언제나 눈아래 태평양 물로)
滌盡人間萬古愁 (만고에 쌓이고 쌓인 인간의 수심을 깨끗이 씻어 볼까)

고하와 일행은 6월 24일 호놀룰루에 상륙했다. 하와이에 거류하고 있던 이승만을 비롯하여 몇 갈래의 교민들로부터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고하의 기존 전기는 “고하와 우남과의 해후는 고하가 도쿄 유학시절 이래 15년만의 일이었다”고만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 어디서 처음 만났던 것일까? 이승만이 미국 프린스턴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 학위를 받고 귀국한 해가 1910년이었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간 해가 1911년이었음에 비추어, 아마 1911년 미국으로 돌아가던 길에 도쿄에 들렀을 때가 아닌가 짐작해 본다. 어쨌든 이승만은 인촌의 안부도 물으면서 “두 분이 국내에서 얼마나 고초를 겪고 있소. 모든 고초를 당하는

27) 《고하 송진우 선생전》, 183-184쪽

28) 《동아일보 社史》 권I, 251쪽 및 全澤晷 《인간 申興雨》(기독교서회, 1971), 171쪽의 각주 45.

것을 들을 때마다 여러 동지들과 같이 당하지 못함을 항상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소”라는 말로 고하와 인촌을 위로했다. 이때 만 50세였던 이승만은 고하에게 하와이에 남아 독립운동의 전선에서 함께 일하자고 간곡히 권했다. 그러나 고하는 국내문제를 저버릴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면서 “국의 문제는 박사께서 맡으셔서 잘 해 주시고, 국내 문제는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다.²⁹⁾ 열다섯살 차이의 이 두 사람은 이 때로부터 꼭 20년이 지난 1945년에 해방된 조국에서 다시 만나 함께 손잡고 일하게 된다.

고하는 조선의 위대한 선각자 서재필도 만났다. 만 59세의 이 애국자로부터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아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음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어떻든 서재필은 스물네살 아래의 후배인, 특히 언론계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고하로부터 좋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다. 우리가 곧 보게 되듯이, 호놀룰루 회의로부터 1년 뒤 <동아일보>가 일제에 의해 무기정간처분되고 고하가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서재필은 고하를 격려하는 영문 편지를 보내 준 것이다. 서재필은 이번 일이 “민족 전체에 대하여는 도리어 다행한 일”이라고 격려하고 “오직 이런 역경의 교훈을 받아야만 조선민족은 자유와 정의의 가치를 해득하고 인류의 이상사회를 출현시키기에 노력할 것이다”라고 가르치기를 잊지 않았다.³⁰⁾

회의의 개막을 앞두고 고하는 다른 대표들과 함께 조선대표단이 제출할 최종안건에 합의했다. (1) 조선에 대한 민족 평등의 원칙 (2) 교육문제 (3) 경제문제 (4) 조선과 만주에 대한 인종적 감정의 제거방법 등이었다. 그리고 대표단의 기초연설을 함께 다듬었다. 회의는 7월 15일까지 열렸다. 일찍이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를 졸업하고 배재학당 堂長을 역임한 조선대표단의 단장 신흥우는 탁월한 영어로 조선에 대한 일본의 식민통치를 여러 측면에서 자세히 폭로하면서 조선민족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다.³¹⁾ 마침 이 회의는 汎태평양기독교청년대회라는 이름을 버리고 태평양문제연구회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현장을 제정하게 되었다. 일본대표단은 이 기회를 빌어 적어도 자치권은 있는 민족에 한해서 회원권을 준다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조선의 회원권을 원천적으로 뺏고자 했다. 이에 조선대표단은 회의를 거부하면서 강력히 항의했다. 다행히 그것이 다른 나라 대표들의 호응을 얻어 일본쪽 책동은 무산되었다.³²⁾

그 사이에 고하는 기자로도 크게 활약했다. 그는 각국 대표들을 부지런히 회견해 송고한 것이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 윌로비 교수의 ‘내부적 단결을 하라’,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레스노에서 발행되는 <프레스노 리퍼블리컨>지 노웰 사장의 ‘3·1운동의 대중의 유형은 위대한 흔적이다’, 오스트레일리아 멜보른대학교 로버트 교수의 ‘문제의 해결은 민족자체에 있다’, 미국의 저명한 신문기자 윌리엄 화이트의 ‘조선의 전도에는 찬란한 광명이 있다. 낙심은 금물이다’, 하버드대학교 윌슨 교수의 ‘고통의 폭발은 각성의 표정이다’, 필리핀의 변호사 베니테스의 ‘찬란한 옛 문화와 끈기 있는 국민성으로 민족적 향상을 기원했다’ 등등이 그것들이다.³³⁾ 이러한 글들을 읽음으로써 동포들이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을 다시 확인하도록 고하는 바랐던 것이다.

3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29) 《고하 송진우 선생전》, 186-187쪽

30) 서재필, <좁다 잘 살 길은>, 동아일보사 신동아(편), 《일정하 동아일보 압수 사설집》(동아일보사, 1974년 1월 신동아 별책부록), 285쪽

31) 《고하 송진우 선생전》, 188-189쪽 및 전택부, 《인간 신흥우》, 172-173쪽

32) 전택부, 위와 같음, 174-175쪽

33) 《고하 송진우 선생전》, 189쪽

8월 하순에 그는 많은 것을 배우고 귀국했다. 그는 회의참석을 통해 얻은 새로운 정보와 자료에 자신이 평소부터 지녔던 역사관과 통찰력을 가미해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10회에 걸쳐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라는 논설을 발표했다.³⁴⁾ 2백자 원고지 1백매 정도의 분량으로, 당시 고하가 지녔던 국내외의 정세관과 일제에 대한 자세가 잘 나타나 있으며, 조선민족의 나아갈 길에 대한 그의 구상이 함축되어 있기에 여기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예언자적 先見’을³⁵⁾ 보여 준 것으로 평가되는 이 논설은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그러므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같이 도저히 조선을 떠나서는 또한 조선을 잊어버리고서는 일각일초라도 설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 이리하여 자거나 깨거나 듣거나 보거나 잊으려 하여도 잊을 수 없는 것이 現下 우리 동포의 심리적 상태인가 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로써 그는 우선 자신의 모든 분석과 주장이 조선인의 입장에서 조선을 위하는 길을 찾고자 하는 뜻으로부터 출발한 것임을 밝혔다. 또 동포들에게 각자가 조선인이라는 인식을 언제나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새삼 깨우쳤다.

이어 고하는 조선의 역사를 일별했다. ‘단군大皇祖의 登極肇判하신 이래로’ 경술국치에 이르기까지의 민족사를 그 부침과 기복을 중심삼아 서술하면서 조선민족이 이민족의 지배에 대해서는 언제나 절대적으로 거절해 왔음을 강조하여 은연중에 조선민족이 일제의 지배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그의 이러한 입장은 3·1운동의 민족사적 의미에 대한 거듭된 강조에서 다시 확인된다. 그는 우선 “적어도 1919년의 3·1운동은 조선민족에 대하여 4천년 이래 윤회 반복하여 오던 동양적 생활양식을 정신상으로는나 문화상으로는나 정치상으로는나, 근본적으로 민중적으로 파괴 건설하려 하는 내재적 생명의 폭발이었다”고 지적함과 아울러 “조선역사에 있어서 처음 보는 운동”이라고 단정해 3·1운동이 민족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전국적으로도 민중적 刀劍裡 鐵鎗間에서도 의연히 立하여 태연히 動하던 것은 어찌 조선민족의 혁신운동사상에 일대 기적이 아니며 일대 偉觀이 아니라”고 부연했다. 그는 이어 3·1운동의 직접적 원인을 일제의 무단통치와 동화주의에 대한 조선민족의 반발에서도 찾을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조선민족의 내재적 생명이 세계적 신문화에 접촉되어 폭발된 일대 각성의 소리”라고 주장함으로써 조선민족의 각성된 독립정신 그 자체에서 찾았다. 이러한 분석은 “조선의 장래를 논구하는 데 있어서는 외부적으로 중요한 영향 파동의 관계를 가진 세계적 대세도 요긴한 재료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차대한 관계를 포함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조선민족 자체의 과거 역사상 興替盛衰의 인과관계이다”이라는 그의 서론부분에서의 역사관과 일치한다. 그는 민족문제에 일차적으로 민족내부의 요인 분석으로써 접근해 갔던 것이다.

그러면 3·1운동을 촉발시킨 민족내부의 저력은 어떻게 축적되었나? 고하는 교육의 보급과 경제력 신장을 통해 의식이 각성되었다는 점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그러므로 앞으로 교육을 더욱 보급시켜 나가고 산업을 더욱 일으켜 나가면 조선사회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믿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는 “민중의 지식 정도가 더욱 진보될수록 더욱 보급될수록 사회조직의 변화가 더욱 頻數하여 갈 것은 진화의 법칙인 까닭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앞 章들에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그는 사회진화론적 입장 위에 서있는 실력배양론과 자강운동론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그가 조선의 장래

34) 이 논설 전문은 위와 같음, 190-212쪽에 있다. 동아일보사 신동아 편집실(편), 《근대한국명논설집》(동아일보사, 1979), 126-133쪽에도 있다.

35) 孫世一, <송진우 생애와 사상>, 손세일, 《인권과 민족주의》(홍성사, 1980), 64쪽

를 “사상적 수련과 민족적 단결”이라는 준비론에서 풀어나가려는 결론을 제시한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여기서 우리는 그가 이 논설을 발표하기에 1년 남짓 앞서 《개벽》에 발표했던 논설을 상기하는 것이 좋겠다. <무엇보다도 ‘힘’>이라는 이 논설에서 그는 “왜 오늘날 우리가 약자가 되었는가 하면 [...] 다못 힘이 없으니까 약자가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전제한 다음 힘이란 결국 ‘민족적 단결력’이라고 강조하고 ‘민족적 단결력’을 배양해 나아가자고 호소했었다. 이렇게 볼 때 고하가 이 시점에서 민족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려 했던가는 명백해지는 것이다.³⁶⁾

그렇다고 하여 그가 국제정치의 영향을 외면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는 “조선반도가 세계 구성의 일부분이며, 또한 조선민족이 인류 전체의 일부분인 이상에는 세계대세의 추이가 직접 간접으로 조선사회에 과급이 될 것은 물론이며, 따라서 조선사회의 변동도 세계대세의 추이에 막대한 영향이 될 것”이라 하여 양자 사이의 상호 관련을 지적했다. 이러한 전제 아래 그는 “조선문제는 동양의 난관이며 세계의 논점인 것은 물론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국제정세는 어떻게 전개되고 있고 조선문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는 우선 제국주의와 군국주의는 분명히 패퇴의 길에 들어섰다고 보았다. 이 점에 있어서는 일본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그리하여 일본이 1차 대전의 전승국이 됨으로써 ‘영광과得意’를 누리고 있으나 “興盡悲來하고 樂極生哀는 人生的 常事”이듯이 일본의 대외정책은 위기에 직면해 있고 내정 역시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그는 “이로부터 3~4년을 不過하여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일대변혁이 생길 것”임을 예언했다.

이어 고하는 “세계대세의 조류는 확실히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대서양에서 태평양 방면으로 이동하여 오는 것이 과거의 史乘에 照하여 昭昭歷歷한 사실이다”라고 전제하고, “만일 19세기를 불란서문화의 확충시기라 하면, 20세기는 赤露思想의 발전시대라는 것이 정당한 견해일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범인 미국과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赤露가 태평양을 격하여 兩兩相對하여 발흥되는 것은 과연 불원한 장래에 그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 협조할까, 충돌할까. 이 곧 태평양상의 일말의 疑雲이 되어 있는 것은 不誣할 사실이다”라고 관찰한 다음, “세계 대세의 운명이 이에서 결정될 것이며 또한 인류의 文化上 總결산이 이에서 勘定될 것은 상상키 不難할 바가 아닌가”라고 매듭지었다. 이 부분에 대해 孫世一은 “1920년대의 국제정치 안정기에 이미 2차대전 이후의 정황을 전망한 것”으로 높이 평가했다.³⁷⁾

고하는 이어 미국과 일본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다보았다. 즉 중국문제를 둘러싸고 열강의 이해가 날카롭게 대결해 가는 가운데 앞으로 4~5년을 지나지 않아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 풍운이 야기될 것’임을 단언하고, 이러한 미-일의 충돌은 미-소의 충돌에 앞서서 일어날 것으로 예견했다. 상당히 통찰력 있는 분석을 제시한 셈으로, “세계 대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역사의 진운에 대한 예리한 선견은 단연 他의 추종을 불허하였다.”라는,³⁸⁾ 뒷날 <동아일보>의 사장이 되는 고재욱의 평가가 과연 헛된 말이 아니었음을 느끼게 된다.

그러면 미국과 일본이 충돌할 때 일본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일본과 조선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는 일본이 아시아의 압박자 또는 위협자가 되어 왔기에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질 것임을 경고하고 지금부터라도 정책을 바꿀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특히 조선문제에 관해서 “가장 민족적 관계가 밀접하고 문화적 은택이 막심한 조선민족을 유린 압박하는 것이

36) 송진우, <무엇보다도 ‘힘’> 《개벽》 제5권 제4호 총46호(1924년 4월), 92쪽

37) 손세일, 앞의 책, 64쪽

38) 《고하 송진우 선생선》에 있는 고재욱의 序.

[...] 반만년 역사적 배경과 2천만 민중의 총명을 가진 조선민족으로서는 徹骨의 한이 될 것은 물론”이라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이조학정하에서 지내던 조선민족이 총독정치와 생명 재산의 안전보장으로 인하여 만족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본인은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반성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이어 그는 “조선문제를 그대로 두고는 중-일 친선도 공념불이며 동양평화도 구두선에 불과할 것을 단언하는 바이다. 적어도 2천만 민중의 예리한 心刃이 일본의 弱處急所를 隨하여 기회대로 現露될 것은 현하의 情態가 아닌가”라고 써서, 조선에 대한 일제의 억압정치가 바뀌지 않는다면 조선민족의 저항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경고했다.

결론적으로 그는 조선의 독립을 국제정치의 맥락에서 얻고자 해서는 안된다는 뜻을 명백히 밝혔다. ‘자유는 어디까지든지 자주적 행동이며 자력적 해결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그는 그러므로 ‘결단코 타력적 원조와 사대적 사상의 지배와 용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차대전이 끝난 뒤 한반도의 상황이 국제정치의 흐름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강대국에 의지하려던 일부 사대주의적 정치지도자들의 행태에 의해 적지 않게 왜곡되었음을 개탄하게 될 때, 고하의 이러한 결론은 지도자적 통찰력의 소산으로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고하의 기존 전기는 이 논설에 대단히 높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즉 ‘이 논설은 장차에 있을 국제정국의 전변을 예언한 글’이라는 것이다.³⁹⁾ 또 이 논설의 밑바탕에는 ‘일본 제국주의 타도’라는 신념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종합해서 말해, 확실히 이 논설은 고하가 국내외의 상황의 큰 흐름들을 정확히 포착하고 있었으며 조선독립의 문제에 반일적 입장에 서서 자강운동을 통해 접근하고 있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강력한 항일투쟁을 강조하지 않고 있음도 사실이며, 그 점이 이 논설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강력한 항일투쟁 대신에 자강운동을 강조하는 고하에게 매우 중요했던 과제는,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민족적 단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의 기존 전기는 다음과 같이 썼다.

고하는 범태평양회의에서 돌아와서 특히 구한국 말엽 이래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까지도 각각 자기 출신지반을 중심으로 파벌을 조직하여 기호파, 관서파, 관북파, 영남파 등 여러 갈래로 갈라져 이것을 중심으로 서로 대립하고 헐뜯고 다투고 있는 실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대립이 계속되면 될수록 민족의 역량은 소모되고 일본 당국의 바라는 함정에 빠지는 결과가 될 것을 근심하였다. 더욱이 3·1운동 이후 해외에 세워진 임시정부 내부의 대립, 미국에 망명하고 있는 지사들 사이의 대립상태를 듣고 보고 있는 고하는 국내의 동지들에게 국내에서만이라도 이러한 지방색을 말살하기에 힘쓸 것을 역설하였다. 각 기관에서는 같은 인재이면 타지방 출신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도 강력히 권하였고, 고하 스스로도 <동아일보> 사원의 채용방침의 하나로 삼았던 것이다.⁴⁰⁾

고하의 이러한 인화중시적 운영방침 위에서 <동아일보>는 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그 진전을 막을 족쇄를 언제나 넉넉히 준비하고 있었다.

4 다시 투옥되다

그 족쇄가 다시 고하에게 채워진 것은 1926년 3월이었다. 3·1운동의 제7주를 맞아 소련의 국제농민회본부는 3월 3일 조선농민에게 보내는 전보 메시지를 동아일보사로 보내왔다.

39) 위와 같음, 212쪽

40) 위와 같음, 213쪽

고하는 이것을 번역하게 하여 3월 5일자에 <국제농민본부로부터 조선농민에게 본사를 통하여 전하는 글월>이라는 제목 아래 전문 게재했다. “오늘 귀국민의 슬픈 기념일을 당하여 국제농민회본부는 세계 40개국의 조직된 농민단체를 대표하여 가장 깊은 동지로서의 동정을 농업국민인 조선동포에게 드리노라. 이 위대한 날의 기념은 영원히 조선의 농민에게, 그들의 역사적인 국민적 의무를 일깨워줄 것을 믿으며 자유를 위하여 죽은 이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을 지어다. 현재 在監한 여러 동지와 분투하는 여러 동지에게 형제적인 사랑의 문안을 드리노라”가 그것이다.

이 기사가 실리기까지 편집국 안에서는 논쟁이 있었다. 당시의 영업국장 梁源模의 회고에 따르면, “편집국 사람들은 이걸 신기를 꺼려했다” 왜냐하면 1925년에 조선총독부 경무국장이 바뀌면서 신문에 대한 박해가 한층 강화되어 거의 매일같이 기사삭제와 압수사태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송진우씨가 단독으로 우겼다” “송진우씨는 신문은 안중에 없었다. 목표가 독립운동이었기 때문이다”⁴¹⁾ 편집국 사람들이 걱정했듯이 역시 총독부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 신문지법 제21조에 저촉된다고 하여 3월 6일 제2차 무기정간 처분을 내리고, 주필인 고하와 발행인 겸 편집인 金鐵中과 기자 高永翰 등등을 소환 심문한 뒤, 4월 26일 고하는 보안법 위반혐의로, 김철중은 신문지법 위반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공교롭게도 고하가 불구속기소된 4월 26일에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인 純宗이, 또는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인 隆熙가 승하했다. 이 슬픈 소식이 전해지자 敦化門 앞으로 전국에서 흰 옷 입은 조객들이 몰려들었고 망국의 비애가 섞인 통곡소리가 산천을 울렸다. 인산 날은 6월 10일로 결정되었다. 여기서 고하는 일곱 해 전에 고종의 인산을 활용해 3·1운동을 일으켰듯이, 이번에는 순종의 인산을 활용해 다시 한 차례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고, 그 촉발의 계기를 만들어 보고자 했다. 그의 기존 전기의 표현으로는 “고하는 암담과 허전, 안타까움 속에서 기상천외의 계획을 안출했다” 그것은 고종이 1919년 1월 22일 승하할 때 그의 며느리 곧 순종의 비에게 “한-일합병 조인은 짐의 뜻이 아니라 강제인 것이요, 짐은 그 사실을 기록하여 파리강화회의에 제출하려고 준비 중에 왜정과 매국배들의 독을 마시고 죽어가니, 너는 이 사실을 기회를 보아 세계에 알려 양해를 구하고 국민에게 알려 각성을 재촉케 하라”는 내용으로 유칙한 것으로 꾸미고, 僞作된 유칙을 공표시켜 민심을 자극하게 한다는 구상이었다. 유칙의 위작은 위당 정인보에게 맡겼다. 그리고 윤비쪽과의 연락은 조선말기의 충신이었던 尹 아무개로 하여금 맡게 했다.

이 대담한 계획은 무엇보다 윤 아무개와의 교섭이 좌절되어 무산되고 말았다.⁴²⁾ 그래도 6월 10일 백성들로부터 곳곳에서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남으로써 3·1운동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음을 알릴 수 있었다. 또 6·10만세 사건의 학생주동자들 가운데 중앙학교 학생들이 많아서 고하로서는 유칙위작계획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감을 어느 정도 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 6·10만세운동은 3·1독립운동에 미치지 못했으며 그리하여 민족운동가 모두를 자극시키게 되는데, 이 문제는 제3절에서 보기로 한다.

고하는 불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동아일보사 주최로 ‘순종 인산 실황 謹寫 활동사진 전국 순회전’을 벌이게 했다. 망국의 비운을 온 겨레가 되새기게 함으로써 조국광복에의 열망이 꺼지지 않게 하려는 뜻에서였다. 6월 15일부터 22일까지의 순회전이 큰 호응을 보이자 고하는 그 대상지역을 방방곡곡으로 확대했다. 여기서 당황한 총독부는 ‘활동사진 검열규칙’이라는 가혹한 법규를 제정하여 8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

41) 《동아일보 社史》 권1, 256쪽

42) 《고하 송진우 선생전》, 215-217쪽

다.⁴³⁾ 그뿐 아니라 불구속기소된 고하에게 2심으로 하여금 11월 13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김철중에게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게 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한번 서대문형무소에 갇히게 되었다. 《新民》 1926년 12월호에는 <감옥으로 들어가면서>라는 제목 아래 기록된 그의 소감이 실려 있다. 이 글에서 그는 “囚人생활에 들어가려고 각오를 하고 나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 한동안 험악한 세파에 부대끼고 난 심신을 그윽히 위로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산만한 정신을 수습하여 수양하는 생활을 보내겠습니다”라고 답담히 말하며 태연자약한 자세를 보였다.

고하가 수감된 때로부터 한달 뒤인 12월 10일 동아일보사의 새 사옥이 낙성을 보았다. 고하는 기쁜 나머지 16일자로 인촌에게 감격의 옥중 서한을 보냈다. “동고하던 사내 여러 형제의 즐거워할 광경을 상상하니 그윽히 적막한 중에도 저는 기꺼운 웃음을 웃게 되나이다. 이것이 모두 형님께서 평소에 땀 흘리고 애쓰시던 보상임을 생각하옵고, 더욱 건강과 행복을 비옵나이다”라고 축원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많은 책들을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그전에 보낸 것은 다 받았사오니, 윤리학, 동서철학사, 서양역사, 서양문명사, 철학개론 등으로 대개는 우리집 책상에 있사오니 그중 페이지 수효가 많은 놈으로 보내 주시옵소서”라고 썼다.⁴⁴⁾ 옥중에서도 독서와 사색을 끊지 않는 고하의 성실한 인품의 편린을 보게 된다.

고하는 옥중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많았다. 그의 기존 전기의 표현으로는, “우국의 至衷에 접친 고독을 풀 길이 없었다.” 이러한 때에는 한시에 손을 대어 마음을 달랬는데, 옥중 시 가운데는 “獄中夜夜不成眠(옥중에 갇힌 몸이 밤마다 잠 못 이루나니) 憂國傷心幾積年(나라근심에 상한 마음 몇몇해나 쌓였던고)” 같은 것이 뒷 부분은 없어진 채 불완전하게 남아있다.

이때 밖에서 남강 이승훈이 한시를 지어 보냈다. “一可亭前月(일가정에 비친 달빛 : 일가정은 남강의 산정) 使人不得眠(사람을 잠 못 이루게 하는구나) 徘徊還獨坐(거닐다 다시 홀로 앉아) 無語仰青天(말없이 푸른 하늘만 바라본다)”가 그것이다. 남강은 이 시를 하와이의 이승만에게 보낸 서한에 삽입하여 국내의 돌아가는 형편을 알렸다. 이승만은 이것을 다시 즉자로 꾸며서 고하에게 보내어 고하를 위로했다. 고하는 그 해 겨울을 옥중에서 보내고, 1927년 2월 7일 日皇 히로히토(裕仁)의 즉위기념의 특사령에 의해 출옥했다.⁴⁵⁾

여기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대목은 고하가 앞에서 설명한 범태평양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한 뒤 자치운동을 다시 벌이려는 뜻에서 연정회를 부활시키려고 하지 않았느냐는 일부 역사학자들의 의문이다. 강동진은 당시 사이토 총독의 문서를 근거로 “고하가 하와이에서 이승만을 만나 자치운동에 대한 의견을 묻자 반대하지 않는다고 대답함에 용기를 얻어 이 사실을 총독부에 보고한 뒤 최린 및 최남선 등과 손잡고 1926년 9월 말에 이르러 자치운동을 위한 단체를 조직하기로 결심해 이른바 연정회의 부활을 시도했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연정회 부활계획이 “총독부 권력에 따른 식민지 지배정책의 하나로 추진된 면을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⁴⁶⁾ 강동진의 연구는 매우 학문적이며 치밀해서 결코 경시될 수 없다. 그러나 고하가 이 시기에 일제에 의해 기소되고 마침내 징역 6개월의 실형마저 선고받아 옥중생활을 보냈다는 사실은 강동진의 연구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다음의 사실은 강동진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총독부 경무국장이 1925년 11

43) 《동아일보 社史》 권1, 261- 262쪽

44) 《고하 송진우 선생전》, 219쪽

45) 《고하 송진우 선생전》, 220-221쪽

46) 강동진, 앞의 책, 421-422쪽

월 18일자로 총독에게 보낸 서한이 “송진우도 끌어들었으면 하는 생각중인데 아직은 구체적으로 진전이 없는 듯합니다”라고⁴⁷⁾ 밝히고 있음에도 유의함이 좋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고하에게 총독부의 접촉과 회유가 잦았고 이 과정에서 고하가 때로는 듣기에 싫지 않은 이야기들을 했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그가 거기에 결코 동조하지 않았음은 확실하지 않으나 짐작해 본다. 고하가 총독부와의 연결 아래 자치운동을 펴고자 했다면 그를 소련의 농촌기구로부터 온 전보를 보도했다는 사실만으로 실행선고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더더구나 바로 이 1920년대에 고하가 저 청산리 전쟁의 영웅으로 만주 독립군의 큰 지도자인 김좌진 장군에게 ‘막대한 군자금’을 은밀하게 보내주었다는 대한민국 광복회 회장 李康勳의 증언은 고하가 기본적으로 반일 독립운동노선에 서 있었음을 입증한다. <동아일보> 1990년 4월 1일자에서 당시 김좌진의 수하에 있었으며 그 뒤 일제의 감옥에서 12년 5개월을 보낸 이강훈은 고하가 독립군의 무기구입과 훈련 등에 보태 쓰도록 자신을 통해 1만원 가량씩 네 차례나 군자금을 보냈다고 증언한 것이다. 그때 1만원이라면 황소 1백마리를 사고도 남을 큰 돈이었다고 하니 지금으로 1억원을 넘는 돈을 네 차례 보내준 셈이 된다. 또 1920년대 중반에 미국 뉴욕에서 항일신문 <三一申報>를 발행하는 일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가 뒷날 4·19직후 과도정부의 수반을 지낸 友洋 許政의 증언에 따르면, 고하는 <삼일신보>를 창간하는 동포들이 국문활자를 얻지 못해 안타까워한다는 소식을 보내온 장덕수에게 우편 소포로 국문자모를 보내 주었다고 한다.⁴⁸⁾ 이 삽화 역시 고하가 기본적으로 반일독립운동 노선에 서 있었음을 입증한다.

제3절 신간회 後參과 시련

1 신간회의 탄생과 국내의 민족운동

고하가 출옥한 직후인 1927년 3월 30일 뜻밖의 부음을 듣게 되었다. 민족진영의 원로인 월남 이상재옹이 만 77세를 일기로 별세한 것이다. 이에 73개 사회단체의 명의 아래 9일장의 사회장을 엄수하게 되었다. 고하는 사회장 장의위원의 한 사람으로 뽑혔다. 그는 다음과 같은 輓詞로 슬픔을 나타냈다.

諷世詼諧倒曼倩
 哀時憔悴憶靈均
 歲寒殘柏堪凋落
 蒲柳臨風總忘神
 先生憂國不憂身
 頭白心丹老益眞
 今日翳然棄吾去
 鯨濤鰲浪自迷津

세상을 풍자하는 부질없는 말은 만칭 (韓武帝의 신하로 해학 잘하기로 유명한 東方朔의 字)을 압도하고

47) 위와 같음, 419-420쪽

48) 許政, 《내일을 위한 증언 : 허정 회고록》(샘터사 출판부, 1979), 90쪽

세상을 걱정하여 초채함은 영군(戰國시대에 나라를 근심한 나머지 汨羅水에 빠져 죽은 屈原의 字)을 생각해 한다.

추운 절기에 쇠잔한 잣나무도 참아 이울고 지니
연약한 깃버들이 바람에 치어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 없구나.
선생은 나라를 근심하되 몸은 돌보지 아니하셨고
머리는 회되 마음은 붉어 늙을수록 더욱 진정이 나왔네.
오늘날 홀연히 우리를 버리고 가시니
고래와 악어 같은 거센 풍랑에 갈피 못 찾네.⁴⁹⁾

월남은 별세하기 45일 전인 1927년 2월 15일에 출범한 新幹會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러면 신간회란 무엇인가? 새삼 물을 필요도 없이, 신간회는 6·10만세운동의 부산물로 태어난 국내의 민족통일전선이었다. 신간회의 창립과 성장과 해소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권위있는 연구들이 나와 있고 지은이도 줄져 《가인 김병로 평전》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다루었기에⁵⁰⁾ 여기서는 고하와의 관련 아래서 소략히 논의하기로 한다.

6·10만세운동이 기대했던 만큼의 큰 효과를 내지 못하자 민족운동가들은 그렇게 된 원인을 분석하게 되었다. 일제 경찰이 워낙 심하게 경계한 탓도 있고, 6·10만세운동의 배후세력의 하나인 조선공산당의 연관자들이 조선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을 강조하고 赤旗를 휘날린 것이 일반 백성들을 3·1운동 때처럼 열광시키지 못한 탓도 있으나, 중국적으로는 3·1운동 이후에 전개된 이념적 분파로 말미암아 민족통일전선 또는 민족의 唯一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자치운동 세력을 견제할 단체를 조직해야 할 필요성도 확실하게 제기되었다. 여기서 우익 가운데 비교적 진취적 경향에 있던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를 포함한 좌익과 손을 잡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신간회가 탄생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단체의 지도자들의 성분을 분석한 김준엽과 김창순에 따르면 “곧 주동세력은(당시 사회주의 세력이 강했던) 조선일보사의 간부와 조선공산당원이며, 거기에 종교계와 지방의 비타협주의 지도자들이 망라되어 있는 것”이었다.⁵¹⁾

우익진영에서 볼 때에는 타협적인 민족개량주의와 비타협주의의 대립에서 비타협주의가 민족운동의 주도세력으로 등장한 것이고, 좌익진영에서 볼 때에는 1926년 초부터 시도해 오던 좌우익의 단일적 협동세력으로 정리되어 간 것은 사실이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 민족운동은 전환기에 들어섰던 것이다”⁵²⁾

2 고하의 입회와 좌익의 공격

신간회 발족의 배경과 경위가 그러했기에, 신간회 운동가들은 우익 가운데 문화적 민족운동과 또는 타협적 민족개량과 또는 자치운동과를 제외시키게 되었다. 후자들은 후자들대로 신간회의 장래를 당분간 관망하자는 입장을 취했다. 여기서 고하는 신간회 초기에 신간회 밖에 있게 된다. 이 점과 관련하여 고하의 기존 전기는 다른 시각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49) 《고하 송진우 선생전》, 221-222쪽. 월남이상계선생동상건립위원회(편), 《월남 이상계 연구 : 연구논문-月南詩文-관계자료》(路출판, 1986), 457쪽

50) 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 제4장~제7장

51)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제3권, 36쪽

52) 위와 같음, 47쪽 및 53쪽

신간회 대표 및 주요간부의 구성은 주로 민족진영의 투사들이 많았고 실무책임자급을 공산주의나 소장파 논객들이 차지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상투적인 수법으로 신간회를 역이용했다. 그들은 신간회를 표면간판으로 내세우면서 소위 민족주의자 중의 좌파를 포섭하고 점차 우파를 배척하여 민족진영의 분열을 꾀했다. 그들은 <동아일보>와 고하를 우파라고 하여 신간회 운동에서 배제하려고 덤벼들었다. 그 반면 공산주의자는 기회 있을 때마다 동아일보사에 입사하여社内조직을 갖는 침투작전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고하는 그것을 알면서도 공산당원을 받아들였다. 그 이유는 그들의 사상을 민족주의에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데 있었다. [...] 이와 같이 고하의 포섭력에 공산주의자들은 총독부의 민족분열 정책에 편승하여 더욱 <동아일보>와 고하를 질시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고하의 민족운동 또는 <동아일보>의 사업을 질시의 한계를 넘어서 파괴하려는 일부 몰상식한 청년들도 적지 않았다.⁵³⁾

일제 치하에서의 조선민족의 유일당으로 신간회는 민중적 지지를 확대시키는 가운데 신속히 발전해 나아갔다. 일본 경찰의 1928년 5월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 솨는 날이 갈수록 각지에 지회 증설로 세력이 확대되어 갔다”⁵⁴⁾ 이 과정에서 고하는 1928년 1월 9일에 신간회 경성지회에 입회했다. 방금 인용한 일본 경찰의 보고서는 그동안 신간회 안에 자신의 발판을 꾸준히 마련해 온 고하가 정세가 유리해졌다는 판단 아래 “끝까지 신간회 입회를 결심했던 것 같다”고 관찰했다.⁵⁵⁾ 고하 및 인촌과 매우 가까웠고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이었던 김준연 역시 비슷하게 회고했다. 즉 “[고하로 대표되는 세력]은 상승하는 전환기의 조류인 민족단일사상을 혼자서 막아내기에는 너무도 벽찬 형편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신간회 조직 안에 들어가서 그 회의 방향을 자기들 뜻대로 이끌려고 했다. 곧 좌익에게 신간회의 헤게모니를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는 신간회 조직 안에 들어가서 그 회의 민족좌파세력과 절충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라고 관찰한 것이다.⁵⁶⁾

그 경위야 어떻든 신간회에 입회한 뒤에도 고하에게는 시련이 뒤따랐다. 앞에서 인용한 보고서는 “송진우가 신간회 경성지회에 입회한 사실이 판명되자 신간회 본부에서 안재홍 외 몇명의 간사가 급히 비밀회의를 열고 그 대책을 협의하였는데, 당장 송진우를 제명하자는 강경론이 나왔으나 지금 그와 같은 처분으로 나간다면 민족당 파괴의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고 또는 결렬의 원인을 만들게 될지도 모를 일이라고 하여 결국 유야무야리에 산회하였다”라고 지적했다.⁵⁷⁾ 고하가 겪은 시련은 그의 기존 전기에서도 읽을 수 있다. 그 대목은 다음과 같다.

이리하여 고하는 때로는 공산주의 청년들의 돌팔매질도 받아야 했다. 그 한 예로 동아일보사 함북 지국장회의를 주재하려다가 봉변을 당한 사건을 들 수 있다. 고하가 회의장에 들어가려는데 때마침 입구에 몽둥이를 들고 지켜선 공산청년들이 있었다. 그들은 무조건하고 몽둥이로 고하를 내려 때고 짓밟고 머리를 난타했다. 고하는 머리에서 흘러내리는 피로 옷깃을 적셨다. 피가 온 몸에 흘러 얼굴조차 잘 알아보지 못하게 됨을 보고서야 물

53) 《고하 송진우 선생전》, 224-226쪽

54) 김준엽·김창순, 앞의 책, 제3권, 54쪽에서 다시 옮김.

55) 위와 같음, 55쪽

56) 위와 같음, 56쪽에서 다시 옮김.

57) 위와 같음, 55쪽

러섰다. 고하는 아무런 반응도 괴로운 기색도 보이지 않았다. 고하는 몇몇 젊은이들의 힘을 빌어 얼굴에 얼룩져 내리는 피를 닦고 회의장에 들어가서 단상에 올라서 끝내 회의를 진행하여 마쳤다.⁵⁸⁾

이상에서 우리는 신간회 내부의 좌-우익 갈등을 엿보게 된 셈인데 이것은 끝내 완화되지 않게 된다. 여기에 일제의 탄압과 그리고 우익과 더 이상 제휴하지 말라는 좌익에 대한 코민테른의 지시가 겹쳐지자 1931년에 마침내 불행히도 신간회의 해소로 이어진다. 이 과정에서 고하는 신간회에 대한 일제의 탄압에 대해서는 통렬히 비난하면서 신간회의 개조설을 제시하거나 신간회의 해소를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다.⁵⁹⁾ 종합하건대, 신간회 운동이라는 시각에서 볼 때 고하의 문화적 민족주의 또는 자강운동론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었다고 하겠다. 아마도 이 시기가 고하의 생애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제4절 동아일보사 사장에 다시 취임하다

1 해외교포들을 위하여

1927년 2월 출감한 뒤 <동아일보>의 성장을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던 고하는 8개월 뒤인 1927년 10월 22일 임기 만료로 물러난 인촌의 뒤를 이어 다시 한번 <동아일보>의 사장으로 선출되었다. 1921~24년 사이에 제3대 사장을 역임한 뒤를 이어 제6대 사장이 된 것이다. 그는 즉시 김준연을 편집국장으로 임명하고, (그러나 그는 1928년 5월 제3차 조선공산당 사건 이른바 엠엘 [ML] 당 사건에 연루되어 징역을 살게 된다) 이어 9월에는 도쿄와 오오사카에 지국을 신설하고 12월에는 평양지국을 본사 직영으로 승격시켰으며 이듬해 8월에는 원산지국 역시 본사 직영으로 승격시켰다.⁶⁰⁾

고하는 이 무렵 벌써 1백만이라 일컫는 만주 일원의 우리 동포들의 생명과 권익을 옹호할 필요를 느꼈다. 그리하여 1927년 12월 12일부터 30일까지 호남 출신으로 미국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돌아온 金佑枰(김우평)을 이 지역의 순회특파원으로 보내 그 실태와 현황을, 특히 일본군의 행패를 조사하게 하여 그 시비를 가리고 비위를 보도하게 했다. 이와 동시에 조국의 광복을 위해 싸운 애국자들과 그들의 가족을 돕는 일에 앞장섰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는 “친일 신문이던 <시사신문>의 사장 閔元植을 일본 도쿄 철도호텔에서 암살한 민족주의자 梁權煥의 딸의 교육을 도맡기도 했고, 중국 상해에서 잠입하여 수일간에 걸쳐 일경과의 총격전으로 총독부 당국의 간담을 서늘게 하고 자결한 金相玉의 아들을 <동아일보>에 입사시켜 그 집안 살림을 돌보기도 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 백범 김구의 어머니(郭樂園)를 아들의 망명지로 건너가게 뒷받침하기도 했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조소앙의 백씨에게 사식을 넣는 등, 이러한 눈에 띄지 않는 일들을 도맡아서 은연중에 민족의 사기를 높였다”⁶¹⁾ 그러는 가운데 1928년 음력 10월 4일 양력 11월 15일 친상을 입었다.

58) 《고하 송진우 선생전》, 226쪽

59) 鄭大澈, <신간회와 민간지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조선, 동아, 中外日報를 중심으로>, 《언론학보》(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원), 제2권 (1981), 176-178쪽

60) 《동아일보 社史》 권1, 286-288쪽. 또 양근환, <조선혼은 죽지 않는다>, 《월간 대화》(1976년 12월), 252-275쪽

61) 《고하 송진우 선생전》, 230쪽

2 타고르의 시를 얻다

해가 바뀌어 1929년이 되었다. 3·1운동 10주년이 되는 만큼 무엇인가 뜻 깊은 행사를 벌여야겠다는 일념 속에 지내던 고하에게 인도의 애국자요 독립투사요 1913년 노벨문학상까지 받은 詩聖 라빈드라나드 타고르(Rabindranath Tagore)가 일본에 기향한다는 외신이 전해졌다. 이때 만68세였던 타고르는 그 해 3월 캐나다를 방문하고 귀국하는 길에 일본을 방문해 도쿄에서 망명생활중인 인도의 독립운동가들을, 특히 그 대표격인 찬드라 보스를 격려하고자 한 것이다. 고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타고르를 초청할 계획을 세웠다. 그리하여 고하는 도쿄지국장 李泰魯를 시켜, 그때 도쿄의 조선기독교청년회 총무로 있으면서 보스와 왕래가 있던 최승만으로 하여금 타고르의 방한 의사를 타진하도록 했다. 최승만은 보스와 함께 타고르를 방문하고 고하의 의향을 전했다. 타고르는 진정으로 고마워 하면서도 여행 일정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면서 <동아일보>를 통해 조선민족에게 시 한 수를 보내라고 약속했다. 그가 떠나는 3월 28일 요코하마 부두에 머물고 있던 엠프리스 어브 에이시아 號에서 타고르는 최승만에 다음과 같은 다섯 줄의 시를 써 주었다.

In the golden age of Asia,
Korea was one of its lamp-bearers,
And that lamp is waiting
To be lighted once again
For the illumination
In the East

이것은 곧 <동아일보>로 우송되었고 그리하여 <동아일보>는 4월 3일자에 시인이며 편집국장인 朱耀翰의 번역으로 다음과 같이 게재하였다⁶²⁾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촉의 하나인 조선,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엔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위대한 항영 독립운동가 타고르는 3·1운동의 소식에 접하자 자기 나라의 독립문제와 관련하여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⁶³⁾ 마하트마 간디의 스승이기도 했던 그는 3·1운동에서 받았던 감명을 잊지 않고 일제 식민지의 굴레에서 허덕이는 조선백성을 격려하기 위해 오늘날 까지도 우리 겨레 사이에서 읊어지고 있는 명시를 주었던 것이다.

3 <네이션>지 사건과 무기정간

이 해 여름 일본 교도에서 제3차 태평양문제연구회 총회가 열리자 고하는 윤치호와 백관

62) 위와 같음, 232쪽

63) 신용하, 《한국민족 독립운동사 연구》(을유문화사, 1985), 38]-382쪽

수와 유억겸 등과 함께 참석했다. 또 신문협회 회의에 참가하여 평의원 4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출됐다. 이처럼 일본에서 동분서주하다가 가을에 귀국하면서 고하는 그 해 11월 3일에 광주에서 일어난 학생들의 항일독립운동을, 그리고 그것에 자극되어 전국으로 번져나간 조선민중의 항일운동을 목격하게 되었다. 민족혼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안타까워 하던 고하는 새로운 충격을 받으면서 이 운동을 널리 알리려고 노력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편집국장 朱耀翰이 광주학생운동을 뒷받침하는 민중대회에 참가했다가 검거되는 일까지 일어났다. 주요한은 김준연의 후임이었는데 뒷날 기소유예로 석방되며, 그의 후임으로 춘원이 다시 취임한다.

한편으로는 항일의 열기가 확산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의 만주침략의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조선에 대한 탄압의 수준이 높아가는 가운데 어두움의 시대인 1930년대의 첫 해가 열렸다. 이 해 4월 창간 10주년을 맞아 고하는 뜻 깊은 행사들을 보다 성대히 펼침으로써 민족의 방향 감각을 일깨우는 일에 일조하고자 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제5장에서 보았듯이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기 위해 북간도로 특파되었으나 행방불명으로만 처리되었던 추송장덕준의 뒤늦은 추도식이었고 다른 하나가 조선어문공로자를 비롯하여 농촌사업공로자와 농촌교육공로자의 표창이었다.

이러한 공개 기념사업이 진행되던 가운데 <동아일보>는 미국의 정평있는 주간지 <네이션>의 빌라즈 주필이 보내온 축하문을 4월 16일자에 실었다. “<네이션>週刊이 1865년 창간 이래로 주장해 온 것은 소수민족층의 자유, 각 인민의 생활양식의 자유, 어떠한 곳으로부터 발생함을 물론하고 군국주의에 대한 항의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므로 귀지가 대표하는 사업에 대하여 우리가 절대의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두말할 일이 아닌 듯합니다. [...] 조선의 現狀 밑에서 귀지의 사명이 중대한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 시작되는 이 축하문은 <동아일보>가 “모든 것을 희생하려는 결심” 아래 “一寸이라도 퇴각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초지를 관철한다”라는 정신으로써 일관해 나간다면 조선민족을 위해 가장 힘 있는 봉사가 될 것이라고 격려하고, “민족주의의 배경과 국제적 진정한 평화를 위하여, 전 세계에 민주주의를 수립하기 위하여 분투노력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조선의 現狀 밑에 貴報의 사명은 중대하다>라는 제목 아래 소개된 이 축하문은 크게 자극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인들의 목을 죄어 가기로 결정한 일제는 이 글이 안녕질서를 문란시켰다는 이유를 붙여 4월 17일 제3차 무기정간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 <조선의 노래> 제정

늦은 봄에 내려진 이 정간처분은 가을이 시작되면서 풀려 <동아일보>는 9월 2일자로 속간호를 내게 되었다. 고하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민중계몽운동을 더욱 활발히 전개했다. 그 하나로 그해 겨울 <조선의 노래>의 제정을 계획했다. 해마다 동아일보사에서 실시하는 신춘현상문예모집 가운데의 詩歌 부문에 이번에는 <조선의 노래>라는 제목을 내걸고 공모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선작을 얻지 못했다. 할 수 없이 選考者의 한 사람이었던 鷲山李殷相에게 위촉하여 공모된 여러 작품들 가운데 좋은 구절을 하나씩 떼어 새 가사를 만들게 하였다. 이것이 1931년 1월 27일자 <동아일보>에 ‘작사 匿名生’이라 하여 발표된 <조선의 노래>이다. 백두산 뻗어나려 반도 3천리, 무궁화 이 동산에 역사 반만년, 대대로 예사는 우리 2천만, 복되도다 그 이름 조선이로세”를 1절로 하는 도합 3절의 가사가 그것이다. 여기에 玄濟明이 곡을 붙였으니 이것이 일제시대는 물론 해방 이후에도 널리 불리었던 ‘제2의

애국가' <조선의 노래>였다.⁶⁴⁾

<조선의 노래>는 “보아라 이 강산에 밤이 새나니, 2천만 너도 나도 함께 나가세, 광명한 아침 날이 솟아오르면, 기쁨에 북받쳐 노래하리라”는 3절로 끝맺고 있다. 그것은 밤으로 비유된 일제의 침략이 끝나고 광명한 아침날로 비유된 조선의 해방이 닥쳐 올 것을 一刻이 如三秋로 기대하는 조선 백성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다. 그러나 그때로서는, 가사와는 달리 밤은 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깊어져 가는 듯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일제의 만주침략과 중국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에 대한 탄압은 거세어지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무단정치의 가면이던 문화정치마저 걷어치우게 되었다. 고하의 앞날에는, 그리고 고하의 문화적 민족주의에는 점점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64) 《고하 송진우 선생전》, 235-237쪽

제8장 조선민족 말살정책 시기의 고하의 활동과 은둔

제1절 일제 식민지배 제3기의 개관

1 일제의 군국주의적 침략전쟁의 대내외적 배경과 그 전개

확실히 1930년대와 그 이후 1945년까지는 조선민족에게 말할 수 없이 짙었던 암울의 시대이면서 모멸의 시대였다. 아니 암흑의 시대 그 자체였다. 일제의 침략이 만주로, 대륙 중국으로, 동남아시아로 확대되어 가고, 마침내는 미국으로까지 확대되어감에 따라 조선민족에 대해서 착취와 수탈과 탄압이 더더욱 가중되어 가던 시대였다. 그러면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상황이 조성되고 전개되어 갔는가?

제1차 세계대전을 마무리짓는 평화회의가 파리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윌슨 미국 대통령의 理想主義에 의해 폐막되고, 그 결과의 하나로 세계의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고 영원한 평화를 실현할 기구 국제연맹이 제네바에서 창설된 1920년 1월 이후, 인류는 베르사이유 체제가 비록 확실하게는 아니나마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1921년 11월에 워싱턴에서 시작된 9개국 회의가 다음 해에 군축과 중국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룩한 것-이른바 1922년의 워싱턴체제-, 그리고 1925년 10월에 스위스의 로카르노(Locarno)에서 7개국이 유럽의 안전보장에 관한 협정에 합의한 것-이른바 로카르노 협정-역시, 그 내재적인 약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고무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는 이 약속강식이라는 밀립의 법칙 대신에 국제협조주의가 차차 자리 잡아 가는 듯하였다.

새로운 국제적 환경이 일본의 대내외정책에 많은 영향을 주었음은 물론이다. 차기벽 교수가 지적했듯이, '이제 일본 외교의 기조는 다시 對美 협조와 부합되도록 재조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대내적으로는 여태까지 일본의 대륙팽창을 주도해 온 군부의 지위가 흔들리는가 하면 明治 이래 일본 정치를 주름잡아 온 藩閥 세력이 쇠퇴하고 그 대신 오랫동안 이들 세력과 대항하기도 하고 타협·연합하기도 해 온 정당세력이 독자적 힘을 가지게 된다'¹⁾ 여기서부터 이른바 大正 데모크라시의 시대가 열렸으며 민족주의적 사상이 팽배해졌고, 그리하여 비록 충분하지는 않았으나 이른바 정당 내각시대가 개막되었다.

그러나, 다시 차기벽의 분석에 따르면, 정당내각의 失政이 잇따르고 특히 세계공황이 일어나 그 여파가 일본에까지 밀어닥침으로써 일본의 자본주의는 큰 위기에 부딪치게 되었고 일본 국민들의 생활은 어려워지게 되었다. 특히 농촌의 궁핍이 심각하게 깊어졌다. 여기서 국민들의 불만이 각계각층으로 퍼지는 가운데 일본은 새로운 탈출구를 찾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동안 민간정치에 눌러 안으로만 불평불만을 쌓아 올려가던 군부는 그러한 기미를 기민하게 이용해 만주와 중국을 침략해 들어감으로써 자신들의 권력을 확충하고 동시에 일본 자본주의의 활로를 열고자 했다.²⁾

이러한 배경에서 육군의 중견장교들은 1930년 9월에 사쿠라가이(櫻會)라는 비밀단체를 조직하고, 쿠데타를 통한 군사정권의 수립과 그것에 기초한 대외침략을 감행하려는 모의를 진행시켜 나갔다. 여기에 극우 민간인들이 가세하여 1931년 3월 쿠데타를 일으켰으나 실패하고 말았다. 이것을 3월 사건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배후 군인들의 다수는 관동

1) 차기벽, <일본 제국주의 식민정책의 형성 배경과 그 전개 과정>, 차기벽 (편저),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1985), 34쪽

2) 위와 같음, 34-35쪽

군으로 옮겨졌으며 그리하여 그들은 만주 침략의 음모를 계속 꾸며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다음 제3절에서 다룰 萬寶山 사건이 일어나거니와, 이 사건에 이어 마침내 그해 9월 18일 관동군은 柳條溝사건을 일으켰다. 만주의 셴양(瀋陽) 북방 유조구에서, 일본군이 滿鐵線路를 폭파하고 그것을 중국군의 행위라고 날조하여 책임을 중국에 뒤집어씌우면서 전쟁을 일으킨 것이다. 이것이 일본 군부가 정부의 동의 없이 도발한 만주사변으로, 관동군은 몇 개월 안에 만주를 손 안에 넣고 1932년 3월 1일 괴뢰국인 滿洲國을 세웠다. 일제는 곧 淸朝의 ‘마지막 황제’였던 宣統帝 푸이(溥儀)를 만주국의 황제로 옹립한다.

만주사변의 도발로써 일본의 과시즘 세력은 군부지배체제에 박차를 가해, 우선 국내적으로 1932년에는 5·15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이미 죽어가던 정당내각시대를 종결지었다. 국제적으로는 계속해서 침략 확대의 길을 걸었다. 만주사변에 의해 군수생산을 지렛대로 하여 중화학공업을 크게 발전시켰으나 동시에 그 자재와 원료의 수입이 격증한 데다가 그 수입원을 마련하고자 경공업 제품을 싸게 팔려고 해도 열강의 관세장벽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함에 새로운 시장이 절실히 요청되었다. 만주사변의 도발은 크게 보아서는 베르사이유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고 아시아·태평양에 국한시켜 보아서는 중국의 주권과 영토를 존중하기로 한 워싱턴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다. 실제로 일제는 1933년 3월에는 국제연맹에서 탈퇴하고, 1934년 12월에는 워싱턴 군축조약의 폐기를 선언한다. 이처럼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서방강대국들에 도전한 일본으로서는 만주를 거점 삼아 화북으로, 그리고는 마침내 중국 전체로 침략의 발길을 멀리 잡아가지 않을 수 없었다.³⁾

그리하여 군부는 1936년 저 악명 높은 2·26사건을 일으켜 민간 원로 정치인들을 죽이고 군부 과시즘 체제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나치즘의 독일 및 과시즘의 이탈리아와 외교적으로 제휴해 이른바 추축국 체제의 형성을 추구하면서 1937년 7월 蘆溝橋사건을 일으켜 마침내 중국과의 전쟁을 도발했다. 이로써 일본과 중국은 1894년 청-일전쟁에 이어 두번째로 전쟁하게 된다. 그리고 1938년 7월에는 張鼓峰사건을 일으키고 1939년 5월에는 노먼한사건을 일으켜 두 차례에 걸쳐 소련과 국경에서 충돌한다.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 과시즘은 국내의 정치-경제체제를 군사화하면서 국가동원체제를 확립해 나갔다. 모든 반정부운동과 노동운동과 농민운동을 탄압하고, 특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계통의 사상을 철저히 탄압해 나갔으며 천황절대신앙이 강요되었다. 일본 국내에서도 어둠의 계절이 찾아 온 것이다.

이처럼 철저한 과시즘적 국가동원체제 아래서 중국과의 전쟁을 수행했으나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일본의 침략 앞에서 중국 국민들은 종전의 분열과 내전을 극복하여 항일민족통일전선을 이룩해 거국적으로 대항했기 때문에, 일본은 결국 중국이라는 커다란 숨에 쌓여 질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 위기 국면을 열고자 일본은 1941년 12월 무모하게도 미국을 기습 침략했고 이로써 태평양전쟁이 일어나 일본의 전선은 동남아시아와 남태평양군도로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⁴⁾ 이 전쟁은 추축국에 대항하는 미국-소련-영국-중국 등 연합국의 승리와 일제의 패망으로써 1945년 8월 15일 끝나고 만다.

2 조선민족에 대한 탄압의 가중과 조선민족 말살정책

1931년으로부터 1945년에 이르는 약 14년에 걸친 일본의 군국주의적-제국주의적 과시

3) 위와 같음, 35-39쪽

4) 위와 같음, 39-40쪽

즘 체제의 발흥과 전개과정은 식민지 조선에 대해 엄청나게 크고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를 흔히 일제의 조선 35년 支配史에서의 제3기로 규정짓는데, 이 시기를 (1)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전의 시기, (2) 중-일전쟁의 발발로부터 1941년 태평양전쟁 발발 이전의 시기, 그리고 (3) 태평양전쟁의 발발로부터 패전까지의 시기로 잘게 나누기도 한다. 이렇게 “제3기를 세분하는 시기를 두 전쟁에 두는 것은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정책이 한층 더 파쇼화해 갔던 일과, 저항하는 민족운동의 성격이나 모습도 크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⁵⁾

재미있는 것은 이 세 개의 시기에 엇비슷하게 상응하면서 총독이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만주사변을 도발하기 직전인 1931년 6월에는 사이토를 해임하고 총독대리를 지냈던 우가키 가즈시게 (宇垣一成) 육군대장을 제6대 총독으로 임명했고, 중-일전쟁을 도발하기 1년전인 1936년 8월에는 잔인하며 포악한 성격의 소유자로 악명 높은 미나미 지로오(南次郎)를 제7대 총독으로 임명했으며,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직후인 1942년 5월에는 조선군사령관을 지낸 고이소 구니아끼(小磯國昭)를 제8대 총독으로 임명했고, 패망 한 해를 앞두고는 고이소 총독이 총리대신으로 귀국함에 따라 육군대장 출신으로 총리대신을 역임한 아베 노부유키(阿部信行)를 제9대 총독으로 임명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아 이 시기는 한 마디로 ‘일제의 대륙침략병참기지화정책의 시기’이다. 이미 1918년 시베리아 출병 때 조선이 병참-전진기지로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던가를 확인했던 일제는 만주로, 중국으로 침략전쟁을 확대해 나가면서 조선을 철저히 자신의 한낱 병참-전진기지로 전락시켰던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일제는 조선에 대한 지배를 ‘안정화’시키는데, 즉 조선으로부터의 저항을 철저히 무력화하려는데 모든 힘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우선 정치적-심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른바 문화정치의 가면을 던져 버리고 야만적인 민족 말살정책을 강화해 나갔다. 그것은 조선인에게는 조선의 역사는 물론이요 조선어와 한글의 사용까지도 금하고 모든 문화행사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한편, 조선인에게 일본의 지배를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일본어를 상용하게 하는, 그리하여 조선민족 자체의 존재를 뿌리채 없애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한 마디로 ‘忠良한 신민’으로서의 식민지 노예로 만들고자 하였다.

중-일전쟁을 도발한 뒤에는, 즉 제3기의 제2기에 들어서는 創氏改名과 같은 전대미문의 야만적인 조치와 그리고 일보의 관제 미신인 神社參拜를 강요했다. 이어 태평양전쟁의 도발을 앞뒤해서는, 즉 제3기의 제3기를 앞뒤해서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조선인의 언론기관들과 문화단체들을 없앴다. 한 마디로 ‘일제는 갖은 강압조치와 그들의 식민지 교육정책을 통해 어리석게도 ‘皇民化’라는 슬로건 밑에 공공연히 한민족말살정책을 강행했다.⁶⁾ 이 시기를 우리가 조선민족사에 있어서 최악의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까닭이 거기에 있다.

이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일제는 종전의 식량-원료의 공급지화정책 및 상품의 독점적 판매시장화정책의 수준을 뛰어넘어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전진기지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게 되었다. 이 정책에 즉 응함과 아울러 일본 자본이 진출함에 따라 1930년대에 조선에서는 공업생산의 비중이 급속히 높아졌다. 1930년대 초에는 화학공업과 수력발전소와 근대적인 방적공장이 등장했으며, 중-일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지하자원을 더욱더 수탈하면서 중공업화를 한층 더 촉진시켰다. 그러나, 차기벽이 적절히 지적했듯이, ‘이 광공업의 ‘발전’

5)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9쪽

6) 위와 같음, 41쪽

이 한국의 민족경제의 발전과 아무런 관계도 없었던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오히려 한국의 경제를 점점 더 파행적이고 기형적으로 만들어 일본 자본주의에의 종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한국으로서는 귀중한 자원과 노동력이 약탈당한 데 불과했다'7)

태평양전쟁을 도발한 뒤 일제는 조선에 대해 최후발악적인 착취와 수탈을 강화했다. 이른바 공출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쌀을 비롯한 갖가지 농산물들을 '공출'시킨데다가 절의 종이나 가정의 식기 등 금속제품을 모조리 빼앗아 갔다. 군사비를 염출하기 위해 조선은행권을 남발해 악성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켰으며, 사실상 빼앗음을 뜻하는 저축을 강요했다. 나아가 전황이 불리해지자, 1938년부터 시행해 오던 지원병 제도를 1943년에는 징병제도로 바꾸고 1944년의 한 해 동안에 20만6천여 명을 끌고 갔다. 또 노무동원제를 강요하여 1944년까지 무려 44만4천여 명을 끌고 갔다. 게다가 이른바 여자정신대를 조직해 수 많은 꽃다운 나이의 여성들을 희생시켰다. 전쟁의 막바지에 가서는 국민학교의 어린이들까지도 비행장의 흙고르기와 松脂채취에 동원했다.8) 요약한건대, 그것은 酷毒無比한 강도-약귀들의 철면피하고 야만적인 파시스트 지배라는 어둡고 괴로웠던 시기였다.

제2절 조선민족의 대응과 고하의 시국관

1 해외에서의 독립투쟁

일제의 식민 지배가 악착스러워질수록 우리 겨레의 저항은, 특히 중국 본토와 만주와 소련과 미주를 비롯한 해외에서 더욱 더 거세어졌다. 그 곳들에서 펼쳐진 독립 투쟁의 이념과 양태를 자세히 밝히는 것이 이 節의 목적은 아니다. 이 시기에 전개된 우리 겨레의 해방 투쟁이란 안목에서 고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에 대한 해답을 시도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그러한 범위 안에서 중요한 갈래들을 개관하기로 한다.

첫번째 갈래는 아무래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항일투쟁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제6장 제1절에서 이미 살폈듯이, 3·1운동의 여파 속에 상하이에서 세워진 임정은 그 출범 때의 기대와는 달리 곧 地緣的-이념적-노선적 갈등 속에서 분열을 거듭하여 1921년에는 사실상 출범 당시의 통합성을 크게 잃었다. 즉각적인 무장 투쟁을 외치는 지도자들은 임정을 떠나 만주로 가서, 이미 그곳에 참의부와 정의부와 신민부와 같은 군정부를 세우고 싸우던 지도자들과 손잡아 과감한 무장투쟁을 벌였으며, 조직적인 무장투쟁의 규모는 아니라고 해도 김원봉이 세운 의열단은 임정 밖에 서서 일제의 기관들을 폭파하거나 친일 매국노들을 죽이는 일에 힘썼다. 이들과는 달리 외교-선전론이나 준비론에만 매달려 있던 임정은 1925년부터 침체에 빠져 들었다.9)

그때로부터 여섯 해 뒤에 일어난 만주사변은 침체 국면을 타개하려고 고심하던 임정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어 주었다. 만주사변을 중국대륙에 대한 일제 침략의 전초전으로 읽은 중국 국민들의 對日 경각심이 서서히 표면화되기 시작했으며 임정에 대한 관심도 자라나기 시작했고, 여기에 더하여 만주사변으로 만주의 본거지를 위협받게 된 항일 무장 투쟁 세력의 일부가 중국 본토로 옮겨와 임정에 직접 가담하거나 또는 임정과 연결아래 활동하는

7) 위와 같음, 42쪽

8) 위와 같음

9) Chong-sik Lee,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pp. 180-181.

일이 늘어난 것이다.

중대한 전환기를 이용해, 임정은 1931년 백범 김구의 책임 아래 특무대인 韓人愛國團을 조직하게 하고 일제 요인들에 대해 폭탄을 던지는 炸彈(작탄)항일투쟁을 강화하게 되었다. 그 실적은 1932년부터 뚜렷하게 나타났다.

우선 한인애국단원으로 그때 만 32세이던 李奉昌이 1월 8일 도쿄의 시쿠라다문(櫻田門) 앞에서 일황을 향해 수류탄을 던진 것이다. 이 의사의 의거가 성사되지는 못했으나 조선인의 독립 투혼이 살아 있음을 과시했으며, 특히 만보산사건 등으로 말미암아 “중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서먹서먹한 對韓觀을 깨끗이 청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면에서 성과를 불문하고 큰 민족사적 의미가 깃들어 있었던 것이다”¹⁰⁾

이봉창의 의거로부터 넉 달이 채 못되어 尹奉吉이 작탄 항일투쟁의 뒤를 이었다. 역시 한인애국단원으로 만 24세에 지나지 않던 윤 의사는 4월 29일 상하이의 虹口공원에서 폭탄을 터뜨린 것이다. 일황의 생일을 축하하는 이른바 天長節 기념식에 일본군의 상해 점령 [1·28 상해사변] 축하를 겸하는 큰 잔치에서 작렬한 폭탄으로 군부와 외교계의 요인들이 죽거나 다침으로써 세계가 우리 겨레의 독립 투혼에 놀라게 된 것이다. 특히 이 의거를 계기로 중국 국민당 정부는 임정에 대한 물심양면으로의 협력과 원조를 베풀기로 다짐했다.¹¹⁾

이로써 임정은 ‘1925년부터 1931년까지의 침체기’에서¹²⁾ 벗어나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광복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전환은 중-일전쟁의 발발에 의해 마련되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제에 대한 중국국민의 적개심이 더욱 커지는 가운데 임정에 대한 協援이 실질적으로 베풀어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임정의 지도자들은 물론 非임정 망명투사들도 일제의 패망과 조국의 광복이 가까와 오고 있음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940년 5월 8일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임시수도 징칭(重慶)에서 부분적이기는 하나 좌-우 연합체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는 한국독립당 [한독당] 을 발족시켜 임정의 ‘大興黨’으로 삼아 좌-우 연합에 바탕을 둔 임정의 새 내각을 구성하게 했다. 김구가 주석을 맡은 새 내각은 사회주의자 조소앙이 제창한 三均主義를 임정의 건국 강령으로¹³⁾ 다시 확인했다. 이것은 임정이 일제 패망 이후 집권하는 경우 상당한 수준에서 평등의 이념을 바탕으로 개혁정치를 펴 나갈 것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어 1940년 9월 17일에는 한국 광복군총사령부를 역시 징칭에서 발족시켰다. 광복군은 자신이 1907년 8월에 강제로 해산된 대한제국 국군과 그리고 일제에 대항해 산화했던 의병의 정신을 이어 받는다고 선언했다.¹⁴⁾ 이처럼 임정을 개편하고 그 군사적 도구까지 확보함으로써 임정은 항일 무력투쟁을 추진할 수 있는 이념과 체제를 갖춘 셈이 되었다.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면서 임정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임정은 우선 태평양전쟁 발발 이틀 뒤인 1941년 12월 10일 일제에 대해 선전을 포고했다. (1) 한국민은 1개 전

10) 한국일보사(편), 《재발굴 한국독립운동사》 제2편(이현희-박성수 집필 : 중국 본토에서의 투쟁) (한국일보사, 1988), 127쪽

11) 洙, <윤봉길>, 동아일보사 신동아 편집실(편), 《한국근대인물 百人選》 (동아일보사, 1979), 317-319쪽. 또 李康勳(편저), 《독립운동대사전》 전2권 (대한민국광복회, 1990), 제1권, 535-536쪽. 한편 이 시기의 김구의 사상과 행동에 대해서는, 송건호(편), 《김구》 (한길사, 1980), 제3편. 이봉창과 윤봉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책, 169-183쪽에 있다.

12) 위와 같음, 44쪽

13) 임정의 건국강령은 1940년 3월에 반포되었다. 그 전문은 위와 같음, 287-288쪽에 있다. 조소앙의 삼균주의에 대해서는, 강만길(편), 《조소항》 (한국방송사업단, 1983), 제4-5장

14) 이현희, 《대한제국의 최후와 임시정부의 활동》 (한국방송사업단, 1983), 제12장

투단위가 되어 반침략 陣線에 참가하고, (2)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을 비롯해 일제에 의해 강요된 조약들은 무효이며, (3) 왜구가 멸망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혈전할 것이고, (4) 난징(南京)에 수립된 汪精衛의 괴뢰정부는 결코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5) 한국독립의 국제적 보장을 요구한다는 5개 항목을 강조했다.¹⁵⁾ 汪精衛는 1885년에 태어나 1944년에 죽은 중국의 정치가이다. 본명은 왕자오밍 곧 汪兆銘으로 精衛는 字이다. 국민당 정부의 行政院長으로 활약하다가 중-일전쟁 도중에 반공과 대일화평을 기도하여 징청을 탈출하고 1940년 난징에 이른바 新國民政府를 수립하고 주석으로 취임했다. 이 정부는 일제의 괴뢰정부로 간주되었다. 그는 일본에서 병사했다.

앞에서 살핀 대일선전포고의 내용은 임정이 항일무력 투쟁의 일선에 서 있음을 의심의 여지없이 밝히고 있다. 태평양전쟁을 포함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황이 연합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서 임정의 모습은 더욱 달라졌다. 우선 의열단 단장으로 좌파에 속하는 조선민족혁명당의 당수 金元鳳과 그리고 그가 이끄는 조선의용대 가운데 일부를 흡수해 광복군에 편입시킬 수 있었다. 여기에 왜군으로부터 목숨을 걸고 탈출해온 학병 출신의 조선 청년들이 가세해 들어옴으로써 광복군은 더욱 확충되었다. 그리하여 1945년 3월에 들어가서는 미국의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 곧 미국 전략특수공작대와의 합의에 따라, 국내에 진입해 수도 서울을 탈환하려는 國內挺進作戰을 추진해 나가기에 이르렀다.¹⁶⁾ 임정의 내각도 보다 더 좌-우 연합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다. 1944년의 부주석제 도입을 통해 중도좌파의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영입하고 그밖에도 몇몇 저명한 좌파지도자들을 국무위원으로 영입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지지기반이 보다 넓어진, 김구 주석-김규식 부주석의 이 내각은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임정을 이끌어 나간다.

임정의 이러한 피눈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연합국은 임정을 망명정부로도 교전단체로도 승인하지 않았다. 국내와의 연결이 약하고 해외의 조선인 항일 단체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어서 조선민족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그 중요한 이유였다.¹⁷⁾ 연합국의 이러한 입장은 일제 패망 이후 한반도의 국내적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해외의 독립투쟁 가운데 두번째 갈래는 주로 만주와 화북과 소련에서 전개되었던 항일무력투쟁이었다. 이들의 활동 상황은 매우 복잡해서 간단히 설명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지나친 단순화라는 비난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몽뚱그려 보기로 한다.

1918년부터 1920년대 초 사이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우리 겨레에게도 전파되어 주로 소련과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투사들 가운데 사회주의 단체와 공산주의 정당이 조직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들에 영향 받아 1925년에는 서울에서 조선공산당이 창당되었으나 곧 몇 차례의 검거를 통해 사실상 와해되어 극소수가 지하에 남았음은 이미 제6장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그런데 투옥되었던 이들 가운데 출소한 이들이 1931년께까지면 만주로, 화북으로 망명해 거기서 새로운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상당한 수는 중국에서 이미 공산주의 독립운동을 전개하던 세력과 손을 잡고, 1942년 7월에 중국공산당의 본거지인 예난(延安)에서 중국공산당과의 제휴 아래 조선독립동맹을 조직하고 그 산하 군사조직으로 조선의용군을 발족시키기에 이르렀다. 조선독립동맹의 중앙위원회 주석에는 한글학자 출

15) 한국일보사(편), 앞의 책, 제2편, 205쪽

16) 위와 같음, 196-237쪽

17) Soon Sung Cho,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 An Evalua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p.14

신으로 임정 의정원의원을 지냈으며 이때 만 52세이던 金科奉이, 그리고 조선의용군 총사령으로 일찍이 중국공산당의 장정에 참여했던 만 47세의 武亭이 각각 선출되었다.¹⁸⁾ 1944년 2월말 현재로 일제의 정보기관에서는 조선독립동맹 및 조선의용군의 세력을 그들의 가족까지를 모두 합쳐 3백 명 안팎인 것으로 보았다. 이들은 일제의 패망 직후 북한으로 돌아가 이른바 연안파를 형성하고 조선신민당을 창당했다가 북조선로동당으로 흡수된다.

이들과는 별개로, 1930년대 만주에서는 중국공산당 산하의 東北抗日 聯軍에 가담해 싸우는 이들도 나타났다. 여기에는 金日成을 비롯해 일제 패망 이후의 북한에서 오랫동안 권력의 정상부를 형성해 온 세력이 포함되어 있다. 만주의 중국인 및 조선인 항일 무장 투쟁 단체들에 대한 일제의 ‘소탕작전’이 정점에 도달하면서 1940년 8월 김일성과 그의 추종자들은 소련으로 달아났다.¹⁹⁾ 이들은 시베리아 일대에서 소련 정보기관과의 연계 아래 활동하다가 1945년 일제 패망 직후 소련점령군의 뒤를 따라 귀국해 북조선공산당을 창당했고 곧 조선신민당을 흡수해 북조선 로동당을 창당한다.

이 대목에서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점은 이들 좌파세력은 임정 세력과 이미 심각한 적대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들은 임정을 망명정부로 인정하지 않았고 심한 경우에는 중국 국민당에 의존하는 하나의 항일단체로 파악했다.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를 표방하는 그들에게 임정은 기껏해야 부르주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우익 망명가집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처럼 해외의 항일 독립운동세력 사이에서도 이념적-노선적 대립이 날카로웠으며, 이러한 분열은 일제 패망 이후의 한반도의 국내 정치정세에 큰 영향을 준다.

해외의 독립운동으로서 세번째 갈래는 주로 미주에서 이승만을 비롯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벌였던 외교-선전적 항일활동이다. 이들은 워싱턴에 임정의 대사관격인 歐美委員部를 세우고 국제여론을 상대로 일제의 침략상을 폭로하고 우리 거래의 독립을 호소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1932년 제네바에서 일제의 만주침략 문제를 다루기 위해 열린 국제연맹 총회에 조선의 독립문제를 제기하려고 했던 이승만의 노력이다. 이 노력이 좌절된 뒤에도 이승만은 주로 미국 국무부를 상대로 조선의 독립을 호소했다. 그러나 일제로부터 기습을 당하기 직전까지 미국에게는 조선이 한낱 ‘잊혀진 나라’일 뿐이었다.²⁰⁾ 일제와의 전쟁에 들어가면서 비로소 미국은, 그리고 연합국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다. 연합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어떤 구상을 갖고 어떻게 다루어 나갔는가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2 국내의 상황과 고하의 시국관

해외에 비하여 국내의 항일 운동은 활발하지 못했다. 일제의 탄압이 직접적으로 행사되는 사실상의 감옥과 같은 국내에서 조직된 항일 무력 투쟁이란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그 창살을 뛰어넘고 싸운 애국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가혹한 고문과 형벌이었다. 이처럼 극도로 억압된 상황아래서, 그래도 1932년 702인의 端川 반일운동사건으로부터 1936년 70인의

18) Lee, 앞의 책, pp.180-222 및 Dae-Sook Suh,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p.220-230

19)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2 vo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제1권 (*The Movement*), pp.208-210

20) Richard C. Allen, *Korea's Syngman Rhee: An Unauthorized Portrait*(Tokyo:Charles E. Tuttle Co., 1960), pp.60-71 및 Robert T. Oliver, *Korea, Forgotten Nation* (Washington, D.C.: Public Affairs Press, 1944)

평주 반일운동사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1931년에 신간회가 해소된 뒤 우리 겨레는 이렇다 할 민족통일전선을 오랫동안 형성되지 못했으며, 1928년 코민테른의 <조선문제 12월 테제>에 따라 해소된 조선공산당도 1939년에 가서야 박헌영에 의해 京城콤 그룹의 형태로 재정비되었으나 그나마도 1942년에 파탄이 났다. 이로써 상당수의 공산주의자들은 일제의 강요 아래 전향하게 되었으며 박헌영은 광주로 피신하여 기와공장 인부로 위장하며 세월을 보냈다.²¹⁾ 그는 일제 패망 직후 서울로 올라와 조선공산당을 재건하면서 해방정국에 뛰어든다.

그러면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고히가 지냈던 시국관은 무엇이었나? 그 속마음을 헤아리기가 어렵지만 겉으로 나타난 것만으로 보건대, 그것은 여전히 일제 지배 안에서의 합법적 운동을 전제로 한 실력배양론이거나 자강운동론 또는 기회론이었다. 이 점은 이 무렵을 앞뒤한 시기에 남긴 그의 글들이나 발언들에서 드러난다.

고하는 기본적으로 1930년대에 들어가면서 동북아시아에서 일본이 개입되는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내다보았던 것 같다. 1925년 8월에 발표했던 논설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에서, 그는 ‘4-5년 안에’ 이 지역에서 중국 문제를 둘러싸고 전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견했었는데,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난 1930년에 들어와 실제로 중국을 둘러싸고 열강의 갈등이 날카로워지고 1931년에는 만주사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그의 확신은 커졌을 것이다. 이 점은 그가 1931년 5월에 발표한 시론 <조선의 세계적 지위>에서 엿보인다. 그는 ‘만-몽 문제가 장래 태평양문제를 야기하는 도화선이 [되고] 그중에도 만주문제라는 것이 장래 태평양 문제를 일으키는 데 출발점이 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만주문제를 놓고 열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 그는 조선의 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 같다. 조선이 차지하는 지정학적인 위치로 보아, 이 지역에서 전쟁이 나고 그 뒷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열강은 역시 조선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그의 글 밑에는 깔려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문제 여하가 동양대국을 좌우 여하로 요리하게 된다. 동양에 있어서 만일의 變局을 일으킨다면 조선문제가 가장 干要한 형세를 일으키게 된다. [...] 이 점에 있어서 조선의 세계적 지위는 어떠한 방면으로 보든지 세계의 어떠한 약소민족 그것보다도 가장 중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바이다’라고 썼던 것이다. 되풀이하여, 그는 ‘장래 일-로, 일-중, 일-미 간에 있어서 여하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국제적으로 여하한 문제로 전개된다면 조선의 세계적 지위는 실로 중대하다고 느끼어진다’라고 썼다.²²⁾

여기서 강하게 받게 되는 인상은 그가 열강의 전쟁이 결국 조선의 독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기대를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열강의 전쟁을 통해 일본은 패망하게 되고 그 틈바구니에서 조선은 독립을 얻을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그가 믿고 있었다는 짐작이다. 이 짐작은 그가 곧 이어 발표한 또 하나의 논설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로부터도 가능하다. 이 글에서도 그는 ‘오늘날의 조선이 과거의 조선과 달라서 모든 정세가 세계적 조선이 되었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정치의 변화를 통한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²³⁾

그러면 국제정치의 변화가 어떻게 조선에게 독립의 기회를 줄 것인가? 이 물음에 그가 어떤 대답을 갖고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 이 시기에 국내에서

21) 朴甲東, 《박헌영: 그 일대기를 통한 현대사의 재조명》(인간사, 1983), 75-78쪽

22) 송진우, <조선의 세계적 지위>, 《비판》(1931년 5월), 쪽수 미상.

23) 송진우,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동광》(1931년 6월), 2쪽

그러한 물음에 직접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글을 쓰기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자료가 매우 제약된 상태에서 그래도 무리스럽게나마 짐작해 본다면, 그는 미국과 영국과 중국이 중국에는 일본을 꺾을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던 것 같다. 그는 일제가 만주를 장악하려고 기도하지만 만주와 대륙 중국은 ‘합동될 것’이고, 또 국민당 정부가 잘 버텨낼 뿐만 아니라 친미-친영을 통해 연합전선을 형성해 낼 것이며 이렇게 되면 일본은 견디기 어려울 것이 아닌가 내심으로 헤아렸던 것으로 보인다.²⁴⁾ 이러한 장기적 안목에서의 낙관론을 가졌기에 그는 만주사변이 일어난 그 다음 해의 새 해를 맞으면서도 ‘세계는 한 걸음씩 전진한다. 모든 동요와 반동에도 불구하고 그 行步는 능히 저지할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외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나간 한 해에 일보를 전진 [했] 다. 그렇다. 확실히 우리는 나아갔다’고 주장할 수 있었고, ‘엄동의 빙설이 두터웁되 새로이 움트는 생명의 씨를 자라고 있나니 그 나아감이 더디다 하여 이를 근심할 것이냐’²⁵⁾는 말로 동포들을 격려할 수 있었다.

이처럼 비교적 낙관적인 국제정세관 속에서 고하는 마치 1910년대에 그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기회론에 몰입해 있었을 것이다. 풀어 말해, 그는 세계대세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그 변화의 바람은 조선에도 불어올 것이므로 그 결정적 계기가 잡힐 때 독립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생각을 가졌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러한 기회론 아래서 고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대중의 교육과 계몽을 통한 실력배양론 또는 문화운동임은 다시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구체적으로 말해, 그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당면과제는 열악하거나 불우한 조건 아래 살고 있는 대중의 계몽과 교육이었다. 그러한 입장은 여성에 대해서건 농민에 대해서건 도시 빈민에 대해서건 마찬가지였다.

이 점은 그 무렵에 그가 잡지들의 설문조사에 나타난 반응에서 쉽게 읽을 수 있다. 첫째가 1926년 《조선농민》에의 대답이다. 그는 ‘농촌 청년을 위하여 하고 싶은 일은 그네들에게 어떠한 새로운 사상을 고취하여 갑자기 고상한 운동자가 되도록 하는 것보다 대체로 그네는 무지하여 전후 분별이 선명하지 못한 터인즉 우선 간이한 국문을 가르치며 쉬운 숫자부터 알게 하여 농촌청년은 물론 농민 전부에게 다소라도 스스로 무엇을 판단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한 것이다.²⁶⁾ 그의 이러한 생각은 1929년 《조선농민》에의 대답과 1930년 《농민》에의 대답에서도 되풀이되었다. 앞에서 그는 농민의 무지를 개탄하여 ‘농민 자체의 각성’을 강조하면서, 농민 자체의 각성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먼저 간이한 과학적 지식을 보급케 하여서 일반 농민이 사물을 대할 때에 과학적 두뇌를 가지고 대하도록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세계적으로 공인되는 종교를 소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으며, 뒤에는 ‘농민운동의 첫 과정은 지식 보급인가 합니다. 그것은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알아야만 먹는 데 있어서의 意識이나 형식이 충실하여질 줄 믿습니다’라고 강조한 것이다.²⁷⁾

물론 그가 당시의 농촌문제를 농민의 계몽과 교육에서만 찾은 것은 아니다. 그는 ‘조선

24) 송진우, <평화리에 합동될 것이다>, 《新民》(1928년 7월), 62~63쪽 및 송진우, <국민당 정부 의연 계속>, 《동광》 제4권 제4호 총32호(1932년 4월), 96쪽

25) 송진우, <노력전진 更一步>, 《동아일보》, 1932년 1월 1일

26) 송진우, <농촌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이들의 의견 : 송진우>, 《조선농민》 제3권 제2권 총3호(1926년 2월), 14쪽

27) 송진우, <과학보급과 종교선택>, 《조선농민》 제5권 제6호 총36호(1929년 10월 26일), 16쪽 및 <조합운동과 부업장려>, 《농민》 제1권 제6호(1930년 10월), 9쪽

농촌의, 공상이라기보다 공상을 극한 참상'에 마음 아파하면서 농민들에게 낮은 금리의 자금을 융통해 줄 것과 또 소작인들을 보호해 줄 것을 강조하기를 잊지 않았다.²⁸⁾ 또 자유에 못지않게 평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이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져야 할 것임을 역설하기도 했다.²⁹⁾

그러나 그가 농촌문제에 대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중문제에 대해 가진 기본적인 입장은 '무지의 계몽'이었다. 이 점은 도시 빈민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힌 한 응답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지금 조선에 있어서 어느 지방에 빈민굴이 없는 곳이 없지마는 서울의 빈민처럼 참혹한 현상은 없을 것이다. 진고개와 종로 같은 변화가를 보는 동시에 新堂里나 孔德里 같은 빈민굴로 보아 어찌하면 저런 사람들도 잘 살게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 다음, '어떤 다른 시설보다도 조선인의 일반 교육시설을 잘 살펴서 교육의 필요를 확산하는 동시에 자제를 많이 학교에 보내서 有爲人物을 많이 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가 한다'고³⁰⁾ 주장하고 있다. 이 입장은 또 여성에 대한 그의 입장을 밝힌 한 응답에서도 드러난다. 신간회에 상응하여 1927년 창립된 여성단체인 權友會의 기관지가 1929년에 던진 질문에 대해 그는 근우회의 사명이 '일반 아매한 구가정 여성으로 하여금 세상의 일을 깨닫기에 필요한 교양 사업을 주로 하는 것'이라고 대답한 것이다.³¹⁾

이상에서 보듯이, 교육과 계몽을 앞세우는 그의 입장은 대중 조직에 대한 기대의 약화로 연결된다. 그는 1931년의 한 시론에서 '순민족의 협동기관, 그러한 것은 나는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단언하면서 '전민족의 협동기관이라 하면 외면으로는 물론 좋고 다수인의 결함이나 힘이 강할 것 같지마는 실상은 아무 힘도 없고 그냥 또 시지부시하고 말기가 쉽습니다'라고 부연한 것이다.³²⁾ 또 1932년의 한 問答에서도 그는 '한쪽에는 민족주의가 성하고 한쪽에서는 사회주의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무슨 주의 무슨 주의하여 大小, 長短, 正反, 離合이 도무지 雜然 불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결사를 이루어 놓았다 할지라도 역지로 된 것이지요. 그래서 밤낮 내홍이 일고 성장이 없다가 필경에는 그 수명이 길지 못하고 말지요'라고 답변하고 있다.³³⁾

종합하건대, 고하는 1930년 초까지만 해도 기회론의 입장에 서서 실력배양론을 옹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고하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전쟁은 쉽게 끝나지 않았고 일제의 패망도 빨리 오지 않았으며, 그의 실력배양론은 합법적인 민족운동조차 인정하지 않는 일제 지배 말기에는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 여기서 그는 은둔의 생활에 들어가 때를 기다리게 된다.

제3절 만보산사건과 만주사변 때 고하가 취한 논리와 행동

1 만보산사건의 발발

28) 송진우, <소작입법의 필요>, 《朝鮮之光》 1929년 1월호, 쪽수 미상 및 <極低利의 자금융통>, 《東光》 제 20호 (1931년 4월), 50쪽

29) 송진우, <자유권과 생존권>, 《삼천리》 (1932년 4월), 쪽수 미상. 이 논문은 송진우 논문들 가운데 매우 체계적인 논문이라 할 수 있다.

30) 송진우, <교육의 시설과 빈민굴에>, 《別乾坤》 (1929년 10월), 30쪽

31) 송진우, <가족부인 교육에>, 《근우》 (1929년 5월), 31쪽. 대중의 교육에 대한 그의 강조, 민족의 실력양성의 1차적 중요성에 대한 그의 강조는, 송진우, <3개의 당면한 급무>, 《조선지광》 (1928년 1월), 60-61쪽에서도 엿보인다.

32) 송진우, <대협동기관조직의 필요와 가능如何?>, 《혜성》 제1권 제1호 (1931년 3월호), 쪽수는 미상.

33) 송진우, <無風의인 현하 국면타개책>, 《삼천리》 제4권 제4호 총25호 (1932년 4월), 쪽수 미상.

국제적 분쟁 속에서 기회를 잡아 조선민족의 독립운동으로 연결시킨다는 고하의 구상이 평가받을 만한 행동으로 나타난 것은 바로 만보산사건과 만주사변 때였다. 중국문제를 둘러싸고 늦어도 1930년쯤엔 반드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고하의 예상대로 1931년 9월에 만주침략이 발발하기에 앞서 그 전주곡인 萬寶山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나라안팎에서 많은 권위있는 연구들이 나와 있어서 이 책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기로 한다. 다만 이 중대한 사건에 대해 고하가 취했던 신중하고 슬기로운 태도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었나를 파악한다는 제한된 범위 안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모든 문제는 일제의 만주 침략-중국 침략의 욕망으로부터 비롯됐다. 이미 이 章의 제1절에서 지적했듯이, 만주와 대륙 중국으로 탐욕의 눈길을 돌리면서 일제는 중국 민족의 끓어오르는 배일감정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15년 5월 전국적인 반일운동을 일으켰던 중국민족은 일제의 침략주의를 항상 날카롭게 경계하고 있었으며, 특히 일제에게 빼앗긴 만주에서의 권익을 되찾기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또 가까이로는 1928년 6월에 일본 관동군이 만주의 군벌 장초린(張作霖)을 폭살하고도 그것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음모인 것으로 조작하는 것을 보면서 더욱 경계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제는 간악하게도 조선민족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조선민족을 만주로 이주시켜 농지를 개간하게 하고 상업에 종사하게 하면서 그들의 그러한 활동을 통해 만주에서의 특수권익을 지키고 또 중국민족과 상충하게 한 것이다.

일제의 이러한 정책은 자연히 조선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반감을 조성하게 되었다. 朴永錫 교수의 표현으로는 ‘중국측 또한 재만 한인을 일제 침략의 주구로 간주하게 되었으며 배일 운동의 일환으로 그들 한국인을 압박 구축하고자 하였다’³⁴⁾ 조선민족과 중국민족이 공동의 적인 일제를 외면하고 서로 싸운다는 것은 일제로서는 반가운 일이었다. 그것은 조선 지배를 위해서도, 그리고 만주-대륙중국의 침략을 위해서도 환영할 만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만주침략을 앞둔 시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일제는 만주침략을 앞둔 시점에서 조-중 불화와 충돌을 기회가 닿는대로 부채질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1931년 7월 2일 만주 吉林省 長春縣 鄉三區 萬寶山 三姓堡에서 조선농민과 중국농민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다. 그 직접적 원인은 장춘에 사는 郝永德이 그해 일본 당국과 몰래 짜고 개인적으로 農稻田公社를 세운 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본 당국은 이때 이미 조-중 충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함정을 파고 있었던 것 같다. 郝은 4월 16일 만보산 일대의 미개간지 5백 晌(향)을 이곳의 중국농민 12인으로부터 빌리기로 계약했다. 이 계약서는 현정부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는 현 정부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곳의 조선인 농민 1백88명을 불러들였다. 조선인 농민들은 곧바로 이곳의 큰 물줄기인 伊通河를 절단해서 새로운 수로를 만들고 자신들의 개간지로 물을 끌어대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伊通河 연도에 땅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농민들이 조선인 농민들을 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공사장에 집단난입하여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때 중국인들은 오랫동안 외세에 시달려온 탓에 중국의 토지를 외국인에게 파는 것이나 빌려주는 것 모두를 매국의 큰 범죄로 여기고 있어서 감정이 더욱 격화되어 있었다. 그러나 장춘 주재 일본영사관은 조-중 이간을 확대하기 위해 경찰까지 동원하면서 중국인 항의자들을 내몰고 조선인 농민들의 수로 공사를 보호해 주고 있었다.

34) 박영석, 《만보산사건 연구 : 일제 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서의》(아세아문화사, 1978), 2쪽. 이하 만보산 사건에 관한 주요한 정보와 분석은 거의 전적으로 이 책에 의존했다.

이러한 갈등의 심화 속에 7월 2일 새벽 중국인 농민들은 다시 현장에 몰려와 수로를 매몰하려고 시도했다. 일본 경찰은 여전히 그들을 막으면서, 장춘시 당국에게 중국인들에 대한 자신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통고했다. 장춘시 당국은 그들대로 중국인 농민들의 항의를 자위수단으로 옹호해 주며 날카롭게 맞섰다.

2 국내의 반응과 고하의 지도력 발휘

사건의 앞뒤를 이렇게 살펴 볼 때, 당시의 상황에 미루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인명의 피해도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종류의 충돌은 만주에서 때때로 있었다. 그런데도 만주 침략의 분위기를 높이고자 혈안이 되어 있던 일본 관동군은 이 사건을 확대하기 위해 하나의 음모를 꾸렸다. 장춘 영사관에게 지시해 조선인 농민들이 엄청난 손해를 입은 것처럼 조선 국내에 보도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장춘 영사관은<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장춘지국장을 겸하고 있던 金利三에게 과장 또는 허위정보를 제공해 ‘중국관민 8백여명과 조선동포 2백여명이 충돌해 조선동포들이 부상을 입었다’는 내용으로 국내 일부 신문에 전송하도록 유도했다. 金은 1930년 김좌진 장군이 암살되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내에 알렸던 이였으며 신망이 두터웠던 이였다. 그리하여 그의 긴급 전송은 아무런 의심을 받음이 없이 우선 호외로 대서특필되어 나갔다. ‘중국의 기마대 6백여명이 충돌해 동포들의 안위가 급박해진 가운데 중국쪽은 기관총 부대를 증파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큰 전투가 임박했다’는 취지의 보도도 잇따랐다.

국내의 여론은 급격히 反中의 방향으로 끓어올랐다. 전국의 많은 곳에서 화교들의 집을 습격해 가옥을 파괴하고 재산을 탈취하며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일조차 일어났다. 이에 당황한 화교들은 중국으로 서둘러 돌아가기 시작했다. 회심의 미소를 짓게 된 조선총독부는 가증스럽게도 충돌 사건들을 완전히 방지하면서도 화교들의 귀국을 신속히 주선해 주었다. 화교들은 돌아가는 대로 자신들의 피해상황을 호소하고 다녔다. 이번에는 중국인들의 보복이 뒤따라 만주의 조선인들은 전진공공 되었다. 거듭 말하거니와, 일본 관동군의 농간은 성공한 것이다.³⁵⁾

이 일련의 과정에서<동아일보>는 신중하게 대처했다. 당시 <동아일보>에 촉탁으로 있던 주요한은 자신이<동아일보>의 논조를 그렇게 유도했다고 회고했으나,³⁶⁾ 《동아일보 社史》는 고하가 처음부터 신중론을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고하의 기존 전기의 내용과도 일치하는 그 주장은 다음과 같다.

만보산사건이 전해지자 송진우는 이 사건은 아무래도 일제의 음모로 꾸며졌고 또 발생된 사건 같으니, 아무리 우리 동포가 많이 다쳤다 해도 한-중의 우의를 생각해서 신중히 보도하도록 방침을 정했던 것이다. 그것은 현지에서 한-중 농민 간의 사소한 분쟁에 일경이 60여명이나 동원되어 한인측에 편을 들었다는 그 ‘친절’이 수상쩍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송진우의 생각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국내에서 일어난 그 끔직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일경은 먼 산의 불이나 보듯이 수수방관하지 않았는가.³⁷⁾

35) 위와 같음, 제2장

36) 주요한, <만보산사건과 송사장과 그 사설>, 한국신문연구소(편), 《언론비화 50편 : 원로기자들의 직필 수기》 (한국신문연구소, 1978), 116-117쪽

37) 동아일보 社史 편찬위원회(편), 《동아일보 社史》 권1 (1920-1945) (동아일보사, 1975), 316쪽. 이 책은 앞으로 《동아일보 社史》 권 1로 표기된다.

이러한 판단에서 고하는 당시 <동아일보>의 ‘국경특과원’으로 신의주와 만주의 安東을 전담취재하는 徐範錫을 현지로 보내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도록 지시하면서 사태의 추이를 침착히 바라보았다. 따라서 <동아일보>지면에는 흥분이 없었다. 이렇게 되자 국내의 여론은 <동아일보>를 원망하기에 이르렀다. ‘<동아일보>는 중국놈들에게 매수되었다’고 욕하면서 신문사 유리창을 깨뜨리는 사람들도 나타났다. 고하의 기존 전기에 따르면, ‘지방 여러 지국에서도 독자들의 성화에 못이겨 본사에 전보로 전화로 물어왔다. <동아일보>는 금시 망하는 것처럼 떠들어대었다’³⁸⁾ 서 특과원은 정확한 소식을 전해왔다. 이에 <동아일보>는 7월5일 <군대출동은 허보, 중국 폭민 해산, 일-중 경관대의 충돌도 경미, 만보산 동포는 무사>라는 3단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또 같은 날 <만보산사건에 대하여 냉정한 태도를 취하라>라는 사실을 내보내면서 ‘좀 더 냉정-침착하게 잠재한 各種의 미묘한 관계를 정관한 뒤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중국인들에 대한 폭력의 행사를 중단하라고 호소했다. 이틀 뒤에는 (2천만 동포에게 고합니다. 민족적 이해를 타산하여 허무한 선전에 속지 말라>라는 사실을 통해 우선 ‘만보산 2백명 동포는 안전하고 평안합니다’라고 알린 다음 ‘동포여! 정신을 차려 앞뒀일을 헤아리십시오. 악의를 가진 무리의 헛된 선전을 믿어 여러분이 생명보다도 더 사랑하는 민족의 전도에 칼과 화약을 묻는 일을 하지 말으십시오’라고 거듭 호소했다.³⁹⁾

이 무렵 고하에게 현지의 독립지사들이 극비리에 국내로 보낸 밀사 朴一波가 찾아왔다. 그는 만보산사건이 일제의 음모에 의해 일어났으며 과장 보도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국내의 여론을 가라 앉혀 주기를 요청했다.⁴⁰⁾ 고하는 자신의 판단과 행동이 정확했음을 확신할 수 있었으며,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고하는 곧 사이트 총독을 찾아가 사회정의와 인도의 이름으로 사건수습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태를 수습하지 않고 버려두는 것은 인도상 최악이요 또한 정치상의 失政이요’라고 비판했다고 고하의 기존 전기는 쓰고 있다. 그는 이어 朝鮮各界聯合協議會의 조직을 선도하여 7월 7일 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첫 모임이 열렸다. 여기서 화교습격사건은 조선인 전체의 의사가 아니고 일부 불순분자들의 행동이라는 점을 성명 발표하고 화교난민의 구제와 화교의 상점 개업을 주선할 것을 결의했다. 이 일을 실천해 나갈 실행위원회를 31명으로 구성했는데, 고하를 비롯해 안재홍과 김병로와 이인 등등이 선출됐다. 이 기구는 7월11일 화교습격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한-중 양 민족의 친선을 강조하는 성명서를 발표함과 아울러 중국 국민당 중앙통신사에 대해 같은 취지의 전보를 보냈다.⁴¹⁾

이 무렵 주일 중국공사 汪榮寶가 사건의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조선을 방문했다. 고하는 그에게 사건의 앞뒤를 정확히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직감하고 그 일을 서범석 특과원에게 맡겼다. 이때의 대화를 서범석은 뒷날 이렇게 회고했다.

사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송진우씨는 혼자 있었다. [...] 의자에 깊이 기대어 눈을 감은 채 무엇을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순간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였다. ‘저분이 원거리에서 있는 나를 불러 올라오게 하고서는 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을까?’-이렇게 혼자 생각

38) 《고하 송진우 선생 전》, 246쪽

39) 두 개의 사실은 다음에 있다. 동아일보사 신동아 편집실(편), 《근대한국 명논설집》(동아일보사, 1979), 145-147쪽

40) 박영석, 앞의 책, 103쪽

41) 위와 같음, 105-106쪽

을 하고 있는데 문득 한다는 말이 천만 뜻밖의 것이었다. “우리 신문은 정부행세까지 해야겠어!”-어떻게 대답을 하였으면 좋을지 모를 말이었다.

잠시 후에 “주일 중국공사 왕영보씨가 온다지?” “예, 옵니다” “폭행사건 조사를 온다니 그에게 꼭 전할 말이 있어, 서군이 좀 해주어야겠네” 이번 사건은 한국인들의 본의가 아니라 일제의 한-중 간에 이간을 부치려는 정략하에 일부 한국 사람들을 선동한 것이라는 내용을 왕씨에게 전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무의식중에 “글쎄요”라고 대답하였다.⁴²⁾

서범석은 며칠 뒤 기지를 발휘함으로써 고하의 ‘밀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왕공사로 하여금 조선인에 대한 의혹을 완전히 풀게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이 효과를 보아 화교들은 동요를 멈추었으며, 이에 따라 만주의 조선인들에 대한 중국인들의 보복도 중단되었다. 화교 대표들이 7월 27일 <동아일보>를 찾아와 감사의 뜻을 나타냈을 때, 그리고 蔣介石이 은폐 <親仁善隣>과 족자 <東亞之光>을 보내어 왔을 때, 고하는 자신과 자신의 동료들 및 동지들이 매우 슬기롭고 용기있게 행동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다.⁴³⁾

3 만주사변과 고하의 밀령

이처럼 만보산사건을 잘 마무리지은 때로부터 두 달이 채 지나지 않은 1931년 9월 18일 일제의 관동군은 北大營 부근에 있는 柳條溝의 철교를 자신이 끊어놓고도 중국군이 끊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군사작전을 개시했다. 이것이 만주사변의 시작인데 이로 말미암아 중국인들뿐만 아니라 만주에 사는 조선인들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다. 일본군에 쫓겨 퇴각하는 중국군이 오지에게까지 밀려들면서 겨우 이런 곳들에 생활의 터전을 확보해 어렵게 살던 우리 동포들이 잘 곳 없이 방황하게 된 것이다. 고하는 무엇보다 우리 동포들의 보호가 중요하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파원들을 보내 그들의 참상을 크게 알리는 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리하여 薛義植과 서범석을 현지로 급파했다. 그들의 생생한 보도가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했음은 물론이다.

국내여론은 제법 환기가 되었는데, 국제여론의 면에서 까다로운 일이 일어났다. 중국 국민당 정부가 이 사건은 조작됐으므로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국제연맹에 제소하고, 국제연맹이 이 제소를 받아들여 1932년 1월에 인도 총독대리를 지낸 영국외교관 리튼(Victor Alexander George Robert Lytton: 1876-1947)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만주사변조사위원단을 구성했는데, 이 조사단이 중국 본토를 거쳐 6월 현지에 도착하자 일본은 만주의 조선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본군을 만주에 주둔하게 해달라는 진정서를 낸 것처럼 꾸밈기 때문이다. 이 위원단에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대표로 쿠웨이쥬(顧維均) 외교부장이 참여하고 있었다. 미국 걸럼비아대학교 출신으로 1919년 파리 평화회의에도 참가했으며 서방 세계에는 웰링턴 쿠(Wellington Koo)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 거물 국제 정치가에게라도 진상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고 고하는 판단했다. 그리하여 그는 다시 서범석을 불러 “또 한번 수고해야 하겠는데 잘못하면 큰일나! 조사단 중국대표로 와 있는 외교부장 顧維均씨에게 먼저 汪榮寶씨에게 하듯이 우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없을까?” 하고 물었다. 서범석은 즉시 조사단이 머물고 있는 셴양으로 가서 은밀하게 쿠 부장에게 접촉하여 고하의 뜻을 전했으며 국민당 정부를 납득시킬 수 있었다. 그때 만 서른 살이었던 서범석은

42) 徐範錫, <나만이 아는 비밀 : 고하 송진우씨의 두 가지 밀령> 《진상》, (1959년 9월), 37쪽

43) 《고하 송진우 선생 전》, 253쪽

뒤틀날 해방된 조국에서도 고하의 뜻을 받들어 야당에 투신해 국회의원에 여섯 차례에 당선된다.

만보산사건과 만주사변 때 보여준 고하의 숨은 외교력 발휘는 확실히 고하가 정치가적 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아니, 그것은 고하가 여전히 민족을 잊지 않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제4절 고하의 문화운동

1 충무공 유적보존 운동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시기의 고하의 활동은 여전히 <동아일보>를 통한 소극적인 문화운동에 국한되었다. 그 첫 보기가 1931년 5월에 시작한 李忠武公遺跡保存運動이었다.⁴⁴⁾

이 일은 같은 해 5월 13일자 <동아일보>의 한 기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충무공 이순신의 13대 종손이 빚 원리 합계 3천4백원 때문에 東一銀行에 잡혔던 충남 牙山郡 陰峰面 沙亭里 소재 충무공 묘소 위토가 곧 경매에 붙이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고하는 민족의 성웅의 묘소 위토가 경매되어 다른 사람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묵과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우선 이튿날 <민족적 수치-채무에 시달린 충무공 묘소>라는 사실을 통해, 충무공의 묘소 위토가 이 지경에 이르게 한 민족적 정열의 냉각과 민족적 자부심의 마비를 통탄한 다음 충무공의 유적을 보존하자고 호소했다. 이어 정인보를 찾아가 “삼성사 계획이 실패한 뒤로 이런 일을 하나 하지 못해서 늘 꺼림칙하더니 마침 잘 되었소. 그 산판을 후손들에게 도로 찾아주고 거기다가 현충사를 짓는 것이 어떨까요”하고 상의했다. “삼척동자라도 이 나라 사람으로 임진왜란의 충무공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터이니, 이 일을 하나 하면 동포들도 또 한번 각성하게 될 것이고, 큰 등불을 켜 놓는 것”이라고 그는 판단한 것이다. 그리하여 고하는 글을 위당에게 맡기면서 “은행이나 왜정을 공격해서는 도리어 화를 일으켜 일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올 염려가 있으니, 다만 그 산판 잡혀 먹은 충무공의 후손들을 치는 논조로 쓰도록 하지요. 여하간 죄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니 그래야만 일이 될 거요”라는 구체적 방향마저 제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러한 취지의 논설에 반박문이 다른 신문에 나오기도 했다. 고하는 위당에게 이번에는 반박문을 쓰게 하는 한편 편집국장인 춘원을 5월 19일에 현지로 보내 그곳의 형편을 기행문 형식으로 연재하게 하였다. 그 뒤를 이어 춘원으로 하여금 6월 26일자부터 장편소설 《이순신》을 연재하게 하여 동포들이 충무공에 대한 경모를 갖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론은 고하의 편이 되어 주었다. 5월 15일 독자 최 아무개 등 다섯 사람이 “우리들의 주머니를 긁어모아 그 위토를 찾자”고 투고하면서 5원을 보내 온 것을 시발로 방방곡곡에서 한 푼 두 푼의 성금이 몰려 왔다. 여기서 5월 23일 李忠武公遺跡保存委員會가 결성되기에 이르렀다.⁴⁵⁾ 윤치호를 위원장으로 하는 15명의 위원이 선출되어 충무공의 묘소와 사당과 유물을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고하도

44)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편), 《고하 송진우선생전》(동아일보사 출판국, 1965), 237-240쪽. 이 책은 앞으로 《고하 송진우 선생전》으로 표기된다. 《동아일보 社史》 권1, 331-335쪽

45) 이충무공유족보존회의 1931년 5월 26일자 성명서와 그리고 <동아일보>의 5월 14일자 사설 <민족적 수치 : 채무에 시달린 충무공 묘소>는 동아일보사 신동아 편집실(편), 《근대한국명논설집》(동아일보사, 1979), 252-253쪽에 있다.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조만식과 김병로와 정인보와 한용운과 안재홍 등등 지도적인 민족운동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우선 첫 단계로 성금의 일부인 2천 2백 77원 22전을 동일은행에 지불함으로써 10여년만에 충무공 묘소 위토의 문서를 다시 찾게 되었다. 제2 단계로는 현충사의 중건을 위하여 3명의 조사위원을 아산 현지로 보내 실지를 답사하게 한 뒤, 7월 26일 그 기공의 첫 손을 대었다. 고하는 위당과 함께 건축 현장에서 1주일을 유숙하면서 감독까지 했다. 모금운동은 계속되어 전체적으로 보아 약 1년간에 2만여명 4백여 단체가 호응해 1만 6천 21원 30전이 모였다. 이러한 민족적 성원 속에 마침내 1931년 말에 현충사는 아산군 鹽峙面 白巖里 訪花山에 준공되었다. 새로 꾸민 사당 안에는 후손이 보관하고 있던 劍과 金帶와 日記와 勅旨 등 충무공의 유물을 안치했다.

이듬해인 1932년 봄에 고하는<동아일보>의 전속 화가인 靑田 李象範에게 현충사에 모실 이충무공의 영정을 그릴 것을 부탁했다. 고하의 기존 전기에 따르면, 청전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동아일보> 지국에 연락하여 대본으로 삼을 만한 충무공 영정을 물색했지만 불행하게도 신통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그리하여 청전은 한산도 制勝堂에 있는 영정을 직접 답사하여, 수채로 그려진 소형의 영정을 사본해 오기도 하고 統營과 麗水의 사당에 모신 영정을 몇 점 보고 오기도 했다. 이와 같은 자료들을 토대로 고하와 청전이 의논한 끝에 의상은 具軍服, 크기는 全身坐像이 들어갈 만한 크기로 결정한 뒤 서너 번 초를 잡아 고하를 비롯한 사내 간부들의 의견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제작에 손을 대어 두달 정도만에 완성을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중복되는 얘기이지만, 청전의 회고를 직접 들어 보기로 한다.

당시 충무공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는 아산 현충사는 황폐되어 가고 있었고, 그리하여 충무공의 정신을 기리는 사람들의 여론이 분출하였다. 이에<동아일보>에서는 현충사의 중건을 위한 모금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는 한편 충무공의 영정이 어디에 안치되어 있는가 하고 전국이 지사망을 통하여 수색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헛일이었다. 그래서 위당, 춘원 등이 사장실 (당시 사장은 송진우씨였다)에 모여 타협한 결과 문헌을 참조하여 창작하는 길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그 제작자로 선정된 것이 나왔다. 사장이 부르다기에 들어갔더니 “자네가 그려야겠어”라고 한마디로 결단해 버렸다. 나는 영정 제작이 내 실력에 벅찬 것인 줄 알면서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날로부터 서너달 뒤였다. 나는 이분 저분을 찾아다니면서 문헌에 의한 충무공의 인품 성격 등을 듣고 그에 의한 스케치를 한 다음 다시 그것을 종합하여 초본을 완성하고, 그 초본을 토대로 다시 또 세번이나 고쳐 그렸다.⁴⁶⁾

1932년 6월 5일 아산의 새 사당에 충무공 영정을 봉안하는 의식이 거행되던 날, 3만여 백성들이 모여들었다. 일제가 싫고 미운 백의민족은 옛날이지만 왜적을 물리친 충무공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나타냄으로써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항일의 자세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고하는 청전과 그리고 그 뒷바라지에 힘 쓴 김철중 서무부장과 함께 참석했다. 이 메아리는 마침내 한산도에 울리어, 현지 주민의 열성으로 제송당이 중건되고 청전의 화필에 의한 영정의 봉안으로 이어졌다. 마침내 1933년 6월 2일 봉안식이 거행되었는데 고하가 참석해 식사를 했다.

고하가 불을 붙인 이충무공 추모운동의 열기는 항일 애국선열들에 대한 유적보존운동으로

46) 이상범, <나의 교우 반세기>, 《신동아》 (1971년 7월호), 223쪽

확대되었다. 1932년 10월에는, 역시 고하와 <동아일보>가 복돋은 민중운동을 통해, 임진왜란의 또 하나의 영웅인 權慄 도원수의 紀功祠를 그의 대첩지 幸州山城에 세웠으며, 또 임진왜란 때 기생의 몸으로 충절을 보인 論介의 사당 彰烈祠를 중건했다. 고하는 자신이 평생에 ‘양모하는’ 인물로 늘 麗末의 큰 충신이요 큰 학자인 圃隱 鄭夢周를 꼽았다.⁴⁷⁾ 그런데 정포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념사업도 하지 않고 오로지 항일에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만 추모운동을 펼친 것이다.

2 브나로드 운동

1931년 5월에 李忠武公 유족보존운동을 시작한 때로부터 두 달뒤 7월부터 고하는<동아일보>를 통해 브나로드 운동을 개시했다. 브나로드(V Narod)는 러시아어로 ‘인민에게로’ 또는 ‘인민 속으로’라는 뜻이다. 1860년대에 제정러시아의 젊은이들은, 특히 대학생들은, 농촌에서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농민들을 동정한 나머지 그들로 하여금 반체제 사상을 갖도록 의식화시켜 결국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일으키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브나로드’라는 구호를 외치며 농촌으로, 농촌으로 발길을 돌렸었다. 그들은 나로드니끄(복수의 경우 나로드니끼) 곧 인민주의자라고 부르거니와, 이 운동은 1870년대에 정점에 도달한다.⁴⁸⁾

고하는 이 운동을 이념적 성격은 희석시킨 형태로 식민지 조선의 농민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즉 당시 조선의 약 2천만 인구 가운데 77.7퍼센트에 가까운 약 1천 6백만에 가까운 문맹자들을 상대로 중학교와 전문학교 이상의 학생들을 움직여 민중 계몽의 전위로서 봉사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고하의 기존 전기에 따르면, “고하의 목적은 글 모르는 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위생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위생 지식을 주고, 그 밖에 음악과 연극과 오락 등을 선전 계몽하여 일깨우자는 데 있었다”⁴⁹⁾

고하는 이미 1928년 4월 1일 <동아일보> 창간 8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문맹퇴치운동을 사전에 예고 선전하면서 곧 이어 대대적으로 전개하려 했었던 장본인이다. 그러나 총독부 경무국의 금지명령으로 말미암아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었는데, 그 이듬해인 1929년 <조선일보>가 ‘아는 것이 힘, 배워야 한다’는 구호를 내걸고 여름방학에 학생들을 움직여 문맹타파운동을 펴게 됨을 보고, 이태 뒤에 브나로드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김윤식이 날카롭게 헤아렸듯이, 두 신문사가 이 시점에서 농민계몽운동에 “열을 올린 직접적 원인은 문맹퇴치에 목표를 둬으로써 신문 판매부수를 올리”려는 데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점 역시 김윤식이 균형있게 지적한 것이지만, 이 운동의 “근본 목표는 민족의 실력 향상이라는, 넓은 뜻의 ‘문화운동’의 일환에 있었던 것이다”⁵⁰⁾

마침 <동아일보> 편집국장 이광수는 철저한 농민계몽론자였던 것이다. 우리가 제6-7장의 이곳저곳에서 이미 보았듯이, 춘원은 자기 나름대로의 무실역행론으로 요약되는 도산의 실력배양론 또는 자강운동론을 수용하고 그 국내적 실천을 다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춘원은 그것을 실천할 기관으로 1922년에 도산이 조직한 흥사단의 국내판이라 할 수 있는 修養同盟會를 조직했고 평양의 同友俱樂部와 합동하여 1926년 1월에 修養同友會를 만들었으며 그

47) 송진우, <평생에 양모하는 鄭圃隱 선생>, 《別乾坤》(1929년 1월), 41쪽

48) 이 점에 대해서는 김학준, 《러시아혁명사》(문학과 지성사, 1979), 46-47쪽

49) 이 운동에 대해서는 <고하 송진우 선생전>, 240-244쪽 및 《동아일보 社史》권1, 335-344쪽. 인용된 부분은 앞의 책, 240쪽에 있다. 문맹률의 수치는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전3권<한길사, 1986>, 제3권, 856쪽에 있다.

50) 김윤식, 앞의 책, 제3권, 858쪽

기관지로 《東光》을 발간했던 것이다. 수양동우회는 1929년에 동우회로 바뀌거니와, 춘원은 이 일련의 운동을 통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자기류의 민족개조운동을 펴고자 했고 그 일환으로 농촌개조운동을 펴고자 했던 것이므로, 브나로드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것이다. 김윤식이, 춘원에게 “민족의 대부분이 농민이고 보면 민족개조란 농촌개조를 그 으뜸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 점에서 <동아일보>와 동우회의 운동방향은 서로 일치하였다. <동아일보>의 이른바 브나로드운동이 그것이다”라고⁵¹⁾ 지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브나로드운동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가 1931년 7월 16일자 <동아일보> 社告 <제1회 학생하기 브나로드운동>이었다. 이에 따라 (1) 중학교 4-5학년생으로 구성된 학생계몽대, (2) 전문학교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강연대, (3) 전문학교 학생과 중학교 상급반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기자대를 농촌의 곳곳으로 보냈다. 학생계몽대원은 1주일 이상의 조선문 강습과 숫자 강습을, 학생 강연대원은 위생 강연과 학술 강연을 각각 맡았으며, 학생기자대원은 기행 일기와 고향 통신과 생활 체험 같은 것들의 투고를 맡았다. 이밖에 계몽별동대를 두어 그 지방의 사회 유지들 가운데 자원하는 이들로 하여금 학생계몽대의 요원과 같은 임무를 맡게 했다. 그리하여 첫 해에는 7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62일 동안 모두 4백 23명이 1백 42개 곳에서 강습회를 벌였다. 제2회 때는 계몽대원의 수가 제1회 때의 그것보다 여섯 배나 늘어난 2천 7백 24명에 이르렀으며, 5백 92개 곳의 강습지에서 4만 1천 5백 13명의 수강생들을 깨우쳤는데, 이 숫자는 제1회 때의 9천 4백 92명에 비해 네 배가 넘는 것이었다.

학생들의 호응도, 농민들의 호응도 예상 밖으로 뜨거워졌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한글 가르치기, 우물-변소 청소 단계에서 벗어나 일반인의 참가, 문화 및 생활개조 운동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보이자”, 총독부 경무국의 감시의 눈은 더욱 커졌다. 여기서 춘원은 “글과 썸 이외에 아무것도 이 운동에 혼합하지 말 것”을 지시하게 되었다.⁵²⁾ 고하의 태도도 마찬가지였다. 이 시점에서 춘원은 《흙》을 <동아일보>에 연재하기 시작했다. 1932년 4월 12일에 시작되어 1933년 7월 10일 끝이 난 이 소설은 브나로드운동 그 자체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씌어진 것이다. “농민의 속으로 가자. 돈이 없으면 없는대로 가자. 가서 가난한 농민이 먹는 것을 먹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입는 것을 입고 그리고 가장 가난한 농민이 사는 집에 살면서, 가난한 농민의 심부름을 하여 주자. 편지도 대신 써주고, 주재소-면소에도 대신 다녀 주고, 그러면서도 글을 가르쳐 주고 소비조합도 만들어 주고 뒷간 부엌 소제도 하여 주고 이렇게 내 일생을 바치자”라는 주인공 許崇 변호사의 부르짖음을 통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농민 속으로 뛰어들도록 유도했던 것이다.⁵³⁾

한편으로는 조선 청소년들의 열정을, 다른 한편으로는 일제의 경계를 불러일으키면서 이 운동은 1935년에 제5회를 맞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는 중-일 전쟁을 이태 앞두고 탄압이 점점 가중되던 시점이었고, 실제로 총독부는 마침내 중지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4년간의 실적은 매우 컸다. 연 일수 2천 7백 36일간에 총 사람수 9만 8천 5백 98명에 이르는 문맹자들에게 글을 가르쳐 준 셈이며, 이 운동에 참가한 총 사람수 5천 71백 51명의 젊은이들에게 은연중에 민족의식을 깊이 심어준 셈이었다.⁵⁴⁾

브나로드운동이 일제의 박해로 중단되었으나 고하는 그 정신을 어떠한 형태로든 잇게 하

51) 위와 같음, 854-855쪽

52) 위와 같음, 857쪽

53) 위와 같음, 860쪽 및 《고하 송진우 선생전》, 241쪽, 《흙》의 문학적 가치와 식민 지배 아래서의 위상에 대한 비판들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흙》이 일제의 식민 지배를 전혀 공격하지 않았고 또 총독부의 농촌 계몽 운동에 호응한 것으로 보는 분석들이 있다는 것만을 지적해 둔다.

54) 《고하 송진우 선생전》, 244쪽

고 싶었다. 이러한 취지에서 <동아일보>는 브나로드 운동이 끝난 그 다음해인 1935년에 창간 15주년으로 맞으면서 ‘조선의 농어-산촌을 배경으로 하는’ 신문 연재소설을 공모했다. 그 결과 沈薰의 《상록수》가 당선되었다. 채영신이라는 여주인공이 농민을 위해 일생을 바치는 과정을 그린 이 소설은, 《흙》과의 내용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브나로드운동적인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⁵⁵⁾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 농촌소설의 원조격과도 같은 《흙》과 《상록수》는 모두 고하와 <동아일보>의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탄생되었다고 할 것이다.

3 한글강습회와 새 철자법의 채용

농민계몽운동과 맥을 같이 한 사업이 한글강습회와 한글 좌담회였다. 1931년 7월 25일자 <동아일보> 社告를 통해 밝혔듯이 “이미 한글을 아는 이로 철자와 문법을 난잡-불규칙하게 쓰는 이에게 바른 철자법과 문법을 주는 것이 조선어의 정당한 발달을 위해서 절대로 필요 [...함에 감하여]” 조선어학회와 손을 잡고 한글 강습회를, 그리고는 그것을 바꾼 한글 좌담회를 차례차례 전국의 여러 곳에서 열었다. 이 모임들을 통해 한글 철자법의 통일을 보자는 것이었다. 이때 조선어학회와 조선어연구회가 서로 날카롭게 대립했는데, <동아일보>는 李熙昇과 崔鉉培 등이 이끄는 조선어학회의 의견을 지지해 주었다. <동아일보>의 이러한 꾸준한 후원 아래 1933년 10월에 조선어학회는 ‘한글 철자법 통일안’을 완성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하는 같은 해 10월 29일 제487주년 한글날에 <동아일보> 임시부록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 20만부를 인쇄해 국내는 물이고 만주와 일본 같은 곳에도 널리 배포했다.⁵⁶⁾

4 민중보건체육의 보급 등등

고하는 또 <동아일보>를 통해 민족혼의 유지와 선양에 연관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벌였다. 1934년 1월에 평안남도 江東 주민들이 그곳에 있는 단군릉을 수축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벌이자 <동아일보>는 힘껏 뒷받침했다. 이것은 “이충무공의 유적보존운동이나 권율원수의 사당인 紀功祠 중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족의 얼을 민중 속에 심기 위한 정신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이었다.”⁵⁷⁾

고하는 또 ‘역센 조선, 굳건한 민족’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민중보건체육의 보급을 위해 힘썼다. 이와 더불어 ‘이 강산, 이 민족’이라는 구호 아래 국토를 사랑하는 운동 같은 것도 떠나갔고, 건전한 신앙심을 갖자고 호소하기도 했다.⁵⁸⁾ 이처럼 ‘조선’과 ‘민족’과 ‘강산’을 강조하는 그로서 1934년에 평양의 崇實전문학교를 중심으로 항일운동의 하나인 신사불참배운동이 일어났을 때 수수방관할 수는 없었다. 그는 <동아일보> 사설을 통해 그 운동을 힘껏 뒷받침했으며, 이 때문에 한때는 고하가 구금되었고 <동아일보>가 폐간되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당시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교수이던 스코필드가 뒷날 “송진우씨는 용감하고 침착하며 의지가 굳은 분입니다”라고 회고했던 까닭이 거기에 있다.⁵⁹⁾

55) 김윤식, 앞의 책, 제3권, 871쪽

56) 《고하 송진우 선생전》, 260-261쪽 및 《동아일보 社史》 권1, 342-346쪽

57) 《동아일보 社史》 권1, 346-347쪽

58) 송진우, 《역센 조선, 굳건한 민족》, 《신동아》 (1934년 3월), 권두언 ; 송진우, <이 강산, 이 민족>, 《신동아》 (1934년 7월), 권두언 ; 송진우, 《불타의 근본정신에 귀의하라》, 《불교》 (1931년 7월), 쪽수 미상.

5 《신동아》와 《신가정》의 창간

앞에서 보았듯이, 주로 국사와 국어를 중심으로 문화운동을 벌여 나가던 고하와 <동아일보>는 1931년 11월 1일에는 월간지 《신동아》를 창간했고, 1933년 1월 1일에는 월간지 《신가정》을 창간했다. 고하는 두 잡지 모두의 사장을 겸했으며 두 잡지 모두에 창간사를 썼다.

《신동아》의 경우, 그는 이 잡지가 “名實이 다 같은 조선 민족의 公器”라고 선언하면서 “조선 민족의 전도의 대경륜을 제시하는 전람회요 토론장이요 醞釀所”가 될 것임을 다짐했다. 《신가정》의 경우, 그는 “세상이 가정주부의 지위와 그 사회적 가치를 잘못 인식하여 남자에 대한 한 개의 종속적 존재로만 말하는 이가 있으나 결코 그렇지 아니합니다”라고 경고하고, 가정주부의 독립된 지위를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조선사회의 새로운 건설’을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아》가 창간될 무렵 조선에는 우리말 성인 월간지 《혜성》과 《동광》과 《삼천리》 등등이 발행되고 있었고, 좌익 색채의 《비판》이 함께 어울리고 있었다. 그 뒤에도 우리말 잡지들이 잇따라 나오고 또 1940년을 전후하여 모두 폐간되는데, 그 많은 잡지들 가운데 “《신동아》는 우리나라 잡지가 본격적인 근대화를 이룩하는 데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잡지는 당시 잡지계의 큰 선봉을 불러일으켰고, 제한된 여건 속에서나마 우리나라 잡지 저널리즘의 수준을 한단계 높여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⁰⁾

고하는 <동아일보>를 스스로 비판해 달라는 한 잡지의 요청을 받고 “너무도 엄숙한 기분에만 편중되어 일종의 교과서 비슷한 감이 있고 흥미 방면이 결여된 듯합니다. 이제부터는 종래의 기분에 흥미를 끝만한 문장이 첨가되고 좀 더 일반 독자가 잘 알아보게 통속화하였으면 더욱 좋지 않을까 합니다”라고 대답했다.⁶¹⁾ 아마도 그러한 취지를 두 잡지를 통해 어느 정도 살리고자 노력하지 않았는가 짐작해 본다. 어쨌든 당시 독자들 사이에 사랑을 받던 《신동아》와 《신가정》은 우리가 곧 살펴게 되는 일장기말소사건으로 <동아일보>가 1936년 8월에 무기정간을 당할 때 그 여파로 정간되고 이어 폐간된다.

6 일장기 말소사건

일제치하의 조선 언론투쟁사를 말할 때 반드시 거론되는 대상들 가운데 하나가 저 유명한 1936년의 일장기 말소사건이다. 이해 8월 베를린에서 열린 제11회 세계 올림픽대회의 마라톤 경기에서 孫基禎이 1위의 영광을 안고 수상대에 서 있는 사진을 보도하면서 손 선수의 가슴에 부착되어 있는 일장기를 지운 사건으로, <조선중앙일보>는 8월 13일자에서, <동아일보>는 8월 25일자에서 각각 그렇게 했는데, 앞의 경우에는 잘 몰라서 그대로 넘어갔던 총독부가 뒤의 경우에는 제 때에 알아차리고 무기 정간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중앙일보>까지 거슬러 올라가 자진휴간하게 하였다가 끝내는 폐간시켰던 것이다.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말소한 경위를 고하의 기존 전기는 이렇게 쓰고 있다.

59) 《고하 송진우 선생전》, 263-264쪽

60) 鄭晋錫, 《한국현대언론사론》(전예원, 1985), 162쪽

61) 송진우, 《흥미와 통속화에 좀 주력하였으면》, 《동광》(1927년 5월), 28쪽

이즈음 일본 <오오사카 마이니찌 (大阪毎日)>신문에서 손기정 우승의 기록영화를 공수하여 공개 상영을 하게 되었다. 공개 상영에 앞서 <동아일보>는 손기정의 풀인 장면의 사진을 지상에 발표하기로 하고 현상을 했다. 사진을 본 체육부 기자 이길용은 사진 담당 白雲善과 제판 담당 姜大奭을 찾았다. “백형, 거 보기 싫다”하고, 이길용은 넌지시 말문을 열었다. “방법이 없지도 않지. 초산만 조금 강하게 치면 되지 뭐” 이길용과 백운선, 강대석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눈을 끔벅했다. 변죽을 치면 복판이 운다는 말이 있거니와 <동아일보>사원들은 변죽을 치면 복판이 울만큼 혼련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초산을 강하게 친 원판이 어수선하게 보이자 도안과 삽화를 담당하던 청전 이상범으로 하여금 보기 싫지 않게 수정을 하였다. 이리하여 8월 24일자 <동아일보> 지상에 실린 손기정의 실황 사진은 그의 유니폼에 달린 일본 국기 표지가 말소 수정되어 발표되어 있었다.⁶²⁾

이길용은 6·25 한국전쟁 때 납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건에 관해 아무런 회고를 남긴 것이 없다. 한편 청전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2층 편집실에서 사환아이가 한 장의 사진을 가지고 왔다. 그 뒤를 이어서 체육부 이길용 기자가 구내전화로 나를 불렀다. 사진의 일장기를 태극기로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것이었다. 좋다고 대답했다. 의자에 앉아 붓을 들었다. 일장기 위에 흰 물감을 칠했다. 그런 다음 종이에 싸서 동판부로 보냈다.⁶³⁾

《동아일보 社史》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이길용 체육부 기자가 조사부 소속 본보 전속화가 이상범 기자에게 일장기 처리를 논의하였는데, 그때 둘이서 그저 빙그레 웃었을 뿐, 별다른 말을 나누지는 않았다. 이십전십내어민 자도 받은 자도 서로의 의사가 소통되었던 것이다.⁶⁴⁾

《동아일보 社史》는 또 “그 당시 손기정 선수의 마라톤 세계 제패는 이겨본 일이 적은 우리 민족을 흥분케 했고, 이 승리의 영광을 우리의 것으로 가지지 못하고 일본의 것으로 주기에는 너무나 분통이 터지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런 민족의 아픈 가슴을 달래기 위하여 민족대변지를 자임해 온 본보 <동아일보>가 그냥 무심히 넘길 수 없었던 것은 누구의 지시도 아니요 명령도 아닌 거의 자연발생적인 본보의 체질에서 우러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 겨레의 기쁨은 컸다. 그러자 총독부는 8월 26일 <동아일보>에 제4차 무기정간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진부의 백운선과 서용호와 사진과장 申樂均, 그 사진을 실은 편집부의 張龍瑞와 林炳哲, 화가 이상범, 체육부의 이길용, 그리고 사회부장 소설가 憑虛 玄鎮健 등등을, 이어 문체의 동판을 《신동아》가 실었다 하여 잡지부장 최승만과 사진부의 宋德洙를 추가로 연행했다. 이 가운데 임병철과 송덕수를 빼놓은 나머지 8명을 구속해 40일 동안 심하게 문초를 한 뒤, 《동아일보社史》의 표현으로는 “총독부가 문안을 작성한 소위 서약서

62) 《고하 송진우 선생전》, 267-268쪽

63) 이상범, 앞의 글, 224쪽

64) 《동아일보 社史》 권1, 364-365쪽

를 제출하는 일로” 일단 사건을 매듭지었다. 이와 동시에, 이 사건의 직접 책임자로 인정된 이길용, 현진건, 최승만, 신낙균, 서영호 등 다섯 기자는 앞으로 언론기관에 아주 참여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9월 25일에 <동아일보>로부터 사직되었다. 주필 김준연과 편집국장 설의식은 8월 28일자로 이미 해임되어 있었다. 낭산 김준연은 우리가 제7장 제4절에서 보았듯이 <동아일보> 편집국장 당시 제3차 조선공산당 사건으로 구속되어 1934년 7년만에 만기출옥하여 잠시 쉬다가 다시 <동아일보> 주필에 복귀했었다. 이러한 경력의 김준연을 주필이라는 요직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일제가 힐문하자, 고하의 기존 전기에 따르면, 고하는 “그것은 우리 동아일보사가 그대들을 위해서 한 것이나 다름없소. 만일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직장을 주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그를 등용할 리는 만무하니 그때에는 낭산은 부득이 상하이나 다른 곳으로 망명하게 될 것이 아니오? 그렇게 되면 낭산은 일본에 던질 폭탄을 만들게 될 것인데, 낭산은 전부터 <동아>에 있던 사람이고 해서 다시 돌아온 것이니 거기에 대해 너무 성가시게 굴지 마시오”라는 이른바 폭탄문답으로 입을 막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다. 여기에 덧붙여, 고하는 11월 11일자로 해임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동아일보>는 지배인 겸 영업국장 梁源模를 전무 취체역으로 선임해 사장직무를 대리하게 하였다.⁶⁵⁾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정진석 교수는 그 의미를 이렇게 총괄했다.

1930년대에 있었던 민족지의 친일 죄악상도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고, 민족 언론과 거기에 종사했던 언론인들이 이 시기에 있어서는 결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1936년 8월 손기정 선수의 베를린 올림픽 우승을 보도하면서 <동아일보>와 <조선중앙일보>가 보여준 자세는 친일강요기에 있어서도 민족 언론의 양심과 저항정신이 아주 죽지는 않았음을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⁶⁶⁾

사장직에서 물러나긴 했으나 사태 수습의 일을 수행해야 할 주역은 역시 고하일 수 밖에 없었다. 그는 총독부와의 절충을 계속하면서 일본 중앙 정계와도 접촉했다. 도쿄에는 조선 총독부의 고관을 지낸 이들이 조선중앙협의회를 구성하고 조선문제의 자문에 응하고 있었다. 그는 이들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사람을 통해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한 기자의 독단으로 저질렀다는 것이 조사에 의해 분명해진 일을 놓고 정간을 오래 끌고 가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움직인 조선중앙협의회쪽에서는 “정간이 길어지면 민족감정을 자극한다”면서 일본 정부에게 해제를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동아일보사에 대해서는 제호를 고치라고 권유해왔다. 일부에서는 거기에 발맞춰 <극동일보>로 개제하자는 쪽도 있었으나, 고하는 “제호를 고치는 것과 정간을 해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동아일보>가 <동아일보>인 것은 <동아일보>라는 이름 때문인데, 그 이름을 버린다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같다”고 완강히 거절했다.

그러자 총독부는 전라북도 지사를 지냈으며 그때 중추원 참의로 있던 高元勳을 사장으로, 한때 공산주의자였으나 전향해 총독부와 가까이 지내는 언론인 출신의 辛日鎔을 편집국장으로 받아들일 것을 종용했다. 고하는 인촌과 더불어, 차라리 해산할지언정 총독부가 미는 사람들에게 <동아일보>를 넘겨줄 수 없다고 버티었다. 그 대신에 ‘금후부터 일층 근신하여 다시는 그와 같은 불상사를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면을 쇠신하고 대일본제국의 언론기관으로서 공정한 사명을 다하여 써 조선 통치의 翼贊을 기하려 하오니’⁶⁷⁾

65) 《동아일보 社史》 권1, 365-367쪽

66) 정진석, 《한국언론사 연구》(일조각, 1983), 118-119쪽

운운의 社告에 나타난 바와 같은 협력 약속의 태도를 외면적으로 보였다. 이리하여 <동아일보>는 아홉달이 넘는 기록적인 장기 정간을 겪고 1937년 6월 3일자 석간부터 속간을 보게 되었다. 사장으로는 일찍이 내소사에서 고하와 인촌과 함께 평생의 우정을 다짐했던 근촌 백관수가 취임했는데, 근촌은 주필과 편집국장까지 겸했다. 고하는 고문직을 맡고 제2선으로 물러섰다.⁶⁸⁾

7 어둠의 시대의 고하의 <동아일보> 생활

어둠의 시대에 사장으로 또는 고문으로 <동아일보>를 끌고 나가는 고하에게는 내면적으로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이때의 한 월간지가 평했듯이, 고하가 민족주의자로서의 ‘신망’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것이 <동아일보>로서는 무형의 힘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아일보사 간부가 목수하는 이 경향은 최근 격동하는 세계의 사조와 보조가 맞추어져가는가 함을 일부 급진층들은 우려한다. 같은 민족주의면서 너무 보수적이 아닌가 한다. 지면에도 近日에는 昔日의 생기를 잃는 듯한 감이 불무하다”는 매우 완곡한 비판에서 엿보이듯이,⁶⁹⁾ 어떤 계층들로부터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이러한 비판은 <동아일보>가 속간된 때로부터 한 달 뒤인 1937년 7월 7일에 일본이 중국과의 전쟁을 도발한 이후의 시기에 더욱 높아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국내의 “그 존속을 당국에 인정받기 위한 대가로서 그 논조나 지면부터 총독부에 대한 비판을 거의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아니, “오히려 총독부에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⁷⁰⁾ “1938년 2월에도 총독부의 압력으로 朝鮮春秋會라는 어용단체를 만들어 모든 신문사를 여기에 가입케 하여 본사도 별 수 없이 가입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다시 2월 10일자부터 제호 背面的 한반도와 무궁화 그림을 삭제토록 강제하기에 이르렀다”고 《동아일보 社史》가 스스로 말하듯이, 총독부가 하자는대로, 따라가던 시기였다. 이렇게 볼 때, 일-중전쟁이 도발한 시기로부터 폐간되는 1940년까지는 “한국 언론사에서 지워질 수 없는 모욕과 모멸의 시대라고 봐야 할 것”이라는⁷¹⁾ 지적이 지나치지 않다고 하겠는데, 그렇다면 고하에게도 부담이 작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물론 그의 내심에서는 분노가 끓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중-일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미구에 다시 한번 세계대전은 나고야 말어. 이 사건이 영-미와 충돌할 시발점이 될 것 같애, 이제야 말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때가 왔어”라고 주변을 타 이르면서, 그의 기존 전기의 표현으로는, “큰 잔에 넘치는 술을 단숨에 마시고 난 뒤 <詩欲驚人恒固癖(시는 사람을 놀라게 하려고 항상 고집하는 버릇이 있으나) 酒雖病更多情(술은 아무리 나를 병들게 하여도 다시 다정하구나)하는 자작 한시를 읊었다” 그뿐 아니라, 역시 그의 기존 전기에 따르면, 그는 “간혹 옆에 앉은 친구를 부등켜 안고 그 살을 물어 뜯을 때도 있었다. 물어 뜯기운 친구는 뒷날 그 날을 회상하고 含情未吐의 경지라고 하였지만, 그 심경이야말로 고하가 태어나서부터 쌓이고 쌓인 한-뼈저리게 겪은 망국민의 설움과 치욕, 울분 등을 한꺼번에 폭발시키는 순간이었다”⁷²⁾

67) 최민지-김민주, 앞의 책, 223쪽

68) 《동아일보 社史》 권1, 372-374쪽

69) 《동아일보의 금일의 코스》, 《삼천리》(1936년 10월), 쪽수 미상.

70) 최민지-김민주, 앞의 책, 177쪽

71) 위와 같음, 225쪽

72) 《고하 송진우 선생전》, 270-271쪽

시국에 대한 울분이 쌓이건만 그렇다고 터뜨릴 수도 없었다. 일제에 순종하여 ‘민족개조 운동’을 떠던 이광수와 주요한 등이 이끌던 수양동우회와 같은 단체도 불법화시키고 그 지도자들을 투옥하던 세상이었다. 이러한 제약된 상황에서, 그로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주변 사람이 타락하지 않도록 타이르거나 어려운 동지들을 돌보는, 말하자면 美談의이거나 逸話的인 것에 머물렀다. 예컨대, 아끼는 후배들이 이제는 완전히 일제의 세상이 된 것으로 절망해 만주국으로 가서 벼슬을 얻어 하려 하면 “옆 집 화재난 데 가서 튀밥을 주워서 안 되오”라는 말로 충고했다.⁷³⁾ 윤치호와 같은 선배가 친일단체 토요회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비판해 주었다. 윤치호가 자신의 일기에서 “송진우 같은 이는 내가 토요회와 같은 모임에 관여하는 것에 반대한다. 물론 나도 그런 회의 멤버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⁷⁴⁾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고하의 진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는 명백해진다. 또 다른 예로, 1938년 3월 10일 도산이 병보석으로 경성대학병원에 입원중에 죽었을 때, 극도로 경계하는 일경의 간섭에 패념하지 않은 채, 장례비를 염출하고 손수 비용을 들여 위당의 글씨로 ‘島山安昌浩之墓’라고 새긴 비석을 건립하여 망우리 묘지에 세우기도 했다.⁷⁵⁾ 도산은 윤봉길 의사의 의거 직후 조선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이려는 일제의 광분에 의해 상하이에서 사로잡혀 본국으로 압송되어 형무소 생활을 하다가 간경화증으로 치료 받았으나 결국 순사한 것이다. 또는 시국에 답답해 하는 동지들에게 그래도 말이나마 시원하게 해 한가닥 희망을 갖게 해주었다. 그래서 인촌으로부터 ‘한약 六味湯과 같은 시원한 소식을 전해 주는 고하’라는 평을 들었고, 이때로부터 육미탕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⁷⁶⁾

여기서 잠시 <동아일보> 사장으로서의 고하의 생활에 얽힌 일화들을 모아 본다. 이것들이 이 章의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고하의 한 인간적 측면을 보여 주기 때문이다.

고하는 <동아일보>에 자신의 모든 시간을 바친, 매우 부지런한 이었다. 1933년의 어느 글에서 <동아일보>의 한 기자는 이렇게 관찰했다.

나는 그전에 송진우씨라면 그저 고집투성이 독재자로만 알았더니 이번 <동아일보>에 입사를 하여 보니까 아주 말과는 판판입니다. 그야 신문 제작에 대하여서는 모든 점을 통솔하는 관계상 자연 독재적으로 나가는 점도 없지 않지만 아침 아홉시면 벌써 출사하여 다른 사원이 거진 다 나간 오후 여섯~일곱시까지 편집국에서 혼자 떡 버티고 앉아서 새로 찍혀 나온 신문을 글자 한 자 빼어 놓지 않고 살살이 주워 읽는 열성에는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까닭에 글자 한 자라도 잘못 쓸래야 잘못 쓸 수가 있어야지요. 역시 송진우씨는 부지런한 일꾼입니다.⁷⁷⁾

이 짧은 글에도 엿보이듯이, 고하는 <동아일보> 안에서는 과연 ‘독재자’였던 것 같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관념을 부하 직원들에게 따르도록 했던 것 같다. 이와 관련하여, 고하의 중앙학교 제자로 도쿄제대 독일 문학과를 졸업하고 고하의 권유를 받아들여 <동아일보>에 입사한 연극인 徐恒錫은 뒷날 이러한 회고를 남겼다. 1931년에 극예술연구회를 창립했던 그가 <동아일보> 학예부장이던 시절인 1936년에 연극 춘향전에 求禮 현감역으로 잠시 나

73) 위와 같음, 272쪽

74) 柳永烈, 《개화기의 윤치호 연구》(한길사, 1985), 248쪽

75) 위와 같음, 275쪽

76) 위와 같음, 271쪽

77) <소문의 소문 송사장과 독재자>, 《호외》(1933년 12월호), 쪽수 미상.

갔던 때의 일과 관련해서이다.

그날은 아침부터 서둘러서 학예면 편집을 일찍 끝내 놓고 살짝 빠져서 부민관으로 갔다. 그날이 마침 내가 사설을 쓰는 날이어서, 사장 송진우 선생님은 사설 제목을 알려고 나를 찾으셨는데, 몇번을 찾아도 내가 자리에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무슨 일이 생겼는가 싶어서 캐물은 끝에 나의 출연의 비밀이 드러나고 말았다. 이런 줄도 모르고, 나는 출연이 끝나는대로 바빠 社에 돌아와, 미리 준비한 사설을 공장에 내보내 놓고,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사장이 성난 목소리로 “사설을 썼느냐?”고 하시기에 공장에 내보낸 원고를 가져다 보여드렸더니 사설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는지 조금 누그러지신 듯 하였지만, 역시 노기를 품고 “어디 갔었냐?”고 물으시는 것이었다. 나는 以實直告했다. 사장은 대뜸 “군은 <동아일보>의 학예부장이야. 체면을 생각해야지. 얼굴에 환칠을 하고 광대노릇을 하다니!” 하셨다. 노기에 찬 목소리였다. 우리의 선각자이신 고하 선생님도 배우를 천시하는 전근대적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것인가 하여 슬펐다. 적이 저항을 느낀 나는 “예, <동아일보>의 학예부장이기에 얼굴에 환칠을 하고 나섰습니다”고 했다. 좀 불손한 대답이 되기는 했지만 내말은 “배우를 천시하는 구습을 하루 속히 혁신하기 위해서는 <동아일보> 학예부장 같은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하는 뜻이었다. 사장은 격한 어조로 “그것이 그렇게 좋으면 <동아일보>는 그만둬야지” 하시는 것이었다. 양자택일의 궁지에 빠진 나는 서슴지 않고 사표를 써서 사장 앞에 냈다. 사장은 의외란 듯이 나를 몇 번이고 바라보시다가 나의 의연한 자세에 도리어 노기가 풀리셨는지 사표를 도로 주시면서 “이러라는 것은 아니고” 거듭 “이러라는 것은 아니고” 하셨다. 이리하여 돌풍은 지나갔다.⁷⁸⁾

‘독재자’인 듯하지만, 고하는 동료 직원들에게 따뜻했던 것 같다. 청전은 술값을 갚아주던 고하의 일화를 이렇게 회고했다.

지금도 그때 출신들에게는 유명한 사건처럼 유포되고 있는 일이지만 빙허 현진건과 나는 어느 날 단 둘이 대작, 하루 종일 마신 적이 있었다. 아침에 썸을 해야했는데 그의 호주머니에도 내 호주머니에도 일전 한푼이 없었다. 할 수 없이 빙허가 고하 사장에게 전화를 했다. 돈을 가지고 와서 두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는 것이었다. 고하는 물론 우리들을 20여원을 주고 찾아 가기는 했지만 그 덕에 우리는 신문사의 화제감이 되어 톱톡이 망신을 당했다.

[...] 樹州 下榮魯는 그때 정치부 기자로 있으면서 [시국에 대한 울분 때문에...] 날마다 술이었다. [...] 그는 어느날 廉想涉 등의 文友 몇 명과 같이 술을 마실 돈이 없어서 고하에게 원고로 갚을 테니 선불 좀 해달라고 편지를 써서 보냈다. 고하는 선뜻 일금 몇 10원을 심부름 온 아이에게 보냈다. 그분들은 그 돈으로 교외로 나가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었는지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내리는 비라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다. 흠뻑 비에 젖은 꼴로 술타령을 계속, 술이 얼근히 취해 왔을 때는 젖은 옷이 성가서 벗어버렸다. 한껏 시원했다. 찬비가 몸에 닿는 쾌감도 그만이려니와 대낮에 중인환 시속에 알몸이 되었다는 사실도 예사 기분이 아니었다. 도도하게 주홍이 올라온 그들은 마침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는 망아지를 발견하고, 그 망아지를 타고 서울 입성을

78) 서항석, <사령 써놓고 입사 기다리던 동아>, 한국신문연구소(편), 앞의 책, 163·164쪽

기도했다. 그들의 입성이 중도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았음은 물론이다.⁷⁹⁾

술값도 잘 주었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과 쉽게 어울려 지내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A사원이 설령탕을 먹으면 자기도 설령탕을 급사더러 시키라고 해놓고 또 다른 B사원이 모리를 시키면 먼저 시킨 설령탕은 잊어버리고서 모리를 시키라고 했다”는 일화가 그 점을 말해 준다고 하겠다.⁸⁰⁾

제 5 절 <동아일보>의 폐간과 고하의 은둔

1 <동아일보>의 폐간

총독부의 방침에 대한 순종적인 자세에도 불구하고 일제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폐간을 음모하고 있었다. 1939년 9월에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일제는 그 전쟁이 아시아에도 확대될 것을 예견하는 가운데 전쟁확대체제를 갖추기 위한 일환으로 조선민족말살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이른바 양대 민족지마저 없애려고 한 것이다.

그 움직임은, <동아일보>의 경우, 1939년 11월 하순부터 자진폐간을 종용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회사간부들이 완강히 버티자, 1940년 1월 15일에는 근촌과 고하를 불러 일본의 건국기념일이라는 紀元節 2월 11일에 <조선일보>와 함께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로 모두 합치라고 종용했다. 동아일보는 반대투쟁할 것을 다짐하며 굴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태가 심상하지 않음을 직감한 고하는 그해 1월 하순 극비리에 도쿄를 방문해 앞에서 소개한 조선중앙협의회회의 간부를 비롯해 우익 계열의 요인들을 접촉하면서 강제폐간을 획책하는 총독부 처사에 항의하면서 본국정부가 시정해 줄 것을 호소했다. 고하의 이러한 노력이 효과를 본 덕인지, 일단 2월 11일 기한부 폐간은 넘기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는 4월 상순 귀국했다.⁸¹⁾

그러나 그 유예는 오래가지 않았다. 악귀와 같은 총독부는 1940년 6월 초와 7월 사이에 ‘신문지 파지의 임의처분’을 트집잡기도 하고, 사옥 증축기금 조성을 위한 고하 명의 예금을 문제 삼기도 하며, 동아일보사가 인촌이 인수해 키우고 있는 보성전문학교에 유타자금 2만 원을 대여한 것을 문제 삼기도 하면서 회사 간부들을 종로경찰서로 구속해 갔다. 고하는 다시 한번 도쿄로 건너가 중앙 정계의 요인들을 움직이려 했으나 이미 거기서도 폐간의 방침이 굳어져 있음을 확인한 채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다. 총독부는 고하가 부산에 내리자마자 예비검속 명목으로 연행 구속했다. 이어 사장 백관수도 종로경찰서로 구속했다. 간부들에 대한 ‘심한 문초’가 열흘 이상 계속되었다. 이에 보다 못한 고하가 “너희의 진의를 말해 달라”고 묻자, 종로경찰서에서는 “사실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이렇게 다루는 것인데, <동아일보>를 자진폐간하기만 하면 만사는 해결된다”고 대답하면서 속셈을 털어놓았다. 이리하여 종로경찰서 사찰과장실에서 이른바 중역회의가 열렸고 결국 폐간계를 내게 되었으며, 동아일보는 7월 26일 다시 중역회의를 열어 이를 추진함으로써 폐간이 확정되었다. 악마는 포식을 끝낸 뒤, 고하와 인촌을 비롯한 간부 7명을 8월 초와 9월 초 사이에 석방하면서 퍼

79) 이상범, 앞의 글, 222-225쪽

80) <동아일보 사장 송진우씨 面影>, 《혜성》 제1권 제1호 (1931년 3월), 쪽수 미상.

81) 《동아일보 社史》 권1, 382-384쪽

폐간일자를 8월 10로 잡아 자진 폐간의 형식으로 문을 닫도록 하되, 그때까지는 세상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1940년 8월 10일 마침내 <동아일보>는 폐간됐다. 같은 날 <조선일보>도 문을 닫았다.⁸²⁾ 이로써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하나가 남은 것이다.

동아일보사는 한 달 위인 9월 10일 고하를 대표청산인으로 하는 청산위원회를 구성해 잔무를 정리했다. 청산 사무는 순조롭게 해결되었다. 이 과정에서 고하는 오래 근속한 사원들과 지국장들과 주주들에게 성의를 다했다. 청산 배당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던 주주들은 경영자로서의 고하를 다시 한번 높이 평가하게 되었다. <동아일보>가 폐간되고 회사가 청산됐다고 해서 20년 역사를 거기서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재기의 날을 기약하고 사옥만을 계속 유지하기로 방침을 정해 1942년 11월 부동산 곧 사옥의 임대차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사업을 경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변경신청을 총독부에 제출했다. 내인가가 나오에 1943년 1월 16일 임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東本社를 정식으로 발족시켰다. 동본사의 간판을 동아일보사 사옥에 내걸고 그 3층 한쪽 구석방을 사무소로 정했다. 고하는 동본사의 사장으로 선출되었다.⁸³⁾ 그는 자신의 사무실이기도 한 3층의 그 구석방을 국민당 정부의 피난 수도인 중칭에 비유하는 여유를 잊지 않았다. 좀 넓은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유를 받을 때마다 “나는 지금 중칭에 천도중이야”라는 우스개 소리로 좌중의 폭소를 자아내기를 잊지 않았다.

2 고하의 은둔

고하는 동아일보사의 맥을 놓치지 않고자 동본사의 사장을 맡았으나 사실에 있어서는 은둔의 생활로 들어간 셈이었다. 우리가 앞 章들의 여러 곳들에서 보았듯이, 그는 일찍이 일제의 대륙 침략의 야욕을 읽고 그 야욕으로 말미암은 전쟁의 도발이 일제의 패망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을 지녔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예컨대, 1930년의 글에서 “현재 조선 사람에게 [정치적 활동] 이 없는 것은 일시의 변태현상이요 멀지 않은 장래에 꼭 나타날 줄 믿습니다”라고⁸⁴⁾ 대답했었다. 또 조선 사람들이 정치적 활동을 벌일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그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었다. 예컨대, 평론가 黃錫雨는 1930년대 조선의 인물로 8인을 분야별로 꼽으면서 ‘정객’으로는 단연 고하를 지적하고 “씨는 이론가는 아니다. 그는 모략이 총횡한 가장 활동적인 정객이다. 조선 안의 인물로서 정치가로서의 그럴듯한 소질이 제일 풍부한 인물은 송씨일 것이다. 그는 조선 안의 젊은 인물로서는 벌써 정치가로서 급제점 이상을 돌파한 인물이다”라고 평했던 것이다.⁸⁵⁾ 그러나 그가 기대하던 시대는 오지 않았으며 오히려 어둠만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몇가지 탄압-착취 조처들에 대해서는 1절에서 이미 말했거니와, 그밖에도 1941년 2월 12일에는 조선사람들을 더욱 쉽게 잡아가기 위해 조선사상범 예비구금령을 공포했고 1942년 11월에는 조선어 학회사건 같은 것을 일으켜 한글 연구자들의 씨를 말리려고까지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가로서 급제점 이상을 돌파한 인물’로 평가되던 고하도 휘둘러져 마음먹지 않은 이상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

물론 그를 일제의 정치로 끌어내려는 회유는 계속되었다. 총독부에서는 경무국장을 시켜

82) 위와 같음, 384-391쪽

83) 위와 같음, 392-394쪽 및 《고하 송진우 선생전》, 282-283쪽

84) 송진우, <정치방면>, 《별건곤》 제5권 제10호 (1930년 11월), 4쪽

85) 黃錫雨, (나의 8인觀, 《삼천리》 제14권 제4호 총25호 (1932년 4월), 쪽수 미상.

“시국도 중대해졌으니 한 번 나오셔서 민중을 지도하고 협력해 주셔야 하겠오”하고 종용하기도 했다. 1940년 10월에 이른바 국민총력연맹이라는 국민동원조직을 발족시킨 뒤에는 여기에 협조하라는 압력이 가중되었다. 그래도 응종하지 않자, 고하의 기존 전기에 따르면, 이번에는 “사업 경영의 수완과 경험이 많으니 큰 국책회사의 사장이 되어 달라든가, 외곽단체의 책임자가 되어 달라는 등 갖은 유혹과 압력으로써 올라미를 씌우려고 온갖 방법을 다했다”⁸⁶⁾ 고하는 능력도 없을 뿐아니라 건강이 극히 좋지 않다는 이유로 언제나 거부했다. 이미 1930년대에 도지사 제의를 단호히 거부했던 그가 이제 무엇을 바라고 민족을 배신할 것인가. 그는 이 시기에 재야의 몸임을 확실히 함으로써 일제에의 협력이라는 오욕을 기록에 남기지 않을 수 있었다. 정말 그는 이 어두웠던 知性的 燈火管制 시대에 한 차례도 친일적 모임에서 강연하거나 친일적 글을 쓴 일이 없다. 아니 아예 절언절필로 일관했다.

부일을 거부하는 민족 지도자들에 대한 일제의 감시는 점점 숨이 막힐 정도로 각박해졌다. 자신의 몸 하나 지키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도 고하는 가까운 친구들의 안부를 잊지 않았다. 1941년 1월 일본에서 도조히데기(東條英機) 내각이 들어선 직후의 일이다. 말하자면 일본이 군부 가운데서도 극우 강경파를 내세워 앞뒤를 가리지 않고 무모한 전쟁확대노선으로 치달리려고 할 때였다. 당시 변호사 활동으로 민족운동을 돕던 愛山 李仁은 고하의 사려 깊고 따뜻한 마음 씀씀이를 뒷날 이렇게 회고했다.

[...] 바람이 쌀쌀한 아침이었다. 고하 송진우가 淸進洞 나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이제는 동저고리바람으로 나왔네. 애산도 몸 조심하소” 하고 밀도 끝도 없는 말을 한다. 그는 <동아일보>가 폐간당한 뒤에도 잔무처리를 위해서 며칠만큼씩 苑西洞 자택에서 光化門通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이날도 회사 가던 길에 나한테 들른 것이다. 나는 몸조심하라는 말은 이미 짐작하는 바이나 동저고리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래서 “고하, 그게 무슨 말이요” 했더니, 그는 “그것도 몰라, 호외 못보았소” 한다. 호외라면 일본의 내각 개조밖에 더 있는가, 고하는 넋지시 언사를 낮추어 “도조가 동저고리란 말이요” 한다. 나는 그제서야 고하의 말 뜻을 알았다. 당시는 일본제국주의가 단말마와 같은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었는데 도조가 내각 총리대신이 된 것도 그런 사정의 한 나타남이다. 속담에 ‘급하면 두루마기도 안입고 동저고리바람으로 뛰어 나간다’는 식이 될 것 아니냐는 解得인 것이다. 내 앞에 책상을 나란히 하고 앉아 있던 가인 김병로가 “그런 말 조심하게”하니 고하는 웃으면서 “무슨 말인지 누가 아나” 했다.⁸⁷⁾

어느 상황에서나 강경파나 극단적 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면 그 사실 자체가 그 세력이 궁지에 몰려 있음을 의미한다. 도조의 등장은 일본 군국주의가 끝장에 와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그가 등장한 이후 일본제국주의가 파멸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파멸할 때에는 대규모의 ‘동반자살’을 획책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즉 무모한 정책을 계속해서 수행함으로써 무고한 백성들을 희생시키게 된다는 뜻이다. 또 협조하지 않는 세력을 더더욱 박해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학살하기조차 한다는 뜻이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고 일제가 곳곳에 밀리면서 조선의 지도층에 대한 감시와 박해의 손길은 아주 험해졌다. 1945년에 들어와서는 고하의 경우에도 집 주변에는 밀짚모자를 쓰고 배회하는 감시원이 떠날 줄을 몰랐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한번, 사흘에

86) 《고하 송진우 선생전》, 288쪽

87) 이인, 《반세기의 증언》(명지대학 출판부, 1974), 123쪽

한번 정도로 찾아오던 형사가 이제는 하루에도 두세 차례나 찾아 왔다.

그럴수록 고하는 머리맡에 약병들을 늘어놓고 칭병하며 칩거했다. 즐기지 않는 담배를 피워 물고 누워서 귀찮다는 듯이 담배 연기만 내뿜었다. 그렇지 않으면, 종일 山亭이라고 부른 별채의 침실에 홀로 앉아서 골패를 만지면서 소일했다. 살림은 더욱 궁색해졌다. 영양실조로 얼굴이 파리해지고 늙어 보였다. 그러나 일제의 패망이 임박하고 있음을 알아챌 수 있었고 그 나름의 기대를 가질 수 있었다.⁸⁸⁾

88) 《고하 송진우 선생전》, 292-293쪽. 고하의 칭병에 대해서는 다음의 증언이 있다. 李相敦, <눈부신 정치 공작, 쓰러진 거목 : 송진우>, 《신동아》(1977년 8월), 121-122쪽

제9장 미군진주 이전 해방정국 1개월의 고하

제1절 연합국의 한반도 구상과 고하의 注視

1 국제동향을 파악하다

은둔과 칩거 속에, 때로는 청병으로, 때로는 명백한 거절로 일제의 감시와 회유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도 고하는 전황의 전개를 파악하고 민심의 동향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길은 여러 갈래였다. 우선 동본사 사장이라는 지위를 활용해 전국에 흩어진 동지들과 <동아일보>의 前사원들을 찾아다니며 세간의 풍설을 듣기도 했다. 때로는 경기도 蓮川郡 全谷의 인촌 농장에 관리인으로 피신해 있는 낭산 김준연을 찾기도 했고, 때로는 경기도 楊州郡 蘆海面 倉洞, 곧 오늘날 서울특별시 蘆原區 倉洞에 1930년대초부터 줄곧 은거해 있는 가인 김병로와 그리고 위당 정인보와 止軒 張鉉重 등등의 가까운 친구들을 찾아 시국을 논하기도 하고 정보를 교환하기도 했다.¹⁾

또 하나의,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갈래는 외국 소식을 접하고 있던 이들로부터의 은밀한 정보 제공이었다. 예컨대, <동아일보> 폐간 뒤 광산에 종사하면서 몰래 단파 라디오 방송을 듣던 전 편집국장 설의식은 스스로도 총독부의 要시찰인으로 지목되어 있는데도 여러 방법을 통해 국제정세의 동향을 알려 왔다. 그 가운데 하나가 1943년 11월 27일에 발표된 카이로선언이었다. 조선의 독립을 연합국들이 처음으로 약속한 이 선언의 귀중한 소식이 고하에게 전달된 과정을 《고하 송진우 선생전》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이것은 당시 짙막한 정보조차 그 교환이 얼마나 어려웠던가를 잘 말해 주기도 한다.

전쟁은 가을에 접어들면서 더욱 급변의 도를 가했다. 이 무렵 고하는 동본사 사원 金載重의 방문을 받았다. 김재중은 동본사의 사무 연락도 겸하여 小樁 설의식의 심부름으로 고하를 찾았다. 소오가 고하를 직접 찾지 못한 것은 고하가 요시찰인이었고, 또한 소오 자신도 요시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피차의 신변을 염려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고하를 찾을 수 있는 김재중을 택해 고하에게 백삼을 전하게 한 것이다. 김재중이 물러가자 약속이나 한 듯이 고하에게 소오의 전화가 걸려왔다. “요새 선생님 건강이 좋지 않으시다기에 인삼을 몇 뿌리 보냈습니다. 큰 것부터 잡주세요” 고하는 소오의 전화가 꼭 곡절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인삼 중에서 제일 큰 것부터 골라서 부러뜨려 보았다. 예기한대로 얇은 종이쪽지가 들어 있었다. 쪽지에는 깨알같은 글씨가 잔뜩 쓰여져 있었다. 고하는 돋보기를 쓰고 본즉, 단파 라디오로 얻어들은 연합국측 카이로회담 등의 내용이었다.²⁾

설의식말고도, 1945년 5월 나치 도이취가 연합국들에게 무조건 항복한 때를 앞뒤해서는 일본 외무성 사무관으로 있던 張徹壽가 고하를 찾았다. 장철수는 도쿄대학 정치학과 출신으로, 조선 사람으로는 유일하게 일본외무고시에 합격하여 주 벨지엄부영사와 주 아르헨티나

1) 고하송진우전기편찬위원회(편), 《고하 송진우 선생전》(동아일보사 출판국, 1965) 286-287쪽. 이 책은 앞으로 《고하 송진우 선생전》으로 표기한다. 이 무렵 가인의 창동 생활에 대해서는 김학준, 《가인 김병로 평전 : 민족주의적 법률가-정치가의 생애》(민음사, 1988), 235-247쪽

2) 《고하 송진우 선생전》, 290-291쪽

부영사로 근무했기에 해외 사정에 밝을 수 있었다. 현직 일본 외교관인 장철수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요시찰인으로 지목되어 있는 고하를 방문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고하의 기존 전기는 밝히지 않고 있다. 그저 “장철수는 전부터 고하와는 서로 아는 사이였다”라고만 쓰고 있다.

장철수는 미국의 유력한 정치가인 윌키 (Wendell Willkie; 1892~1944)가 쓴 책과 《하나의 세계 (One World)》를 고하에게 주면서 읽기를 권했다. 윌키는 변호사로서 1940년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공천을 받아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대통령과 싸워 비록 패배하기는 했으나 무려 2천 2백여만표를 받아 역대 공화당 후보로서는 최대의 득표를 과시했던 보수적 정치가였다. 그는 일제가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기 오래 전부터 일제의 침략 근성을 규탄하면서 미국이 세계평화를 위해 연합국들을 힘껏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고, 전쟁이 일어난 뒤에는 소련과 중국을 방문하면서 연합국의 공동 노력을 독려했다. 이때의 견문을 바탕으로 1943년에 펴낸 책이 바로 《하나의 세계》로, 이 책을 통해 그는 연합국의 필승을 예언하면서 미국과 소련으로 각각 상징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평화공존을 제창했으며 또 2차대전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국제협력의 기구를 탄생시켜야 한다고 제의했다. 《고하 송진우 선생전》은 “이 책에서 고하는 얻은 바 컸다”고 말하고 있다.³⁾ 장철수는 이 책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카이로선언으로부터 알타협정에 이르기까지의 세계정세와 중전 이후의 전망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전세가 일본에게 더욱 악화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되면서, 이제는 고하 뿐만 아니라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이면 바깥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히 일제의 패망이 임박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 정보가 좀 더 밝은 지도적 인사들은 일제가 패망하고 나면 카이로선언에 따라 조선이 독립하리라는 기대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운명이 연합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있으며 어떻게 결정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바깥에서 싸우던 독립지사들도, 더더구나 안에서 일제의 강포한 탄압과 박해라는 현실에 구애 집착하여 한숨만 짓는 절망과와 그리고 민족의 장래에 대해 무한한 희망과 이념을 갖고 나가는 투사파는 물론, “이승만박사가 곧 미국 군함을 몰고 인천 항구로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던 환상파에 이르기까지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김윤식 교수가 적절히 지적했듯이, 민족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들조차 ‘침맹과니’였던 것이다.⁴⁾

2 연합국 전시회담에서의 한반도

일제가 패망하면 조선은 즉각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얻으리라는 기대에 어긋나게 연합국들은 한반도에 대해 단계적인 독립의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다. 일제 패망 이후의 조선의 장래에 대한 조선민족의 기대와 그리고 연합국의 실제 결정 사이의 큰 간격은 결국 이른바 해방정국의 혼란을 빚어내는 중요한 한 원인이 되며, 고하도 따지고 보면 그 간격 속에서 암살되고 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먼저 연합국의 구상과 결정에 대해 개괄적으로나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⁵⁾

3) 위와 같음, 291쪽

4)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전3권 (한길사, 1986), 제3권, 1037쪽

5) 이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연구는 Soon Sung Cho, *Korea in World Politics, 1945-1950: An Evalua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제1부; 이 문제에 대한 지은이의 분석은 다음에 있다. Hakjoon Kim, *Unification Policies of South and North Korea, 1945-1985:*

연합국들이 한반도의 장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때는 1943년 초에 이르러서였다. 이 무렵에 비로소 연합국들은 자신의 승리를 내다볼 수 있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연합국들의 수뇌들은 2차대전이 끝난 뒤 일제를 포함한 추축국들과 그리고 그 추축국들이 빼앗았던 식민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다루기 시작했다. 우리 겨레의 문제도 물론 이 테두리 안에서 논의되었다.

이때 우리 겨레의 장래에 대해 제일 먼저 생각한 사람은 미국 루즈벨트대통령이었다. 그는 일제가 패망한 뒤 조선에게 즉각적인 독립을 줄 것이 아니라 신탁통치를 실시할 것을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면 그는 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일까?

첫째, 인종 우월주의에서이다. 당시 서양 사람들은 ‘미개한’ 아시아와 아프리카 주민들을 가르치는 것이 자신들의 ‘의무’라고 믿었다. 이러한 ‘백인의 의무’라는 인종 우월주의가 신탁통치를 구상하게 만들었다.

둘째, 이것에 연결된 요인은 필리핀에서의 식민지 운영경험이다. 필리핀주민들을 민주주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치정부제도로 이끌었듯이, 한민족 역시 신탁통치라는 ‘수습’을 거쳐 독립을 얻어야 한다고 믿었다.

셋째, 조선에 대한 열강의 상충하는 욕심을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신탁통치라는 일종의 국제관리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풀어 밀해, 조선의 독립을 내다보면서 소련은 물론 중국조차 전통적인 야심을 드러내기 시작했다고 분석한 미국은 조선에 이해관계를 가진 나라들로서 신탁통치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해 조선을 공동으로 관리하면 이해의 충돌이 방지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신의 구상을 1943년 11월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열린 미국과 영국 및 중국 세 나라 정상회담에 제시하여 동의를 받았다. 그리하여 카이로선언은 일제가 패망한 뒤 조선에게 ‘적당한 시기와 절차를 거쳐’ 독립을 준다는, 말하자면 조건부 독립을 약속하게 되었다. 조선에 관한 이러한 양해는 카이로 회담 직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며 내각 수장인 스탈린 (Joseph Stalin)이 참석한 테헤란회담 및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에서도 받아들여졌다. 스탈린은 한반도문제에 대해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신탁통치도 필요없지 않느냐고 반문했으나 미국과 영국 및 중국의 양해를 묵인한 것이다. 그리하여 카이로 선언의 한반도 조항은 1945년 7월 포츠담에서 발표된 연합국 수뇌들의 공동선언 [포츠담선언] 에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조선에 대한 신탁통치안은 하나의 구체적 계획안으로까지 정밀화되지는 않았다. 그저 미국과 영국과 중국과 소련 네 나라로서 신탁통치를 실시한 뒤 독립을 부여한다는 수준의 양해만 있었을 뿐, 신탁통치의 기간, 신탁통치를 실시하는 국가들과 조선과의 관계, 신탁통치의 주요 과제, 신탁통치를 끝내고 조선에 독립을 주는 방식 등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 이처럼 구체적인 방법론적 설계도 마련하지 못한 채 조선의 독립만을 연기시켰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일본 패전 이후의 한반도에서 정치적 혼란과 이념적 갈등을 깊게 만든 원인이 되었다는 점에서 연합국의 책임은 큰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것이 한반도 문제에 관해 전시 연합국회담이 합의했던 내용의 전부이다. 흔히 전시 연합국회담에서, 특히 1945년 2월의 얄타회담에서나 7월의 포츠담회담에서, 한반도의 분단이 비밀리에 약속된 것으로 말해지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다. 미

A *Comparative Study*, rev. ed.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6), pp.15-25 및 김학준, 《대한민국의 수립》(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32-37쪽.

국 혼자서 한반도 분할을 생각한 적은 몇 차례 있었다. 한반도에서 일본 군대와 싸우게 될 경우에 대비해 연합국들이 공동으로 진공하는 방법을 구상하면서 자연히 몇 개의 안을 마련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자신의 안을 연합국들 가운데 어느 나라와도 논의하지 않았다.

연합국이 이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을 때, 이미 앞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겨레의 어느 누구도 거기에 참여하거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카이로선언이 발표된 뒤, 임정이 나서서 왜 즉각적인 독립이 아니고 ‘적당한 시기와 절차’를 거친 뒤의 독립이냐고 그저 항의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것이 나라 없는 약소민족의 슬픔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겨레가 무력하게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제8장의 제2절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우선 해외를 보면, 임정은 1944년 중국 대륙에 있던 좌-우파의 협력을 어느 정도 더욱 굳혀 내각을 보다 넓은 지지기반 위에 세워 놓았다. 임정 산하의 광복군은 미군과의 제휴 아래 국내로 진공해 들어갈 준비도 갖춰가고 있었다. 임정은 또 좌파의 조선독립동맹과도 손잡으려 하고 있었다. (그러나 임정이 실질적으로 좌-우파의 연합을 이룩한 때는 한 번도 없었다. 거듭 말하거니와, 공산주의자들은 말할 것 없고 좌파의 상당한 부분은 임정을 무시했다) 그밖에도 임정과 관계없이 지내던 몇몇 항일 무장 단체들은 국내로의 진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국내를 보면, 일제의 단말마적 탄압 속에서도, 건국동맹 같은 지하 단체가 1944년에 조직되었다.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건국동맹은 그런대로 좌-우파를 망라하여 얼마 남지 않은 일제의 패망에 대비하고 있었다. 여운형은, 우리가 제3장 제3절과 제5장 제2절에서 이미 살폈듯이, 상하이에서 신한청년당을 창당했었고 그 조직을 통해 2·8 도쿄 독립선언에 작용했으며 1919년 11월 도쿄로 가서 일본의 고위 관리들을 상대로 조선 독립의 필연성을 강조한 이른바 도쿄 담판을 성공적으로 끝낸 뒤 상하이로 돌아갔었다. 그 뒤 중국에서 공산당과 국민당 모두와 손을 잡고 독립 운동에 종사하다가 일경에 의해 본국으로 투옥되었으며 1932년에 출옥한 뒤 <조선중앙일보> 사장을 맡았으나 일장기말살사건으로 공직을 사퇴하고 저항하다가 1942년에 다시 투옥되었다. 이듬해에 출옥한 다음에는 일제의 끈질긴 협력요청을 거부한 채 사태를 관망하는 가운데 1944년 8월 10일 조선건국동맹을 창건한 것이다. 이 비밀 결사는 (1) 각인 각파를 대동단결하여 거국일치로 일본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조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할 일, (2) 반주축 국가들과 협력하여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조선의 온전한 독립을 저해하는 반동세력을 박멸할 일, (3) 건설 부면에 있어서 일제의 시위를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하고 특히 노동대중의 해방에 치중할 일 등등을 강령으로 결정했다.⁶⁾ 그러나 국내에서의 항일 지하조직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3 해방 前夜의 한반도의 내외적 갈등 상황

이제 우리가 앞의 章들과 이 장에서 논의했던 것들을 요약하기로 한다. 일제의 식민지배 35년 동안 우리 겨레는 나라 안팎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벌였는데, 그 정신적 중심은 대체로 임정이었다. 그러나 독립투쟁이 오랜 기간에 걸쳐 벌어지면서, 특히 3·1운동의 ‘좌절’을 겪고 나서 1920년대에 들어와서는 여러가지 분열 작용이 일어났다. 그 가장 중요한 분열은 이념적인 것으로, 자유민주주의로부터 공산주의에 이르기까지 그 分光이 여러 갈래였다. 이

6) 李基炯, 《몽양 여운형》(실천문화사, 1984), 168쪽. 또 김학준, <여운형의 독립-통일노선 : 해방 이후의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김학준, 《한국문체와 국제정치》 제2전정판 (박영사, 1990), 326-331쪽

이념적 분광 속에 임정의 위치가 달라지기도 하였다. 즉 공산주의자들은 임정을 부인하고 자신들의 조직을 앞세웠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 겨레의 항일 독립운동은 민족 스스로의 힘에 의한 독립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룩하기도 전에 이미 내쟁을 심하게 겪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조선을 둘러싼 열강의 복잡한 이해가 얽혀들었다. 임정을 지원하는 중국의 국민당 정부, 조선독립동맹을 지원하는 중국공산당, 만주에서 시베리아로 도망쳐온 김일성 세력을 지원하는 소련, 그리고 어느 구체적 단체나 지도자를 지원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한반도가 자신의 적대 세력에 넘어가서는 안되며 자신의 우호 세력에 의해 장악되어야 한다고 계산하는 미국의 입김이 거세게 불어 왔던 것이다. 한마디로,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눈앞에 둔 조선의 운명에 내쟁적 갈등과 국제적 갈등에 얽히고 설키면서 한꺼번에 밀어닥치고 있었다.

제2절 일제의 협력요청 교섭과 고하

1 한반도의 해방과 분단

1945년 8월 8일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廣島)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려 일본 전체를 완전히 큰 공황 속에 몰아 넣었다. 바로 이날 소련은 일본과 1941년에 맺었던 불가침-중립조약을 깨뜨린 채 일본에 선전을 포고하고 만주에서 일본의 관동군을 격파하면서 곧 한반도의 동북부로 진공해 들어갔다. 8월 10일 미국은 제2의 원자폭탄을 나카사키(長崎)에 떨어뜨렸다. 이 단계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어진 일제는 이날 중립국을 통해 항복할 뜻을 전달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원래 한반도 문제에 대해 미국이, 그리고 연합국이 갖고 있던 구상은, 우리가 앞 節에서 살폈듯이, 4대국에 의한 신탁통치였다. 그러나 그 구체적 실천계획이 미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은 우선 한반도에 들어가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는 현실적 당면과제를 풀지 않으면 안되었다.⁷⁾

그런데 미국에게 한반도에 들어가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는 과제보다 더 중요한 당면과제가 일본의 점령이었다. 미국에게는 일본이 여러모로 더욱 중요했으며, 따라서 일본을 혼자 점령하고 싶었다. 그러나 소련은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전승국의 일원으로서, 마치 독일을 공동 점령했듯이, 일본을 공동 점령하자고 제의하고 나올 것이 뻔했다. 물론 독일을 공동점령할 때와는 달리 이제 미국은 소련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고 있고 무엇보다 원자폭탄을 독점하고 있을 때여서 소련의 제의를 거절할 결의와 능력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것을 아무런 힘없는 한반도에서 찾았다.

마침 소련군은 이미 한반도 동북부에 들어왔음에 반해 미군은 한반도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하여 미국은 소련에게 한반도의 절반 정도를 떼어 주기로 결정하고 그 분할선을 북위 38도선으로 잡았다. 38도선 이남에는 조선왕조 5백년의 수도요, 일제의 총

7) 미국이 북위 38도선에서의 한반도 분할 정령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Cho, 앞의 책, 44-58쪽에 잘 나와 있다. 그밖에, Yong SuK Jung, "The Rise of American National Interest in Korea: 1984-1950", unpub. Ph.D.diss., Claremont: Claremont Graduate School, 1971, pp.170-181; Michael C. Sandusky, *America's Parallel* (Alexandria, Va.: Old Dominion Press, 1983), pp.199-252. 최근의 체계적 연구로는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 Chaps. 1-2.

독부가 자리 잡았던 한반도의 중심지 서울,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구인 부산과 제2항인 인천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을 소련을 비롯한 다른 연합국들에게 알렸다. 그들은 아무런 반대없이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트루먼(Harry S. Truman)대통령은 그때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에 있던 태평양지역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Douglas MacArthur)원수에게 연합국의 합의사항을 알렸다. 이에 따라 맥아더는 태평양지역에서 일본군이 항복할 방식에 관한 일반 명령 제1호를 발표하면서, 한반도에서는 북위 38도선 이북의 일본군은 소련군에게 항복하고 그 이남의 일본군은 미군에게 항복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군사 점령을 통해 분단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때는 38도 분할선을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해 잠시 그은 선으로 생각했을 뿐이었다.⁸⁾

위에서 살폈듯이,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패망을 계기로 한 한반도 분단은 어디까지나 국제정치의 힘 관계에 따른, 또는 강대국들 사이의 합의에 따른 분단이였다. 이 과정에 우리 겨레의 의지는 조금만큼도 개입되지 않았다. 이러한 보기를 우리는 독일에서도 찾게 된다. 독일 역시 강대국들의 합의에 따라 패전과 더불어 분단되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유형의 분단을 국제형 분단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경우와 같은 국제형 분단에 대조되는 경우가 역시 2차 대전이 끝난 뒤 분단된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이다. 이 두 나라는 국제적 합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각자가 안고 있던 내전에 의해 분단되었다. 즉 중국은 국민당과 공산당 사이의 내전의 결과 대륙과 섬 대만으로 나뉘고, 베트남은 하노이를 중심으로 호志明(胡志明)이 이끈 베트남독립동맹(월맹)과 사이공에 자리잡은 친서방세력(보대왕국(保大王國)과 그 뒤의 월남공화국)사이의 내전의 결과로 나뉘었던 것이다. 이러한 유형의 분단을 내쟁형 분단이라고 하는데⁹⁾, 우리가 이 장의 다음節들에서 보게 되듯이, 일단 국제형 분단으로 출발한 한반도의 분단은 시간이 흐르면서 내쟁형분단의 요소들이 가미되어 마침내 3년 뒤 북에서는 소비에트정권이 들어서고 남에서는 대한민국이 세워진다.

2 고하, 일제의 협력요청을 거부하다

미국이 한반도의 분할을 결정해 가는 그 시점에서 조선 총독부의 고위 관리들은 극소수의 조선인 지도자들을 만나 일제 패망 이후의 사태 管理에 대해 협의했다. 그 조선인 지도자들에는 물론 고하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특히 총독부와 고하 사이의 교섭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출판되어 나온 문헌들에 그 설명에 있어서 혼선이 보이므로, 이 문제를 자세히 다루어 보기로 한다.

총독부가 고하와 먼저 교섭하고 고하가 거절하자 몽양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이른바 先 고하 後몽양설은 적어도 출판된 기록들을 놓고 볼 때는, 송진우의 지지자이며 송진우가 조

8) 미국이 북위 38도선에서의 한반도 분할 점령을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Cho, 앞의 책, 44-58쪽에 잘 나와 있다. 그밖에, Yong Suk Jung, "The Rise of American National Interest in Korea: 1984-1950", unpub. Ph.D.diss., Claremont: Claremont: Graduate School, 1971, pp.170-181; Michael C. Sandusky, *America's Parallel* (Alexandria, Va.: Old Dominion Press, 1983), pp.199-252. 최근의 체계적 연구로는 James I. Matray, *The Reluctant Crusade: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 Chaps. 1-2.

9) 국제형 분단과 내쟁형 분단의 개념 규정에 대해서는 Kamiya Fuji, "On the Problems of Korean Unification", *The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 (Taegu, Korea: Youngnam University), 제2권 제1호 (1971년 10월), pp.103-112.

직한 한국민주당의 간부인 낭산 김준연의 1945년도 글과 1946년도 글에 처음 나타났다. 이 부분은 8월 15일 앞뒤한 시점에서의 총독부-조선인 지도자 교섭에 관한 최초의 출판된 증언이고 또 그 진상을 파악하는 데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시비가 지금까지도 있으므로 비록 같다고 해도 원문 그대로 인용해 놓고 따져보기로 한다. 우선 1945년도 글은 다음과 같다.

[… 1945년 8월 9일 소련] 군의 침입을 보면서도 대항적 선전포고를 행하지 못하고 항복을 결정하고 다못 그 절차에 관하여 논의되고 있을 뿐이었다. 조선총독부에서는 중앙정부의 이 태도를 살피고 대책을 강구하게 되어 10일에는 경무국 보안과장이 주동이 되어 진고개 某處에서 조선군 두 참모와 原田 경무국 사무관 등 입회하에 송진우씨를 만나서 행정위원회의 조직을 의탁하였으나 송씨는 거절하고 11월 12일 양일에도 同様の 교섭이 있었고 13일에는 生田 경기도지사와 岡 경찰부장이 만나서 교섭하였으나 역시 거절하고 14일에는 나도 生田 지사와 岡 경찰부장을 만났으나 同 結果가 되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에 여운형씨에게도 교섭이 있었던 모양이다.¹⁰⁾

이러한 내용은 1946년도의 글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부연되었다.

[… 1945년 8월 9일 소련의 對日 선전포고 직후…] 벌써 무조건 항복은 기정사실이었고 다만 그 절차에 관한 것이 논의되고 있었던 것이다. 중앙정부와의 연락으로 인하여 그 형세를 熟察한 조선 총독부 당국은 창황실색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송진우씨에게 향하여 시국담당을 요청하게 되었다. 총독부 보안과장 磯崎와 차석 사무관 原田과 조선군 참모 神崎 외 또 한 참모와 참모와 송씨의 5인이 本町 某日人의 사택에서 회합하게 되었다. 그때에 그들은 물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다는 말까지는 내지 못하였고 다만 형세가 급박중대하다는 것을 말하고 행정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라고 권하고 독립준비까지를 하여도 좋다고 하였었다. 그러나 송씨는 응중하지 않고 佯醉하고 일본의 필승을 말하고 그 자리를 과하여 버렸었다. 그 翌朝 에 原田 사무관이 또 와서 권유하고, 경기도 보안과장 田中 鳳德이도 와서 권하고 최종에는 경기도지사 生田이가 경찰부장 岡과 함께 적극적으로 권하였으나 송씨는 여전히 거절하고 응치 아니 하였으니 그것이 8월 13일의 일이었다. 그 때에 岡 경찰부장은 앉았다 섰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찌할 줄 모르고 형세가 절박하니 송씨가 담당하지 아니하면 아니되겠다는 것을 협박적으로 말하였었다. 총독부가 가진 권력의 4분의 3을 밀어줄 터이니 해달라고 말하였다. 신문 라디오 교통기관 헌병 경찰 감사국 등을 다 밀어주겠다고 하며 일본인의 거류를 인정하며 그 사유재산을 보호하여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며 당신이 응낙하면 지금 당장에 정무총감 遠藤에게 함께 가서 결정을 짓자고 하였었다. 그러나 송씨는 여전히 거절함으로 岡 경찰부장은 “당신이 그와 같이 고사하면 김준연군으로 하여 보게 하면 어떠합니까? 김준연군을 만나게 하여 달라”고 하였었다. 그래서 송진우씨는 “김준연군도 나와 동일한 의견일 줄 안다”고 대답하고, 나에게 그 뜻을 전하였으므로 나도 경기도 지사 生田을 만나게 되었다.

김준연의 회고는 자신이 이꾸다 세이사부로(生田清三郎) 지사를 만난데로 이어진다. 그리

10) 金俊淵, <국민대회의 발단>, <동아일보> 1945년 12월 2일. 이 글은 김준연, 《독립노선》(시사시보사, 1959), 제6판, 12-14쪽에 있다. 인용된 부분은 이 책, 12-13쪽에 있다.

고 고하의 거절을 다시 확인한 총독부가 결국에는 모양을 찾게 되었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이 부분도 그대로 옮기기로 한다.

8월 14일 오전 9시경에 나는 경기도 지사 生田을 경기도 지사실에서 만나게 되었다. 岡 경찰부장도 들랑날랑하였었다. 이야기는 5-6 시간 계속되게 되었다. 그날 처음으로 경성에 미국 비행기 B 29호가 2차 나오게 되어서 나는 그들과 2차나 방공호에 들어가서 피난하고 午飯까지 같이 하고 이야기하였는데 조선 내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하고 그 점을 꼭 염려하는 모양으로 더군다나 학생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모양이었다. 그들이 무조건 항복에 관한 의사를 표시치 아니한 이상 나는 물론 그 눈치도 보일 수 없는 것이고 그들이 듣기 좋게 위안될 만한 말을 하여 주고 갈리게 되었는데 맨끝에 生田 지사는 “당신이 송진우씨를 만났는가?” 하고 묻기에 나는 “그렇다”고 대답한즉 “그러면 당신도 송진우씨와 의견이 동일하나”고 하기에 나는 또 “그렇다”고 대답하였었다. 조선 총독부의 시국담당에 관한 송진우씨 측에 대한 교섭은 이와 같이 결말되고 말았는데 15일 朝에 들은즉 여운형씨가 오전 7시 반에 정무총감 遠藤을 만나러 갔다고 하였다. 물론 송진우씨 측에 대한 것과 동일한 문제인 줄을 짐작하였었다. 그때 14일 밤 라디오방송은 15일 정오에 중대 방송이 있으리라는 것을 예고하였었다.

그러면 고하는 어떤 명분을 내걸고 거절하였는가? 이 점에 대한 김준연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 송진우씨에게는 14일 밤에 그 이야기를 하였더니 거절하고 응치 아니 하였었다. 총독부측으로부터 4차나 교섭을 받았는데 그것을 거절하였은즉 지금 다시 응락할 수도 없고 연합군이 들어오기 전에 일본 사람의 손에서 정권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송진우 씨는 중-일전쟁 (일지사변)이 일어나고 미-일전쟁 (대동아전쟁)이 계속하여 일어나 일본이 혁혁한 승리를 얻어 가는 동안에도 일본필망의 신념을 굳게 가지고 있었다. 나는 송진우씨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수 백번 들었다. “일본이 망하기는 꼭 망한다. 그런데 그들이 형세가 궁하게 되면 우리 조선 사람에게 자치를 준다고 할 것이고 형세가 아주 궁하게 되어서 진퇴유곡의 경우에 이르게 되면 그들은 조선 사람에게 독립을 허여한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자치를 준다고 할 때에 나서지 아니할 것은 물론이려니와 독립을 준다고 하는 때에도 결코 나서서는 안된다.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위험할 때다. 망해가는 놈의 손에서 정권을 받아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불란서의 폐탕정권을 보라. 중국의 왕조명정권을 보라. 또 비울빈의 라우렐정권을 보라. 그들이 필경 허수아비 정권밖에 되지 못할 것이고 민족반역자의 이름을 듣게 된다” 하였다.¹¹⁾

김준연의 이러한 회고는 1948년에 한국민주당이 출간한 《한국민주당 小史》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이 책은 “ [...] 8월 15일 전에 총독부 정무총감 遠藤은 송진우씨를 먼저 청하여 치안유지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행정권 일체를 맡아가라 하였는데 송씨는 8월 9일부터 13일까지 수삼차 면회 간청함을 불구하고 ‘이것은 일본-연합군-우리 독립정부와의 접수할 것이요 총독부 君等이 품輩에게 할 일이 아니라’하여 거절하였다. 그 후 여운형을 불러 이

11) 김준연, <정계 회고 1년 : 해방과 정치운동의 출발>, <동아일보> 1946년 8월 15일. 이 글은, 위와 같음. 1-14쪽에 있다. 인용된 부분은 2-5쪽에 있다.

러한 것을 교섭한 모양으로 여는 즉시 수락하여 …”라고 쓰고 있다.¹²⁾

김준연 뿐만 아니라 이인도 당시의 상황을 같은 취지로 회고했다. 의심의 여지없는 항일 자세를 견지했으며 해방 직후 한민당에 참여하고 뒷날 대한민국 초대 법무부 장관이 된 그는 자신이 해방 직후 고하의 집을 찾았던 때를 회상하면서, 거기에는 이미 백관수와 김준연과 김병로와 정인보 등등이 모여 있었는데 “고하는 지난 8월 11일 경기도 지사 이꾸다 세이사 부로를 만난 일을 설명하고 있었다. 고하의 말인즉 이꾸다가 ‘일본이 물러가니 국내치안을 부탁한다’고 하기에 ‘일본이 물러가면 갔지,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어떤 지시나 부탁을 받을 성질의 일이 아니요’ 했다는 것이다”라고 증언했다.¹³⁾

그러면 《고하 송진우 선생전》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이 책이 1965년에 출판되었음을 상기하면서 이 부분 전체를 읽어보기로 한다.

[소련군의 참전 이후…] 고하는 이상한 예감에 사로잡혔다. 무슨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았다. 예상한 대로 8월 10일 상오 4시 총독 경무국 하라다(原田)의 방문을 받았다. “명령을 받들고 선생을 찾아 뵈러 왔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께 말씀 올리는 것은 저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양해해주셨으면 합니다” 하라다의 말에 고하는 일면 놀라고, 한편 적이 불안하기도 했다. 한국의 지도층이나 지식층을 학살하기 위해서 맨 먼저 자기를 찾아온 것으로 의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하라다는 전날까지의 오만불손한 언동에 비해서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다. 고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뭐, 내가 징병 권유 연설을 안해도 다들 끌려갔는데 그러요.” 고하는 묵묵히 하라다의 말을 듣고만 앉았다가 탄청을 하면서 그의 말의 초점을 피했다. “아니,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올시다. 기실은 일본이 미-영측에게 종전을 제의했고, 종전이 성립된 뒤의 뒷수습을 선생께서 해결해주십시오, 그 의향을 여쭙어 보고 오라는 명령이올시다”라고 하라다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종전, 아니 왜 항복을 하오?” “아니올시다. 저…, 종전은 곧 성립될 모양이고 시간은 없고… 선생께서 사랑하시는 조선민족을 위해서 힘을 써 주셔야겠기에…, 무슨 좋은 의견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상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고하는 불안과 안도의 착잡 속에서도 배꼽이 뒤집힐 정도로 가소롭기만 했다. 총독부는 이날 늦게까지 항복 후의 사후 수습을 맡을 인사의 인선을 끝내야 했다. 그래서 고하를 지명하여 하라다를 파견한 것이다. 한민족의 지도자라는 지도자는 전쟁 중에 거의 다 끌려다 부러먹었으니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던 고하 송진우라야만 한국 사람들은 말을 들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삶아 먹을 수도 없고, 구워 먹을 수도 없는 놈”이라고 욕을 먹던 고하였지만, 그 고하 앞에 와서 애걸하는 도리밖에는 없었다.

그러나 이 유일무이한 최적임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오늘을 예측하고 방파제를 높이 쌓고 농성중이어서 그의 대답이 동문서답일 수밖에 없었다. “보다시피 나는 병자가 아니오? 신문사가 문을 닫은 그날부터 이렇게 병이 나서 누워있는 사람이오” “거 신문사 말씀만은 그만두어 주십시오” 하라다는 사뭇 애걸했다. “허 그렇다면 또 그만두지 … 하지만 나는 병자니깐 아무것도 못하오. 그 문제는 더 말씀할 것도 없소. 다른 얘기나 있거든 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종전 후의 혼란이 수습되겠는지, 그 방책이라도 좀…” 머리를 숙이고 앉은 하라다의 모양은 처량하기만 했다. 고하는 하라다의 이 말에는 할 말이 있었다.

12) 한국민주당선전부, 《한국민주당 小史》(한국민주당선전부, 1948). 이 책 전문이 沈之淵, 《한국현대정당론 : 한국민주당 연구 II》(창작과 비평사, 1984), 269-337쪽에 있다. 인용된 부분은 272쪽에 있다.

13) 이인, 《반세기의 증언》(명지대학 출판부, 1974), 144-145쪽

또한 말할 필요까지 느꼈다. “[...] 첫째 나 자신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내 주위로부터 모든 감시를 해제하시오. 둘째 언론·집회·출판 및 결사의 자유를 주시오. 셋째 정치범, 경제범의 명목으로 감금한 인사들을 석방하시오. 넷째 군량미 기타 양곡을 풀어서 굶주린 백성에게 분배하시오. 이러한 시책이 곧 실행되면 대일감정은 다소 풀어질지도 모르겠소”

고하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하라다는 면담내용 일체를 엄비에 붙일 것을 약속받고, 자기 상사에게 보고차 자리를 떴다. 즉일로 고하 집 주변에는 밀짚모자의 청년과 사복경찰이 자취를 감췄다. 8월 11일 하라다는 조선군 참모 간사끼(神崎)를 동반하고 다시 고하를 찾았다. 하라다와 간사끼, 그리고 경기도 경찰부장 오까(岡) 등은 전일과 똑 같은 간청을 해왔다. 고하는 초지일관 끝끝내 거절했다. 그러나 고하는 그들의 4차 방문을 받고 서야 마지못해 70노인인 경기도 지사 이꾸다(生田)와의 면담을 응낙했다. 경기도 지사실에서 고하는 이꾸다와 오까를 만났다.

“만일 당신이 승낙만 해 준다면 현재 총독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4분의 3 즉 헌병, 경찰, 사법, 통신, 방송, 신문 등을 넘겨주겠소”

이와 같은 이꾸다의 제안에 고하는 묵묵히 앉았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다. “생각해 보시오. 내가 중국의 汪兆銘이나 불란서의 페탕이 되고자 한다면 벌써 됐을 것이 아니오. 이것은 내가 사양한다느니 보다는 만일 내가 왕조명이나 페탕이 되어버린다면, 당신네가 일본으로 떠난 뒤에 나는 조선 민족에게 발언권이 없어지지 않겠소. 그리고 멀지 않아 조선은 일본과 국교도 맺어야 할 것인데, 지금 목전의 이익만 생각하다가는 도리어 앞으로의 큰 경륜을 잃을 염려가 없지 않소. 한 사람의 올바른 知日하는 인사라도 남겨 두어야 하지 않겠소?”

고하의 조리있는 이 말에 이꾸다는 말귀를 알아듣는 듯했으나, 들락날락하던 오까의 얼굴은 금시 오기에 차서 붉으락 푸르락해졌다.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협력한 사실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협력을 해 달라는데 거절하는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고 오까는 고하에게 덤빌 듯이 대들며 지금 곧 총독과 정무총감을 만나보러 가자고 했다. “나는 지금 당신하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사와 이야기하고 있소”하고, 고하도 오까에게 경멸에 가까운 응수를 했다. “당신이 끝까지 거절한다면 좋소. 그러면 지금 조선 안의 청년학생들에게 인기가 좋은 김준연이 전곡에서 서울로 올라 왔는데, 당신은 연락이 될 것이니 좀 만나게 해 주시오. 김준연도 사양할까요?” 이꾸다는 이 이상 고하하고 이야기해도 소용없음을 깨닫자 말머리를 돌려서 낭산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김군도 나와 같은 의견이리라고 생각하지만 정 의사가 그렇다면 연락은 해 주리다” 때마침 낭산은 소련참전의 방송을 듣고, 전곡 농장을 빠져나와 걸어서 연천의 朴勝喆 집에서 하루를 쉰 뒤에 서울로 직행, 고하 집에는 감시가 심할 것 같아 돈암동 徐相國에게 기식하면서 전화로 고하와 연락이 돼 있던 중이었다. 낭산은 고하의 연락을 받고 곧 그길로 경기도 도청으로 이꾸다를 찾았다. 때마침 공습이 있어서 낭산과 이꾸다는 방공호에서 회담했다. 낭산도 고하와 의견이 같았다.

이리하여 고하는 일제의 마지막 권유도 박차던 것이다. 말하자면 고하가 일제에게 이날이 올 것을 이미 예측했고, 또한 이날을 당해서의 위치와 자세, 그리고 마음의 무장까지 갖추고 있었음을 인지했더라면 일제는 줄기찬 헛수고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¹⁴⁾

14) 《고하 송진우 선생전》, 295-299쪽

이상의 회고들을 정리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들이 떠오른다. 첫째, 일제는 무조건 항복을 결정한 시점에서부터 그것을 공식 발표하는 시점까지 고하를 상대로 시국 수습을 위한 행정권의 부분적 이양을 여러 통로를 통해 여러 차례 교섭하였다. ‘정권 이양’ 운운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었을 것이며, 치안유지권을 비롯한 행정권의 상당한 부분을 넘겨주려고 하였다. 둘째, 아베 총독이나 엔도 정무총감이 고하와의 교섭에 스스로 나선 일은 한차례도 없다. 그들은 고하가 일제에 대한 협력을 이미 여러 차례 거절했음을 고려하여 스스로 나서지 않고 부하들을 시켜 의사를 타진해 보고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면 그제서야 직접 교섭해 보려고 한 것 같다. 셋째 고하는 계속해서 모두 거절하였다. 넷째, 고하의 거절 명분은 (1) 일제로부터 이양받으면 괴뢰가 되고, (2) 연합국으로부터 이양받아야 정당한 것이 되며, (3) 이양받는 주체는 해외의 독립 지사 또는 임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고하가 끝내 거절하자 낭산이라도 끌어들이려고 했다. 낭산이 응하면 고하도 결국 나서게 될 것으로 계산했을 것이다. 그러나 낭산도 끝내 거절했다.

고하의 명분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어도 좋겠다. 고하가 침략세력의 괴뢰로 지목한 중국의 汪이나 프랑스의 페탕(Henri Philippe Petain: 1856-1951)이나 필리핀의 라우렐 (Jose Paciano Laurel: 1891-1959)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汪의 경우는 우리가 제8장 제2절에서 이미 살폈듯이, 일제의 괴뢰정부의 수반이 됨으로써 민족 반역자로 지탄받았고 그나마도 종전 직전에 병사하고 마는데, 일제의 독살의 결과인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페탕은 제 1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의 베르덩 (Verdun) 전투에서 무공을 세워 국민적 영웅으로 존경받았고 그 뒤 내각에도 각료로 참여했으나 제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를 점령한 나치에 협력하여 비시 (Vichy)에서 괴뢰 정부를 세워 국가 주석이 되었던 것이다. 종전과 함께 체포되어 반역죄로서 종신형을 복역하다가 죽었다. 라우렐은 상원의원과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한 뒤 일제의 필리핀점령 기간인 1943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가 세운 괴뢰정부의 대통령으로 일했다. 그 일 때문에 그는 전후에 일단 전범으로 기소되었으나 석방된다. 세 사람의 행로를 이렇게 살필 때, 행정권의 일부이든 전부이든 일제로부터 받으면 일제의 협력자가 되고 괴뢰가 되며 민족의 지탄을 받는 만큼 그 길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또 의연한 처사이기도 했다. 더구나 고하는 특히 1920년대 이후 합법적 민족 운동가로 일관했고 중-일전쟁 이후 몇년은 행동적인 반일에 소극적이어서, 일부에서는 때로는 오해도 없지 않은 처지였기에 매우 조심하고 싶었을 것이다. 또 마키아벨리적인 해석을 시도한다면, 고하는 일제의 패망은 불을 보듯이 뻔한 판에, 그리하여 그가 늘 강조하던 조선인의 정치 시대가 열리게 되는 판에, 그렇게 되면 자신도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판에, 굳이 일제로부터 그것도 제한된 범위의 행정권을 이양받아 행여 ‘친일 괴뢰’의 비난을 받기라도 한다면 결정적 손실이 아니겠느냐고 계산했을 가능성이 있다.

어떻든 이상에서 살핀 증언 또는 서술은 그 뒤 해방 전후 시기의 남한 정치사에 관한 주요한 저술들에서 되풀이되었다. 우선 1961년에 당시 성균관대학교 강사이던 李起夏는 자신의 《한국정당발달사》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 아무런 출전을 밝힘이 없이 다음과 같이 썼다.

드디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자 조선 총독부는 중앙정부와 연락 후 총독 정권을 한국인에게 이양하려 하였으니 당시 국내 요인중의 송진우, 여운형, 안재홍 등의 지조 인물과 교섭을 취하였다. 同 교섭은 사실 항복 수일 전부터 총독 당국과 한국인간에 진행되었는데 그 교섭의 당초인물이 바로 민족주의자 송진우이다. 송진우는 항복 수일 전 총

독 당국의 초청으로 충무로 일본인 사택에서 총독부 磯崎, 차석 사무관 原田과 조선군 참모 神崎, 송진우 其外數人 등이 동석하고 한국문제 논의중 일인측으로부터 한국의 정권 이양의 요청이 있었으나 송진우는 즉석에서 거부하고 퇴장하였으니 그 후에도 수차 요청이 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거부하여 버렸다. 事勢不能함을 知得한 총독측은 부득이 여운형에게 前記 요청을 轉請하자 여운형은 쌍수로 환영하고 즉석에서 쾌락하였다. 그리하여 여운형은 일인측과 제반 조건하에서 정권 이양을 약속 받고 이에 대한 준비를 즉시 개시하게 되었다.

[... 송진우의 거부...] 이유는 첫째 패망하는 일본에서 정권을 이양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며 허수아비 정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것이요, 둘째, 항복은 연합국에 하라는 것과 셋째, 해외의 지사선배들의 환국을 기다리자는 것 등 [이다] .¹⁵⁾

같은 내용의 서술은 洪承勉 등등이 편집해서 1965년에 출판한 《해방 20년》에서 되풀이 되었다.¹⁶⁾ 이어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趙淳昇 박사가 1967년에 버클리대학교 출판부에서 출판한 《세계정치 속에서의 코리아(Korea in World Politics)》에서 잘 요약되었다. 1940년대 초부터 1950년 초까지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정치학 저서라고 평가해도 과장을 이 책은 다음과 같이 썼다.

일본의 항복과 미군의 도착 사이의 3주의 간격 동안에 남한의 상황은 극히 혼란했다. 조선에서 반일 폭동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걱정한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철수하기 이전에 一群의 저명한 조선인 지도자들이 과도적 정부를 형성하도록 조처해 줌으로써 친일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어했다. 일본의 항복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에 사흘 앞서, 일본 총독부는 저명한 우익 민족주의 지도자인 송진우씨에게 비밀리에 접근해 그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들은 만일 그가 일본인들과 그들의 재산의 안전을 보장해 준다면 송에게 정부의 주요한 기능들을 이양하겠다고 제의했다. 민족주의 교육자로서 그리고 저명한 신문 <동아일보>의 출판인으로서 조선의 독립을 위한 비타협적 투쟁으로 잘 알려진 송진우는 이 제의를 거절했다. 그는 연합군과만 협력할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절망적인 상태에서, 일본인들은 똑같이 잘 알려진 좌익 민족주의 지도자 여운형씨에게로 돌아섰다.¹⁷⁾

조순승은 자신의 이러한 서술의 근거로 어떤 새로운 1차 자료 같은 것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해방 20년》과 그리고 우리가 곧 살피게 될 일본인 모리타 요시오의 글 등등을 종합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책은 해방 이후의 한반도 정치 상황에 관해 영어로 쓰여진 학문적 저서가 거의 없던 상황에서 나왔고 또 매우 잘 쓴 책이기 때문에 국외에서 널리 읽히면서 先고하 後몽양설을 적어도 미국 학계에 정착시키는 데 적지 않게 이바지하지 않았는가 생각된다. 그 뒤에 미국에서 출판된 해방 이후의 한반도 정치에 관한 책들이 이 문제를 다루는 경우 거의 예외없이 이 설을 따랐다. 헨더슨(Gregory Henderson)의 《소용돌이의 한국 정치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와 金正源 교수의 《분단된 코리아(Divided Korea)》의 예가 대표적이다.¹⁸⁾

15) 李起夏, 《한국정당발달사》, (의회정치사, 1961), 38쪽

16) 洪承勉 등등, 《해방 20년》 전2권(세문사, 1965), 제1권(기록편), 297-298쪽

17) Cho, 앞의 책, 65-66쪽

18) Joungwon Alexander Kim, *Divided Korea: The Politics of Development, 1945-1972*(Cambridge: East Asian Research Center, Harvard University, 1975), p.28; Gregory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이러한 증언 또는 서술과는 대조되는 증언이 없지는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지적되어야 할 증언은 당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엔도 류우사쿠(遠藤柳作)가 도쿄에서 발행된 <국제타임스(國際タイムス)> 1957년 8월 13일자에 밝힌 내용이다. 이른바 한-일합병이 있던 1910년에 대학을 갓 졸업한 24세의 젊은이로 조선에 건너가 3·1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조선총독부의 비서관과 참서관 등을 역임했고 아베 노부유키 내각의 서기관장을 끝으로 관계를 떠나 <東京新聞>의 사장으로 있던 중이던 1944년 8월에 아베 총리가 조선 총독이 되면서 그를 따라 정무총감으로 부임했다가 패전을 맞았던 그는 조선인 지도자들과의 교섭 상황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8월 15일 정오에 일본 패전의 소식을 고하는 폐하의 육성 방송이 있었으나 그 전인 7월 26일에 포츠담선언이 발표되어 8월 6일 히로시마 폭탄 투하, 8월 9일 나카사키 원폭 투하, 같은 날 소련이 참전함과 동시에 만주를 비롯하여 북조선 각지에 노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에 총독부 관계자는 패전은 어쩔 수 없다고 보아 그 대책에 부심했다. 우선 내가 생각하기로는 일본의 항복과 동시에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조선의 무정부 상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민중의 안녕질서를 어떻게 지킬까 하는 것이 제일의 목표였다. 나는 大正 8년 3월 1일에 독립만세 운동의 정황과 조선 민중의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는 독립의 열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 해방의 기쁨에 따르는 흥분에 휩싸여서 무질서적인 폭동이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래서 날짜는 기억 못하지만 아마 13일에 경무국장을 중심으로 최고재판소의 검사장, 헌병대장 등 치안관계자의 회의를 소집해서 그 대책을 토의했다.

그래서 당시의 조선 민중 사이에 명망도 높고, 과거의 독립운동의 경력에 있어서도 [명망이 높고], 그리고 나와서 깊은 우정도 있으며, 또 내가 평소 씨의 민족 운동에 대해서 이해와 존경을 지니고 있던 여운형씨에게 치안 문제를 위촉하기로 했다. 그래서 8월 15일에 씨를 총독부로 초청하여 정치범을 석방함과 동시에 치안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 여씨는 이를 양해하고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치안대 등을 조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에 흥분 상태로 말미암아 결국 치안은 실패로 끝나 버렸다. 이런 일 때문에 내가 여씨에게 정권을 위양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는 듯한데, 정권의 위양은 본국의 훈령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또 한국에서는 내가 처음에 송진우씨에게 이 문제를 상담했으나 송씨가 거부했기 때문에 여씨를 골랐다고 전해지고 있는 듯한데, 그것은 오해다. 내가 송씨와 안재홍, 장덕수 등과 만난 것은 종전 이전 시기에 국민총력연맹에 협력을 요청했을 때이며, 그때 그들은 확고하게 거부해 왔기 때문에 나도 그들의 신념을 이해하여 재차 권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종전 후 송씨와 안씨에게 교섭한 일은 없다.¹⁹⁾

한편 일제의 패전 당시 조선 총독부 관리로 당시의 상황을 꽤 소상하게 관찰할 수 있었던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는 일본 외무성의 한국문제 부서에서 근무하던 때인 1963년에 발표한 한 논문에서, 그리고 1964년에 출판한 한 책에서, 조선총독부의 니시히로(西廣)경무국장이 항복선언 직후의 치안유지를 위해 협조를 요청할 조선인 지도자로서 여운형과 안재홍

the Vortex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p.114 .

19) 엔도는 패전 직후 정무총감 관저에 연금된 형태로 외부와의 접촉이 끊겨져 있었고 “조선의 친구들이 한번씩 출입하여 외부의 정보를 알려주었다.” 그는 1945년 10월 17일에 귀국했다. 일문의 국역은 국회 도서관의 김장권 박사가 맡아 주었다. 여기에 적어 고마움의 뜻을 나타내기로 한다.

과 송진우를 “머리 속에서 [...] 고려했다”고 증언했다. 그리고는 총독부가 이 세 사람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8월 15일 아침 6시에 여운형을 정무총감 관저로 초치했다고만 쓰고 있다.²⁰⁾ 이 글만 갖고는 총독부가 고하와 교섭을 했는지의 여부를 가리기가 매우 조심스럽다. 이 책에 이어 또 하나의 증언이 출판되었다. 해방 당시 조선총독부 조사과장이었으며 뒷날 제1공화정 때 심계원장을 지낸 崔夏永의 1968년도 회고가 그것이다. 이 글에 따르면 8월 11일에 최하영을 부른 엔도 정무총감은 최하영에게 항복 선언 직후의 시국 수습을 맡아 줄 조선인 지도자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맡아 줄 사람으로 자기 대신에 도쿄제대를 졸업한 뒤 주 폴란드 만주국 총영사를 지낸 朴錫胤을 소개함으로써 박석윤이 몽양을 추천했다는 것이다.²¹⁾ 이 글에도 고하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일부에서는 최하영이 이 글을 통해 송진우 교섭설을 부인했다고 쓰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고하에 대한 언급이 없을 뿐이다. 이어 1970년의 한 회고에서, 해방 당시 여운형을 지지했으며 좌익운동에 참여했고 그 뒤 혁신계 정치인 曺奉岩을 추종하다가 일본으로 망명한 李榮根은 총독부와 고하의 협상설을 ‘근거가 박약한 것’으로 평가했다.²²⁾

이러한 자료들의 축적 위에서 한국현대사 연구자인 金大商은 1977년의 한 글에서 총독부와 고하의 협상설에 대해 가벼운 의문을 제기했다. 우리가 앞에서 살핀 김준연의 회고를 재검토한 그는 “김준연과의 이 면담이 치안담당에 대한 위촉 교섭이었는지 시국에 대한 의견 청취였는지 다소 의문을 남긴다. 김준연의 말대로 위촉 교섭이었다면 일본이 곧 항복한다는 표명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꾸다 지사는 이에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것이다.²³⁾ 그렇다고 해서 그가 고하 교섭설을 부인한 것은 아니다. 그는 낭산의 회고는 일단 사실로 받아들이고 부분적인 의문을 제기했을 뿐이다. 이어 여운형의 지지자인 혁신계 정치인 李東華는 김대상의 이러한 의문 제기에 동조하면서, “만일에 낭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총독부 당국이 치안담당 내지 시국담당을 고하 송진우에게 위촉하려는 생각이 강하였다면 그와 같은 중대한 임무를 총독부 과장급이나 도지사급에 맡기지 않고 적어도 한번쯤은 총독 또는 정무총감 자신이 고하를 만나-그의 응종 여하를 막론하고-직접 담판을 해보려고 했을 것이 당연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이고 있다.²⁴⁾

가장 최근에는 해방 이후의 남한 정치사에 조예가 깊은 陳德奎 교수가 총독부와 고하 협상설에 대해 부분적인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총독부 관리와 송진우의 접촉설은 어느 정도의 개연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면에서는 몇 가지 의문이 없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첫째, 낭산은 여운형을 ‘매도’하기 위해 그러한 설을 유포시켰을 가능성이 없지 않고 둘째, 모리타의 기록은 “총독부의 종전 작업을 당위화하기 위한 일정한 의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그는 주장한다.²⁵⁾

그러면 이러한 견해의 차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 결론부터 말한다면, 총독부

20)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米蘇兩軍進駐と日本人の引揚》(東京: 巖南堂, 1964), 宋南憲(편), 《해방 3년사: 1945-1948》 전2권 (까치, 1985), I, 12쪽에서 다시 옮김.

21) 崔夏永, <정무총감 한인과장을 호출하다>, 《월간중앙》(1968년 8월), 126-128쪽.

22) 李榮根, <8·15 해방 전후의 서울 정계: 정국 중심으로 회고한다>, <통일조선신문>, 1970년 8월 15일. 崔相龍, 《미군정과 한국민족주의》 증보판 (나남, 1989), 94쪽에서 다시 옮김.

23) 金大商, <8·15 직후의 정치 현상: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한 재조명>, 《창작과 비평》 제12권 제4호 (1977년 겨울), 285-309쪽. 인용된 부분은 289쪽에 있다.

24) 李東華, <몽양 여운형의 정치활동: 그 재평가를 위하여 (상)>, 《창작과 비평》 제13권 제2호 (1978년 여름), 316-336쪽. 인용된 부분은 333- 334쪽에 있다.

25) 陳德奎, <한국 현대정치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2)>, 《언론과 비평》 제1권 제3호 통권 제3호 (1989년 8월), 163쪽

의 송진우 접촉설을 뒷받침하는 증언들이나 그것에 의문을 품는 증언들이나 모두 부분적인 관찰에 근거한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낭산의 증언을 보면 총독이나 정무총감을 만난 대목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그의 증언은 자신이 접촉했던 그 아래 직급의 관리들과의 대화에 국한되어 있다. 또 최하영의 증언의 경우에도, 최하영이 정무총감을 만난 것은 사실이나 정무총감이 자신의 복안이나 자신의 접촉 활동 범위를 모두 털어놓았으리라고는 보기 어렵고, 다만 어느 한 부분을 놓고 얘기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면 최하영의 관찰 역시 총독부의 당시의 활동들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정무총감은 최하영에게 “어제부터 민족 지도자 세 사람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을 들었는데” 운운하는 말을 한 것으로 최하영은 썼는데, 최하영은 그 세 사람이 누구인가조차 밝히지 않은 채 그저 최하영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중심으로 대화를 이끌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세 사람이 모리타가 말한 ‘세 사람’ 곧 송진우와 여운형과 안재홍이 아닐까?)

정무총감의 증언 역시 그러한 틀 안에서 재조명해 볼 수 있다. 총독이나 정무총감은 고하가 워낙 고집불통이어서 교섭해 보았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미리 짐작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아래 직급의 관리들로서야 일단 접촉해 설득하려는 시도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만일 이선에서 대화가 성립되었다면, 그것은 곧바로 총독 또는 정무총감과의 협상으로 발전했을 것이다. 정무총감의 증언은 또 다른 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다. 그때 고하의 집을 무상 출입하던 <동아일보> 기자 출신의 李相敦은 “당시 정무총감 遠藤으로서도 지난 과거사에 대해 무엇이 자랑이라고 떠들겠으며 그리고 평소에 요시찰인으로 낙인찍은 고하에게 치안 유지권의 인수를 교섭했다가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한 창피한 사실을 시인할 수 있겠는가?” 라고 쓰고 있는데²⁶⁾, 음미할 만한 지적이다. 앞에서 방금 지적했던대로, 정무총감은 최하영에게는 자신이 이미 ‘민족 지도자 세 사람’과 개별적으로 접촉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국제타임즈>와의 회견에서는 그 얘기를 비치지도 않았다는 것은 이 회견이 사실 그대로를 말한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고 하겠다.

총독부의 고하 접촉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사람들 가운데는 여운형계 또는 좌익계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고하가 거절한 것을 몽양이 받아들였다는 고하계 인사들의 주장이 정치적-심리적 부담으로 느껴졌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조선 총독부가 先고하 後몽양의 單線 코스를 밟은 것이라기보다는 두 지도자를 동시에 접근해 나갔던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타당할 것 같다. 스칼라피노(Robert A. Scalapino)교수와 李庭植 교수의 공저가 그 대표적인 분석이다.²⁷⁾ 커밍스(Bruce Cumings)교수는 先고하 後 몽양성을 따르면서도 사실상 동시에 접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비친다.²⁸⁾ 전반적으로 볼 때, 고하로 대표되는 한국민주당 세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고 몽양으로 대표되는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세력에 대해 무척 호의적인 커밍스가 일본 총독부의 고하 접촉에 관한 김준연의 증언과 한국민주당의 책자와 《고하 송진우 선생전》 등등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고하와의 교섭 경위를 상세히 서술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姜萬吉교수가 동시접근설의 입장을 취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26) 李相敦, <고하, 일제 정권 인수 교섭 끝내 거절>, <조선일보> 1990년 4월 4일.

27)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2 vo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I (*The Movement*), pp.233-236.

28)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2 vol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I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p.70-71.

일본의 포츠담 선언 수락이 결정되자(1945.8.10) 조선 총독부는 패전 후에 있을지 모를 보복을 막고 조선에 있는 80여만명의 일본민간인 및 일본군의 신변 보호와 안전한 귀환을 위하여 당시 국내의 지도급 인물인 여운형 및 송진우와 행정권 이양 교섭을 벌였다. 송진우측이 이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운형측과의 협력마저 거절하자 행정권은 여운형측에게로 넘어가게 되었고, 여운형측은 곧 건국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정치범을 석방하고 치안대를 조직하여 활동을 개시했다.²⁹⁾

종합하건대, 총독부-고하 접촉설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모리타가 지적했던 그대로 고하는 총독부가 교섭하려 했던 조선의 지도자 세 사람 가운데 하나였고, 엔도가 최하영에게 자신이 이미 접촉했다는-아마 아래 사람을 통해-세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 거듭 말하거니와, 고하가 총독부의 접촉을 받고 거절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제3절 조선건국준비위원회의 발족과 고하의 참여 거부

1 몽양의 건준 발족과 고하의 반대

1945년 8월 15일 일제는 드디어 패망하고 조선은 독립되었다. 조선의 지도자와의 협력 체제를 사전에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서 패망을 맞은 총독부의 엔도 정무총감은 이날 아침 몽양 여운형을 자신의 관저로 초청하고 치안권의 이양을 전제로 일본인의 생명과 안전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몽양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조건들을 제시했다.

- (1) 전 조선의 정치범 경제범을 즉각 석방하라
- (2) 집단생활지인 경성의 식량을 8-9-10월 3개월분을 확보하라
- (3) 치안유지와 건설사업에 아무 구속과 간섭을 말라
- (4) 조선에 있어서 추진력이 되는 학생의 훈련과 청년의 조직에 간섭을 말라
- (5) 전 조선에 있는 각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우리 건설사업에 협력시키며 아무런 괴로움을 주지 말라³⁰⁾

커밍스가 지적했듯이, 이 조건들은 일제가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다. “정말이지, 식민지 주인이 피하고자 했던 바로 그것의 유령을 일으켜 세워 놓은 것이었다”³¹⁾ 그러나 일제에게 아무런 다른 대안이 없었다. 더구나 이미 한반도 북단에 진입한 소련군이 계속해서 남하하는 경우 서울도 소련군의 점령 아래 놓일 가능성이 크며 이렇게 되는 경우 좌파의 성향이 짙은 것으로 평가되는 몽양의 협조는 필수적이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엔도는 이 조건들을 이의 없이 승락했다. 이날 정오 마침내 히로히토 일본 천황은 무조건 항복을 발표했다. 이에 몽양은 서울 桂洞에 있는 林龍相 소유의 양옥 건물에서 安在鴻·李萬珪·李如星·鄭栢·崔謹愚 등의 동지들과 일제 치하에서 조직했던 비밀 결사 건국동맹을 바탕으로 조선건국준

29) 姜萬吉, 《한국현대사》(창작과 비평사, 1984), 166-167쪽

30) 李萬珪, 《여운형선생 투쟁사》(민주문화사, 1946), 188쪽. 이만규는 여운형의 동지이자 측근으로서 여운형을 높이 평가하는 입장에서 이 책을 썼다.

31) Cumings, 앞의 책, 71쪽

비위원회 곧 建準의 조직에 착수했다.

이와 동시에 몽양은 고하에게도 협조를 요청했다. 그날 오후 이여성을 보내 이른바 몽양-고하 합작론을 제의한 것이다.³²⁾ 그러나 고하는 총독부의 교섭에 불응했을 때 제시했던 명분을 반복하면서 응하지 않았다. 한편 정백은 낭산을 만나 다시 한번 몽양-고하 합작론을 제의했다. “몽양도 좋은 지도자고 고하도 좋은 지도자니, 이 두 지도자가 합작을 하면 여기에 대항할 세력이 없을 거요. 그러니 낭산이 사이에 들어서 합작을 시켜 주시오” -이것이 일제 치하에서 조선공산당 당원을 지냈던 정백의 제의의 핵심적 내용이었다. 고하도 낭산도 모두 거절했다. 이에 몽양은 “그럼 좋소. 나 혼자 나가겠소. 공산 혁명으로 일로 매진하겠소.”라고 대응했다고 낭산은 1946년의 글에서 주장했다.³³⁾

고하에게 몽양은 폐탕 또는 라우렐로 보였다. 이 점은 해방의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으로 몰려온 동지들과 냉수로 축배를 들면서 고하가 “폐탕이 돼서야, 라우렐이 되다니... 몽양 그 사람 쫓쫓쫓”³⁴⁾ 했다는 《고하 송진우 선생전》의 기록에서 확실해진다.

고하의 그러한 입장은 그의 일부 동지들로부터는 비판되었다. 이인의 회고에 따르면, 이인 스스로도 고하의 ‘의연한 태도에는 감동’하면서도, “고하가 정세 판단에 어두운 것이 아닌가 했다”는 것이다. “고하의 정세 판단이 어두운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동지들과 사전에 상의가 없었던 것은 큰 실수가 아니겠느냐는 뜻으로 이야기하기도 했다”³⁵⁾

그래도 고하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대담함으로써 동지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

아직 일본이 연합국측에 항복하겠다는 것뿐이지... 일본의 세력은 국내에 엄연히 남아있지 않소. 말하자면 일본군이나 경찰을 물리칠 힘이 있소. 이러한 때 정권을 받는다는 것은 독일 점령 당시의 불란서의 폐탕정권이나 일본에 잡혀있는 비올빈 라우렐 정권이나 무엇이 다른 것이 있겠소.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을 이행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정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때가 왔어도, 우리는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자기 개인의 정치적 이욕에만 취해서는 안되는 것이요. 연합군이 상륙하고 일본이 정식으로 항복한 후에 연합국과 논의해서 건국을 한다해도 조금도 늦을 것은 없는 것이요. 더욱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인사만으로 불합리한 정권을 세운다는 것은 오랫동안 국외에서 풍찬노숙하던 선배 동지들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오. 더욱이 일본 세력이 엄연히 있는 이 때, 그 세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세운다는 것은 일본세력의 연장이며 일본이 잘못된 것을 일본의 뜻을 받들어 뒤치다꺼리하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겠소. 미구에 연합군도 들어오고 해외에 있는 선배 동지들도 귀국하게 될 것이니 그때까지 마음의 준비와 현상 유지를 하면서 기다립시다.³⁶⁾

이러한 입장이었기에 고하는 지금부터라도 몽양과 제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총독부의 간곡한 권유도 거부했다. 그리하여 고하와 그의 동지들의 불참 속에 건준은 그날 저녁 조직됐다. 위원장에는 몽양이 그리고 부위원장에는 민세 안재홍이 각각 추대되었다.

이튿날인 8월 16일 마침내 전국 각 형무소의 무거운 문이 열렸다. 감옥으로부터, 그리고

32) 이기형, 앞의 책, 190쪽

33) 김준연, <정계회고 1년>, 앞의 책, 1쪽

34) 《고하 송진우 선생전》, 301쪽

35) 이인, 앞의 책, 144-145쪽

36) 《고하 송진우 선생전》, 307-308쪽

지하로부터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자유롭고 독립된 새 나라를 만들어 세워 세계사의 진운에 발맞춰 나간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그러한 결의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이제야말로 한반도에는 조선왕조 5백년 이래의 봉건제도, 특히 일제를 거치면서 더욱 나빠진 소수 지배자에 의한 다수 민중의 착취를 뒷받침하는 사회 경제적 제도와 그 유산을 말끔히 정리할 수 있는 때였다. 왜냐하면 그러한 제도를 뒷받침하던 세력이 무너져버렸기 때문이다. 문자 그대로 오랫동안 지연돼 왔던 근본적인 개혁, 조선왕조 후기에 실학사상가들이 주창했고 그 뒤 근대적 사상가들과 이론가들에 의해,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에 의해 더 발전해 온 개혁안이 힘차게 추진될 수 있는 때가 온 것이다. 그들은 또한 통일 국가를 세울 결의에 차 있었다. 건준을 만드는 사람들을 비롯해 모든 지도자들은 연합국들이 한반도를 분단할 것임을 몰랐기 때문에 오로지 통일된 독립 국가의 건설이라는 꿈에 벽차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민족 지도자들 사이에는 조금씩 틈이 벌어지고 있었다. 몽양으로 대표되는 건준 세력과 고하로 대표되는 우익의 일부 세력 사이의 간격이 그것이다. 이 간격은 8월 16일 총독부의 부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말미암아 더욱 커지게 되었다. 소련군이 한반도의 거의 전부를 점령하게 된다는, 당시 서울에 주재하는 소련 영사 폴리안스키(Alexander Polianski)가 의도적으로 뿌렸을 정보를 건준쪽에 전해 준 것인데, 여기서 건준은 그렇다면 우익의 일부를 대표하는 고하 세력과 제휴하려는 노력을 굳이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계산하게 되었던 것이다.³⁷⁾ 이러한 배경에서, 8월 16일 몽양은 고하 세력의 불참 속에 건준을 공식으로 발족시켰으며, 이것을 기점으로 전국의 많은 지역들에 건준의 지부가 세워져 나가게 되었다.

2 건준의 내용과 변질을 바라보며

그러나 건준은 곧 안팎으로부터의 도전에 부딪치게 되었다. 그 중요한 요인은 연합국의 의도가 명백해진 데서 시작되었다. 태평양지역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연합군이 진주할 때까지 조선총독부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발표하고, 또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을 미군이 점령할 것이라는 방침을 주지시키자, 총독부는 건준에 대해 저항적인 자세를 취하기 시작했다. 8월 17일에는 건준의 기능을 치안유지에 국한 하도록 요구한데 이어 18일에는 해산마저 요구했고, 이와 병행하여 조선주둔 일본군은 자신들이 치안의 지도력을 가져야 하겠으며 ‘민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무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³⁸⁾

《고하 송진우 선생전》에 따르면, 이 시점인 8월 17일 오후 두 시 몽양은 긴히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원서동으로 고하를 찾았다. 두 사람은 비밀리에 단독 회담을 가졌다. 몽양이 “고하는 나를 폐탕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한 말이었소”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묻자, 고하는 “몽양을 가리켜 한 말은 아니오. 이런 시기에 정권을 물려받으면 폐탕이 되기 쉽다고 했소”라고 응수했다. 고하는 이어 “정권은 국내에 있던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연합군이 들어와서 일본군이 물러나고 해외에 있던 선배들과 손을 잡은 뒤에 절차를 밟아서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오. 그때가 되어 몽양이 생각이 있다면 내가 극력 몽양을 추대할 것이니 지금 정권 수립은 보류했으면 싶소”라고 설득했다. 몽양의 결심 역시

37) Henderson, 앞의 책, 115쪽

38) 洪仁淑,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강만길 외(공저), 《해방전후사의 인식》, 전5권 (한길사, 1979-1989), 제2권 (1985), 68쪽

굳었다. “어째서 꼭 해외에 있는 사람들과 정권을 받아야 하오. 고하와 나와 둘이 손만 잡는다면 그만한 세력은 없을 것이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세력도 우리들 속에 흡수될 것이고 해외 인사라고 해도 별로 문제될 만한 사람은 없소”라며 고하에게 다시 한번 제휴를 요청했다. 고하는 “의리상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소”라고 뿌리쳤다. 이에 몽양은 “그러면 그 동안은 국내는 진공상태로 둘 생각이오?” 라고 반격했다. 고하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몽양은 내가 보기에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오. 그러나 자칫하면 그들에게 휘감기어 공산주의자도 못되면서 공산주의자 노릇을 하게 될 위험성이 없지 않소. 내 말을 들으시오”라고 역설했다. 몽양은 “내가 뺏이 되던 두고 보시오” 라면서 일어났다.³⁹⁾

몽양과 고하의 이 대화는 고하쪽의 자료에 나올 뿐 몽양쪽의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다. 따라서 주고받은 대화의 말 자체가 여기에 소개되어 있는 그대로인지는 1백 퍼센트 자신 있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대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고하가 건준 주동 세력을 공산주의자들로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고하의 이러한 建準觀은 고하 진영에게는 대체로 공통적이었던 것 같다. 예컨대, 당시 고하 진영의 지도적 이론가인 낭산은,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몽양이 “공산혁명으로 일로 매진하겠소”라고 선언했다고 주장하면서 건준이 사실상 공산 집단인 것처럼 말했던 것이다. 이것은 상대방 정적을 공산당으로 낙인찍어 매도해 버리려는 극우 반공적 모략술로 볼 여지가 없지도 않다. 그러나, 그 문제는 논외로 하고, 한 가지 분명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920년대 이후 줄곧 계속됐던 좌익과 우익의 이념적 갈등이 되살아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일제의 태도는 바뀌어 가고 고하와의 제휴 교섭도 실패한 가운데 입지가 조금씩 제약되어 가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 몽양은 얼친 데 덜친격으로 몇몇 괴한들로부터 테러를 당했다. 그것은 내분과도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무엇인가 건준의 안에서 끊고 있었던 것이다. 어려운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몽양은 다시 한번 고하에게 제휴를 요청했다. “그대 보기에 나의 출발에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국가의 큰 일이니 허심탄회하게 나와서 대중의 신망을 두텁게 하고 대사에 차질이 없게 하자”고 진지하게 설득한 것이다. 몽양으로서는 강력한 우익 지도자를 영입함으로써 건준 안에서 점점 거세어지는 좌익을 견제하려고 했던 것 같다. 고하는 여전히 “경거망동을 삼가라. 重慶 임시정부를 지지해야 한다”고 맞섰다.⁴⁰⁾

고하 세력의 협조를 동원하지 못한 가운데, 건준의 내홍은 점점 깊어졌다. 그것은 특히 건준 안에 이미 들어와 있던 조선공산당 세력의 확장에 의해 자극되었다. 지하로부터 나온, 당시 만 45세의 박헌영이 재건한 조선공산당은 그가 제시한 〈현 정세와 우리의 임무〉라는 제목의 이른바 8월 테제를⁴¹⁾ 내걸고 조직을 확대해 남한과 북한 모두에서 기세를 떨치는데 건준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쌓아 올린 것이다. 여기서 중도파인 안재홍 부위원장은 뒤늦게나마 ‘임정 절대 지지’를 성명한 뒤 자신의 지지자들과 함께 건준을 탈퇴하여 9월 1일 조선국민당을 결성하고 위원장으로 취임했다. 몇몇 밖에 지나지 않던 우파 인사들도 떨어져 나왔다.⁴²⁾ 건준이 중대한 고비를 맞은 것이다.⁴³⁾ 몽양은 9월 4일 부위원장에 좌파 변

39) 《고하 송진우 선생전》, 308-309쪽

40) 이기형, 앞의 책, 197쪽

41) 박헌영의 8월 테제에 대한 분석으로는, 金南植, 《남로당 연구》(돌베개, 1984), 24쪽

42) 안재홍에 대한 최근의 가장 권위 있는 정치학적 분석으로 다음을 지적한 수 있다. Yoon Jae Chung, “A Medical Approach to Political Leadership: An Chae-Hong and a Healthy Korea” unpub. Ph. D. dis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1988.

43) 건준의 내분에 대해서는, 이동화, 앞의 논문, 하, 《창작과 비평》 제13권 제3호 (1978년 가을), 125-127쪽

호사 허헌을 세움과 동시에 부서를 개편하여 사태를 일단 수습했다. 그러나 9월에 들어가면서 건준에 대한 조선공산당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으며, 발족 초기에 나타났던 좌우파의 연합체제 같은 성격은 크게 약화되었다. 이 시점에서, 李元高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⁴⁴⁾ 몽양은 실권을 잃었으며,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었다. 우리가 다음 章에서 보게 되는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의 선언이 그것이다. 고하의 눈으로 볼 때, 자신이 8월 17일에 주었던 경고가 적중하고 있었던 셈이다.

3 우익의 동향과 고하

이처럼 좌익 세력이 건준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가는 상황에서 고하의 세력은 임정봉대론을 표방하며 ‘애국지사들의 환국’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여, 이것이 우익 세력 전체의 움직임을 대표한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실 이 시점에서 우익 세력은 약했다. 그들 가운데 행동적 항일 투사이건 또는 은둔지사이건 민중의 신망을 받는 이가 많지 않음에 비해 친일적 인사로 의심받던 이들도 꽤 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을 논의의 편의상 우익으로 묶어 부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들 사이에 어떤 이념적-노선적 동질성이 굳건히 확보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바로 그 점 때문에 파고가 매우 높은 해방 정국의 초기에 한탕어리가 되어 적극적으로 표면에 나서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도 그들 가운데 정국의 일선에 조용하게나마 나서게 된 세력은 일제 말기에 감옥에 있었거나 은둔해 있던 이들이다.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장을 역임한 가인 김병로나 애산 이인이 그 대표적인 이들로, 이들은 고하와 가까우면서도 고하의 지론과는 달리 한때 건준과의 제휴를 추진하기도 했다. 좌익 편향으로 치닫는 건준을 방관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우익에서도 참여해 건준 자체를 개편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건준개편론은 그러나 건준의 좌익 핵심 세력에 의해 건준변질론으로 규정되어 거부되었다.⁴⁵⁾

이 시점에서 우익 세력의 한 부분은 8월 하순 고려민주당을 발족시켰는데 이것이 곧 사회민주주의적 강령을 갖는 조선민족당으로 개편되고, 다른 한 부분은 9월 1일 한국국민당을 발족시켰다. 이 두 정당은 9월 4일 발기회를 개최한 한국민주당 약칭 한민당이라는 새 정당으로 통합되었다. 김병로, 백관수, 이인, 허정, 윤보선, 김도연, 元世勳, 白南薰 등등이 여기에 참여했다.⁴⁶⁾ 이 일련의 과정에 고하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임정봉대론을 표방하면서 ‘정당 시기상조론’을 내세웠다. 임정의 환국과 연합군의 입국을 기다려 보아야 하며 그 이전에 정당을 조직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이었다.⁴⁷⁾ 그러한 논리에서 그는 9월 1일 대한민국임시정부환국환영회를 조직하고 임정봉대론을 다시 확인했다. 이처럼 일관되게 버티던 그에게, 우리가 다음 章에서 보게 되듯이, 마침내 그가 말하던 때가 곧 미군의 진주라는 형태로 오며 그리하여 그는 우익의 모든 세력을 거느리고 정계의 일선에 나서게 된다.

여기서 잠시 우리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았던 해방이후 1개월이 채 안되는 시기에 고하가 취했던 행동을 재음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우선 그가 일제 총독부로부터 치안권을, 또는 치안권을 포함한 행정권의 일부를 인수받지 않았던 것은 정당한 일이었다고 하겠다. 해방 전후사에 정통한 언론인 宋建鎬는 패망을 앞둔 일제가 1945년 “8월에 접어들면서 자기들의

44) Won Sul Lee, *The United States and the Division of Korea*, 1945 (Seoul: Kyunghee University Press, 1982), p.145

45) 曹圭河-李康文-姜聲才, 《남북의 대화》(고려원, 1987), 53-56쪽

46) 김학준, 《가인 김병로》, 258-260쪽

47) 이경남, 《설산 장덕수》(동아일보사, 1981), 299-300쪽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對조선인 공작을 시작하였다. 그 첫째가 조선에 일본의 괴뢰기구 같은 것을 수립할 공작이었다”라고 주장했는데,⁴⁸⁾ 이 주장이, 즉 일제가 조선에 일본의 괴뢰기구 같은 것을 수립할 공작을 추진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너무나 뻔뻔스러운 요구”를 거부한 것은 당연한 처신이었음에 틀림 없다.

그러면 몽양과의 합작을 끝내 거부한 처사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대답이 간단하지는 않다. 우선 고하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들 또는 역사가들의 견해를 들어 보자.

8·15 직후 때만 해도 몽양을 따르던 일부 청년층에서는 고하가 “민족적 대사업에 합작을 거절하고 분열을 꾀한다”고 비난했다.⁴⁹⁾ 또 건준에서는 “고하는 비겁하기 때문에 나서지 못한다”고 깎아내렸다.⁵⁰⁾ 보다 이론적인 비판은 고하와 적대 관계에 있던 건준과 인공의 후예로서 1946년에 결성되는 민주주의민족전선에 의해 제시되었다. 그들은 “송진우파는 민족계량주의의 대표적 세력으로 대지주, 민족 부르주아, 토호 열신에 그 기반을 두었으므로 국내 무산 대중을 중심으로 한 혁명 정권은 그의 계급 존립에 중대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다. 항일 투쟁력을 상실한 그들은 在重慶 김구 정부의 환국을 촉진하여 일제 패퇴 후 新 정세에 대처하는 것이 유일한 활로일 것이다”라고⁵¹⁾ 매도한 것이다. 최근에 와서는 송건호가 비판적으로 보았고⁵²⁾, 송남헌도 그렇게 보았다. 송남헌의 경우, “특히 당시 건국준비위원회에는 좌익 분자가 많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송진우로서는 도저히 그들을 상대로 투쟁할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썼다.⁵³⁾

그러한 측면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지은이도 앞에서 지적했듯이, 해방정국의 첫 달은 고하를 비롯한 우익 세력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그러나 고하가 어떠한 사유에서도 3·1운동의 법통과 임정의 법통은 존중하여 임정봉대론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공산당에 대한 반대로 일관했다는 것은, 특히 북한이 소련 점령 아래 놓인 상황임을 고려할 때 남한에서의 공산주의자들의 권력 장악을 방지 해야겠다는 취지로 정견을 세웠다는 것은 우익 민족주의자로 일관해 왔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그의 생애에 비추어 이해될 만하다. 물론 고하와 몽양의 합작이,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좌익과 우익의 합작이 성사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은 너무나 크다. 1920년대 이후의 좌우익의 이념적 대결을 민족사적으로 매우 중대한 이 시점에서조차 극복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의 일단이 고하로 대표되는 우익에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책임이 좌익에 있다는 것도 공평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고하가 몽양의 제의를 받아들였다고 하여 좌익과 우익의 연합이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었는가는 의문의 세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음 章에서 보듯이 남한의 해방정국은 너무나 복잡하고 얽히고설킨 가운데 대내외적 갈등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이다.

48) 宋建鎬, 《서재필과 이승만》(정우사, 1980), 44쪽

49) 이기형, 앞의 책, 197쪽

50) 《고하 송진우 선생전》, 308쪽

51) 민주주의 민족전선(편), 《조선해방연보》(1946), 송남헌(편), 앞의 책, I, 10쪽에서 다시 옮김.

52) 송건호, 앞의 책, 46쪽

53) 송남헌, 앞의 책, I, 9쪽

제10장 한국민주당 창당으로부터 피살까지의 고하의 정치활동

제1절 미군의 진주와 고하의 한국민주당 창당

1 건준의 조선인민공화국으로의 변질

우리가 제9장에서 살펴 보았던대로, 해방의 그날부터 표면화되었고 2~3주 안에는 점점 넓어진 고하 진영과 건준 사이의 간격은 미군의 남한 점령을 계기로 도저히 메울 수 없는 상태로 굳어져 버리고 말게 된다. 건준은 이른바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고, 고하의 진영은 여기에 맞서 국민대회준비회를 결성한 다음에 곧바로 한국민주당을 창당함으로써 두 세력의 관계는, 이 시기를 깊이 연구한 최상룡 교수의 표현으로는, ‘불구대천의 대립 관계’로¹⁾ 악화되고 마는 것이다. 이 과정을 이節에서 살펴기로 한다.

미군이 9월 7일에 인천에 상륙하고 곧이어 서울에 진주한다는 확실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건준은 미군의 서울 진주에 앞서 사실상의 정부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합법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밟아 나갔다. 즉 9월 6일 급작스럽게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열어 조선인민공화국, 약칭 인공의 수립을 선포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준은 모든 사업을 인공으로 넘기고 9월 7일 ‘발전적 해소’를 하였다. 급조된 인공에서, 건준의 위원장 여운형이 부주석으로, 부위원장 허헌이 국무총리로 각각 선출된 것을 비롯해 건준의 간부들이 중요한 부서들을 맡았다.

다만 자신의 정통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해외의 이름있는 독립투사들과 국내의 지도자들을 그들과의 상의 없이 중요한 부서들의 책임자들로 선출했다. 이승만이 주석으로, 김구가 내무부장으로, 김규식이 외무부장으로, 김원봉이 군사부장으로, 신익희가 체신부장으로 각각 발표된 것이 그 보기들이다.²⁾ 이들은 뒷날 귀국했을 때 모두 그러한 자리에서의 취임을 거부한다. 반면에 합작하자고 여러 차례 제의했던 대상인 고하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이 무렵, 우리가 다음 항목에서 보게 되듯이, 고하는 미군의 입경을 겨냥하고 건준勢에 맞설 우익의 결집을 추진하고 있었던 만큼 고하를 견제할 필요가 있기에 제외시킨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다만 인촌을 문교부장에, 그리고 가인을 사법부장에 각각 임명하여 고하의 진영에 대해서도 ‘배려’한다는 인상을 주고자 한 것 같다. 물론 고하의 진영은 그것을 전면 거부했다.

인공은 자신의 목적이 조선의 자주독립과 민주적 개혁의 수행과 일체 잔재의 제거를 모두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민주적 임시정부의 수립에 있다고 밝혔다. 전국인민대표자회의의 위원장직을 맡았던 몽양은 앞으로 세울 자주 독립국가는 “노동자, 농민, 일체의 근로 인민대중을 위한 국가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과 앞으로 세울 정권은 “모든 인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기본요구를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주의 정권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다짐했다.³⁾ 표면적인 말만 보아서는 당시 조선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한 것으로 일단 평가할 수 있겠다.

건준이 인공으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조선공산당이, 특히 박헌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몽양의 친동생인呂運弘조차 “이것은 순전히 소아병적인 극렬 공산당원들이

1) 최상룡, 《미 군정과 한국민족주의》 증보판 (나남, 1989), 79쪽

2) 呂雲弘, 《몽양 여운형》 (청하각, 1967), 153쪽. 인공의 성립 과정에서의 몽양의 역할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金光植, <제3세계 민족주의자로서의 여운형>, 《제3세계 연구》 제2호 (1985년 6월), 322-323쪽

3) 최상룡, 앞의 책, 84쪽

꾸며낸 하나의 연극이었다”라고 쓰고 있다.⁴⁾ 이 점 때문에, 그리고 ‘근로 인민 대중의 국가’와 ‘인민공화국’ 운운의 용어 때문에, 세간에서는 “인공은 붉다”라는 인상을 갖게 되었으며, 이 기미를 이용하여 우익 지도자들은 인공이 바로 공산당이라는 인식을 더욱 부채질했다. 어쨌든 미군의 입경을 앞두고 당시 남한의 최대의 조직적 정치 세력인 범좌익 세력은 인공으로 집결된 것이다.

2 고하의 국민대회준비회 소집

일제로부터가 아니라 연합군으로부터, 그것도 한 정당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국민의 이름으로 권력을 받아야 한다고 고집하던 고하에게 미군의 입경이 마침내 그로 하여금 해방정국의 전면에 나설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한 일이었다. 이 시점에서 그는 자신이 조직했던 대한민국임시정부환국환영회를 기반삼아 국민대회준비회를 소집하게 되었다. 국민대회 형식에 대한 그의 집착은 8월 15일 직후 평양의 고당 조만식이 장거리 전화로 “일본인 도지사가 행정권을 받으라고 하니 받아도 좋겠느냐”고 물어 왔을 때, “개인 자격으로 받지 말고 민중대회를 열어서 민중의 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고⁵⁾ 권고해 준 데서도 나타났었다.

고하의 주도 아래 국민대회준비회가 열린 것은 9월 7일이었다. 그러니까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고 서울에 진주한 바로 그날이었으며, 인공이 수립된 그 다음날이었다. 장소는 동아일보사 강당을 택했다. 3백여 명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고하는 경과보고를 맡았으며 의장은 서상일이 맡았다. 고하는 우선 국민대회 결성 강령으로, “(1) 연합국에 감사를 드린다. (2) 국민대회를 열어서 해내-해외의 민족 총역량을 집결한다. (3) 重慶에 있는 임시정부의 법통 곧 3·1운동의 법통을 지지한다. (4) 보수와 진보 두 갈래의 정당을 만들어 민주주의의 방식에 의한 정당정치를 실현한다” 등등을 내세웠다. 이어 국민대회준비회의 첫 단계 사업으로, “(1) 건준=인공이 공산당과 그 동조자들의 모체 역할을 하는 데 대하여 국민대회준비회는 민족진영의 모체 역할을 한다. (2) 해외에서 환국하는 지사와 동포에게 편의를 베푼다. (3) 연합군정에 대한 국민의 대변을 한다. (4) 민심 안정과 치안 유지에 협력한다” 등등을 제시했다.⁶⁾

‘강령’과 ‘첫 단계 사업’에서 제시된 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예컨대 연합국에 대한 협력과 임정에 대한 지지 등등은, 우리가 앞 章의 여러 곳들에서 이미 검토했듯이, 고하가 이미 여러 차례 표시했던 입장이어서 여기서 새롭게 분석될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그가 인공을 사실상 공산당의 모체로 보고 자신이 이끄는 세력을 우익의 본거지로 자임하면서 보수 대 진보의 정당 구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할 대상이다.

우리가 앞의 章들의 여러 곳들에서 이미 지적했거나 시사했듯이, 고하는 철저하게 그리고 일관되게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했다. 이 점은 고려대학교 총장과 제3공화정의 제1야당 신민당 총재를 역임한 玄民 兪鎭午의 회고록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난다. 일제 치하에서 고하와 인촌을 비롯한 선배들과 술자리에서 자주 어울렸다고 회고하면서, 현민은

4) 여운홍, 앞의 책, 153쪽

5)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 (편), 《고하 송진우 선생전》(동아일보사출판국, 1965), 303쪽. 이 책은 앞으로 《고하 송진우 선생전》으로 표기된다. 고당의 전기도 이 시기에 “고당은 서울과의 연락은 [...] 송진우 등과 하고 있었다”고 쓰고 있다. 평남민보사 고당전.평양지 간행회(편), 《고당 조만식》(평남민보사, 1966), 173쪽

6) 《고하 송진우 선생전》, 312-313쪽

“연장자 중에서도 특히 열렬하게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인촌과 고하였다”고 상기한 다음 이렇게 썼다.

젊은 패들 중에는 진짜 공산주의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대체로 좌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때의 경향이었기 때문에 자연 인촌이나 고하의 말에 대해서는 반대론을 펴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인촌은 평소의 인촌답지 않게 팔을 걷어붙이고 語聲을 높이기가 일쑤였고, 고하는 곧잘 주먹을 휘둘러가며 열변을 토하였다. [...] 7)

고하의 이러한 태도에 미루어, 최상룡이 “일제 치하에서 송진우는 [...] 일관해서 공산주의와의 타협에 반대해온 인물이다”라고⁸⁾ 쓴 것은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이러한 반공적 입장은, 그리고 그 연장선 위에서 건준=인공을 반대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입장은 우리가 곧 살필 고하의 짧았던 정치 활동의 기초가 된다.

고하는 곧 국민대회 발기인을 선정하는 일에 들어갔다. 우선 3·1운동의 33인의 민족 지도자로서 옥고를 치른 뒤에도 일관되게 고난을 참고 지조를 지켜온 권동진과 오세창 그리고 파리長書사건 이후 불굴의 항일투사로 자리를 굳힌 김창숙을 준비회 고문으로 추대하여 승낙을 얻었다. 그밖에도 많은 지도자들이 호응하여 고하를 위원장으로 하고 서상일과 원세훈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김준연과 송필만과 설의식과 李順鐸과 張澤相 등등을 간부로 하는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⁹⁾

국민대회준비회가 무사히 끝난 직후인 9월 7일 오후와 8일 이틀에 걸쳐 고하는 중국의 <타랑파오 (大公報)>와 프랑스의 공산계 기자와 각각 회견을 가졌다. 여기서 고하는 “우리 국민은 하루 바빠 중국에 있는 망명정부인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환국하기를 바라고 있다. 임시정부의 혁명 원로들을 중심으로 굳게 뭉쳐서 민주주의 신생 독립국가를 세우자는 것이 나의 정치 구상이다”라고 전제하고, 민족 스스로의 역량에 비추어 연합국들이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원조만 해주면 독립국가로 훌륭히 자존 자립할 수 있다”는 민족적 자신감을 대변했다.¹⁰⁾

3 고하의 한국민주당 창당

국민대회준비회는 고하에게 하나의 정치적 발판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정당은 아니므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의 도구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 점을 인식하여, 고하는 국민대회준비회와 그 조직이 사실상 겹쳐있는 한민당발기회에 9월 7일 인촌과 낭산과 그리고 서상일과 金東元과 安東源 등등과 공식적으로 참여했다. 그렇다고 하여 국민대회준비회가 해체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한민당과 ‘형제격으로’ 계속 남게 된다.¹¹⁾

고하의 공식적인 참여와 더불어 한민당의 창당 작업은 활발해졌다. 9월 7일 미군의 입정은 한민당 참여자들에게 활기를 불어 넣었다. 작업은 빨라져 9월 16일 천도교 강당에서 1천6백여명의 발기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창당대회를 갖는 데 성공했다. 가인 김병로가 임시

7) 俞鎭午, 《養虎記 : 普專-高大 35년의 회고》(고려대학교 출판부, 1977), 51-52쪽

8) 최상룡, 앞의 책, 78쪽

9) 《고하 송진우 선생전》, 314쪽

10) 李相敦, <눈부신 정치공작, 쓰러진 거목 : 송진우>, 《신동아》(1977년 8월), 124-125쪽

11) 이기하, 《한국정당발달사》(의회정치사, 1961), 59쪽

의장으로 의사를 진행한 이날 대회는 (1) 임정봉대를 다시 확인하고, (2) “전제와 구속 없는 대중 본위의 민주주의 제도 [에 기초한] 완벽무결한 자주 독립 국가”를 세워, 안으로는 “국민의 생활과 교양을 향상시키며 특히 근로 대중의 복리를 증진시켜 [...] 전 국민의 자유로운 발전을 보장하며” 밖으로는 “국제평화의 대헌장을 끝까지 준수-확충하려 한다”는 요지의 선언문을 채택했다. 또 “(1) 조선민족의 자주독립국가 완성을 기함, (2) 민주주의의 정체 수립을 기함, (3) 근로대중의 복리 증진을 기함, (4) 민족문화를 양양하여 세계문화에 공헌함, (5) 국제헌장을 준수하여 세계평화의 확립을 기함” 이라는 5대 강령을 채택했다. 이어 정책으로는 “(1) 국민 기본 생활의 확보, (2) 호혜 평등의 외교정책 수립, (3) 언론-출판-집회-결사-신앙의 자유 보장, (4) 교육 및 보건의 기회 균등, (5) 重工主義의 경제 정책 수립, (6) 주요 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 관리, (7)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 (8) 국방군의 창설”을 제시했다.¹²⁾

선언문과 강령과 정책의 어느 곳에도 당시의 핵심적인 과제들 가운데 하나인 ‘친일파’의 청산 또는 일제 잔재의 하나인 토지개혁에 대해서는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이라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그리고 인공도 제시했고 임정도 제시한 기간산업의 국유화에 대해서는 ‘주요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 관리’라는 완화된 표현으로 끝맺었다. 커밍스가 “한국 민주당의 강령들과 정책들은 애매하고 불분명한 일반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논평한 것이나,¹³⁾ 최상룡이 “한국민주당의 계급적 한계로 [...] 민족 운동의 諸 과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정책들밖에 내놓을 수 없었다고 본 것은¹⁴⁾ 그 때문이다.

이어 당시 영수로서 이승만, 서재필, 김구, 이시영, 文昌範, 권동진, 오세창 등등, 임정의 간부들 또는 항일 독립운동가들 7인을 추대함으로써 자신의 명분인 임정봉대론에 자신을 인맥적으로 상응시킴과 아울러 그것을 통해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 물론 그들 가운데 권동진과 오세창을 빼놓은 나머지 다섯 지도자들은 해외에 있었고 접촉이 되지 않는 상태였다. 권동진과 오세창도 영수직을 수락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닷새 뒤인 9월 21일 총회 위임에 따라 중앙부서를 확정지었다. 당수제 또는 최고위원제를 채택하지 않고 총무제를 채택했는데, 1도 1총무의 원칙에 따라 함경도의 원세훈, 전북의 백관수, 경북의 서상일, 경기의 김도연, 경남의 허정, 충남의 조병옥, 황해의 백남훈, 평안도의 김동원 등등 8명의 총무를 뽑았다. 당시 창당 작업에 참여했던 李相敦은 “이와 같은 지역균등 원칙을 세운데 대해서는 지금 정당 운영에서도 참고할 바라고 생각한다. 그때 한국민주당 수뇌부에서는 지역 감정과 지방색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회고했다.¹⁵⁾ 고하는 수석총무로 추대되었다. 이로써 고하는 당시 국내 우익 세력의 결집체인 한민당의 사실상 당수로 활약할 수 있게 되었다. 김병로는 중앙감찰위원장으로, 이인은 당무부장으로, 장덕수는 외무부장으로 金若水는 조직부장으로 각각 그를 돕게 되었다. 다른 간부들은 고하와 워낙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왔던 동지들이어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으나, 1925년 4월 비밀리에 조직됐던 조선공산당의 간부로 복역까지 했던 김약수의 기용은 세인을 놀라게 했다. 이상돈의 회고에 따르면, 김약수의 기용은 고하의 결단이였다. “조선공산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하도 한국민주당을 욕하고 헐뜯으니 조직부장에 공산당 거물인 김약수를 앉혀 놓았다. 그리고 김약수 정도의 공산당원은 급진 과격파가 아닌 만큼 쓸모가 있다”고

12) 송남현, 《해방 3년사 : 1945-1948》 전2권 (까치, 1985), 제1권, 125-126쪽

13) Bruce Cumings,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2 vols.(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I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p.97.

14) 최상룡, 앞의 책, 144-145쪽

15) 위와 같음, 123-124쪽 ; 이상돈, <내가 겪은 체험 내가 본 사건>, <조선일보>, 1990년 4월 12일.

고하는 해명했다고 이상돈은 회고했다.

체제를 갖춘 한민당은 곧바로 건준=인공에 대한 공격으로 나왔다. 그 첫 신호가 한민당이 공식으로 창당되기 여드레 전이며 미군이 입경한 바로 다음 날인 9월 8일에 한민당발기회의 이름으로 발표된 ‘인민공화국 타도’의 성명서이다.¹⁶⁾ 매우 격렬하고 전투적이기까지 한 문구들로 구성된 이 성명서는 우선 독립 투쟁에 모든 것을 바친 애국선열들을 높이 기리고 이어 임정봉대를 다시 확인했다. 그런데 임정을 높이고 싶은 의도-그것은 자신의 명분을 강화하려는 의도에 연결된다-에서, 임정이 “중국 국민정부와 미국 정부의 지지를 받았다”고 쓴 것까지는 허용될 수 있다 해도, “국제적으로 승인되었다”라든가 “카이로회담의 3거두로부터 승인되었다” 하고 주장한 것은 사실에 어긋난다. 우리가 제8장 제2절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임정은 어느 곳으로부터도 승인을 받은 일이 없다.

이 성명은 이어 “독립 운동의 결정체”인 임정이 있는데도 총독부로부터 겨우 “치안 유지에 대한 협력의 의뢰를 받은 여운형이 마치 독립 정권 수립의 정권이나 맡은 듯이 4~5인으로서 소위 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한” 것을 규탄했다. 그 다음으로는 인공을 비난했다. 민심이 건준으로부터 떠나자 “발악박에 남은 것이 없어진 그들은 이제 반역적인 소위 인민대표자대회라는 것을 개최하고 조선인민공화국 정부란 것을 조직하였다고 발표하였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可笑타 하기에는 너무도 사태가 중대”한데, 게다가 애국지사들의 명의를 ‘도용’한 것은 “인심을 현혹하고 질서를 교란하는 죄”로서 “실로 萬死에 당한다”고 이 성명은 단죄했다. 감정적인 매도는 몽양과 그 주변 세력으로 이어졌다. “조선의 라우렐이 될 것을 꿈꾸던 도배이며, 일본의 압박이 소멸되자 정무총감, 경기도 경찰부장으로부터 치안 유지의 위촉을 받고 피를 흘리지 않고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야망을 가지고 나선 일본제국의 주구들”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성명에서, 한민당발기회는 자신들이 “정의의 쾌도로서 破邪顯正의 의거를 단행할 것”임을 다짐하면서 민중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줄 것을 호소했다.

이제 건준=인공을 겨냥한 한민당의 화살은 활시위를 떠났다. 한민당 8인 총무 가운데 한 사람이며 미 군정의 경무부장을 지낸 조병옥이 뒷날 “한국민주당의 첫 사업은 해방 직후 재빠르게 결성한 건국준비위원회와 같은 해 9월 6일에 좌익분자를 중심으로 조직된 소위 조선인민공화국을 제거하는 데 있었다”고 회고했듯이¹⁷⁾ 인공으로 대표되는 좌익세력과 한민당으로 대표되는 우익세력 사이의 투쟁은 그 막을 올린 것이다.

4 한국민주당의 성격

그러면 한국민주당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다룬 저서들의 주장을 그 저서들이 출판된 연도의 순서에 따라 소개해본다. 그 당시에 이미 좌익세력은 한민당을 ‘반동 세력’으로 단정한 바 있다. “이 당에는 온갖 반동요소가 섞여 있으나 그 주도적 세력은 두말할 것도 없이 대지주층 및 전쟁협조적 재벌인 것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다.¹⁸⁾ 1960년대에, 韓太壽 교수는 “한국민주당은 당시 유일한 세력 집단인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항하기 위하여 반공산세력이라면 誰可를 막론하고 포섭하려 하였고, 따라서 여기에 과거 日帝時 친일적이었던 세력이 집결하게 되었다”라고 썼다.¹⁹⁾ 이어 李起夏는 “한민당은 그 성격상

16) 이 성명 전문은 송남헌, 앞의 책, 121-123쪽에 있다.

17) 조병옥, 《나의 회고록》(해동, 1986), 141쪽. 이 책은 원래 1959년에 민교사에서 출판되었다.

18) 민주주의민족전선(편), 《조선해방연보》(1946), 위와 같음, 127쪽에서 다시 옮김.

으로 보아 첫째, 거개가 보수파들의 집단이고 둘째로 畿湖派 및 호남파들의 재벌가 및 중산 계급의 결정체인 부르주와 정당이며 셋째로, 왜정시의 관료출신이 많았으며 심지어는 고등 관리를 경력한 인사들도 내포되어 있어서 여차한 면으로 친일파의 색채를 불면하게 되었으며 넷째로, 同黨은 김병로, 장덕수, 백관수, 조병옥의 신간회 출신인 약간의 소극적인 항일 투사를 제외하고는 거개가 靜觀하고 있던 기회주의자들인 국내파들의 클럽이다”라고 분석했다.²⁰⁾ 장덕수를 신간회 출신의 소극적인 항일투사로 본 것은 착오일 것이다. 신간회가 조직되고 활동하던 시기에 그는 해외에 유학중이었다.

1970년대 이후 한민당에 대해 두 권의 책을 낼 정도로 한민당을 깊이 연구한, 그리고 해방 3년사의 정치를 폭넓게 연구한 沈之淵교수는 한민당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그는 “한민당의 주요 구성원 중에서 민족 전체를 이끌어 갈 만한 지도자로서 대부분의 국민이 수긍-납득할 수 있는 인물이 별로 없었다. 한민당 내에 열렬한 독립운동가로서 변절함이 없이 일제와 끝까지 투쟁했던 인물은 드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오히려 일시적인 민족운동을 한 후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관했다고 평하는 편이 적절한 인물이 상당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혹평한다.²¹⁾ 1980년대 이후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한민당 당원이기도 했으나 뒷날 한민당을 탈당하고 김규식을 보좌한 송남헌은 “한민당의 성격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부정적이며 비판적이다”라고 썼다.²²⁾ 건준과 인공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최상룡은 “8·15이전의 민족 개량주의자가 민족주의적 경향과 친일파적 경향을 가능성으로 함께 가지고, 공산주의자와는 명백히 대립하고 있었던 것처럼, 8·15 이후의 한국민주당도 국내 우파세력, 이를테면 민족자본가, 일본 통치하의 관료, 예속 자본가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했다.²³⁾ 미국에서 이 문제를 깊이 연구한, 그리고 역시 건준과 인공에 호의적인 커밍스 교수는 “한민당을 주도하는 그룹이 부일협력자로 규정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그 용어의 定義와 보는 이의 시각에 달려 있다”고 전제하고, 송진우에 대해서는 다른 간부들에 비해 관찮게 말하면서도, 전반적으로는 한민당에 대해 비판적인 분위기를 유지한다.²⁴⁾

이러한 지적들에 대해, 창당자들의 견해는 다르다. 8인 총무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비교적 깨끗한 정치인으로 신망을 받다가 4·19직후 과도 정부의 수반이 되었던 허정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처음 우리가 한민당을 준비할 때는 독립 조국의 주류 형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인물의 엄선이 확고한 원칙이었다. 친일파나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객관적 정세는 급변해 갔다. 건준의 독주만이 아니라 공산당의 재건, 사회주의 계열의 정당 사회단체의 난립 등은 우리들의 이상만을 고수하여, 민주진영 밑에 뭉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배척할 수 없는 형세였다. 우리는 인선에서 융통성을 갖기로 했고, 이것이 후일 한민당의 일각은 친일파가 점령했다는 비난을 받게 된 원인이었다. 그러나 일제하에서 고급관리를 지냈거나 친일파로 지목받던

19) 韓太壽, 《한국정당사》(신태양사, 1961), 13쪽

20) 이기하, 앞의 책, 62쪽

21) 李起夏-沈之淵 외 (공저), 《한국의 정당》전2권(한국일보사, 1987), 제1편(8·15에서 자유당 붕괴까지), 145쪽

22) 송남헌, 앞의 책, 130쪽

23) 최상룡, 앞의 책, 143쪽

24) Cumings, 앞의 책, 94쪽

사람들이 몇 사람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극악한 친일파나 민족반역자는 아니었다. 정당원의 총수가 많다는 것이 정당의 우수성의 증명은 아닌 것쯤은 알고 있었던 우리로서는 아무리 문호개방을 원칙으로 하기는 했더라도 무원칙 무분별하게 입당시켰던 것은 아니다. 단지 좀더 문을 넓게 열어 민족진영의 대집결체가 되자는 뜻에서 인선의 원칙을 크게 완화했을 뿐이었다.

그는 또 한민당이 제시한 정책들 가운데 ‘주요 산업의 국영 또는 통제관리’와 ‘토지제도의 합리적 재편성’은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토지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정치-사회 등 각 분야에서 한민당은 당시로서는 보수적이기보다는 진보적인 정당이었다”고 단언했다.²⁵⁾

李起夏는 긍정적인 측면도 인정한다. 그는 한민당의 주도 세력은 “해외 유학 등으로 국내 외에서 고등교육을 修得한 인물들로 한국의 지식층을 대표하는 인텔리 클럽으로 他 정당에 비해 당수의 독재성이 없이 당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비교적 민주적인 정당”이었다고 본 것이다.²⁶⁾ 그는 또 한국민주당의 발족으로 “광복 후 처음으로 민족진영의 대세력이 뭉쳐 아직까지 유아독존 안하무인격으로 날뛰던 좌익세력을 견제-제어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²⁷⁾ 진덕규 교수도 “좌경세력의 독주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갈래로 조직된 세력이 결집되어 한국민주당으로 태동”했다고 보았다.²⁸⁾ 같은 맥락에서 심지연은 “한민당의 창당은 정국의 좌경화를 막고 정치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데는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했으며,²⁹⁾ 정치인 李基澤은 “한민당은 해방과 더불어 표면화한 좌익 세력과 우익 진영의 대립 속에서 우익측 인사들로 결성된 ‘보수반공연합체’의 정당이었다. [...] 한민당에 참여했던 지식인들 중에는 일본이나 미국, 유럽에서 유학한 인사들이 많았다. 이들은 한결 같이 자유민주주의사상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평가했다.³⁰⁾ 지은이는 한민당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진 교수와 심 교수의 분석에 동의하는 입장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의 節들에서 계속 다루기로 한다.

제2절 미 군정의 실시와 한민당의 협조

1 미 군정의 개시

광범위한 좌익 세력이 인공으로 결집되고 거기에 비해서는 약한 우익 세력이 한민당으로 결집되어 건곤일척의 투쟁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9월 7일 오후 하지 (John Hodge) 중장의 지휘 아래 입경한 미24군은 태평양지역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 원수의 포고 제1호를 발표했다. 그것은 한반도의 북위 38도선 이남의 지역 곧 남한에 미 군정을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 미군은 9월 12일 아놀드(Archibald V. Arnold) 육군 소장을 군정 장관으로 하는 미 군정청을 수립 해 남한을 직접 통치하기 시작했으며, 자신만이 남한에

25) 허정, 《내일을 위한 증언 : 허정 회고록》(샘터사 출판부, 1979), 102-103쪽

26) 이기하, 앞의 책, 62쪽

27) 이기하-심지연 外, 앞의 책, 79쪽

28) 진덕규, <이승만의 단정론과 한민당>, 동아일보사(편),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I (동아일보사, 1977), 163쪽

29) 심지연(편), 《해방정국 논쟁사》I (한울, 1986), 26쪽

30) 李基澤, 《한국야당사》(백산서당, 1987), 11-15쪽

서 하나뿐인 합법 정부라고 선언했다.

이것은 스스로를 정부라고 부른 인공을 전면 부인한 것이었고, 이로써 미 군정청은 해방 정국을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던 좌파 중심의 인공과 우파 중심의 임정에게 모두 큰 타격을 입힌 셈이다(임정의 우파적 성격은, 물론 앞에서 말한 국내 우파의 성격과 다르다는 점을 명백히 지적해 둔다).

2 고하, 미 군정과 한민당의 제휴를 성립시키다

인공과 임정의 날개를 모두 꺾어 놓은 채, 미 군정청은 우리 겨레의 감정을 모르는 듯, 우선 조선총독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조선총독부는 미군과의 연락이 성립된 8월 말 이후 계속해서 건준과 인공은 공산주의자들의 집단이라고 미군에게 보고했었는데, 이제는 이 점을 더욱 강조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 영향 받아 미군의 人共觀은 처음부터 좋지 않았다. 반면에 조선총독부는 한민당의 간부들에 대해서는 우호적으로 설명했던 것으로 보인다.³¹⁾

이러한 배경에서 미군은 한민당 간부들과 만나게 되었다. 미군과 한민당 간부들 사이의 연계가 애시당초 정확히 언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성립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의 문서들을 기반으로 체계적으로 깊이 연구한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들(The Origins of the Korean War)》나, 최상룡의 《미 군정과 한국민족주의》나, 한국 민주당에 관한 심지연의 두 권의 책이나, 그 어느 것도 그 점을 일목요연하게 말해주지 않는다. 한편 《고하 송진우 선생전》은 그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흥미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선 원문 그대로를 읽어 본다.

[9월 7일] 오후 2시 조선총독 아베의 항복조인을 받은 미군 사령관 하지 중장은 조선 호텔에 여장을 풀고 국내외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리고 다음날인 8일 하지는 한국의 정당-사회단체 지도자들을 조선호텔도 초청하고 회담을 가졌다. 고하도 초청을 받았다. 막상 고하가 돌아온 뒤 몽양, 민세 등은 하지 중장과 요담을 가졌다. “송진우씨가 오거든 내게 좀 소개해 주시오” 하고 하지는 몽양에게 고하 소개를 의뢰했다. 하지는 이미 한국 지도자들의 예비지식을 갖고서 몽양에게 부탁한 것이었다. 고하는 수일 후에 하지와 연락이 잦은 任永信을 중간에 세워 회견을 희망했다. 고하와 하지와의 회담은 비밀리에 이루어졌다. 고하는 하지에게 군정의 성격에 대해 물었다. 하지는 고하에게 한국 정세를 타진하고 자신의 포부와 의견을 제시했다. 첫회담에서 하지는 고하의 의견에 찬동하고 심취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하지는 자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요청했다.³²⁾

이 대목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첫째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하지가 당시 조선의 지도자들에 대한 예비지식을 이미 갖고 있었으며 고하에 대해서는 좋은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고, 둘째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고하에게-따라서 한민당에게-먼저 접촉해 왔다는 점이며, 셋째로 지적되어야 할 것은 하지와 고하와의 첫 만남에서 협조의 분위기가 성립되었다는 점이다. 우리가 지난 章의 여러 곳들에서 보았듯이, 고하는 연합군이 들어올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어느 세력도 일제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권한도 받아서는 안되고 더더구나

31) Cumings, 앞의 책, 140-141쪽

32) 《고하 송진우 선생전》, 322-323쪽

정부 같은 것을 세워서도 안되며 연합군으로부터만 권한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송진우씨가 오거든 내게 좀 소개해 주시오”라고 말할 정도로 송진우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고 있었다면, 고하의 그러한 지론을 모를 리가 없을 터인데, 고하의 그러한 지론은 미군의 기본 입장에 부합되는 만큼 호의적인 인상을 주었을 것이다. 또 건준과 인공을 공산주의자들의 집단 또는 친공 세력의 집단으로 파악한 고하의 입장 역시, 우리가 앞으로 자세히 다루게 될 미군의 반공적 입장에 부합되었음에 틀림없다.

이 시기의 미군과 한민당의 접촉에 관해 매우 꼼꼼하게 기술하고 있는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들》이 양자의 접촉과 관련해 맨처음 소개하고 있는 모임은 9월 10일의 것이다. 주한미군 당국이 그 당시에 작성한 기록들을 근거로, 커밍스는 “9월 10일에 세명의 한민당 대표들, 곧 조병옥과 윤보선과 T.Y.Yun(윤정용일 것이다)이 군정의 장교들을 만났으며 그들에게 조선인민공화국은 ‘한 무리의 친일협조적 조선인들’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것과 여운형은 조선인들에게 친일적 협조자이며 정치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말했다”고 쓰고 있다.³³⁾ 조병옥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해방직후의 상황을 설명하는 가운데, “건국준비위원회는 소련군의 지령을 받고 조직되었던 단체이기도 했다. 왜냐하면 소련은 [1945년] 8월 8일에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8월 12일에는 羅津에 상륙하였던 까닭에 3일이 지난 8월 15일에 공산당의 밀사가 지령을 갖고 그들에게 통고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썼던 것에 미루어, 그가 건준과 인공에 대해 미군들에게 어떻게 말했는가는 충분히 짐작이 간다.

커밍스는 이어 9월 10일 이후의 열흘 동안 미군이 중요하게 여기고 만나 의견을 들었던 한인들은 사실상 모두 한민당 간부들이었다고 지적했다. 보다 정확히 말해, “미군의 정보부서인 G-2의 일일보고서에 인용되어 있는 모든 한인 정보제공자들은 한민당 지도자들이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송진우와 김성수와 장덕수와 서상일과 설의식과 김도연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³⁴⁾ 그들과의 대화는 그들에 대해 갖고 있던 미 군정의 호의적인 인상을 강화했다. 하지 사령관을 위해 미 국무부가 파견한 정치보좌관 베닝호프(H. Merrell Benninghoff)가 9월 15일에 보낸 보고서-이 보고서는 그가 국무부에 보낸 최초의 보고서이다-에서, 그는 한민당 간부들에 대해 매우 좋게 평가하고 그들의 존재는 현재와 같은 혼란된 남한의 “정치상황에서 가장 고무적인 유일한 요인이다”라고 지적한 것이다.³⁵⁾

이러한 배경에서 미 군정과 한민당의 제휴는 어렵지 않게 성립되었다. 반공세력의 지지를 바라는 미 군정은 반공의 노선을 제일로 삼은 한민당을 필요로 했고, 국내적 지지 기반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공에 맞서 싸우려는 한민당으로서도 미 군정과 제휴가 절실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조병옥은 “당시의 국제정세에 비추어 보아 한국은 군정 단계의 訓政期를 거치지 않고서는 치안 유지를 할 수가 없고, 또 한반도의 적화를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려 한국민주당 수뇌부에서 와신상담의 격으로 군정에 협력하기로 결정을 하였던 것이다”라고 회고했다.³⁶⁾ 고하의 견해도 같았다. 《고하 송진우 선생전》이 쓰고 있듯이, 고하 역시 “한국은 잠정적인 훈정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미 군정을 도와서 정부 수립시에 필요한 행정과 사법-입법의 민주주의 절차를 배우자는 데 의견을 보았다”³⁷⁾ 이 과정에서, 고하는 9월 21일 서울중앙방송국에 나가 인공을 비판하는 한편 미 군정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연설을 방송하기도 했다.³⁸⁾

33) Cumings, 앞의 책, 141쪽

34) Cumings, 위와 같음.

35) 위와 같음, 143-144쪽

36) 조병옥, 앞의 책, 142쪽

37) 《고하 송진우 선생전》, 324쪽

미 군정과 한민당의 제휴는 군정장관에 대한 한인들의 고문회의의 형태로 나타났다. 한민당 중앙집행위원회는 9월 22일 “명망과 식견을 구비한 인사로서 중앙위원회를 조직하여 행정과 인사에 자문케 할 것”을 결의하여 군정청에 건의했었는데, 하지 사령관은 이 건의를 받아들여 10월 5일 “조선의 복리만을 염원하는 애국심에 불타는” 11명을 행정 고문으로 임명하고 그들로서 고문회의를 구성한 것이다. 그들은 김성수, 金用茂, 김동원, 李容高, 全用淳, 吳泳秀, 姜柄順, 尹基益, 여운형, 조만식 등등이었다. 여운형과 그리고 북한에 있어서 아예 참여할 수가 없는 조만식을 빼놓고는 모두 한민당 간부들이거나 한민당 계열이었다. 이 기구는 군정청의 정규 기구가 점차로 자리 잡히고 그 구성원의 일부가 군정청의 행정부서에 등용됨에 따라 유명무실해지고 만다. 그러나 이 기구를 통한 미 군정과 한민당의 제휴가 제도화됨으로써 한민당의 간부들이 군정청관리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³⁹⁾

군정청에 한인을 추천하는 일은 한국에서 활동한 미국인 선교사의 아들이며 하지의 고문이던 윌리엄스(George Z. Williams)대령이 주로 맡아서 했는데, 그는 한민당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⁴⁰⁾ 그는 10월 17일 한민당 당사로 고하를 방문하여 “공산주의 이론에 투철하고 반공사상에 철저한 유능하고도 실천력이 강한” 인사를 경무부장으로 추천해 줄 것을 의뢰했다. 이에 고하는 조병옥을 생각하게 되었다. “어학에도 능통하고 식견도 풍부하며 외교 관계에도 능숙한” 조병옥밖에는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조병옥은 또 일제 치하에서 신간회 참여를 통해 항일 자세를 견지했으며 신간회가 해체된 뒤에는 항일 지조를 버리지 않은 이어서 더욱 좋다고 생각했다. 고하의 권유를 조병옥은 받아들였고, 그리하여 고하의 천거를 통해 조병옥의 경무부장 취임은 이루어졌다.⁴¹⁾ 이러한 식으로, 한민당 간부들의 미 군정청 진출은 활발해졌으며, “한민당이 군정청 기구의 주요 부서를 장악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미 군정과의 유착이 굳건해졌던 것이다.”⁴²⁾ 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한민당이 주축이 된 연합군 환영회가 10월 28일 치루어졌다.

3 미 군정-한민당과 인공의 갈등 증폭

미 군정과 한민당의 제휴가 깊어가는 만큼이나, 미 군정-한민당과 인공 사이의 갈등은 깊어져 갔다. 이것을 막아 보려는 노력이 없지는 않았다. 10월 5일과 10일 두 차례 한민당과 인공 사이에서 회의가 열린 것이다. 고하는 어떻게 해서든지 협상을 성공시키고 싶었다. 그러나 이미 깊어질대로 깊어진 갈등과 반목의 골이 쉽게 메워질 수 없었다.⁴³⁾ 그리하여 이전 투구와 같은 형태의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러한 현상의 가장 상징적인 신호가 10월 10일과 11일 사이에 있었던 미 군정과 인공 사이의 공개적인 공방전이었다. 미 군정청의 아놀드 군정장관이 10일 “38도 이남의 조선 땅에는 미 군정부가 있을 뿐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정부가 존재할 수 없다. 그 행위는 불온당하다. [...] 만일 [‘조선인민공화국내각’의] 이러한 고관대작을 참칭하는 자들이 흥행 가치조차 의심할 만한 괴뢰극을 하는 배우라면 그들은 즉시 그 극을 폐막하여야 마땅할 것이다. 만일 이런 괴뢰극의 막후에서 그 연극을 조종

38) Cumings, 앞의 책, 146쪽

39) 송남헌, 앞의 책, 201쪽 및 심지연, 《한국현대정당론 : 한국민주당 연구 II》(창작과 비평사, 1984), 55-56쪽

40) 심지연, 위와 같음, 56쪽

41) 조병옥, 앞의 책, 145-146쪽

42) 심지연, 위와 같음.

43) 金珍培, 《가인 김병로》(삼화인쇄주식회사, 1983), 120-123쪽

하는 사기함이 있어 어리석게도 정부의 정당한 행정 사무의 일부분이라도 잠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은 마땅히 맹렬 각성하여 현실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출은 단연 정지해야 할 것이다” 운운의 매우 모욕적인 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이튿날 인공의 대변자인 <매일신보>는 이 성명을 반박하는 충고문을 발표했고, 인공 스스로도 반박문을 발표한 것이다.⁴⁴⁾

공방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0월 16일 하지 사령관은 인공을 부인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인공이 하나의 정당으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인공은 《반역자와 애국자(The Traitors and the Patriots)》라는 소책자를 출판해 미 군정과 한민당을 한꺼번에 공격했다. 이 소책자를 통해 인공은 자신이 인민의 대표기관으로 정당하게 발족했음을 강조하고 그런데도 미 군정이 이것을 부인하는 까닭은 외세의 보호 아래 인민대중을 다시 한번 탄압하려는 친일파들의 권고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⁴⁵⁾ 인공은 이어 11월 2일 제1차 전국인민대표자회의를 열고 조선인민공화국에서 國자를 빼라는 미 군정의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⁴⁶⁾

이러한 공방전 속에서 베닝호프는 본국 정부에 대해 인공을 소련이 지원한 단체로 보고했다. 인공이 아마도 시베리아에서 살던 조선인들로부터, 그리고 소련으로부터 지원과 지시를 받고 있음이 명백하며, 가장 공격적인 정당이고 미국의 점령 방식을 소련의 북한 점령 방식에 비해 좋지 못한 것으로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⁴⁷⁾ 이러한 공세 속에 인공의 지도자들은 인공의 정부로서의 기능을 사실상 포기했다. 인공의 이름은 유지하면서도, 여운형은 조선인민당을 창당했고 박헌영은 조선공산당의 독자적 활동을 강화시켜 나갔다.

4 미 군정 정책의 의미

미군이 취한 이러한 일련의 조처들은 미국이 남한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우파 보수세력과 손잡았음을 뜻했다. 이것은 쉽게 말해 그때 미국이 기본적으로 남한의 현상을 크게 바꾸고 싶어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러면 미국은 왜 그러한 입장을 취했던 것일까? 이 물음에 대답하려면 그때의 미국과 소련의 관계, 미국의 동아시아정책, 미국의 일본정책, 그리고 이런 것들에 나타난 미국의 국가적 성격 등등을 모두 살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깊이 들어가기 어려우므로 그저 몽땅 그려 설명해 보겠다.

간단히 말해, 이때 이미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은 조금씩 벌어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미국은 다른 지역들에서는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의 ‘팽창’을 봉쇄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동아시아 각국에서 공산주의자들의, 또는 더 넓혀 말해 좌파의 활동은 모두 제약되었어야 했으며, 그들이 추구하는 현상변혁 또는 혁명은 방지되어야 했다. 그 반면에 친미적 세력은 당연히 보호되고 육성되어야 했다. 그것이 동아시아 지역을 미국의 세력권 또는 이익권 안에 안정되게 묶어 놓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큰 테두리 안에서 설정된 미 군정청의 남한 점령정책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게 되었

44) 송남헌, 앞의 책, 54-55쪽

45) Cumings, 앞의 책, 148-149쪽 및 최상룡, 앞의 책, 92-93쪽

46) 송남헌, 앞의 책, 55쪽 및 최상룡, 앞의 책, 93쪽

47) Cumings, 앞의 책, 149쪽

다. 무엇보다 조선총독부의 존속을 허용한 조처에 대해 우리 겨레는 매우 불쾌해 했으며 심하게 반발했다. 다행히 이러한 분위기에 굴복하여 미 군정청은 곧 조선총독부 관리들을 해임했다. 그러나 친일 세력은 그대로 존속시켰는데, 이것이 미 군정과 우리 겨레 사이에 틈을 만들어 놓았다. 왜냐하면 이때 광범위하고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세력은 여전히 좌파 세력이었는데, 이들이 비록 미 점령군을 파시즘을 무찌른 연합군의 일원으로 즉 해방군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미 군정과의 협조를 전제하고는 있었다고 해도, 미 군정의 현상유지적인 직접 통치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3절 정당통합의 시도와 좌절 속에서의 고하의 활동

1 이승만의 귀국과 獨促中協의 발족

여기서 하지 사령관은 미국에 머물고 있던 반공적인 이승만을 임정의 초대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자격으로 귀국하게 했다. 노령의 항일 투사로 우리 겨레 사이에 명망이 높던 그의 카리스마로써 좌파 세력에 맞서게 한 것이다. “공산당측에서는 우남 [이승만]이나 백범 [김구] 등의 환국은 물론 그 존재가치조차 인정하려 들지 않던” 시점에서, “고하는 국민에게 우남이나 백범 등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몸소 미 군정 요로를 방문하면서 해외 망명객의 조속한 환국을 극력 주선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던 것이다.⁴⁸⁾ 그리하여 이승만은 10월 16일 귀국하고 하지가 마련한 기자회견을 통해 적극적으로 우리 겨레 앞에 등장할 수 있었다. 그것은 곧바로 상당한 효과를 나타냈다. 그동안 민중이 크게 믿을 수 있는 항일 지도자를 거의 갖지 못해 열세에 몰렸던 국내의 우파세력은 그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떠받들음으로써 새로운 구심점을 찾을 수 있었고 기운을 낼 수 있었다. 고하 역시 반가움과 기대 속에서 이승만을 찾아 갔다. 1925년 하와이에서 열렸던 범태평양회의 때 만난 이래 꼭 20년만의 해후였다. 고하는 노애국자를 위해 성대한 환영연을 베풀고 한민당 총재 취임을 간청했다. 그러나 이승만은 정당들의 통일을 전제로 한 건국대업의 설계에 자신의 복안이 있는 만큼 어느 한 정당의 총재가 될 수 없다면서 거절했다.⁴⁹⁾ 고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임을 역설했으나 이승만은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도 고하는 이승만에 대한 예의를 잃지 않았다. 또 이승만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우선 돈암동에 있는 고급 주택을 빌려서 수리까지 끝내 주었다. 이 집은 곧 敦岩莊으로 불리게 된다.

한편 좌파세력도 일단 이승만을 떠받들고자 했다. 이미 인공의 주석으로 추대했었던 만큼 그로 하여금 이 자리를 수락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를 튼튼히 다질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이승만은 이 제의 역시 거절했다. 이렇게 되자 좌파와 우파의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10월 24일 독립촉성중앙협의회라는 기구를 만들고 그를 이 통합기구의 지도자로 받들게 되었다.

그러나 그 통합은 곧 깨어졌다. 이승만은 반공적·반소련적·반좌파적 입장을 명백히 했고, 더구나 공산주의자들과 ‘목숨을 내놓고’ 싸울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하기도 했다.⁵⁰⁾ 이승만의 이름과 권위를 이용하려던 좌파는 여기에 실망하여 떨어져 나갔으며 그를 ‘미 제국주의

48) 《고하 송진우 선생전》, 328쪽

49) 위와 같음, 329쪽

50) 孫世一, 《이승만과 김구》(일조각, 1970), 196-197쪽

의 앞잡이' 라고까지 매도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좌파와 우파 사이의 다툼과 반목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비록 좌파와 우파의 통합은 깨어졌다 해도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통한 이승만과 한민당의 제휴는 확고하게 이룩되었다. 오랜 동안의 해외 망명으로 국내에 실질적 지지기반이 없던 이승만은 그때 재력을 갖고 있고 미 군정청과 손잡고 있던 한민당과의 제휴를 정치적으로 가치있다고 보았으며, 한민당으로서는 이승만의 카리스마가 자신들의 정치적 간판으로 가치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정략결혼 아래서, 한민당은 그리고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그의 좋은 지지기반이 된다.

여기서 그러한 제휴를 확고하게 성립시키고 유지시킨 고하의 노력이 상기되어야 할 것이다. 《고하 송진우 선생전》에 따르면, 정당 통합 운동이 실패하고 난 뒤 이승만은 비로소, 일찍이 좌우합작의 실현 가능성이 없음을 경고했던 “고하에게 자기의 不明을 탄하고 [...] 앞으로의 협력을 요청했다.” 그리고 “자기는 이미 늙은 몸이니 고하가 중심이 되어 일을 하면 자기는 힘껏 뒤에서 밀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자기 부인은 외국인이지만 누구보다도 한국을 사랑하니 어려운 외교 문제가 있으면 누구보다도 한국을 위해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고하도 우남에게 지금 시국으로 우남밖에 정국을 담당 처리할 인물이 없으니 사소한 일에 낙심 말고 곳곳이 나가기를 희망했다. [...] 그로부터 고하와 우남 사이는 전보다 더욱 가까워졌다”⁵¹⁾

2 임정의 귀국과 특별정치위원회의 출범

이 시점에서 미 군정은 우파적 성격이 훨씬 강한 임정의 요인들을 역시 임정의 요인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격으로 귀국하게 했다. 김구 주석과 김규식 부주석을 비롯한 제1진이 11월 23일에 귀국했고, 申翼熙 내무부장을 비롯한 제2진이 12월 2일 귀국했다. 고하는 그들의 뒷바라지를 위해서도 정성을 기울였다. 환국 지사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 환국지사후원회를 이미 조직해서 제1차로 금융단과 실업계 인사들로부터 9백만원이라는 큰 돈을 모금해 놓은 그는 백범이 입경한 그 다음날 아침 낭산을 대동하고 백범의 숙소로 마련된 서울 서대문의 京橋莊으로 예방해 불굴의 노애국자에 대한 경의를 표시했고, 같은 날 낮 이번에는 국민대표준비회의 대표 자격으로 장택상을 대동하고 예방해 후원회 기금을 전달했다. 얼마 뒤에 임정 요인들은 그 후원금 가운데 깨끗하지 못한 돈이 들어있다 하여 국민대표준비회 사무실로 들고와 처리 문제를 논란했다. 대화는 자연히 거칠어지면서 주먹과 흥분의 수라장이 벌어졌다. 조용히 듣고만 있던 고하는 참다못해 “정부가 받는 세금 속에는 양민의 돈도 들었고 죄인의 돈도 들어 있는 것이요. 이런 큰일에 그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을 줄 아오”라고 설득함으로써 겨우 수습하기도 했다.

비슷한 일은 12월 중순에도 일어났다. 고하가 나서서 임정요인들을 환영하는 모임을 서울 觀水洞의 國-館에서 가졌을 때, 임정요인들은 국내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친일을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생명을 부지해 왔겠느냐는 전제 아래 이들을 먼저 숙청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海公 신익희도 숙청론을 폈다. “그러면 나는 숙청이 되겠군”하고 설산 장덕수가 맞섰다. “설산 뿐인가”하고 해공은 다시 받아쳤다. 그 뒤의 일을 《고하 송진우 선생전》은 이렇게 묘사했다.

51) 《고하 송진우 선생전》, 330쪽

고하와 설산 그리고 해공은 지난날 일본 유학시대로부터 잘 알고 있는 사이다. 이러한 해공의 放言은 취중의 말이라고는 하지만 임정 입국 이후 국내 민족진영에 쓸데없는 과문을 일으키던 소위 ‘친일파 숙청론’의 정면 발언이었다. “여보 해공, 국내에 발붙일 곳도 없이 된 임정을 누가 오게 하였기에 그런 큰 소리가 나오는 거요? 인공이 했을 것 같애? 해외에서 헛고생들 했군. 더구나 일반 국민에게 모두 떠받들도록 하는 것이 3·1운동 이후 임정의 법통 관계지, 노형들 위해서인 줄 알고 있나? 여봐요. 중국에서 궁할 때 뭇들 해먹고서 살았는지 여기서는 모르고 있는 줄 알어? 국외에서는 배는 고팠을 테지만 마음의 고통은 적었을 것 아니야. 가만히 있거나 해. 하여간 환국했으면 모든 힘을 합해서 건국에 힘쓸 생각들이나 먼저 하도록 해요. 국내 숙청 문제 같은 것은 급할 것 없으니, 임정 내부에서 이러한 맘들을 삼가하도록 하는 것이 현명할 거요”하고, 고하가 말끝을 맺자, 해공은 할 말을 잃었다. 고하는 임정요인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다. 그로부터 임정측의 숙청론은 고개를 숙였다.⁵²⁾

고하의 반론이 과연 얼마 만큼 타당한 것이었으며, 정녕 그것을 계기로 임정측의 숙청론이 가라 앉았는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논쟁은 한민당과 임정의 심리적 간격을 넓혀 주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고하 송진우 선생전》이 시인했듯이, 不淨財論과 국내인사 숙청론은 고하의 臨政觀에 변화가 있게 한 것이다. 확실히 지도층 사이의 갈등은 같은 ‘우익’ 안에서도 이모저모로 깊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민중의 세계에서는 임정 요인들의 귀국을 계기로 좌파와 우파의 통합이 실현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다시 한번 높아졌다. 김구와 이승만의 회담도 이뤄졌고, 김구와 주요 정당 간부들과의 회담도 뒤따랐다. 김구는 14개항으로 된 ‘임시정부 당면 대책’을 발표하고 하루 빨리 38도선을 철폐해 완전한 독립국가를 이룩하겠다는 뜻을 다짐하면서 좌파와 우파의 단합을 역설했다.⁵³⁾ 그러나 통합에 대한 기대는 다시 한번 깨어졌다. 임정은 임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는데도 임정의 귀국을 기다리지 않은 채 건준과 인공을 만든 좌파 지도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좌파는 좌파대로 임정의 우익적 성격 앞에 그대로 굴복하려 하지 않았다. 임정 세력은 곧 특별정치위원회를 조직했다. 임정의 요인들과 국내의 독립투사들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인사들로서 출범시킨 것이다. 이 기구는 같은 우파 안에서 이승만의 세력 기반이 된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은연중 맞서게 되었다. 한편 임정 세력과의 제휴에 실패한 좌파 세력 가운데 여운형과 그의 지지자들은 조선인민당을 본격적으로 가동시켜 나갔다.

제4절 모스크바에서의 연합국 결정과 우리 거래의 대응 : 고하피살의 배경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1 모스크바로 가는 길

남한에서 좌파와 우파의 대립이 굳어져감과 동시에, 남한과 북한 사이의 장벽 역시 아주 굳어갔다.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소련군은 이미 남한과의 철도-전신-전화-우편을 모두 끊어 버렸다. 이에 하지 미군 사령관은 38도선의 벽을 헐고 남북교류를 실현시키기 위해 치

52) 위와 같음, 331-333쪽

53) 송건호(편), 《김구》(한길사, 1980), 261-263쪽

스치아코프(Ivan Chistiakov) 소련군 사령관과 회담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치스치아코프는 그 문제가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이라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로써 일본군의 항복을 접수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그어졌던 38도선의 취소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을 위해 미국 정부가 국제적 수준의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도록 국방부의 합동참모본부에 건의했다.⁵⁴⁾

이에 대해 미국의 정책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⁵⁵⁾ 우선 국제파는 카이로 회담에서 합의되었고 포츠담회담에서 다시 확인되었던 4대국 신탁통치안을 여전히 밀었다. 4대국의 협력 아래, 보다 좁혀 말한다면, 미국과 소련의 협력 아래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국제파에 속하는 빈센트(John Carter Vincent) 국무부 극동국장은 10월 20일 미국은 한반도에 대한 신탁통치안을 지지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주한 미군 당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한반도 정책은 4대국 신탁통치를 거쳐 독립을 주는 것임을 주지시켰다.

이들에 반해, 서울의 미 군정정 고관들은 신탁통치안의 포기 또는 회피를 본국 정부에 강력히 권고했다. 하지는 물론이고, 국무부 관리로서 그의 정치 보좌관으로 서울에 와 있던 베닝호프와 랭든(William Langdon)마저 그러했다. 그들은 빈센트의 발언을 일체히 반박했는데, 특히 랭든은 신탁통치안이 이제 적합하지 않게 된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했다.⁵⁶⁾ 첫째, 우리 거래가 신탁통치안에 맹렬히 반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아울러 우리 거래가 문화적으로 우수해 신탁통치와 같은 '수습 기간을 거칠 필요가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둘째,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로, 소련을 봉쇄할 발판을 남한에 확보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 이미 소련 점령군의 지휘 아래 공산주의 단독 정권이 세워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 공산 정권이 자리를 굳힌 뒤 그 영향력을 남한으로 팽창시킬 가능성에 대비해 남한에서도 미국의 이념에 맞는 단독 정권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소련과의 협상을 통해 38도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이미 늦었다는 점도 상기시켰다.

랭든의 구상은 무척 중요한 뜻을 갖는다. 첫째, 4대국의 협력 아래, 또는 미국과 소련의 협력 아래 우리 거래의 문제를 풀겠다는 신탁통치안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신탁통치안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카이로선언의 공식을 포기한다는 뜻인데, 미국은 뒷날에 가서 결국 그렇게 하고 만다. 둘째, 남한에 단독 정권을 세우자는 구상이 처음 공식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그 단독 정권은 반공적이며 반소련적이어야 하며 친미적이어야 한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었다. 미국은 뒷날에 가서 결국 이 길을 걷는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랭든의 제안으로 대표되는 소련봉쇄파의 구상은 국제파에 의해 거센 반발을 받았다. 국제파는 소련과 협상해볼 틈이 있다고 여전히 믿었으며 따라서 이 방법을 통해 한반도의 문제를 풀어보자는 주장한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라 미국 정부는 12월 중순에 모스크바에서 소련 및 영국과 더불어 회담을 연다.

그러면 소련의 북한 점령정책은 어떠했나? 랭든이 주장했듯이 소련은 북한에서 이미 공산주의 단독 정권을 세워나가고 있었는가? 지은이의 대답은 긍정적이다. 소련군은 북한을 점령한 뒤 각 도에서 친소적인 인민위원회의 수립을 끝내고 나서 10월 8일 북조선 5도 임시인민위원회를 구성하고 10월 28일 이것을 북조선 5도 행정국으로 개편했다.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점은 이 5도 행정국이 북한의 胎兒의 정부였다는 사실이다. 학자들은 대체로 이 5도

54) Harry S. Truman, *Memoirs* (2 vols.: New York: Doubleday and Co., 1955-1959), II (*Years of Trial and Hope*), p.319.

55) 이하의 논의는 Cumings, 앞의 책, 179-187쪽

56) 위와 같음, 184-185쪽

행정국의 창설이 “북한이 단독정권의 수립을 향해 나간 첫 걸음”이었다고 평가한다.⁵⁷⁾ 이와 비슷한 시기에 소련 점령군은 북한을 소비에트국가처럼 만들어 나갈 정치적 도구인 마르크스-레닌주의적 혁명 정당을 발족시켰다. 10월 10일 조선공산당 서북 5도 책임자-열성자대회를 열고, 이 대회를 통해 10월 13일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을 세운 것이다. 즉 서울의 조선공산당을 중앙당으로 받아들이고 평양에는 북조선분국을 세운 것이다.

이처럼 북한만을 단위로 하는 행정부와 공산당의 구성을 각각 끝낸 뒤, 소련 점령군은 10월 14일 그동안 시베리아에서 자신들이 지원해온 김일성을 뒷받침해주는 평양시 군중대회를 열고 만 33세의 젊은이를 ‘민족의 태양’으로 등장시켰다. 한마디로 북한에서는 소련 점령군의 비호 아래 김일성을 수반으로 하는 단독 정권이 형성되는 길이 다져지고 있었다.⁵⁸⁾

2 모스크바 결정의 내용

이처럼 남한과 북한에 각각 단독 정권의 수립을 향한 움직임이 구체화된 시점에서, 미국은 영국 및 소련과 더불어 뒤늦게 한반도에 ‘적당한 시기와 절차’를 거쳐 독립을 부여하기로 약속한 카이로선언 및 포츠담선언을 실현시키고자 12월 16일부터 모스크바에서 3국 외무장관회담을 열었다. 이 회의는 2차대전이 끝난 뒤에 남은 문제들을 다뤘는데 한반도 문제는 세번째 의제로 포함되었다. 그 의제의 정식 이름은 ‘독립된 코리아 정부의 수립을 지향하는 통일된 코리아 행정부의 창설’이었다. 여기서 코리아라는 원어를 그대로 쓰겠다. 그것은 물론 남한과 북한 전체를 묶어 부르기 위해서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토의는 순조로워, 12월 21일에 매듭지어졌다. 한 반도 문제 밖의 남은 몇 문제들을 더 다루고 회의는 12월 27일 끝났다. 이와 더불어, 모스크바 시간으로 12월 28일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는데, 한반도 문제는 제3항에서 47개항으로 정리되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코리아를 독립된 나라로 재건하고, 코리아를 민주적 원칙에 바탕을 두고 발전시키기 위한 조건을 창조하여, 오래 끌었던 코리아에 있어서의 일본지배의 참담한 결과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없애기 위해, 코리아의 산업과 교통 및 농업 그리고 코리아 인민의 민족적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임시적인 코리아 민주 정부를 세운다.
- (2) 임시적인 코리아 정부의 형성을 돕기 위해, 그리고 적절한 조치들을 미리 연구하기 위해, 남부 코리아의 미국 사령부의 대표들과 북부 코리아의 소련 사령부의 대표들로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세운다. 공동위원회는 자신의 안을 준비함에 있어서 코리아의 민주적인 정당들 및 사회단체들과 협의한다. 공동위원회가 작성한 추천안들을, 공동위원회에 대표되어 있는 정부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소련-중국-영국-미국정부의 심의를 받기 위해 제시되어야 한다.
- (3) 임시적 코리아 민주정부와 코리아의 민주적 조직들의 참여 아래, 코리아 인민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진보와 민주적 자치정부의 발전 및 코리아의 민족적 독립의 수립

57) Robert A. Scalapino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2vols. :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2), I (*The Novement*), pp.332-333. 커밍스는 그러한 해석에 반대한다. Cumings, 앞의 책, 393쪽

58) 소련의 북한 점령정책에 대한 지은이 나름의 분석은 김학준, <소련의 극동정책과 김일성정권>, 동아일보사 (편), 앞의 책, 311-332쪽

을 돕고 후원하는 방법들을 작성하는 것도 공동위원회의 과제이다. 공동위원회의 제안들은, 임시적 코리아 정부와의 협의를 거친 다음, 코리아에 대한 5년까지의 4개국 신탁에 관한 협정을 만들기 위한 미-소-영-중의 공동심의회에 회부된다.

- (4) 남부 및 북부 코리아 양쪽에 영향을 미칠 긴급한 문제들을 심의하기 위해 그리고 남부 코리아에 있는 미국 사령부와 북부 코리아에 있는 소련 사령부 사이의 행정적-경제적 문제들에 있어서의 영구한 조정을 확립할 방법들을 마련하기 위해, 코리아에 있는 미국사령부와 소련 사령부의 대표들의 회의를 2주 안에 소집한다.⁵⁹⁾

이 결정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최종 발표문을 내용 자체를 놓고 분석해 보면 대,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⁶⁰⁾

첫째, 그것은 신탁통치의 기간을 5년 이내로 한정했다.

둘째, 제1항은 우리 거래의 공지를 복돋기에 충분한 용어들로 되어 있다. “한민족은 미개한 민족이므로 선진국들에 의해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따위의 루즈벨트식 家父長的 발상을 배제시키고 있다.

셋째, 전시의 연합국회담에서 소련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미국의 구상과 제안을 공식으로 지지하지는 않았다. 신탁통치안에 대해서도 구두로 동의를 표시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제 소련은 미국과 함께 한반도 문제에 관한 공식적 합의에 도달한 것이다.

넷째, 전시의 연합국회담에서는 전후의 한반도에 미-영-중-소 네 나라가 동등한 지위를 갖고 관여한다는 원칙이 양해되었다. 그런데 미-소공동위원회안이 확정되고 이 기구의 중요성이 명백해짐으로써,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나라는 이 두 나라라는 사실이 공식화되었다.

다섯째, 신탁통치의 비중이 훨씬 가벼워졌다. 전시의 연합국회담에서 한반도문제를 다뤘을 때는 신탁통치가 전면에 부각되었으며, 한인들이 스스로에 의한 통일된 임시정부의 수립같은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었다. 그런데 최종 발표문에서는 한인들에 의한 통일된 임시정부의 수립이 제1항에 등장했고, 신탁통치는 제3항에 와서야 나타났다. 그것도 임시정부가 먼저 세워지고 또 임시정부가 미-소 공동위원회와 협의한 다음에, 4대국은 코리아에 대한 4개국 신탁통치에 관한 합의를 만들어 내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신탁통치가 경우에 따라 불필요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보아, 이 협정문을 따랐더라면 통일된 임시 정부가 났을까? 이 물음에 대답하기란 대단히 어렵지만, 지은이는 대체로 회의적인 생각을 갖는다. 왜냐? 이 협정문이 통일지향적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 협정이 실현되려면 우선 미국과 소련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미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주로 동유럽문제를 둘러싸고 불화가 높아가고 있었으며, 이러한 불화의 물결은 한반도문제에도 미쳐 와서 미국과 소련의 계속적인 협력을 전제로 한 모스크바협정의 실현성은 비관적이었다. 이것은 바꿔 말해 미국과 소련에 의한 분단이 미국과 소련의 불화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어져가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즉 한반도 분단구조의 국제형적 성격이 강화되고 있었다.⁶¹⁾

59)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 1943-46>, 朴玄塚 외(공저), 《해방 전후사의 인식》 제3권 (한길사, 1987), 226-227쪽에서 발췌. 또 중앙일보사 월간중앙부(편), 《광복 30년 중요자료집》(중앙일보사, 1975), 32쪽

60) Cumings, 앞의 책, 217쪽

61)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지은이 나름의 분석은 김학준, <한국 신탁 통치안과 그것을 둘러싼 초기의 논쟁>.

여기에 더하여 우리 겨레 안에서의 심각한 찬반 투쟁이 이 협정의 실현을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된다. 바꿔 말해, 모스크바 협정은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던 한반도 분단구조 안에 내재하는 내쟁적 성격을 더욱 표면화시키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욱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다. 이 점을 우리는 다음 항에서 보기로 한다.

3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남북한의 반응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은 12월 28일과 29일 집중적으로 국내에 전달되었다. 이때의 보도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한반도에 5년 동안 신탁통치를 한다는 내용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보도는 즉각적인 독립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온 우리 겨레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충격과 반감을 불러일으켰다. 여기에 기름칠을 한 것이 “미국은 한민족의 즉각적인 독립을 제의했으나 소련이 신탁통치를 고집하여 그렇게 매듭지어졌다”는 취지로 워싱턴에서 보도된 외신이였다. 이 보도는 1946년 1월에 가서야 오보로 알려지지만, 이미 반소 감정은 높아질대로 높아졌고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반감을 높이는 데 이바지 했다.⁶²⁾ 그러면 남한과 북한에서의 반응은 어떠했나? 남한의 반응부터 살펴기로 한다.

남한에서는 신탁통치 [탁치] 가 모스크바 결정의 전부인 건으로 받아들여졌고 신탁통치를 일제의 신민통치와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 특히 탁치를, 우리 겨레를 다시 강대국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조치로 생각했으며 탁치기간 5년이 1천년이 될지 누가 아느냐는 두려움을 가졌다. 그래서 연합국에 대해 “독립이 허용치 아니하거든 우리 손으로 모두 무찔러서 이땅을 황무지로, 인적하나 없는 광야로 만들고 우리도 모두 죽어 버리자꾸나”하는 식으로 울분을 털어 놓았던 것이다.⁶³⁾ 이러한 울분 속에서, 우리가 다음 節에서 보듯이, 모스크바협정을 지지한 것으로 전해진 고하가 암살되는 불행한 일도 일어난다.

그런데 처음에는 좌우파를 가리지 않고 반탁을 외쳤던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곧 분열이 나타났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겠지만, 좌파는 모스크바 합의를 지지하게 되었고 우파는 모스크바 합의를 반대하게 되었다. 이것이 단순화되어 좌파는 친탁을 하고 우파는 반탁을 한 것으로 말해지고 있다.

그러면 우파는 왜 반탁을 주장했는가? 12월 28일 신탁통치반대국민총동원위원회를 조직해 반탁 투쟁의 중심세력이 된 임정 세력의 경우를 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항일 독립 투쟁의 연장선 위에서 이 문제를 보았다.⁶⁴⁾ 순수한 민족주의적 정열과 조국의 독립에 대한 열망으로 불타 있던 그들에게 모스크바 합의는 신탁통치 하나로 보였고, 신탁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신들이 걸어온 독립 투쟁의 길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탁치는 민족자결의 원칙과 민족적 자존심에 비추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으며, 한국의 실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국제협약에 어긋나는 조치”라는 논리를 내세우면서 반탁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게 되는 것이다.

임정 세력의 이러한 입장과는 달리 비임정 우파 세력 가운데 일부는 모스크바 합의문의 제1항에서 강조된 일제 잔재의 제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반탁의 대열에 섰던 것 같다. 그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제2전정판 (박영사, 1990), 369-385쪽에 있다. 국내에서의 가장 최근의 연구로는 이동현, <한국 신탁통치 연구> (평민사, 1990)

62) 이완범, 앞의 글, 234-239쪽

63) 심지연, <신탁통치문제와 해방정국 : 반탁과 찬탁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전19집 (1985), 153쪽

64) 송건호, <탁치안의 제의와 찬반탁 논쟁>, 邊衡尹 외 (공저),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85), 44쪽

세력은 그때 친일파 또는 附日세력으로 지탄을 받고 있었는데, 모스크바 협정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힘을 잃을 판이어서 결사적으로 반대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조선공산당과 조선인민당을 비롯한 좌파는 처음에는 모스크바 결정에 반대했다가 곧바로 찬성쪽으로 돌아섰다. 처음에는 감정에만 흘러 본질적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탁치를 노예화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을 갖고 검토한 결과 모스크바 결정이 우리 겨레의 자주 독립을 위해 가장 옳은 길임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모스크바 결정은 일제의 잔재를 제거하고 그 바탕 위에서 우리 겨레가 정치적-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돕는다고 강조했다. 종합해서 그들은 모스크바 결정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구체화함으로써 우리 겨레가 통일 정부를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주장했다.⁶⁵⁾

이어 북한의 반응을 살핀다.⁶⁶⁾ 북한에서는 우선 우익 민족주의자들이 모스크바 결정에 반기를 들었다. 조만식을 지도자로 하는 그들은, 특히 탁치 조항을 문제로 삼아, 남한의 반탁 진영이 전개한 논리와 궤를 같이 했다. 이들에 대해, 특히 조만식에 대해, 소련 점령군은 회유와 위협을 한꺼번에 가했다. 그러나 조만식은 끝까지 반탁의 입장을 지켰다. 이에 따라 소련 점령군은 그를 연금하면서 우파 인사들을 탄압했고, 이것을 계기로 그렇지 않아도 소련군의 횡포와 공산주의 정책에 반대하며 월남하던 우파 인사들의 북한 탈출은 더욱 빨리 진행되었다. 한편 김일성을 우두머리로 하는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 그리고 다른 좌파 세력들은 소련의 정책에 발을 맞추어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했다. 그들이 펼친 논리는 남한의 좌파가 펼친 논리와 본질적으로 같았다. 한마디로 말해, 모스크바 결정을 따르는 것이 통일로 가는 길이라는 주장이었다.

이상에서 우리는 모스크바 결정에 대한 남한과 북한에서의 반응을 몽뚱그려 살폈다. 우리는 해방 정국의 초기에 나타났던 우리 겨레 안에서의 상쟁이 모스크바 결정 이후 더욱 깊어 가게 되었음을 직감하게 된다.

제5절 고하, 마침내 암살되다

1 <동아일보>를 복간시키다

고하는 그가 메이지대학 졸업반에 있던 때인 1915년 4월 도쿄의 조선인 유학생들의 한 모임에서, “ [일제식민지 체제라는] 현 현상을 타파하는 데는 네 가지 힘이 필요하다. 첫째는 여론이요, 둘째는 웅변 활동이요, 셋째는 저술 활동이요, 넷째는 실제적인 계획 실천이다”라고 연설한 바 있다.⁶⁷⁾ 이 연설은, 정치가 또는 혁명가에 대한 미국의 정치심리학자 라스웰(Harold Lasswell)의 분류 개념에 따르면, 고하가 ‘언어형 인간(man of words)’ 또는 ‘이념형 인간(man of ideas)’이면서 동시에 ‘행동형 인간(man of action)’임을 암시한다. 그는 이념=언어를 통한 활동과 실천적 행동 양자를 모두 중시했던 것이다.

여론과 웅변과 저술을 중시한 고하가 언론인으로서 20년 가까운 세월을 보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아일보>는 그에게는 제2의 생명이었다. 실제로 그는 만 서른한살 때이던 1921년부터 만 원살 때이던 1940년까지, 곧 이 신문이 일제

65) 심지연, 앞의 글, 155쪽

66) 김학준, 앞의 글, 381-382쪽

67) Chong-sik Lee,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p.99

에 의해 강제 폐간된 그날까지의 열아홉 해에 걸친 청년기와 장년기를 이 한 곳에서 함께 보냈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가 해방과 더불어 이 신문을 하루빨리 복간시키고 싶었던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특히 해방 정국의 우익 선봉장으로 인공과 싸우면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11월 중순 하지와 회견하는 기회에 말을 꺼내 복간 협조를 얻었다. 곧 진용을 편성해, 자신이 사장을 맡고, 설의식이 주간 및 발행인-편집인을 맡았으며, 고재욱이 편집국장을 맡았다. 복간 작업은 순조로워, 그해 12월 1일 복간호를 낼 수 있었다.

사장인 고하가 한민당의 수석총무로 있었지만, 복간된 <동아일보>는 한민당에 대해서도 시시비비주의로 나갔다. 이렇게 되니 당연히 한민당과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한민당은 당수가 사장으로 있는 이 신문을 자신들의 기관지로 여겼고, 신문은 신문대로 그것에 반발한데서 오는 마찰이었다. 그래서 주간 설의식은 고하에게 이 사정을 보고하고 그 재단을 바랐다. 고하의 대답은 명쾌했다. “정당은 언제나 이합집산할 수 있고, 또 때가 오면 이합집산하는 것이 정당이지만, 신문은 정당하고는 달라서 하나의 사업체이니 신문은 신문대로의 사명에 충실해야 하오. 다만 지나치게 자극적인 비판은 삼가는 것이 좋겠고” -이 말에 설의식은 용기를 얻게 되었으며, 한민당은 한민당대로 당보를 별도로 발행하게 되었다.⁶⁸⁾

한민당 수석총무에 동아일보사 사장을 겸하게 되니 고하의 생활은 더욱 바빠졌다. 어느날은 미 군정청을 방문해 하지 사령관에게 한복을 선물하면서 한민족의 문화적 특성을 가르치기도 하였고,⁶⁹⁾ 어느날은 서울의 소련 영사관을 찾아가 폴리안스키 영사에게 소련의 북한 점령정책을 비판하면서 소련군은 북한으로부터 철수해야 한다고 호통을 치기도 했다.⁷⁰⁾ 그러면서도 대한제국 말기에 일어났던 해아밀사사건의 세 밀사들 가운데 한 사람인 李瑋鍾의 직손이 이발사로서 어렵게 사는 것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또 그가 오랫동안 간직한 사신 임명장 원본을 고하에게 제공하자 귀한 문헌을 제대로 간직하고 있음을 칭찬하면서 나라 일이 바로 잡히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니 잘 간수하도록 당부하는 자상함도 보였다.

2 경교장에서 임정과 격론하다

이처럼 몹시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고하를 더욱 영일이 없게 만든 일이 바로 모스크바 결정이었다. 우리가 제2절에서 보았듯이, 그는 해방된 조선에게는 일정 기간의 훈정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던 터이다. “즉 오랫동안 일제의 식민 통치를 겪은 한민족은 일정 기간의 정치 훈련을 받아야만 비로소 자치 능력이 생기고 이때에 가서야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⁷¹⁾ 金三奎가 지적했듯이, 고하는 중국 국민 혁명의 아버지인 孫文을 존경하고 있어서 중국이 독재체제인 군정을 거쳐 일종의 교도민주주의 체제인 훈정으로 넘어가고 이 단계를 거쳐 마침내 완전한 민주주의 체제인 민정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孫文의 민주주의 3단계이론이, 해방은 되었으나 군정 아래 놓여있는 조선에도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다.⁷²⁾ 이러한 고하였기에, 비록 사상적으로는

68) 《고하 송진우 선생전》, 326-327쪽

69) 李哲承, 《전국학련》(중앙일보사, 1976), 135쪽

70) 이것은 하지의 정치보좌관 랭든이 도쿄의 맥아더사령부에 보낸 12월 17일자 보고에 있다.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Vol. VI, p.1148.

71) 성지연, <송진우와 한민당>, 《월간조선》(1985년 8월), 448쪽

다른 입장에 있었고 그리하여 몽양을 지지하는 입장이었지만 고하를 “높은 견식과 명석한 판단력을 지닌” 지도자로 평가하는 이동화가 회고했듯이,⁷³⁾ 모스크바 결정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가 앞 節에서 자세히 살폈듯이, 모스크바 결정은 조선을 연합국의 노예로 만드는 족쇄도 아니었고, 매우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리고 남북의 우리 겨레가 하기에 따라서는, 완전한 독립 곧 통일국가의 수립을 기약할 수 있는 디딤돌로 볼 수도 있었는데, 고하는 그 가능성을 간과하지 않았던 것 같다.

거기에 더하여 현실적 정치가로 이미 미 군정과 협력한 고하로서는 미 군정의 정책과 정면 충돌하는 길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좌익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모스크바 결정 전체에 대해서가 아니라 신탁통치 조항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나타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경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처럼 다면적인 상황 파악에서, “한민당은 수석총무 송진우 이름으로 반탁의 입장을 밝히고 당의 태도는 보류하는 용의주도한 입장을 취”할 수 있었다.⁷⁴⁾ 이렇게 볼 때, “[고하]에게 있어서는 ‘친미-훈정’론과 ‘반탁-반공’론은 모순되는 것은 아니었다. [...] 미 군정의 반공 기본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던 그 나름의 리얼한 상황 판단에 의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최상룡의 주장은⁷⁵⁾ 설득력이 높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12월 28일부터 특히 임정계가 중심이 되어 반탁의 이름 아래 모스크바 결정 그 전부를 한꺼번에 거부하고 나서고 또 그 거부를 전국적 규모에서의 대중동원적 투쟁으로 구체화했을 때, 고하는 고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 고뇌는 不淨財說과 숙청론을 계기로 이미 사이가 멀어지던 임정계와의 갈등으로 표면화되었고, 12월 28일 밤 경교장에서 있었던 모임에서는 격론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 고하는 한민당 사람으로는 낭산과 함께 있었는데, 임정쪽은 “그러면 고하는 찬탁과요?”라고 힐난했다. “찬탁이 아니라, 방법을 신중하게 하자는 것이요. 반탁으로 국민을 지나치게 흥분시킨다면 뒷수습이 곤란할 것이니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서 시국을 원만히 수습해야 하지 않겠소”라고 해명하고 설득했으나, 《고하 송진우 선생전》에 따르면, 임정 쪽은 “무슨 소리요? 반탁 뒤에 오는 모든 사태는 우리가 말지”하며 강경히 맞섰다.

《고하 송진우 선생전》이 지적했듯이, “임정은 반탁 방법으로 즉시 미 군정을 부인하고 민족 독립을 선포하는 동시에 정권을 인수하고자 하는 반면, 고하는 국민운동으로 반탁을 부르짖게 하고 미 군정과 충돌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하의 생각으로는, “미국은 여론의 나라이니만큼 국민운동으로 의사를 표시하면 족히 신탁통치안이 취소될 수 있고,” 국민당 정부의 중국이 한민족의 독립을 열렬히 지지하는 것도 큰힘이 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측면을 가볍게 여겨 “군정을 부인하고 임정 이름으로 독립을 선포하면 반드시 큰 혼란이 일어날 뿐더러, 결국은 공산당이 漁父之利를 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⁷⁶⁾ 격론은 끊임 줄을 모르고 계속됐다.

이리하여 깊은 밤중의 회의는 의견 차이와 입장 차이를 조정하지 못한 채 29일 새벽 네시에야 끝났다. 지친 몸으로 낭산과 함께 귀가한 고하는 겨우 두어 시간쯤 눈을 붙였다. 아침 일곱시께 낭산이 자리를 털고 외출한 뒤를 이어서 宋必滿을 비롯한 한민당 계통의 손님

72) 金三奎, <해방 직후의 선택 : 송진우의 죽음>, 《言論人 金三奎》간행위원회(편), 《言論人 金三奎》(도쿄, 1989), 34-38쪽. 이 글의 국역은 국회도서관의 金長權 박사가 맡아 주었다. 여기에 적어 고마움을 나타내고자 한다.

73) 李東華, <해방 전후의 정치집단과 여운형>, 《오늘의 책》(1985년 봄), 288쪽

74) 송건호, <탁치안의 제의와 찬반탁 논쟁>, 앞의 책, 45쪽

75) 최상룡, 앞의 책, 202쪽

76) 《고하 송진우 선생전》, 337쪽

몇 사람이 고하를 찾아들었다. 그들과 함께 아침상을 받으면서 고하는 공산당쪽에 연락이 닿는 한 측근에게 “박헌영 군에게 이번만은 제발 영웅적 태도를 취해 달라고 전해 주시오. 내가 그러더라고”하고 말하기도 했다⁷⁷⁾

아침상을 물린 뒤 고하는 곧바로 한민당사로 출근했고, 오후에는 임정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했다. 돌아오는 길에 고하는 감기 치료를 하려고 병원에 가는 낭산을 보내 놓고 당에 다시 들러 반탁 시위 행렬 때 부상을 한 卞熙鎔-제3공화정의 제1야당 新民黨 총재 朴順天 여사의 부군으로, 뒷날 성균관대학교 총장이 된다-의 위문을 원세훈에게 부탁한 다음 자동차로 원서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이때부터 암살될 때까지의 고하의 행적을 허정은 이렇게 회고한 바 있다.

[고하]는 그날, 설산 등과 함께 경교장에서 백범과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하고 새벽 2시에야 경교장을 떠났다. 이때 동행했던 설산은 의논할 일도 많고 밤도 늦었으니 자기 집에 가서 자고 가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잠자리가 까다로운 고하는 자기 집이 아니면 잠을 설쳤으므로 설산의 권유를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이다. 그가 하룻밤쯤 잠을 설칠 셈으로 설산의 권유에 따랐더라면 변을 면했을지도 모르는데 참으로 애석한 일이었다.⁷⁸⁾

그러나 이 회고는 착오였을 것이다. 고하는 이날 저녁에도 경교장으로 간 것은 아니고, 그대로 귀가했다. 마침 여러날 묵고 있던 外從인 梁仲默이 출타중이어서 그는 홀로 저녁상을 받았다. 저녁 일곱 시께 원세훈에게서 전화가 걸려 왔다. “고하와 임정 사이에 의견이 달라졌다는 것이 사실이요”라고 묻는 것이었다. “글쎄 임정에서는 모두 짚신감발을 하고 걸어 다니면서라도 반탁을 한다 합디다. 반탁이 문제가 아니라 군정과 충돌을 일으켜 놓고 임정이 뒷수습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지 나도 알 수가 없소”라고 해명하는 것으로써 통화는 끝났다. 얼마 뒤에 양중목이 돌아오고 강병순이 찾아왔다.

고하가 잠자리에 든 것은 밤 열시께였다. 조카 英洙는 문을 안으로 거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었다. 문을 안으로 잠그지 않는 것이 고하 집안의 관습이었으나, 정국이 흐려지고 이상한 풍문이 돌뿐 아니라 집 주위가 어수선하기에 문단속을 제의한 것이다. 사실 이때 고하가 훈정설에 입각해 신탁통치를 지지하는 ‘매국적 연설’을 하고 있다는,⁷⁹⁾ 민중의 감정에 불을 붙일 여지가 큰 과장된 소문이 퍼지고 있었고, 테러의 위험이 뒤따를 것이라는 경고도 나돌고 있었다. 그런데도 고하는 “문을 왜 거느냐, 내버려 두어”라고 잘라 말한 것이다.⁸⁰⁾

고하는 그 성격이 ‘고집불통’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어느 기자가 “송씨는 고집불통이다. 팔찌를 끼고 넓은 입을 꼭 다물고 앉아 ‘못써, 안 돼’라고 한번 해놓으면 옥황상제가 와서 권고를 해도 듣지 아니한다.”고⁸¹⁾ 썼던 그대로였다. 또 “세심하고도 추호의 허점이 없는 주도면밀한 성격의 소유자”이면서도 “器局이 크고 그 성격이 호방하고 담대”했다.⁸²⁾ 이처럼 강하고 통이 큰 성격을 지녔기에, 미 군정에서 미군 헌병을 자택에 파견해 주겠다고 제의했을 때 “대단히 고마운 일이지만 한국 사람으로서 나를 해칠 사람은 없을 테니 안심하시라고

77) 위와 같음, 338쪽

78) 허정, 앞의 책, 141-142쪽

79) 최상룡, 위와 같음.

80) 《고하 송진우 선생전》, 338-339쪽

81) <고집-고집-고집불통 송진우>, 《제일선》 제2권 제6호 (1932년 7월), 80쪽

82) 이상돈, 앞의 글, 123쪽

하지 장군에게 말씀드려 주시오”라고 거절했던 것이다.⁸³⁾ “仰天俯地해서 민족과 조국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누가 감히 나를 죽이겠는가!”라고 자신이 있었기에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근들의 권고에 대해서도 聽而不聞한 것이다.⁸⁴⁾

3 겨울 새벽의 被禍

이튿날 새벽 갑자기 고하의 침실 밀창문을 여는 소리와 함께 총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겨울 새벽의 고요한 공기가 찢어지면서, 뜰 아랫방에 기거하던 영수와 호위 경관인 鄭鍾根이 황급히 고하의 침실로 뛰어갔다. 이미 운명한 상태였다. 담장을 넘어온 암살자는 모두 여섯 명으로 연속해서 열세 발을 쏘았는데 그 가운데 여섯 발이 심장과 안면 하관절과 복부에 명중했다. 1945년 12월 30일 오전 6시 15분이었다. 이로써 독립국가의 새 정부가 서면 ‘영락 없는 초대 국무총리 재목’이라는 신망을 받던 그는 만 55년 7개월을 일기로 한 마디의 유언도 없이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테러에 쓰러진 최초의 희생자가 된 것이다.⁸⁵⁾ 함께 자다가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생명은 건진 양중목은 “형님은 흉탄에 쓰러지신 후 아무말도 못하셨지만 태연자약한 모습으로 최후를 마치셨어요”라고 회고했다.⁸⁶⁾

암살당하기 며칠 전, 고하는 가까운 벗들인 우양 허정과 가인 김병로와 근촌 백관수 등등과 어울려 국립관에서 저녁을 하다가 심심풀이로 관상가를 불러 관상을 본 일이 있었다. 허정의 회고에 따르면, “백관수씨가 송진우씨의 신변을 염려하여 관상이나 한번 보자고 해서 잘 알아 맞춘다고 이름이 난 관상가를 불렀던 것이다. 그 관상가의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당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고하의 상을 보더니 ‘매우 좋은 상’이라고 칭찬하며 “집권은 틀림없습니다”라고 장담했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그때 ‘송진우 타도’의 괴벽보가 나붙는 등, 그의 신변이 걱정스러울 때였으므로 변을 당할 염려는 없느냐고 물었더니 관상가는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⁸⁷⁾ 그러나 “집권은 틀림없습니다”라는 장담을 들은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은 것이다.

경무부장 조병옥이 맨 먼저 달려왔고 뒤미처 김성수가 황망히 달려왔다. 인촌은 그저 망연자실하여 넋을 잃고 있다가 통독했다. “고하! 고하! 아아, 이게 무슨 흥변인가, 나는 어떡하라고 먼저 가버린다 말인가. 고하, 대답 좀 해 보게!”—“피를 나눈 형제보다 가까웠던 평생동지, 손바닥과 손등 같이 함께 큰 뜻을 품고 서로를 격려하며 동반해 온 知己之友. 그 고하를 흉탄에 잃고 말았으니 인촌의 비통함은 형언할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인촌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깨끗하게 살다 간 의인이었어”라는 한 마디로 고하를 총평했다.⁸⁸⁾

이승만도 달려왔다. 손세일이 지적했듯이, “송진우의 죽음은 이승만에게 크나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가 가장 의지했던 정치 세력의 주축을 잃은 그는 손으로 방바닥을 치면서 영영 울었다.”⁸⁹⁾ 당시 이승만을 측근에서 보좌했으며,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는 비서관으로 봉직했던 깨끗한 한학자 尹錫五는 이날의 이승만의 울음은 “이성을 잃은 어린애의 그것과 같았다”고 회고했다.⁹⁰⁾ 것처럼 큰 슬픔을 삭이면서, 이승만은 고하를 위해

83) <고하 송진우 선생전>, 336-337쪽

84) 이상돈, 앞의 글, 126쪽

85) 李敬南, <민족의 햇불(17) : 고하 송진우>, 《월간 통일》(1985년 7월), 103쪽

86) 동아일보사(편저), 《비화 제1공화국》 제1부 (홍우출판사, 1975), 162-163쪽

87) 허정, 앞의 책, 141쪽

88) 최시중(편저), 《인촌 김성수 :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동아일보사, 1985), 271쪽

89) 손세일, 앞의 책, 208쪽

손수 輓詩를 짓고 썼다. “義人自古席終稀(의인은 옛부터 자기 명의 죽음이 드물고), 一死尋常視若歸(한번 죽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 마치 제 집으로 돌아가듯 한다), 學國悲傷妻子哭(나라 안이 모두 슬퍼하고 처자도 우는데), 臘天憂里雪霏霏(선달 그믐 망우리에는 눈만 부슬부슬 뿌리는가)”가 그것이다.⁹¹⁾

한민당은 12월 30일 “국가적으로 가장 중대한 이 시국에 씨와 같은 민족의 투사요 또 위대한 지도자가 서거한 것은 本黨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국가 장래에 커다란 손실이다”라고 성명했다.⁹²⁾ 이어 <동아일보>는 12월 31일자 사설에서 ‘一株를 잃다!’라는 제목 아래 고하를 “철두철미 의지의 人이며 신념의 人이었다. 나라를 걱정하고 민족을 사랑하되 소신을 不動하고 苦節을 고수하는 強革의 人이었다”고 기린 다음, 그의 죽음을 “독립전선에 뿌려질 허다한 生血의 선두를 가로막은 [...] 순국”으로까지 높이고 나서, “이 거인의 최후가 빚어 놓은 국가적 민족적 표정이 너무나 장엄하고 너무나 존귀하다”고 끝맺었다. 한민당쪽 인사들이 받았던 충격은 정말로 컸던 것 같다. 국민대회준비회의 외교부장으로 있던 장택상이 그때를 회고하면서 “고하의 피살 사건으로 나는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았다. 여지껏 그분을 중심으로 모든 일이 추진되어 왔었으므로 대들보가 무너진 공허감을 메꿀 길이 없었다. 이와 같이 일시에 모든 의욕을 잃게 된 나는 차라리 낙향하여 조용히 지내기로 마음 먹었다”라고⁹³⁾ 쓴 것에서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겠다.

영결식은 1946년 1월 5일 동아일보사와 한국민주당과 국민대회준비회의 합동장으로 각계의 조사와 분향 속에 거행되어 망우리 공동묘지에 안장되었다. 묘소에는 고하의 벗 위당 정인보가 글을 짓고 글씨를 쓴 비석이 같은 해 10월에 세워졌다. 이 비문은 고하의 인간과 업적을, 곧 교육자로서의 고하, 언론인으로서의 고하, 항일 투사로서의 고하, 그리고 정치인으로서의 고하의 일대기이다. “세상 어지러움이 오래이면 선비는 스스로가 뜻을 세워 가지 못할까 근심을 하거니와 혹 절조를 자랑할 수는 있어도 지략과 포부를 갖춘 이는 드문데, 그 절조와 포부를 겸해 갖춘 이로 내 친구 중에 고하 송군이 있다”로 시작하고, “銘-아침의 말로 내 근본을 세우고, 저녁의 말로 非類를 막았도다. 웃고 떠들어도 한계를 넘지 않고, 취해 소리쳐도 그대로 있었도다. 지나기 여러 십년, 만가지 변화를 겪었도다. 팔을 걷고 분해 일어나면, 산과 바다도 떨었도다. 깊은 마음 속에 맺힌 것이 아니었다면 어찌 처음부터 끝까지 이처럼 끈을 수 있었으랴. 우리의 길이 비색한 것을 슬퍼하나, 차마 그대를 글속의 인물로 만들고 말 수야 있으랴”로 끝맺은 당대의 명문이다.⁹⁴⁾

고하에 대한 추모는 그 뒤에도 주로 한민당계 인사들에 의해 계속되었다. 낭산은 1946년 4월 13일자 <동아일보>에 기고한 추념사에 그를 ‘한국의 링컨에 비유하고, “미국 대통령 링컨 씨가 살해는 당하였지마는 미국민은 그를 영원히 사모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선생을 길게 길게 사모할 줄 믿고 있습니다”라고 추모했다. 위당은 또 <宿草 밑에 누운 故友 宋古下를 우노라>라는 연시조를 지었다. 1965년 동아일보는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를 발족시켜 《고하 송진우 선생전》을 펴냈고, 1966년 11월 11일에는 서울 陽川區 新亭洞 산 43-2번지 芝香山 기슭에 천장했으며 1967년 10월 20일에는 동아일보사 사장과 국무총리를 지낸 최두선이 위원장을 맡은 遷葬추진위원회 주관 아래 천장된 묘소에서 묘비제막식이 있었다. 여기서 유진오 신민당 대표위원은 고하의 ‘위대한 족적’을 높이 평가했다.

90) 위와 같음.

91) 《고하 송진우 선생전》, 339쪽

92) 白南薰, 《나의 일생》(해운 백남훈선생기념사업회, 1968), 164쪽

93) 張澤相, <나의 교우 반세기 : 고 장택상 씨의 회고록>, 《신동아》(1970년 10월), 227쪽

94) 전문이 《고하 송진우 선생전》, 3-11쪽에 한문과 국문으로 함께 실려 있다.

1970년 12월 29일 <동아일보>는 그의 25주기를 맞아 고하를 우리 ‘겨레로서는 잊어서는 안될 위대한 거목’으로 찬양한 이인의 글을 실었다.

이어 1983년 9월 23일에는 고하송진우선생동상건립위원회 위원장 유진오의 주재 아래 서울 성동구 능동 소재 어린이대공원에서 고하의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 여기서 유진오는 “선생의 그 굳은 지조, 웅대한 포부, 역사의 진운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과 애국정신은 그분의 업적과 함께 우리 민족으로서 언제나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찬양했다. 이어 제2 공화정의 대통령을 지낸 윤보선은 고하의 피살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참으로 아쉽고 통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고하 선생이 좀더 생존하셨더라면 그분의 역량과 지도력을 미루어 보다 크고 많은 업적을 이 나라에 남기셨을 것으로 확신합니다”라고 추모했고, 고려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당시 국무총리 金相浹은 “선생의 거룩하신 애국정신과 혁혁한 공적은 우리 앞길에 등불이 되어 길이 빛날 것입니다”라고 추모했다. 1988년에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의 협조 아래 서울 동작구 소재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옮겨 모시기로 결정해, 고하의 98회 탄신일을 약 1주일 앞선 5월 3일에 천묘장의위원장 윤보선의 주재 아래 천묘장의 의식을 거행했다.

고하는 이미 지적했듯이, 소생이 없었다. 그래서 만형의 셋째 아들 영수가 양자 들어 그대를 잇고 있는데, 양자 역시 독자만을 낳았으니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인 宋相現 박사가 그이다. 고하의 부인은 1986년 9월 2일에 별세했다.

4 암살의 배후

고하를 비교적 객관적으로 조명하고자 했던 언론인 李桓儀는 고하를 “이 나라 보수정당의 鼻祖요 태두”라고 불렀고,⁹⁵⁾ 미 군정의 서울특별시장을 지낸 鈞丁 金炯敏은 “한민당의 지도자이며 민족의 존경을 받던 고하 송진우씨”라고 평가했으며,⁹⁶⁾ 해방 직후의 지도자들을 비교한 어느 한 책자는 고하를 “정치적 식견과 수완이 출중한 지도자”라고 불렀다.⁹⁷⁾ 그러면 이처럼 정치적 역량이 큰 민족적 지도자를 암살한 사람들은 누구들인가?

결론부터 말해, 1946년 4월 8일 밤 체포된 韓賢宇, 그리고 공범으로 체포된 劉根培와 金義賢과 金仁成과 李昌希 등등이 암살자들이었다. 한현우가 28세로 나이가 제일 많고 유근배와 이창희는 19세로 제일 어렸으며 나머지는 모두 20세였다. 이들에게 권총을 준 것으로 밝혀진 全栢도 뒷날 체포되었다. 주범 한현우는 평안북도 中江鎭의 부농 출신으로 와세다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일본에서 항일 운동에 종사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귀국해 좌우의 통합 운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동지들과 함께 고하와 몽양과 박헌영 세 사람을 ‘민족분열자’로 규정하고 우선 고하를 암살했던 것이다.⁹⁸⁾

이들에 대한 1심 공판은 1946년 7월 4일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고하가 “술선하여 굴욕적인 신탁통치에 찬성하고 민족적으로 당연한 요구인 반탁운동의 진압까지 맡고 나섰기에” 암살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⁹⁹⁾ “고하가 반탁운동의 진압까지 맡고

95) 李桓儀, <사라진 정치지도자 군상 : 송진우론-오늘의 시점에서 본 고하의 사상과 업적>, 《정경연구》(1965년 9월), 411쪽

96) 金炯敏, 《김형민 회고록》(범우사, 1987), 242쪽

97) 金鍾範-金東雲, 《해방 전후의 조선 진상》 제2집 (돌베개, 1983), 174쪽

98) 희망출판사 편집부(편), 《해방 20년사》(희망출판사, 1965), <송진우 암살사건>, 136-139 및 楊在仁, <해방정국에 있어서의 정치테러 : 송진우, 장덕수, 김구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20집 제2호 (1986년 12월), 177쪽

나섰다”는 것은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 부분과 그리고 몇몇 修辭들을 빼놓으면, 한 마디로, 고하가 찬탁을 했기에 암살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고하는 국민대회준비회 위원장 이름으로 12월 29일에 ‘최후까지 투쟁하자’라는 담화를 내고 이 담화를 통해 반탁의 태도를 분명히 선언했다. 이 담화는 그 전문이 같은 날짜 <동아일보>에 게재되어 있다. 그가 모스크바 합의를 훈정론의 틀에서 긍정적으로 본 것은 사실이나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뜻은 분명히 밝힌 것이다.

물론 즉각적인 독립을 외치는 세력에게, 예컨대 임정 세력에게, 훈정론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것은 미 군정이라는 또 하나의 외세에 대한 依附로 비쳤다.

한민당 인사들은 고하의 암살은 “임정 가까운 측에서 한 것”이라는 소문이 믿을 만하다고 주장했다.¹⁰⁰⁾ 한현우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자신의 행위는 배후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구와 이승만이 자신들을 ‘의거’를 단행한 ‘의사’로 칭찬해 주었다고 썼다.¹⁰¹⁾ 서울지방법원은 1946년 8월 2일 한현우와 김의현과 김인성에 각각 10년 징역을, 이창희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 징역을 선고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1947년 2월 14일 한현우에 징역 15년을, 김의현과 김인성에 각각 징역 10년을, 그리고 유근배와 이창희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 징역을 선고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 은사령이 내렸다. 그들 전원에게 일반 사면의 혜택이 베풀어져 한현우의 경우 4분의 1이 감형되었다. 그는 6.25직후 북한 점령 아래서 석방되었고 그 뒤 일본으로 망명하여 지금까지 거기서 살고 있다.

5 고하 피살 이후의 한민당

고하가 암살된 뒤 남한 해방 정국의 전개 과정을 여기서 설명할 수는 없다. 그것은 매우 복잡하고 긴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한민당에 국한시켜 매우 짧게 말하기로 한다.

한민당은 고하의 뒤를 이어 당수직을 맡은 인촌이 이끌어 나가게 되며, 임정과는 대립되는 가운데 이승만과 손을 잡고 이승만의 노선을 뒷받침하면서 대한민국의 수립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 점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립을 단정이라는 분단체제의 수립으로 파악하는 이들에게 고하는 한민당과 더불어 비판의 대상이 된다.¹⁰²⁾ 그러나 대한민국의 수립은 북한과의 대결 관계에서 불가피했으며 따라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파악하는 이들에게 고하는 그 기초 공사를 다진 선구적 일꾼으로 기억되고 있다. 고하가 설정한 친미-반공 노선이 없이는, 그리고 그 궤도 위에서 한민당이 남한 내부의 좌익 및 북한과 투쟁하지 않았다면, 남한은 최소한 민족공산주의자들에 의해 공산화되었거나 최악의 경우 소비에트화되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보는 것이다.

99) 韓賢宇, <나의 반탁투쟁기 (2) : 고하 송진우 피격사건 공판정>, 《세대》(1975년 11월), 317쪽

100) 김준연, <고하 송진우 선생 2주기를 맞이하여>, 《동아일보》1947년 12월 29일.

101) 한현우, 앞의 글, 318쪽

102) 예컨대, 愼洪範, <동아-조선의 뿌리 : 식민 언론의 미청산과 민족 언론의 건설>, 《실천문학》(1985년 여름), 98쪽

맺 음 말

진부한 표현이지만 蓋棺事定이라는 말을 다시 새겨 본다. 어느 사람을 평가함에 있어서 그의 관뚜껑을 덮은 뒤에 하라는 말이니, 사람에 대한 객관적이며 공정한 평가는 그의 死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러나 死後라고 해서 즉시 가능하지는 않다.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람들과 세력들의 관뚜껑도 덮어진 뒤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역사학은 어떤 인물이나 사건도 30년 곧 한 세대가 지나고서야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함이 일반적이다. 강산이 세 번쯤은 바뀌어야 어떤 인물을 둘러쌌던 신화도 바래지고 애증도 삭여질 뿐만 아니라 자료의 개발도 활발해져서 비교적 공정한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고하 송진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충분히 가능한 시점에 우리는 이미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고하가 죽은 때로부터 어언 45년, 곧 한 세대 반,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이 흐른 것이다.

그러면 역사적 평가의 기준은 무엇인가? 적어도 지도자에 대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평가의 기준은 아무래도 시대정신일 수밖에 없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사회를 만들어 내고 거기서 시대가 형성된다. 거꾸로 사람은 사회의 지배를 받으며 시대의 영향을 받는다. 이때 사람과 사회, 사람과 시대를 매개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시대정신이다. 그 시대가 요청하는 것, 곧 사회구성원들의 대다수가 바라는 역사의 발전방향이 시대정신이라고 하겠다. 한 지도자의 행위와 발자취는 그것이 시대정신 곧 역사의 발전방향에 이바지한 것이었느냐에 따라 평가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은데 시대정신이 무엇이나를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어느 한 시대의 정신을 주관적인 판단 아래 이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자(尺)로써 재단하려 한다면 그는 폭군적 심판관이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고하가 살았던 시대의 정신을 규정하기란 크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가 비록 외면적으로는 조선왕국 때 태어나 대한제국 때 소년기를 보냈다고 해도 그의 생애의 대부분은, 특히 그가 성년이 된 이후의 시기 전체는 겨레가, 첫번째는 일제의 강점에 따른, 그리고 두번째는 연합국의 분할 점령에 따른 외세의 지배 아래 놓였던 시기였기 때문에 시대정신은 민족의 자주와 독립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같은 점령자라 해도 일제와 소련과 미국에 대한 구별은 반드시 필요하며 그 구별에 따라 대응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큰 테두리 안에서 고하에 대한 蓋棺事定을 감히 시도하기로 한다.

55년이라는 길지 않았던 고하의 생애는, 크게 네개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첫번째 시기는 1890년에 태어나서 1910년에 경술국치를 당할 때까지의 20년이다. 이 시기에 그는 조선왕국-대한제국의 신민으로서, 기울어가는 국운의 장래를 놓고 깊은 고뇌와 번민을 경험했다. 그 과정에서 의병투쟁적 노선과 실력배양론적-준비론적 노선 사이에서 방황을 거듭했으며 마침내 실력배양론적-준비론적 노선의 수락으로서 이념적 오디세이를 종결짓는다.

두번째 시기와 세번째 시기는 일제식민지 치하의 35년이다. 우선 두번째 시기는 1919년 3·1운동의 참가에 따른 투옥을 거쳐 1921년에 일단 자유로워졌을 때까지의 11년이다. 20대 청년이었던 이 시기에 그는 교육자로서 준비론적 노선에 충실하다가 그것을 마침내 의병투쟁적 노선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서대문감옥과 담양경찰서 유치장에 갇히는 것으로 매듭지

어진다. 사상적 흐름으로 볼 때, 두번째 시기는 첫번째 시기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다. 만일 두 시기를 이어 하나의 시기로 묶는다면, 31년의 시기는 그가 의병투쟁적 노선과 실력배양론적-준비론적 노선 사이에서 왕래하다가 결국에는 의병투쟁적 노선으로 대단원을 이룬 자랑스런 저항 민족주의자의 삶이었다.

세번째 시기는 1921년 <동아일보>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동아일보>와 함께 자신의 모든 시간을 보내다가 1945년에 일제의 패망과 민족의 광복을 보았던 때까지의 24년이다. 이 시기에 그는 합법적 우파민족운동가로 일관하다가 마침내 은둔하는 것으로 매듭지어진다. 이 시기를 굳이 두 시기로 나눈다면, <동아일보>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간된 해인 1940년을 분기점으로 삼을 수 있다. <동아일보>의 폐간 이후 그는 모든 외부활동을 중지하고 조용한 은둔의 삶을 보냈다.

네번째 시기는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었으나 미국과 소련에 의해 분할점령된 가운데 독립국가의 건설이 준비되던, 이른바 해방정국의 초창기이다. 미 군정 치하의 남한에서 소련과 공산주의에 반대하고 미국과 우익의 이념을 지지하는 노선에 서서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나 암살되고 마는 130여일의 매우 짧은 시기이다.

다음에서 이 네개의 시기별로, 고하의 쓴다섯 해의 길지 않았던 삶을 요약 정리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작업을 통해 고하가 이 시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고하의 삶의 첫번째 시기는 일제와의 관련에서 파악된다. 그는 일제의 조선침략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운이 기울어 가던 조선 말기에 태어나 열다섯살에 을사조약의 슬픔을 맛보아야 했고 스무살에 망국의 수치를 겪어야 했다. 이 시기에 그는 명백히 일제를 증오했고 거기에 반발하는 자세를 취하는데, 이 시기의 그의 삶을 특징짓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의병투쟁적 항일민족주의 노선에의 집념을 버리지 못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애국계몽운동적-실력배양론적-자강운동적 민족주의의 길을 걷는 가운데 겪게 되는 사상적 고뇌였다. 우리가 제1장에서 살폈듯이, 고하는 위정척사론의 입장에 서서 의병투쟁에 뛰어든 것, 그리하여 마침내는 일제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성리학자 기삼연으로부터 첫번째 사상적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의 영향은 매우 컸다. 기본적으로 비분강개형-지사형의 성격을 받고 태어난 고하에게 행동적 항일투사로부터 애국정열이 넘치는 기초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분명히 축복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기삼연이 의병투쟁을 다시 벌이기 위해 그를 떠난 뒤 고하는 곧바로 애국계몽운동론적-실력배양론적-자강운동적 민족주의자의 ‘新학문’ 속에 성장했다. 그것이 前者와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새로운 ‘敎派’에 속했으며, 여기서 고하는 두번째의 사상적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때 고하가 평생의 金石之交이며 管鮑之交인 인촌을 만났다는 것은 운명적이었다. 고하는 자신이 앞으로 함께 하게 될 노선과 사람을 동시에 만났던 것이다. 그리하여 고하는 인촌과 더불어 실력배양노선을 실천하기 위해 도쿄로 유학의 길을 떠났다.

경술국치는 고하로 하여금 실력배양론에 대한 신앙적 동요를 일으키게 하였다. 여기서 그가 다시 찾은 종교는 의병투쟁적 항일노선이었다. 고하가 망국의 비보를 듣자마자 곧장 귀국해서 스승의 옛 집을 찾아갔다는 사실은 고하의 사상적 고향이 바로 기삼연의 의병투쟁적 항일민족주의였음을 웅변한다.

스승이 이미 처형되어 이 땅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상징적이다. 자신이 정신적으로 의지하려 했고 또 자신이 취해야 할 행동의 지표로 삼으려고 했던 첫번째 세례자가 순교했을 때, 고하는 그 세례자의 계승자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 길을 선택하는 대신에 아버지가 제시하는 길을 따랐다. 여기서부터 그의 삶의 두번째 시기는 비롯된

다. 그것은 실력배양론적-자강운동론적 민족주의의 연장선 위에서 있는 기회론이었다. 見機而作, 곧 실력을 쌓아 올리면서 기회를 제 때에 포착하여 일을 만들어낸다는 기회론을 받아들였을 때, 고하는 망국상황 아래서 다시 敵都 도쿄로 돌아가 일제의 교육을 받고 또 귀국하여 교육기관을 세우는 일로부터 아무런 심리적-정신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다.

그는 기회론의 노선 아래 정력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인생의 황금기라는 20대 젊음의 후반을 중앙학교라는 민족 교육기관에 바쳤다. 식민지의 청소년들에게 민족불멸론을 불어넣어 주면서 한민족이 중국에는 일제의 굴레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성취할 수 있을 것임을 암시했다. 그의 행동은 거기서 머물지 않았다. 제1차 세계대전의 종결이 약소민족들의 해방투쟁에 유리한 새로운 국제상황을 조성해 냈을 때, 그는 동지들과 더불어 독립만세 운동을 획책하는 어려운 일에 과감히 자신을 던졌다. 그와 그의 동지들의 구상과 계획과 모의는 부분적으로 1919년 2월 8일 도쿄에서의 유학생 독립선언으로 이어졌고, 다시 부분적으로 3월 1일 조선에서의 독립만세 운동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로 그는 영예스럽게도 일제에 의해 간히게 되었다.

이것은 고하의 기회론이 단순한 革命待機論이 아니었음을 말해준다. 그저 배우면서, 실력을 배양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 민족해방을 위한 거대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는 단일한 혁명대기주의는 항일민족주의의 범주 안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 고하와 그의 동지들은 기회를 기다리면서 준비하였고 기회가 왔을 때 그 준비를 바탕으로 삼아 항일의 거족적 쫓기를 향한 大事를 도모해 나갔다. 그리하여 조선민족은 완전히 죽었거나 일제에 동화된 줄만 알았던 절망적 시점에서 조선민족의 혼이 살아있음을 온 누리에 알리는 거대한 봉화가 타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3·1운동의 획책과 3·1운동에의 주도적 참여는 그가 '新학문'에 접한 이후 지내왔던 실력배양론과 기회론의 실천인 동시에 그 정점에서의 도달을 의미했으며, 또한 스승의 가르침이었던 의병투쟁적 항일민족주의의 구현을 의미하기도 했다.

일제의 감옥으로부터 풀려 나오고 <동아일보>에 사장으로 발을 디딘 때로부터, 앞에서 지적했듯이, 고하의 삶의 세번째 시기는 시작된다. 그의 제3기의 시작이 일제의 식민통치 제2기인 문화정치의 개막과 일치한다는 것은 제3기의 삶의 방향에 대해 암시적이다. 이것은 그가 다시 한번 의병투쟁적 항일운동가의 길 대신에 실력배양론적 자강운동가의 길에 들어선다는 뜻을 함축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이 시기에 <동아일보>를 발판으로 삼아 동지들과 함께 민립대학 설립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과 같은 자강운동을 주도하기도 하며, 농촌계몽운동과 같이 문화적으로 민족을 계몽하는 일이라면 주저하지 않고 나선다. 한마디로 그는 문화적 민족주의의 길을 걷게 되고 이로써 합법적-우파적 입장을 분명하게 취하게 된다.

언론인으로 일관한 이 시기에 고하는 일제의 문화정치의 본질인 회유와 위협의 피할 수 없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그는 일제에의 영합은 거부했다. 그의 언동에 친일적 요소를 찾기 어려운 것이, 그리고 다시 한번 일제에 의해 투옥되었다는 사실이 그 점을 말한다. 1930년대에 들어가 일제의 식민통치는 제3기를 맞았다. 만주침략과 중국침략으로 치달으면서 일제는 조선을 오로지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착취하게 되었으며, 그리하여 이른바 문화정치의 가면마저 벗어던지고 철저한 과시즘 강압통치를 펴 나갔다. 따라서 이 시기는 자강운동가 또는 문화적 민족주의자에게 매우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고하도 예외일 수 없었다. 저항의 범위와 방법도 크게 제약되었기에, 그것은 일제에 대한 불쾌의 표시에 한정되는 데 그쳤으며 소극적인 범위를 결코 벗어나지 않았다. 미국과의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기 한 해 앞선 1940년에 들어가서는 일제는 그러한 소극적인 저항 또는 不同調조차 허용하지 않았다. 문자 그대로 악명 높은 한민족 말살정책을 야만적으로 펴 나갔으며, 이 과정에서

비정치적인 민간단체들을 모두 해산시켰으며 <동아일보>를 비롯한 민간지들을 폐간시켰다. 창씨개명이라는 전대미문의 포악한 방법을 통해 조선사람의 성씨마저 없애 나갔다. 이제 배달민족은 사실상 소멸된 것 같은 적막감이, 그리고 旭日昇天하는 일제의 지배가 영원할 것 같은 환상이 조선8도를 지배했다. 여기서 고하는 은둔의 길을 선택했다. 당시 조선의 이른바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자진하여 또는 압력에 못이겨 철저한 일제의 주구가 된 채 일제를 공공연히 찬양하는 정도가 아니라, 조선사람이 일본사람이 되어야 하며 조선의 아들딸들이 천황을 위해 죽는 것이 영광이라고 역설하고 있을 때였다. 고하에게도 압력과 회유의 손길이 뻗어 왔다. 그러나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떠한 상황 아래서도 민족적 양심을 버릴 수 없었던 것이며, 그리하여 그는 내면적 망명의 길을 밟았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고하가 청담과의 생활로 자족할 수는 없었다. 그는 일제는 반드시 패망하며 민족은 멀지 않아 해방의 날을 맞이할 것이라는 확신 속에 天時를 기다리면서 동지들과의 결속을 다졌다. 가까운 사람으로 하여금 미국의 단파방송을 은밀하게 청취하게 하는 등 戰局의 현황을 파악하는 가운데 연합국 승리 이후의 대처 방향을 생각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이때 그는 일제가 패망하면 권력을 조선의 지도자에게 넘겨주는 모습을 취할 것임을 내다보면서 거기에 응하는 경우 ‘괴뢰 정권’으로 지탄될 것임을 경고하고 결국 연합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제휴를 통해 독립을 지향해야 한다는 경륜을 가슴속에 키웠다.

마침내 해방의 날이 왔다. 이로써 한반도의 정치적 상황은 일변했으며, 독립국가를 건설하는 과제가 민족 전체에게 주어졌다. 그러나 불행히도 해방은 미국과 소련의 분할점령과 함께 왔다. 여기서 고하는 인생의 제4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臨政奉戴의 대의명분을 앞세우며 일제 총독부의 ‘권한’ 이양 교섭에 불응하고 建準의 제휴 요청을 거절한 그가 걸은 길은 다시 한번 준비론적인 것이었다. 연합국의 분할점령정책과 연합국들 사이의 이해관계와 국내적 상황을 감안할 때, 즉각적인 독립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연합국의 점령정책을 일단 받아들이고 그 바탕 위에서 카이로 선언이 다짐한 ‘적당한 시기와 과정을 거쳐’ 서구형의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 국가를 세움으로써 완전한 독립을 얻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고하는 미 군정에 협력했으며 보수우익적 한국민주당을 창당했고 건준이 급조한 이른바 조선인민공화국을 배척했으며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이 지닌 긍정적인 성격을 지지했다. 교육자와 언론인이라는 계몽주의적-자강운동적 차원을 떠나 현실정치의 세계에 뛰어든 것이다. 위당 정인보가 고하의 묘비명에서 지적했듯이, 그것은 절조에 경륜을 겸비한 사람만이 자신 있게 취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 그러나 해방정국은 뜨겁게 달아오르기만 했다. 현실이 어떠한가를 치밀하게 고려함이 없이 즉각적인 독립을 외치는 사람만이 애국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두 민족의 대의를 배반하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열혈의 기류가 지배하고 있었다.

그 기류 속에서 고하는 아깝게도 마침내 암살의 희생이 되어 목숨을 잃었다. 정치가로서는 너무나 짧은 생애였다. 그러나 그가 닦기 시작한 터가 넓어지면서 그 위에 대한민국이 섰다. 그가 창당한 한국민주당은 국내적 정치지지 기반이 약하던 이승만을 도와 대한민국의 수립에 크게 이바지한 것이다. 한민당은 그 뒤 한국 보수 야당의 元祖가 되었다. 거기서부터 정통 야당의 맥을 이어나간 제1공화정의 민주국민당과 민주당, 제2공화정의 민주당과 신민당, 제3공화정의 民政黨과 신민당, 제4공화정의 신민당, 제5공화정의 민주한국당과 신한민주당과 통일민주당 등등은 이 나라 민주화운동에 기관차 역할을 수행했다. 이렇게 보면 그는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밑거름이 된 셈이다. 대한민국의 수립과 대한민국의 민주발전의 기초공사 때 삽을 들었던 일꾼으로서 고하는 오늘날에도 기억된다고 하겠다.

【고하 송진우 연보】

1890년 (고종 27년)

6월 24일 전라남도 潭陽郡 古之面 巽谷里에서 출생 (음력 5월 8일). 新平 송씨 宋燾 (1885-1928)과 남원 梁씨 (1885-1919) 사이에 4남 4녀의 다섯째로 ‘한 울안에 5대가 함께 사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남. 어릴 때 이름은 玉潤이었다고 함.

1893년 (고종 30년 : 만 3세)

만 세살 때부터 이웃 마을에 살던 呂文心으로부터 한문을 배움.

1894년 (고종 31년 : 만 4세)

만 네살 되던 해 동학혁명이 일어남. 동학혁명이 어린 고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알 수 없음.

1895년 (고종 32년 : 만 5세)

이어 일어난 을미사변은 고하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줌. 어린 고하는 일본인들이 國母인 민비를 시해한 것에 대해 3년을 두고 따져 물었다고 전해짐.

1896년 (고종 33년 : 만 6세)

고종 때 호조판서를 지낸 蘆沙 奇正鎭의 친족인 奇參衍의 훈도를 받기 시작함. 전남 長城 태생의 省齋 기삼연의 학문적 출발점은 忠君愛國에 있었던 것 같음. 그는 을미사변에 격분, 의병대장으로 왜병과 싸움. 그는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單章을 추서받음. 한말의 전형적인 術正斥邪 계열의 선비였던 기삼연을 스승으로 삼게 된 계기는 그가 왜병에 쫓기어 그의 집 식객으로 있을 때였음.

기삼연은 小我를 버리고 大我에 살아야 한다고 충의를 강조함.

그는 古比山 아래 태어나 古比山처럼 깨끗하게 살라는 뜻에서 古下라는 아호를 손수 지어 줌. 고하의 인생관의 형성은 이러한 스승 기삼연과 아버지 훈의 교훈에 큰 영향을 받음. 기삼연 아래에서 유학의 경전들을 차례로 익힘. 열살 안팎에 花潭 徐敬德과 退溪 李滉, 栗谷 李珣를 비롯한 조선조 거유들의 학문을 두루 섭렵. 특히 고하는 奇正鎭의 성리학설에 심취, 뒷날 회고컨대 나라가 태평성대였다면 성리학자가 되었을 것이라고 할 정도였음.

1902년 (고종 39년 : 만 12세)

기삼연이 떠난 후 숙부인 守山堦으로부터 잠시 가르침을 받기도 함.

2월에 러-일 전쟁이 발발, 8월에는 제1차 한-일협약의 강제체결, 9월에는 일제의 앞잡이 一進會의 결성 등 어수선한 정치상황에서 고하는 전북 井邑의 高興 柳씨와 결혼, 비록 가정의 중요성을 부인하진 않았지만 개인의 행복보다 민족의 행복에 생의 목표를 둔 그로서는 가정에 몰두하기가 힘들었던 듯함.

1904년 (고종 41년 : 만 14세)

장성군 白羊寺의 金直夫라는 선비의 가르침을 받음.

1905년 (고종 42년 : 만 15세)

11월 일제의 강요로 乙巳條約이 맺어져 조선이 일본의 피보호국으로 전락했다는 소식에 접하고 하산을 결심. 서울을 다녀온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新학문을 배

위야 한다는 요지의 말을 듣고 감명받아 앞으로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될 '실력배양론' 또는 '자강운동론'의 사상적 틀을 형성하게 됨.

부친 송훈 潭陽學校를 세움.

1906년 (고종 43년 : 만 16세)

늦은 봄 昌平 英學塾에서 약 3달간 수학. 여기서 仁村을 만나 평생에 걸친 金石之交의 우정이 시작됨.

1907 (고종 44년 순종 즉위 隆熙 연호 채택 : 만 17세)

전북 技安郡 山内面에 있는 來蘇寺의 靑蓮庵으로 인촌을 찾아감. 여기서 芹村 白寬洙 만나 의기가 상통, 인촌과 더불어 세명이 같이 공부하게 됨.

6월 헤이그 밀사사건 소식을 듣고 비분강개함. 그러나 역설적으로 一死報國의 애국자가 나왔다는 사실에 큰 희망을 갖게 됨.

1908년 (순종 2년 : 만 18세)

스승 기삼언 처형당함. 전국적으로 의병운동이 일어남.

고하는 인촌과 근촌에게 일본 유학을 제의하고 靑蓮庵에서 하산, 아버지의 도움아래 일교사 魏啓厚로부터 일어공부 시작. 집안이 재정적으로 어려워짐.

11월 인촌과 함께 일본 유학을 떠남. 벽초 홍명희의 권고로 사립 세이소꾸(正則)영어학교에 입학.

1809년 (순종 3년 : 만 19세)

4월 벽초의 권고로 긴쵸(錦城)중학교 5학년에 편입.

10월 26일 安重根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암살 소식을 듣고 감격함.

1910년 (순종 4년 : 만 20세)

봄에 인촌과 함께 와세다대학 고등예과에 입학.

8월 하순 합방조약 체결 임박소식을 듣고 격분하여 귀국. 아버지는 흥분하는 고하를 실력배양론의 전술의 하나인 機會論의 입장에서 진정시킴.

1911년 (만 21세)

봄에 2차 渡日. 와세다大를 자퇴하고 메이지大 법과로 옮김.

5월에 朝鮮留學生親睦會를 결성. (이듬해 3월 해산됨)

와세다大에서 海公 申翼熙와 雪山 張德秀 등과 사귀.

1912년 (만 22세)

4월 1일 <인생의 가치>라는 글을 《學界報》 제1권 제1호에 발표.

4월 결성된 7개 道別 유학생 친목회의 연합체인 朝鮮留學生聯合親睦會의 총무로, 호남유학생 다화회의 회장으로 바쁜 생활을 함.

10월 연합친목회는 在日本東京朝鮮留學生學友會로 확대 발전.

1914년 (만 24세)

7월 김성수 귀국, 고하는 졸업을 앞두고 과로가 겹쳐 발병하자 귀국.

1915년 (만 25세)

봄에 건강이 어느정도 회복되자 다시 도쿄로 건너감. 메이지大의 마지막 학기 수업에 열중. 5월 2일 <思想改革論>이란 제목의 장문의 논문을 《學之光》 제3권 제1호에 발표. 이 논설의 내용은 사회의 여러 부문들에서의 '의뢰심'을 '타파'하고 '自立力'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 7월 메이지大를 졸업하고 귀국.

1914년 4월에 중앙학교를 인수한 인촌이 11월 담양으로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자 상경하

여 교무의 일을 맡음. 곧 이어 학감으로 일하면서 서양사를 가르침.

1917년 (만 27세)

3월 석봉 유근에 이어 인촌이 교장직을 맡자 인촌과 더불어 지금의 계동 1번지에 신축 교사를 지음. 학생들에게 ‘민족불멸론’을 강조하며 민족의식을 고취시킴.

三聖祠 건립운동을 전개하여 三聖祠建立期成會를 조직하였으나 총독부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함.

1918년 (만 28세)

3월 인촌에 이어 중앙학교 제10대 교장에 취임.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의 기회를 엿보자는 ‘機會論’을 역설함. 고하의 師弟第一主義, 民族第一主義의 영향으로 중앙학교 학생들은 고하를 중심으로 단결하게 됨.

12월 인촌과 함께 이승만의 밀사로부터 구국독립운동의 호응을 바란다는 밀서를 전달받음. 인촌과 기당과 함께 거사를 계획하면서 천도교를 움직일 것을 제의. 기당으로 하여금 손병희의 막후인 보성학교 교장 崔麟을 접촉케 함.

1919년 (만 29세)

1월 상순 재일 유학생 밀사 송계백을 만나 일본유학생들의 독립운동거사계획을 듣고 국내에서도 호응키로 함. 송계백에게 활자를 주어 동경으로 돌려보냄.

1월 22일 고종 별세. 천도교의 조직을 이용해 거사하기 위해 접촉. 박영효 등과 거사를 논했으나 소극적인 반응으로 거사계획이 위기에 처함.

2월 8일 동경에서 재일유학생들의 朝鮮靑年獨立團이 총회를 개최하여 독립선언서 발표. 이승만을 비롯한 해외의 독립운동가들도 大韓獨立宣言書를 발표. 이에 자극받아 적극적으로 거사를 추진함.

이승훈 등의 기독교세력과의도 접촉. 기독교세력과 천도교세력의 협력을 위해 육당, 남강, 고우의 3자 회담을 주선, 협력을 성사시킴.

2월 24일 3·1운동의 계획을 확정시킴. 천도교측의 발의로 만해 한용운을 비롯한 불교 대표도 참여시킴. 고하의 노력으로 중앙학교를 비롯한 학생들의 참여도 확보.

2월 28일 밤 손병희 집에서 최후의 회의 개최. 고하는 2진에 남아 뒷 수습을 맡기로 함. 3·1운동이 발발하자 고하도 中央學校에서 피검되어 혹독한 고문 당함.

1920년 (만 30세)

4월 1일 <東亞日報> 창간.

10월 30일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 고향 담양으로 내려감. 옥중에 있을 때 별세한 어머니의 묘소를 찾음.

고광준과 함께 담양에 학교를 세우기 위해 노력함. 이 일로 담양경찰서 유치장에서 겨울을 보냄.

1921년 (만 31세)

2월 상경한 고하는 중앙학교 강사로 교편을 잡고 문필활동을 벌임.

3월 《靑年》창간호에 <남녀교제에 대한 의견> 실음.

9월 14일 <동아일보> 제3대 사장(주식회사로 바뀐 이후 초대 사장)에 취임.

10월 5일 <동아일보>에 ‘本報의 과거를 논하여 독자 제씨에게 一言을 寄하노라’라는 논설을 발표. <東亞日報>社訓 5개조를 만드는 등 회사의 체제를 세움.

1922년 (만 32세)

2월 6일 <동아일보> 사설 ‘민립대학의 필요를 제창하노라’를 필두로 조선민립대학 운동

에 앞장섬.

5월부터 7월까지 호남, 호서, 관서지방을 직접 순회하며 '재외동포 위문 전조선 순회 환등영사대강연회'를 개최. 12월 11일 '안창남 고국방문 대비행' 행사 개최.

1923년 (만 33세)

3월 29일 민립대학발기인 총회에서 고하는 중앙집행위원회에 선출되어 적극적으로 활동. 그러나 총독부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함. <동아일보>를 통해 물산장려운동을 이끔. 연말에 '합법적 정치운동을 위한 研政會' 회원이 되어 활동.

1924년 (만 34세)

4월 <무엇보다도 힘>이란 글을 《개벽》 제5권 제4호에 실음. 친일폭력배 朴春琴으로부터 인촌과 함께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항의로 <동아일보> 사장직에서 사퇴. 10월 인촌과 함께 동아일보사 고문에 추대됨.

1925년 (만 35세)

3월 고하는 全朝鮮記者大會準備委員會의 준비위원으로 선출됨.

4월 2일 <동아일보> 주필에 취임.

4월 15일 朝鮮記者大會에서 의안 작성위원으로 뽑힘.

7월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만국기독교청년회 주최로 개최된 제1회 범태평양기독교청년대회에 참석, 이승만과 서재필을 만남. 일본의 식민통치를 비판하는 각국 대표와의 회견기사를 부지런히 본국에 송고하여 일제에 대한 저항정신을 고취.

8월 귀국.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라는 논설을 <동아일보>에 10회에 걸쳐 발표(8월 28일-9월 6일).

1926년 (만36세)

1월 <최선의 노력과 방법을 강구하자>라는 글을 《新民》 1926년 1월호에 실고 한글날 제정을 제의.

2월 <농촌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이들의 의견 : 송진우>라는 글을 《조선농민》 제3권 제2호에 실음.

3월 고하의 강한 주장으로 3·1운동 제7주를 맞아 소련의 국제농민회본부가 보내온 전보 메시지를 번역, '국제농민본부로부터 조선 농민에게 본사를 통하여 전하는 글월'이라는 제목으로 <동아일보>에 전문을 게재.

4월 이 기사로 인하여 고하는 보안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됨. 같은 날 純宗 승하. 고하는 위작된 유칙을 공표시켜 민심을 움직이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무산됨. 서재필로부터 격려편지 받음.

6월 불구속기소된 상태에서 동아일보사 주최로 '순종 인산실황 謹寫 활동사진 전국 순회전'을 열게 함.

11월 6개월 실형 선고를 받고 서대문 형무소에 갇힘.

12월 <감옥으로 들어가면서>라는 제목의 소감문을 《新民》 1926년 12월호에 실음.

1927년 (만 37세)

2월 日皇 히로히토의 즉위기념 특사령으로 출옥.

3월 월남 이상재선생 사회장 장의위원으로 뽑힘.

10월 인촌의 뒤를 이어 <동아일보> 제6대 사장에 취임.

12월 김우평을 만주에 순회특파원으로 파견하여 이 지역의 동포문제를 다루는 등 민족의 사기를 높이는 일을 계속함.

1928년 (만 38세)

1월 <3개의 당면한 급무>라는 글을 《조선지광》 1928년 1월호에 실음.

신간회 경성지회에 가입

<평화리에 합동될 것이다>라는 글을 《新民》 1928년 7월호에 실음.

10월 부친 별세.

1929년 (만 39세)

1월 <소작입법의 필요>라는 글을 《朝鮮之光》 1929년 1월호에 실음.

<평생에 앙모하는 鄭圃隱 선생>이란 글을 《別乾坤》 1월호에 실음.

3월 도쿄지국장으로 하여금 일본을 들른 인도의 詩聖 라빈드라나드 타고르에게 방한을 요청. 방한을 못하는 사정으로 타고르는 <동아일보>를 통해 조선민족에게 보내는 시를 써줌.

5월 <가족부인 교육에>라는 글을 《근우》 1929년 5월호에 실음.

여름에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태평양문제연구회 총회에 참석.

10월 <교육의 시설과 빈민굴에>라는 논문을 《別乾坤》 1929년 10월호에 실음.

<과학보급과 종교선택>이란 글을 《조선농민》 제5권 제6호에 실음.

11월 광주학생의거가 일어나자 널리 알리려고 노력.

1930년 (만 40세)

4월 美 주간지 <네이션>의 <동아일보> 창간 10주년을 축하문을 게재하였다가 <동아일보> 제3차 무기정간을 당함.

5월 <‘해외동포’와 ‘번역’> 이란 글을 《삼천리》 1930년 5월호에 실음.

9월 <동아일보> 속간.

10월 <조합운동과 부업장려>라는 글을 《농민》 제1권 제6호에 실음.

11월 <정치방면>이라는 글을 《별건곤》 제5권 제10호에 실음.

1931년 (만 41세)

3월 <大협동기관조직의 필요와 기능 如何?>란 글을 《혜성》 제1권 제1호에 실음.

4월 <極低利의 자금유통>이란 글을 《동광》 제20호에 실음.

5월 《조선의 세계적 지위》라는 시론을 《비판》 5월호에 발표.

李忠武公遺蹟保存委員會를 결성하여 李忠武公遺蹟保存運動을 벌임.

6월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라는 글을 《동광》 6월호에 발표.

7월 <불타의 근본정신에 귀의하라>라는 제목의 권두언을 《불교》 1931년 7월호에 실음.

만주의 萬寶山사건을 일본 관동군이 과장 선전하여 조선과 중국간의 관계를 이간질 하려 하였으나, 고하와 <동아일보>는 신증론을 펴. 현지의 독립지사가 보낸 밀사를 통해 사태를 정확히 파악한 고하는 사이토 총독을 면담, 사태수습의 필요성을 역설함. 이어 朝鮮各界聯合協議會의 조직을 선도하여 사태수습을 위한 모임을 개최. 고하의 노력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됨.

<동아일보>를 통해 브나로드 운동을 개시, 민중계몽에 앞장섬. 한글강습회와 한글 좌담회를 개최.

11월 월간지 《신동아》를 창간하고 창간사를 씀.

1932년 (만 42세)

1월 <노력전진 更一步>란 논설을 <동아일보>에 실음.

4월 <국민당 정부 의연 계속>이란 글을 《동광》 제4권 제4호에 실음.

<無風的인 현하 국면타개책>이란 글을 《삼천리》 제4권 제4호에 실음.

<자유권과 생존권>이란 논문을 《삼천리》 1932년 4월호에 실음.

10월 權慄 도원수의 紀功祠를 건립하고 論介의 彰烈祠를 중건.

1933년 (만 43세)

1월 월간지 《신가정》을 창간하고 창간사를 씀.

10월 <동아일보>를 통해 조선어학회를 후원하여 ‘한글철자법통일안’을 완성, 발표하게 함.

1934년 (만 44세)

1월 단군릉 수축을 위한 모금운동에 적극 뒷받침. 평양 崇實전문학교의 신사불참배 운동을 적극 지원.

3월 <역센 조선, 굳건한 민족>이란 글을 《신동아》 1934년 3월호에 실음.

7월 <이 강산, 이 민족>이란 제목의 권두언을 《신동아》 1934년 7월호에 실음.

1936년 (만 46세)

8월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동아일보> 제4차 무기정간당함.

그 여파로 《신동아》, 《신가정》도 정간됨.

11월 고하는 사장직에서 해임됨. 사태수습을 위해 총독부와 일본 중앙정계와 접촉.

1937년 (만 47세)

6월 <동아일보> 속간되면서, 고문직을 맡아 2선으로 물러남.

1938년 (만 48세)

3월 島山 安昌浩가 별세하자 망우리 묘지에 묘비를 세움.

1939년 (만 49세)

11월 총독부는 <동아일보>의 자진폐간을 종용.

1940년 (만 50세)

1월 극비리에 도쿄를 방문, 정치지도자들에게 총독부의 자진폐간 요구에 항의.

4월 일본에서 귀국. 총독부의 탄압이 계속됨.

7월 일본에 재입국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부산에서 연행 구속됨.

26일 <동아일보> 폐간 확정.

8월 <동아일보> 폐간됨.

9월 <동아일보> 대표청산인으로 잔무를 정리. 부동산을 거래하는 東本社를 차려 (1943년)사장으로 취임한 고하는 사옥을 계속 관리.

10월 총독부가 만든 국민총력연맹에 협조하라는 압력을 거부. 이시기부터 해방까지 사실상의 은둔에 들어감.

1945년 (만 55세)

5월경 장철수를 통하여 구미측 동향을 자세히 들음.

8월 조선 총독부는 해방 직전 고하에게 독립준비를 수차에 걸쳐 권고하였으나 번번히 이를 거절.

해방직후 총독부로부터 치안권을 이양받은 몽양 여운형의 협조요청을 거절하고 임정봉대를 주장.

9월 1일 한국민주당 발족. 고하는 김병로, 백관수 등이 참여한 한민당의 창당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계속 임정봉대론을 견지. 고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국 환영회를 조직, 9월

7일 국민대회준비회를 소집하여 집행부의 위원장이 됨.

7일 한민당 발기대회에 공식참여. 8일 한민당 발기회 이름으로 ‘인민공화국 타도’의 성명서 발표. 16일 한민당 창당대회 개최. 미군사령관 하지 중장은 고하와 비밀리에 회담하여 고하의 시국관에 동의. 미 군정과 한민당의 협조관계 형성.

21일 고하는 한민당의 수석총무로 추대되어 사실상의 당수로 활약.

10월 16일 귀국한 이승만을 만남. 이승만에게 敦岩莊을 제공.

17일 하지의 고문 윌리엄스 고하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하는 조병옥을 경무부장에 추천.

20일 한민당이 주축이 되어 연합군 환영회 개최.

24일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발족, 이승만을 지도자로 추대. 이승만은 고하의 권유대로 한민당과의 관계를 긴밀히 함.

11월 임정의 김구 주석과 김규식 부주석 등이 한국하자 한국지사 후원회를 조직, 모금한 자금을 전달.

하순경 하지와의 협상을 통해 <동아일보>의 복간 협조를 받아냄.

12월 1일 <동아일보> 복간호를 내고 사장에 취임.

임정 간부들이 국내 지도자들의 숙청문제를 거론하자 고하가 나서서 수습.

소련 영사 폴리안스키를 방문해 소련의 북한 점령정책 비판. 고하는 반탁운동을 함에 있어서 미 군정청과의 충돌을 피하게끔 신중히 하자고 주장.

28일 경교장에서 백범과 신탁통치문제로 격론.

29일 ‘최후까지 투쟁하자’는 담화를 내고 반탁입장 분명히 밝힘.

30일 새벽 원서동 자택에서 암살당함.

1946년

1월 5일 동아일보사와 한국민주당과 국민대회준비회의 합동장으로 영결식 엄수.

1966년

11월 11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산43-2번지 芝香山 기슭에 천장.

1967년

10월 20일 爲堂 鄭寅普의 한문비석을 한글로 번역한 國文碑石을 추가하여 건립 제막 (遷葬推進委員長 崔斗善).

1983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능동 소재 어린이대공원에 고하 동상을 건립하여 제막함 (建立委員會 俞鎮午).

1988년

국가보훈처 및 국방부의 협조를 얻어 서울특별시 동작동 소재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옮겨 모시기로 결정, 선생의 98회 탄신일에 약 1주 앞선 1988년 5월 3일 천묘 장의 의식을 거행함(遷墓葬儀委員會 尹濬善).

참 고 문 헌

【1차 자료】

(1) 송진우 집필

- 「인생의 가치」. 《學界報》. 제1권 제1호. 1912년 4월.
「思想改華論」. 《學之光》. 제3권 제1호. 1915년 5월.
「남녀교제에 대한 의견」. 《青年》. 창간호. 1921년 3월.
「무엇보다도 힘」. 《개벽》. 제5권 제4호 총46호. 1924년 4월.
「최선의 노력과 방법을 강구하자」. 《新民》. 1926년 1월.
「농촌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이들의 의견 : 송진우」. 《조선농민》. 제3권 제2호 총3호. 1926년 2월.
「감옥으로 들어가면서」. 《新民》. 1926년 12월.
「흥미와 통속화에 좀 주력하였으면」. 《동광》. 1927년 5월.
「3개의 당면한 급무」. 《조선지광》. 1928년 1월.
「평화리에 합동될 것이다」. 《新民》. 1928년 7월.
「소작입법의 필요」. 《朝鮮之光》. 1929년 1월호.
「평생에 앙모하는 鄭圃隱 선생」. 《別乾坤》. 1929년 1월.
「가족부인 교육에」. 《근우》. 1929년 5월.
「교육의 시설과 빈민굴에」. 《別乾坤》. 1929년 10월.
「과학보급과 종교선택」. 《조선농민》. 제5권 제6호 총36호. 1929년 10월 26일.
「해외동포와 ‘번역」. 《삼천리》. 1930년 5월.
「조합운동의 부업장려」. 《농민》. 제1권 제6호. 1930년 10월.
「정치방면」. 《別乾坤》. 제5권 제10호. 1930년 11월.
「大협동기관조직의 필요와 가능如何?」. 《혜성》. 제1권 제1호. 1931년 3월호.
「極低利의 자금유통」. 《동광》. 제20호. 1931년 4월.
「조선의 세계적 지위」. 《비판》. 1931년 5월.
「세계대세와 조선의 장래」. 《동광》. 1931년 6월.
「불타의 근본정신에 귀의하라」. 《불교》. 1931년 7월.
「노력전진 更一步」. 《동아일보》. 1932년 1월 1일.
「국민당 정부 의연 계속」. 《동광》. 제4권 제4호 총32호. 1932년 4월.
「無風의인 현하국면 타개책」. 《삼천리》. 제4권 제4호 총25호. 1932년 4월.
「자유권과 생존권」. 《삼천리》. 1932년 4월.
「역센 조선, 굳건한 민족」. 《신통아》. 1934년 3월
「이 강산, 이 민족」. 《신통아》. 1934년 7월

(2) 송진우 전기

고하선생전기편찬위원회(편). 『고하 송진우 선생전』. 동아일보사 출판국. 1965.

(3) 송진우를 평가한 글

金三奎. 「해방 직후의 선택 : 송진우의 죽음」. 『言論人 金三奎』 간행위원회(편). 言論人 金三奎』. 도쿄. 1989.

김준연. 「고하 송진우 선생 2주기를 맞이하여」. 《동아일보》. 1947년 12월 29일.

朴址宣. 「송진우 선생과 15인회」. 《신동아》. 1965년 3월.

徐範錫. 「나만이 아는 비밀 : 고하 송진우씨의 두 가지 밀령」. 《진상》. 1959년 9월.

孫世一. 「송진우의 생애와 사상」. 손세일. 『인권과 민족주의』. 홍성사. 1980.

심지연. 「송진우와 한민당」. 《월간조선》. 1985년 8월.

楊在仁. 「해방정국에 있어서의 정치테러 : 송진우, 장덕수, 김구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학회보》. 제20집 제2호. 1986년 12월.

와세다대학한국유학생회(편). 『와세다의 한국인 : 와세다대학 한국유학생 90년사』. 한국문학사. 1983.

李敬南. 「민족의 횃불(17) : 고하 송진우」. 《월간 통일》. 1985년 7월.

李相敦. 「눈부신 정치공작, 쓰러진 거목 : 송진우」. 《신동아》. 1977년 8월.

李桓儀. 「사라진 정치지도자 군상 : 송진우론-오늘의 시점에서 본 고하의 사상과 업적」. 《경경연구》. 1965년 9월.

林炳哲. 「인물소묘 송진우」. 《신천지》. 1946년 2월호.

주요한. 「만보산사건과 송사장과 그 사설」. 한국신문연구소(편). 『언론비화 50편 : 원로 기자들의 직필 수기』. 한국신문연구소. 1978.

중앙교우회(편). 『중앙 60년사』. 민중서관. 1969.

崔承萬. 「고하 송진우」. 《신문평론》. 1974년 11월.

韓賢宇. 「나의 반탁투쟁기 (2) : 고하 송진우 피격사건 공판정」. 《세대》. 1975년 11월.

黃錫雨. 「나의 8인觀」. 《삼천리》. 제4권 제4호 총25호. 1932년 4월.

(4) 송진우에 대한 회과 포함된 회고록 또는 회고담

金光殖. 「제3세계 민족주의자로서의 여운형」. 《제3세계 연구》. 제2호. 1985년 6월.

김을한. 「人生雜記」. 일조각. 1956.

” . 『한국신문 史話 : 내가 만난 선구자들』. 탐구당. 1975.

金俊淵. 「국민대회의 발단」. 《동아일보》. 1945년 12월 2일.

” . 「정계 회고 1년 : 해방과 정치운동의 출발」. 《동아일보》. 1946년 8월 15일.

” . 『독립 노선』. 시사시보사. 1959.

金炯敏. 『김형민 회고록』. 범우사. 1987.

서항석. 「사령 써놓고 입사 기다리던 《동아》」. 한국신문연구소(편). 『언론 비화 50 편 : 원로기자들의 직필 수기』. 한국신문연구소. 1978.

양근환. 「조선혼은 죽지 않는다」. 《월간 대화》. 1976년 12월.

俞鎮午. 『養虎記 : 普專-高大 35년의 회고』. 고려대학교 출판부. 1977.

李東華. 「해방 전후의 정치집단과 여운형」. 《오늘의 책》. 1985년 봄.

” . 「몽양 여운형의 정치활동 : 그 재평가를 위하여 (상)」. 《창작과 비평》. 제13권 제2호. 1978년 여름.

李相敦. 「고하, 일제 정권인수 교섭 끝내 거절」. 《조선일보》. 1990년 4월 4일.

” . 「내가 겪은 체험 내가 본 사건」. 《조선일보》. 1990년 4월 12일.

이상범. 「나의 교우 반세기」. 《신동아》. 1971년 7월호.

李榮根. 「8·15해방 전후의 서울 정계 : 정국 중심으로 회고한다」. 《통일조선신문》. 1970년 8월 15일.

張澤相. 「나의 교우 반세기 : 고 장택상 씨의 회고록」. 《신동아》. 1970년 10월.

(5) 송진우의 행적 또는 일화들이 포함된 전기

강만길(편), 『조소앙』. 한길사. 1982.

李基錫. 「이승훈」. 동아일보사 신동아 편집실(편). 『한국근대인물百人選』. 동아일보사. 1979.

金乙漢(편저). 『千里駒 金東成』. 을유문화사. 1981.

金珍培. 『가인 김병로』. 삼화인쇄주식회사. 1983.

金昌洙. 「윤봉길」. 동아일보사 신동아 편집실(편). 『한국근대인물百人選』. 동아일보사. 1979.

金忠善. 「金道泰」. 동아일보사 신동아 편집실(편), 『한국근대인물百人選』. 동아일보사. 1979.

金學俊. 『街人 金炳魯評傳 : 민족주의적 법률가·정치가의 생애』. 민음사. 1988.

金學俊. 『李東華評傳 : 한 민주사회주의자의 생애』. 민음사. 1987.

朴甲東. 『박헌영 : 그 일대기를 통한 현대사의 재조명』. 인간사. 1983.

白南薰. 『나의 일생』. 해운 백남훈선생기념사업회. 1968.

白世明. 「崔麟」. 동아일보사 신동아 편집실(편). 『한국근대인물百人選』. 동아일보사. 1979

孫世一. 『이승만과 김구』. 일조각. 1970.

宋建鎬. 「이광수」. 송건호. 『한국현대인물사론 : 민족운동의 사상과 지도노선』. 한길사. 1984.

송건호(편). 『김구』. 한길사. 1980.

心山思想研究會(편). 『金昌淑』. 한길사. 1981.

呂運弘. 『몽양 여운형』. 청하각. 1967.

월남이상재선생동상건립위원회(편). 『월남 이상재 연구 : 연구논문-月南詩文-관계자료』. 路출판. 1986.

柳永烈. 『개화기의 윤치호 연구』. 한길사. 1985.

柳致松. 『해공 신익희 일대기』. 해공신익희선생기념회. 1984.

현상윤. 「3·1운동의 발발의 개요」. 《사상계》. 1963년 3월.

柳 鴻. 『柳鴻』. 衣堂柳鴻선생 자서전 출판동지회. 1976.

李敬南. 『雪山 張德秀』. 동아일보사. 1981.

이광수. 「김성수론」. 이광수. 『이광수전집』. 제8권. 삼중당. 1971.

李基炯. 『몽양 여운형』. 실천문학사. 1984.

李萬珪. 『여운형선생 투쟁사』. 민주문화사. 1946.

李 仁. 『반세기의 증언』. 명지대학교출판부. 1974.

全澤晷. 『인간 申興雨』. 기독교서회. 1971.

조병옥. 『나의 회고록』. 해동. 1986.

조선희. 「발굴 한국현대사 인물(16) : 안창남」. 《한겨레신문》. 1990년 3월 2일.

趙容萬. 「崔南善」. 동아일보사 신동아 편집실(편). 『한국근대인물百人選』. 동아일보사.

1979.

秋汀 任鳳淳선생전기편찬위원회(편저). 『추정 임봉순 선생 小傳』. 秋溪학원재단사무소. 1969.

崔時仲(편저). 『仁村 金性洙 : 인촌 김성수의 사상과 일화』. 동아일보사. 1985.

평남민보사 고당전·평양지 간행회(편). 『고당 조만식』. 평남민보사. 1966.

許 政. 『내일을 위한 증언 : 허정 회고록』. 샘터사 출판부. 1979.

(6) 사전과 연표 및 색인

金德亨. 『한국의 명가』. 일지사. 1976.

뿌리깊은 나무(편). 『한국의 발견 : 전라남도』. 뿌리깊은 나무. 1983.

李康勳(편저). 『독립운동대사전』. 전2권. 제1권. 대한민국광복회. 1990.

李弘植(편). 『국사대사전』. 삼영출판사. 1984.

중앙일보사 월간중앙부(편). 『광복 30년 중요자료집』. 중앙일보사. 1975.

중앙일보사 출판제작국(편). 『姓氏의 고향』. 중앙일보사 출판제작국. 1989.

(7) 해설을 포함시킨 자료집

동아일보社史편찬위원회(편). 『동아일보 社史』. 권1(1920-1945년). 동아일보사. 1975.

宋南憲. 『해방 3년사 : 1945-1948』. 전2권. 제 1권. 까치. 1985.

沈之淵. 『한국현대정당론 : 한국민주당 연구 II』. 창작과 비평사. 1984.

심지연(편). 『해방정국 논쟁사』 I. 한울. 1986.

심지연. 『한국현대정당론 : 한국민주당 연구 II』. 창작과 비평사. 1984.

李起夏-沈之淵 외(공저). 『한국의 정당』 전2권. 한국일보사. 1987. 제1편(8·15에서 자유당 붕괴까지).

한국민주당선전부. 『한국민주당 小史』. 한국민주당선전부. 1948.

한국일보사(편). 『재발굴 한국독립운동사』 제2편. (이현희-박성수 집필 : 중국 본토에서의 투쟁). 한국일보사. 1988.

洪承勉 등등. 『해방 20년』 전2권. 제1권(기록편). 세문사. 1965.

희망출판사 편집부(편). 『해방 20년사』. 희망출판사. 1965.

【2차 자료】

(1) 저서(국문)

강동진. 『일제의 한국침략정책사』. 한길사. 1980.

姜萬吉. 『한국현대사』. 창작과 비평사. 1984.

姜在彦. 『한국근대사 연구』. 한울. 1982.

姜在彦. 『한국의 근대사상』. 한길사. 1985.

金南植. 『남로당 연구』. 돌베개. 1984.

김성식. 『일제하 한국학생 독립운동사』. 정음사. 1974.

金允植. 『李光洙와 그의 시대』 전5권. 한길사. 1986.

金鍾範-金東雲. 『해방 전후의 조선 진상』 제2집. 돌베개. 1983.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전5권. 청계연구소. 1986.

- 김학준. 『대한민국의 수립』.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9.
- 김학준. 『러시아혁명사』. 문학과 지성사. 1979.
- 동아일보사 신동아 편집실(편). 『근대한국명논설選』. 동아일보사. 1979.
- 동아일보사(편저). 『비화 제1공화국』 제1부. 홍우출판사. 1975.
- 박영석. 『만보산사건 연구 : 일제 대륙침략정책의 일환으로서의』. 아세아문화사. 1978.
- 申一澈. 『신채호의 역사사상 연구』.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1.
- 上坦外憲一 지음. 김성환 옮김. 『일본유학과 혁명운동』. 進興文化社. 1983.
- 愼鏞廈. 『조선토지조사사업 연구』. 지식산업사. 1982.
- ” . 『한국민족 독립운동사 연구』. 을유문화사. 1985.
- 에드가 스노우. 신홍범譯. 『중국의 붉은 별』. 두레. 1985.
- 尹慶老. 『105인 사건과 신민회 연구』. 일지사. 1990.
- 李基夏. 『한국정당발달사』. 의회정치사. 1961.
- 李基擇. 『한국야당사』. 백산서당. 1987.
- 이광수. 『이광수 전집』. 제10권. 삼중당. 1971.
- 이동현. 『한국 신탁통치 연구』. 평민사. 1990.
- 이병주. 『알렉산드리아』. 범우사. 1977.
- 李炳憲(편저). 『3·1운동비사』. 시사시보사 출판국. 1979.
- 李哲承. 『전국학련』. 중앙일보사. 1976.
- 이현희. 『대한제국의 최후와 임시정부의 활동』. 한국방송사업단. 1983.
- 鄭晋錫. 『한국현대언론사론』. 전예원. 1985.
- ” . 『한국언론사 연구』. 일조각. 1983.
- 曹圭河-李康文-姜聲才. 『남북의 대화』. 고려원. 1987.
- 趙東杰. 『한국근대사의 시련과 반성』. 지식산업사. 1989.
- 崔民之-金民珠. 『일제하 민족언론사론』. 일월서각. 1978.
- 崔相龍. 『미 군정과 한국민족주의』. 증보판. 나남. 1989.
- 崔 竣. 『한국신문사』. 일조각. 1960.
- 韓太壽. 『한국정당사』. 신태양사. 1961.

(2) 저서(영문)

- Allen, Richard C.. *Korea's Syngman Rhee : An Unauthorized Portrait*. Tokyo : Charles E. Tuttle Co., 1960.
- Cho, Soon Sung, *Korea in World Politics, 1940-1950 : An Evalua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7.
- Cumings, Bruce. *The Origins Of the Korean War*. 2 vols,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I (*Liberation and the Emergence of Separate Regimes 1945-1947*).
- Henderson, Gregory.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 Kim, Hakjoon. *Unification Policies of South and North Korea, 1945-1985 : A Comparative Study*. rev, ed. Seoul :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6.
- Kim, Joungwon Alexander. *Divided Korea : The Politics of Development, 1*

- 1945-1972. Cambridge : East Asian Research Center, Harvard University. 1975.
- Lee, Chong-sik. *The Politics of Korean Nationalism*. Berkeley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3.
- Lee, Won Sul. *The United States and the Division of Korea, 1945*. Seoul : Kyunghee University Press. 1982.
- Matray, James I. *The Reluctant Crusade : American Foreign Policy In Korea, 1941-1950*.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5.
- Oliver, Robert T.. *Korea, Forgotten Nation*. Washington, D. C : Public Affairs Press. 1944.
- Scalapino, Robert A. and Chong-sik Lee, *Communism in Korea*. 2 vo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제1권 (*The Movement*).
- Sandusky, Michael C.. *America's Parallel*. Alexandria, Va. : Old Dominion Press. 1983.
- Suh. Dae-sook, *The Korean Communist Movement, 1918-1948*.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 Truman. Harry S., *Memoirs*. 2 vols. New York : Doubleday and Co., 1955-1956.II(*Years of Trial and Hope*).
-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Washington, D.C. :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vol. VI.

(3) 저서(일문)

- 森田芳夫, 「朝鮮終戰の記録 : 米ソ兩軍進駐と日本人の引揚」, 東京 ; 巖南堂, 1964 『言論人 金三奎』 刊行委員會 刊. 『言論人 金三奎』 . 東京. 1989.

(4) 논문(국문)

- 金敬泰. 「3·1운동 참가계층의 사회경제적 성격」 동아일보사(편), 『3·1운동과 민족통일 : 3·1운동 70주년 기념 심포지움』 . 동아일보사, 1979.
- 金大商. 「8·15직후의 정치 현상 : 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한 재조명」. 《창작과 비평》. 제12권 제4호. 1977년 겨울.
- 金聲均. 「齋藤實 '문화시책'의 一斷面」. 동아일보사(편). 『3·1운동 50주년 기념 논집』 . 동아일보사. 1969.
- 김우영. 「한-일합병에 대한 통분과 3·1독립운동」. 김우영. 『민족 공동생활과 도의』 . 부산 : 신생공론사. 195.6
- 金學俊. 「여운형의 독립·통일노선 : 해방 이후의 그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金學俊.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 전정관. 박영사. 1987.
- ” . 「소련의 극동정책과 김일성정권」. 동아일보사(편).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 I. 동아일보사. 1977.
- ” . 「한국 신탁통치안과 그것을 둘러싼 초기의 논쟁」.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 제 2전정관. 박영사. 1990.
- 서재필. 「좀더 잘 살 길은」. 동아일보사 신동아(편). 『일정하 동아일보 압수 사설집』 . 동아일보사. 1974년 1월 신동아 별책부록.

- 송건호. 「탁치안의 제의와 찬반탁 논쟁」, 邊衡尹 외(공저).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85.
- ” . 「탁치안의 제의와 찬반탁 논쟁」. 《오늘의 책》. 1985년 봄.
- 심지연. 「신탁통치문제와 해방정국 : 반탁과 찬탁의 논리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19집 . 1985.
- 愼共範, 「동아-조선의 뿌리 : 식민 언론의 미청산과 민족 언론의 건설」. 《실천문학》. 1985년 여름.
- 柳漢喆. 「한말 사립학교령 이후 일제의 사학 탄압과 그 특징」.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2집. 1988.
- 尹炳奭. 「3·1운동에 대한 일본정부의 정책」. 동아일보사(편). 『3·1운동 50주년 기념 논집』. 동아일보사. 1969.
- 이병헌. 「내가 본 3·1운동의 일단면」. 동아일보사(편). 『3·1운동 50주년 기념 논집』. 동아일보사. 1969.
- 이완범. 「한반도 신탁통치 문제, 1943-46」. 朴玄塚 외 (공저), 『해방전후사의 인식』 제3권. 한길사. 1987.
- 鄭光鉉. 「3·1운동관계 피검자에 대한 적용법령」. 동아일보사(편). 『3·1운동 50주년 기념 논집』. 동아일보사. 1969.
- 鄭大澈. 「신간회와 민간지의 관계에 대한 고찰 : 조선, 동아, 中外日報를 중심으로」. 《언론학보》. 한양대학교 언론문화연구원. 제2집. 1981.
- 鄭晋錫. 「상해판 《독립신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신문연구소 및 한국언론학회 언론사연구회 공동 주최 「고 희관 林根洙 박사 추모 언론사 연구 발표회」 발표 논문. 1990년 2월 23일.
- 조동걸. 「3·1운동의 이념과 사상 : 독립선언서와 선언자의 비교 분석」. 동아일보사(편). 『3·1운동과 민족통일 : 3·1운동 70주년 기념 심포지움』. 동아일보사. 1979.
- 陳德奎. 「한국 현대정치사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2)」. 《언론과 비평》. 제1권 제3호 통권 제3호. 1989년 8월.
- ” . 「이승만의 단정론과 한민당」. 동아일보사(편).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I. 동아일보사. 1977.
- 車基壁. 「일본제국의 식민정책의 형성배경과 그 전개과정」, 車基壁,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1985.
- ” . 「‘민족협동전선’의 시각에서 본 신간회 운동」. 차기벽(편).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1985.
- 崔昌圭. 『근대한국정치사상사』. 일조각. 1972.
- 崔夏永. 「정무총감 한인과장을 호출하다」. 《월간중앙》. 1968년 8월.
- 韓培浩. 「3·1운동 직후의 조선 식민지정책 : 齋藤의 ‘문화정치’의 본질을 중심으로」. 차기벽(편저). 『일제의 한국 식민통치』. 정음사. 1985.
- 韓詩俊. 「국권회복 운동기 일본 유학생의 민족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 1988.
- 洪仁淑. 「건국준비위원회의 조직과 활동」. 강만길 외(공저). 『해방전후사의 인식』. 전5권. 제2권. 한길사. 1985.
- 홍일식. 「3·1독립선언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 연구》. 제3집. 1989.

(5) 논문(영문)

- Baldwin, Frank. "The March First Movement: Korean Challenge and Japanese Response." unpub. Ph. D. dis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1969.
- Chang, Yoon Jae, "A Medical Approach to Political Leadership: An Chae-Hong and a Healthy Korea." unpub. Ph. D. diss.. Honolulu : University of Hawaii. 1988.
- Eckert, Carter Joel. "The Colonial Origins of Korean Capitalism : The Koch'ang Kims and the Kyongsong Spinning and Weaving Company, 1876-1945." unpub. Ph. D. diss.. Seattle : University of Washington. 1986.
- Fuji, Kamiya, "On the Problems of Korean Unification." *The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 Taegu, Korea : Youngnam University. Vol. II No. 1. Oct., 1971.
- Jung, Yong Suk. "The Rise of American National Interest in Korea : 1984-1950," unpub. Ph. D. diss.. Claremont : Claremont Graduate School. 1971.
- Kang, Thomas Hosuck. "The Changing Nature of Korean Confucian Personality under Japanese Rule," in C. I. Eugene Kim and Doretha E. Mortimore(eds.). *Korea's Response to Japan : The Colonial Period, 1910-1945*. Kalamazoo: The Center for Korean Studies,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75.
- Kim, Eugene. "Education in Korea," in Andrew C. Nahm (ed). *Korea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 Studies of the Policy and Techniques of Japanese Colonialism*. Kalamazoo : Center for Korean Studies, Western Michigan University. 1973.
- Robinson, Michael E..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Korean Nationalist Ideology, 1920-1926 : Culture, Identity, National Development and Political Schism," unpub. Ph. D. diss..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1979.
- Robinson, Michael E.. "Ideological Schism in the Korean Nationalist Movement, 1923-1930 : Cultural Nationalism and the Political Critique."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4. 1982-83.